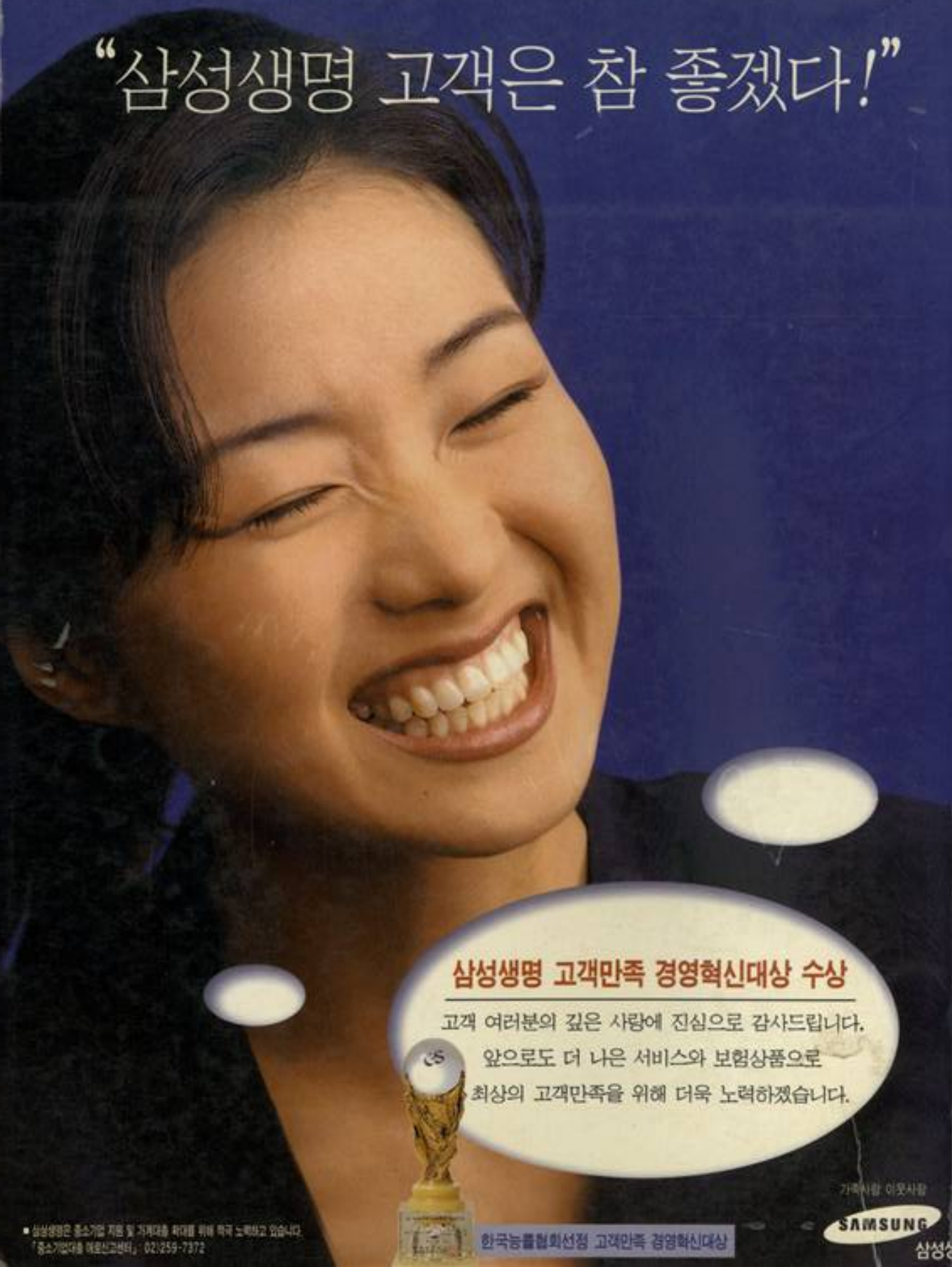


“삼성생명 고객은 참 좋겠다!”



삼성생명 고객만족 경영혁신대상 수상

고객 여러분의 깊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보험상품으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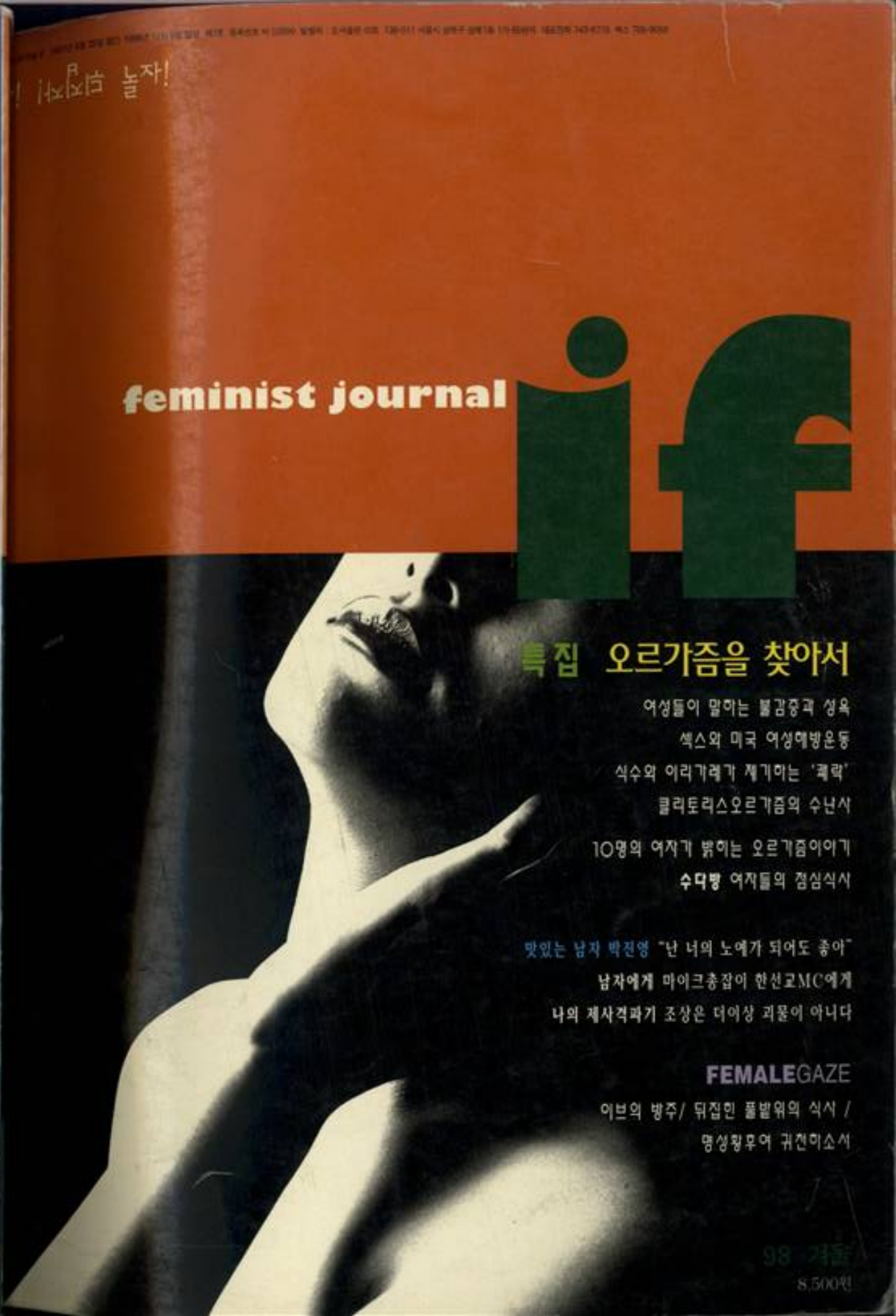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한국능률협회선정 고객만족 경영혁신대상

■ 삼성생명은 중소기업 지원 및 자계대를 확대할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 매로신고선터」: 02)259-7372



feminist journal

if

특집 오르가즘을 찾아서

여성들이 말하는 불감증과 성욕
섹스와 미국 여성해방운동
식수와 어리기려가 제기하는 '쾌락'
클리토리스오르가즘의 수난사
10명의 여자가 밝히는 오르가즘이여기
수다방 여자들의 점심식사

맛있는 남자 박전영 "난 너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남자에게 마이크총잡이 한선교MC에게
나의 계사격파기 조상은 더이상 괴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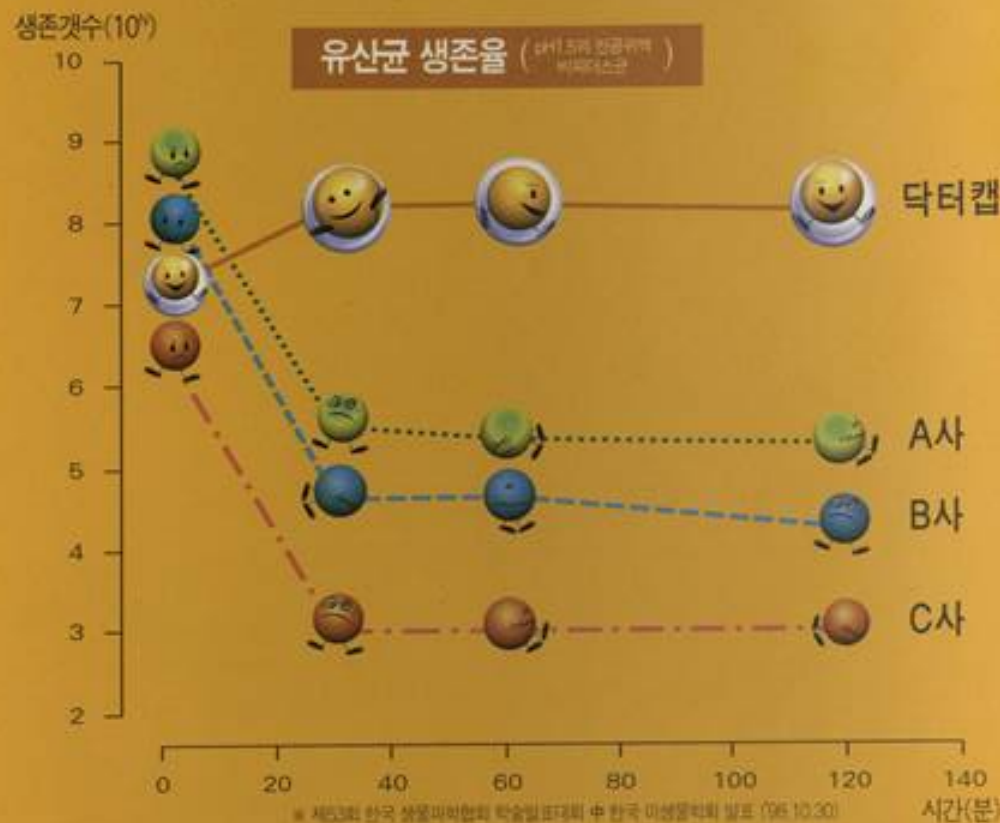
FEMALEGAZE

어브의 방주/ 뒤집힌 풀밭위의 식서 /
명성황후여 귀천이소서

98 겨울
8,500원

역시, 캡슐의 효능은 놀라웠습니다

일반유산균에 비해 캡슐유산균은 강한 위산에서도
1,000~100,000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유산균은 2시간이 지나야 장에 도달합니다. 일반유산균은 위산에서
2시간 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나 캡슐유산균은 거의 살아남았습니다.



캡슐유산균과 일반유산균을 강한 위산(pH1.5)에서 실험한 결과, 일반유산균의
생존율은 대부분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나, 캡슐유산균은 2시간 후에도 거의
살아 남았습니다. 따라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캡슐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캡슐요구르트-닥터캡슐은 유산균이
캡슐에 싸여 위를 안전하게 통과, 장까지 살아가므로 배변이 부드러워지고 장이 편안해집니다.



특허출원 87-52853 유산균 캡슐 요구르트 및 그 제조방법

유산균이 캡슐에 싸여
장까지 살아서 가는 캡슐요구르트 -

**닥터
캡슐**
오픈레

새로 나온 화이트 레이스-
같은 입체형이라도 편안함이 달라요



본 제품은 영서대학교 여성학자김영호 "두입도"
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레이스로 더 편안한 착용감-
화이트 레이스 오버나이트
입체형이라 몸에 잘 맞는데다가 부드러운
감촉의 양털 레이스가 자극 없이 감싸주어
피부가 훨씬 편안해요

깨끗함이 달라요





과일왁스로 빛나는 머릿결

과일껍질 속에 숨겨진 과일왁스의 비밀,
알고 계세요? 속살은 싱싱하게, 껍질은
윤기있게 - 이제 당신의 머릿결도 과일
왁스로 지켜 주세요. 모발 한올한올을
부드럽게 감싸 주니까 자연스런 윤기가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웰라발삼샴푸



본드시 필수 약사와 상담하고 복용할 주의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한번 화장실 변비에는 아락실!

"화장은 매일 하면서 화장실은 왜
매일 못가는 거죠?"



겉화장만큼 속화장도 하루한번 신경 써 주세요!
화장은 매일 하면서 화장실은 왜 매일 못가세요?
겉화장만큼 속화장도 매일매일 신경 써 주셔야죠!
가장 건강한 배변습관은 하루한번 꼭 가는 것!
겉화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빼먹지 않는
규칙적인 배변습관입니다. 장도 깔끔하게, 아셨죠?

장도 깔끔하게 하루한번 가꿔주세요!
아락실은식이섬유소가 대장에서 팽창하여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장의 운동리듬을
되살려줍니다. 새로워진 아락실 장마사지로
장도 깔끔하게 하루한번 비워주세요.
하루한번 화장실 변비에는 아락실!



식이섬유성분의 상쾌한 변비약
아락실

그 먼 마라도도 통하는데
눈 앞의 개성은 어찌 안 통하는가

금강산에 관광선이 출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길상에 일진각으로 달려왔네.
끝 끝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전하러.
하지만 고한이 손에 잡힐 것 같은 예까지 와서도
말은 못 전하고 또 바들바들 전하고 가네.
말들은 못 보더라도 목소리나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이제나 저해나 기다려온 50여년 세월에
이젠 얼굴마저 가물거릴하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귓전에 생생한데
꼭 다시 듣고 싶어요. 그 목소리.
'말 따라잡자니 큰애 데리고 먼저 내려가라'며
말을 매달린 그 목소리...

우리 땅 구석구석 통하는 이70이지만 아직 휴전선은 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70은 약속드립니다. 통일의 그날이 오면 개성을 넘어 신의주까지
그가 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다는 것을.

전파의 힘이 강하다!
파워디지털 이7



SHINSE
신세기

정통속에 향기를 더해 주는 -
동서식품

30
정통속에 향기 30년
동서식품 30년

내 맘대로 되는 건
맥심 커피믹스 뿐!



설탕조절이 안된다면 나만의 커피맛을 즐길 수 없죠.
맥심 커피믹스는 취향에 따라
설탕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커피믹스도 입맛에 딱 맞게 즐기세요.



설탕을 내맘대로-
맥심커피믹스

커피믹스는 국내최초로 동서식품이 개발하였습니다

정통속에 향기를 더해 주는 -

● 圖書分類法

새살이 솟~솟~

부항마테카솔에는 새살돋는 성분이 있어
살균은 물론 새살이 잘 돋습니다.

●포장 크기 : 3.000ml 5g, 5.720g 10g



순결학과?

오 마이 갓



"충남 천안에 있는 신문대에 순결학과가 생겼다. 올해 여학생만 20명을 뽑을 예정이라는 이 학과에서는 1학년 교양과정을 마친 후 2학년부터 순결과 성,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교육, 가족사회학 등의 전공과목을 배운다. 문선명씨의 통일교 재단에서 세운 이 대학에서는 "퇴폐화하는 성문화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려는 게 순결학과 신설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역시 같은 통일교 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세계일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면을 통해 순결가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기독교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교회와 학교를 통한 청소년 순결서약운동을 벌이고 있다.

순결학과 신설소식이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이규태칼럼은 "우리 나라에서도 선서하고서 순결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순결고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며 "오도재 가고 있는 젊은 이들의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는 순결 선교사가 양산되기를 바란다"고 발빠르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거국적으로 순결선교사들이 우리의 딸들을 향해 '은장도'를 뿌리며 목청을 돋우는 가운데 아들만 둔 구성씨의 '아우성' 성교육은 주체할 수 없는 성욕에 시달리는 많은 남성들을 커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아들의 욕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경주되면서 딸들의 욕망에 대해서는 순결운동과 순결학과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밤이면 아버지들은 보다 젊은 여자, 아내가 아닌 여자를 찾아 영계살롱으로 단란주점으로 몰려들고 아들들은 집단적으로 강간을 일삼으며 어린 소녀들을 임신시키고 있다. 성의 쾌락이 된지도 모르는 어린 딸들이 좋은 오빠(?)를 다른 친구에게 빼앗길 것이 겁나 몸을 내맡기는가 하면 유행하는 옷을 사기 위해, 좋은 구두를 사기 위해 아버지 같은 남성들에게 몸을 팔고 있다.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 여성들은 남성욕망의 배설구가 되어 남성들의 오르가즘에 봉사하고 그들의 아이를 낳아 기르며 부계사회를 유지시켜 왔다. 성담론이 범람하는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자궁을 볼모로 잡힌 채 집단적인 성폭력과 불감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성욕이나 쾌락에 대해서 아비하고도 부자연스러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성은 종족보존의 본능과 폭력, 강제, 배설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말이. 여성들에게 자궁을 되돌려주자! 그것이 우리가 이번 특집 '오르가즘을 찾아서'를 기획한 이유다. 당신들의 오르가즘을 위해 존재했던 여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오르가즘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류숙렬 편집위원

明成皇后

명성황후여 귀천하소서...

주변 일강국의 각축전 속에서
대원군의 정적으로
권력욕의 화신으로 낙인 찍힌 채
일제의 손에 의해
비운의 생을 마감한 명성황후.



지난 11월, 구천을 떠도는 그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두 가지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8일 문현궁에서 열린 명성황후 신당굿 보존회 주최<명성황후 탄신 147주년, 명성황후 시해 103주년 추모 나라사랑, 사랑너누기-굿판>과 13일 명성황후 생가에서 열린 한국전통문화복원사업회(회장 이영숙)의 명성황후진영 생가 봉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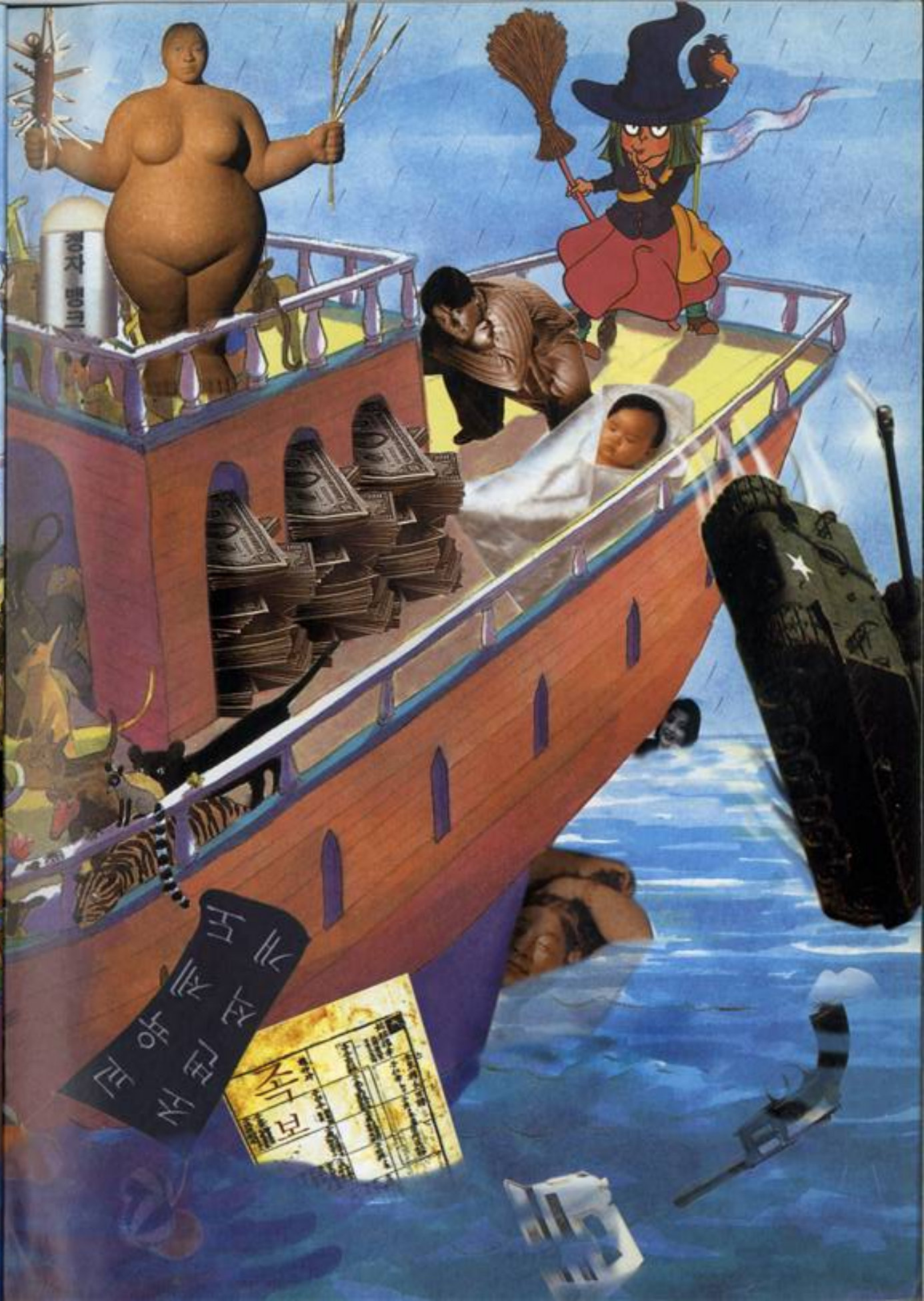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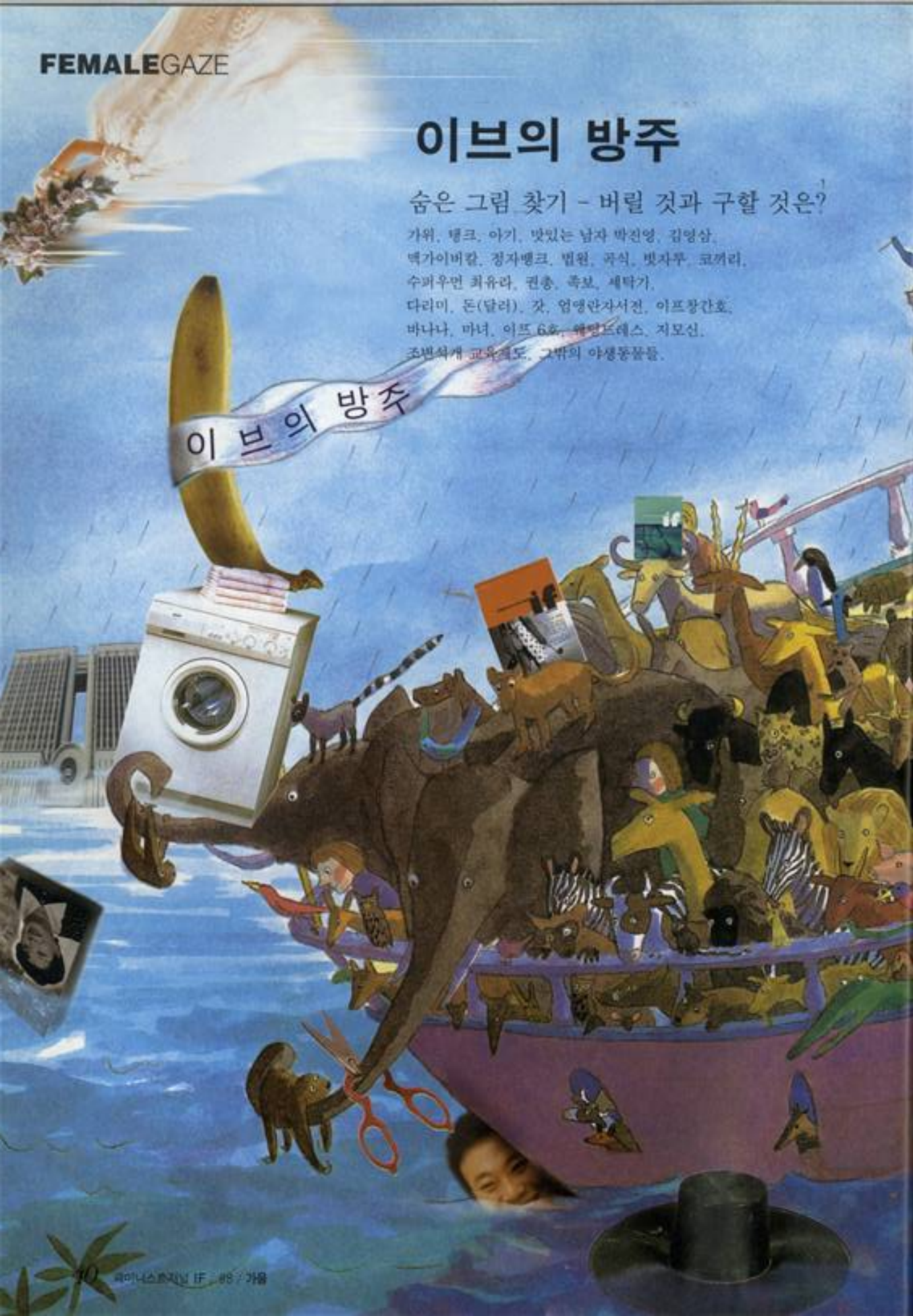
억울하게 희생된 명성황후의 한을 풀어주고 구천을 유랑할 그의 혼을 천도하기 위해 마련된 명성황후 신당굿은 지난 93년 "나의 전생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이었으며 전생에 대한 죄값으로 부녀가 되었다"는 무녀 신명기에 의해 시작된 이래 올해로 일곱 번째다.

이브의 방주

숨은 그림 찾기 - 버릴 것과 구할 것은?

가위, 탱크, 아기, 맛있는 남자 박진영, 김영삼,
백가이버칼, 정자뱅크, 뱀원, 곡식, 빗자루, 코끼리,
수퍼우먼 최유라, 권총, 족보, 세탁기,
다라미, 돈(달러), 갓, 엉덩안자서전, 아프랑간호,
바나나, 마녀, 이프 6호, 웨딩드레스, 지모신,
조반식개 교육제도, 그밖의 야생동물들.

이브의 방주



조반식개 교육제도

죽보



처녀들의 풀밭식사

마네의
〈풀밭위의 식사〉를
〈처녀들의 저녁식사〉와
합성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공지영 문학의 새로운 시작

어려운 시대에 절망하기는 얼마나 쉬운가

희망해져 버리기는 또 얼마나 쉬운가.
그러나 형벌처럼 내 마음 깊숙이 새겨진 단어 하나.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구차하기까지 한 것이지만
나는 그저 이 길을 걷기로 했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에게 의지하며 그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하면서, 궤는 내 사랑들을 활자에 담으리라.
가슴이 아플까 봐 서둘러 외면했던 세상의 굴주림과 폭력들과
아이들을 이제는 오래 응시하면서.
-작가 후기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 그들이 살아야 하는 남루하고 험거운 지상적 삶에 찬착
해온 작가 공지영 《봉순이 언니》는 고도 성장의 뒷골목에서 한없이 추락하면서
도 삶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않는 봉순이 언니의 삶을 반성 어린 눈길로 감싸
안으며 그 속에서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씨앗을 건져 올리고 있다.

● 값 6,000원 ◀신간

공지영 장편소설

봉순이 언니



페미니스트저널

if

content 98
winter

11 IF를 열며
순결학과? 오 마이 갓!

50 특집 - 오르가즘을 찾아서

- 52 집중취재 여성들이 말하는 불감증과 성욕(권혁란)
- 60 고대그리스의 에로스와 동성애(김이강재)
- 66 미국의 페미니스트가 고백하는 '섹스와 여성해방운동'
- 72 프랑스 식수와 이리가레가 제기하는 '쾌락' (이봉지)
- 78 영화분석 시네마는 여성의 쾌락을 알지 못한다(유채지나)
- 84 여성의 몸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의 수난사(유성혜)
- 88 사회적 분석 '발하는 여자'가 해야하는 이유(변혜정)
- 92 20대의 성 다시 차려야 할 처녀들의 성전(임소연)
- 98 사례 10명의 여자가 밝히는 오르가즘 이야기
- 114 수다방 여자들의 점심식사



12 FEMALEGAZE

명성황후여 귀천하소서
미브와 빙루
치녀들의 불발식사



- 146 맛있는 남자 박진영
"난 페미니스트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류숙렬)
- 154 남자에게
마이크중집이 한선교 MC에게(이숙인)

- 164 이여자
페미니스트 한영애를 만나다(이숙경)
- 42 파워우먼
한국여성밀레니엄연구원 김성주이사장 & 조미리원장(박혜숙)



- 만화
색녀열전 찾긴 어디서 찾아?(장현실) 160
- 집떠나는 여자들 하나/둘/셋 128, 184, 240
- 난나의 if세상 오르가즘 정기수 1, 2 126

22 뉴스우면

『소설 허난설헌』의 작가 김신명숙/『천 그루의 밤나무』 저자 미라 스타우트/
10년만에 개인전 가진 이불/ 한국여성연구소 초대소장원/ 장하진 교수
이달의 중소기업인상 수상 <푸른숲> 김혜경 사장/ 한국기자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 한겨레 김미경 기자/ 한국여성상담센터 연 현혜순 소장/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단독등정 산악인 지현옥/ 호텔홍보 대모 하얏트 김병영 부장/
전태일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수상 김재영



나의 재사격파기 172
조상은 더이상 피물이 아니다(이하천)

이럴텐 이렇게 236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손선영)

상대적이고도 적대적인 페미니스트백과사전 (난영) 238

178 집중탐색
한국무용계의 '임파테리블' 최테레사

IF SPIRIT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번 호도 있다. 웃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하게 만든다. 특별한 일화처럼, 지극히 소중한 순간처럼 그렇게 웃고 싶다. 자, 웃자!

이웃끼리

우리는 제대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하나의 욕망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 과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을 한번 신나게 뛰놀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할까?

놀자!

우리는 그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 왔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통과 인내, 좌절과 지겨운 학살과정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굴욕시켜 버리는 노예의 행단을 연극한다. 이런 삶이 즐겁고 싶다. 재미있고 싶다. 놀고 싶다. 그러하여 여자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

content 98 winter



185 REVIEW TV

구성애의 아우성을 보고(황금희)

REVIEW CINEMA

제3회 부산 국제영화제 특별프로그램을 보고(이남)

REVIEW EXHIBITION

독일여성작가 14인의 <육체의 논리>(제미란)

REVIEW BOOK

if가 뽑은 겨울의 책

256 if 테마소설

나는 지금 비밀로 간다(이숙인)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219

부업 그 아들배반의 공간

여자의 꿈 232

나는 아직도 결혼을 꿈꾼다(오순애)



46 우먼스트리트

'몸'과 '문화' 주제로 세미나 붐물/

연극 마요네즈 재공연/ 페미니스트 경제공동체

Free-War 출범/ 마침내 열린 퀴어영화제/

전태일문학상 받은 정선대할머니 수기/ 환경오염

심각성 일깨운 인형극 <짱아의 물속여행>/

가톨릭 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아홉들/

창간준비중인 여성문화비평지 둘



204 잡설 하나 '비비'는 '비비'가 아니다(김정복)

물 성폭력으로 확인되는 '사나이'들의 연대(권수현)



212 건강크리닉

콜다공증(하기용)

214 if 옷이야기-헤어스타일

짜고, 울리고, 풀고 그 화려한 아우성(김동선)



CROSSOVER 241

동굴

여성의 성기는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242

사이버윈도우

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란성'에 대하여(보라거미) 246

세계의 여성들

(오혜리, 이가진) 250



표지: '오르가즘을 찾아서'를 특집으로 한 이번 호의 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편집실에서는 골머리를 앓았다. 거짓 오르가즘을 연출하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포르노를 만들 수도 없고 난감하기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의 오르가즘이 남성들의 흥남과 달리 성기 중심이 아니라 그녀의 머리(심리)와 가슴(마음)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밖으로 보여지기 힘들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과 불감증 여성 사이의 외형적인 차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코 아래의 입술 부위부터 여성의 목 부위 상체까지만 클로즈업시킨 사진으로 정했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그 안 어딘가 그녀만이 아는 곳에 숨어 있다. 이번 호 표지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오르가즘코드'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사진 박영숙

제호: 잡지의 장르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저널'과 고유이름 'if'를 합해서 만들었다. 'if'는 페미니스트들이 '만약에...'라고 가정해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아닐까로 읽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f' m Feminist 또는 'f' m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400년전 나쁜 여자,

세계에 글로 화해한다

『소설 허난설헌』의 작가
김신명숙

지난 96년,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는 도발적인 제목을 단 책 한권이 화제를 뿌린 적이 있다. 독일 여성들의 일상과 사고, 즉 그녀들의 삶, 사랑 그리고 일에 대한 생생한 밑작 보고서 형식의 이 책은, 무엇보다 필자의 예리한 여성주의 시각이 충격과 함께 찬반의 격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로부터 2년여의 세월이 흐른 이즈음, 『나쁜 여자...』의 필자 김신명숙씨(39)가 다시 우리에게 그간 흘린 땀과 수고의 결실을 반상에 올리 대접하려 한다. 원고지 2,000매 가량, 단행본 2권 분량의 원고, 『소설 허난설헌』이 바로 그것이다. 대접, 그래 대접이라 했던가, 이 땅에 사는 여자라면 누구나 그의 이런 수고를 기꺼이 대접받는 기분으로 시식해야 할 듯싶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칭찬받는 소설가가 된다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글길을 달린 적은 한번도 없어요. 나는 여성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간 나를 누르고 괴롭히던 어둠의 정체가 결국은 남자들의 윤희하고 뻔뻔한 개략이었다는 점, 이런 끔찍한 세상을 좀더 숨길 만한 곳으로 바꾸려는 의지 덕분에 이제 난 생을 사랑하게 되었고 감사하게까지 되었어요. 글을 쓰는 일은 괴롭고 고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허난설헌은 우리들 여성의 힘으로 다시 복원시켜야 할 역사 속의 가장 대표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여성들이 사랑의 힘으로 진혼하고 위무(慰撫)해야 할 자랑스런 조상인 게지요."

원고지 8매 분량의 이 글을 쓰기 위해 지난 밤 그의 원고를 침도 삼키지 못한 속도로 읽어버렸다. 본디 대중 책을 요량으로 시작한 하얀 A4지 상태의 딱딱딱한 한 초고, 처음 몇 장을 읽어내리다 그만 자리에 엉덩이를 붙박고 푹망 밤을 새워야 했다. 한시도 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그마저 『소설 허난설헌』은 때혹적이다.

우선 첫 소설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아(古雅)하고도 간결한 문장이 아름답다. 거기에 빼어난 허난설헌의 한시(漢詩)까지 읽는 맛을 더한다. 그리고 끝임없이 궁금해진다. 본명 허초희, 그녀의 신산하나 꿔디꿔은 삶의 여정도, 그녀를 사랑한 몸종 감정도, 절충한 기녀 두란향의 개적도, 청병 같은 시어머니 송씨의 양막도...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기록에서는 해치런 별치런 천연하던 남자들의 명말이, 그저 소설 내 서사에서는 배경으로만 지고 뜨는 것이 새록새록 고소하다.

김신명숙씨는 이제 새로운 소설을 다시 하나 준비하고 있다. 이 역시 철저한 여성주의 시각에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한 젊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 한다. 이제 그는 오랜 소망 끝에 성큼 들어선 창작의 길에 깊이 몰입하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일까, 그새 말이 여윌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행형했다. 그의 건필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

글 이복 / 사진 조여권

어머니의 역사 담긴

『천그루의 밤나무』 저자

미라 스타우트

다중국적의 여성사를 찾아서

한 국제 어머니의 가족사를 쓴 데뷔작 『천그루의 밤나무』로 서구와 한국 독자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가 미라 스타우트(38). 그는 어머니가 떠난 뒤 한번도 찾지 못한 어머니의 고향나라를 두번째 방문하면서 어머니의 유골을 들고 와야 했다. 그것도 어머니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소설 『천그루의 밤나무』(전2권, 문학세계사) 한국판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예정된 방문이었다.

한번도 한국을 오지 못했던 그의 아버지 프랭크 스타우트씨는 아내의 장례식을 위해 처음으로 아내의 나라를 찾아 딸과 합류했다. 그토록 고국을 방문하고 싶어했던 그의 어머니 고채원씨(68)가 지난 8월 17일 돌연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와 소원한 관계를 가졌다. 브라운대학에서 영·불비교문학을 전공한 그가 다시 어머니와 한국을 찾게 된 계기는 성인이 되어 뉴욕에서 예술가를 지망하던 시절, 정채성의 혼돈에 빠져 고통을 받던 그가 한국에서 온 외삼촌을 만나고 어머니의 고향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뿌리의 반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어머니에게 일제시대부터의 가족사를 들으며 함께 울고 분노하며, 불편했던 모녀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로 결심했죠.”

그는 1987년 외삼촌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어머니의 나라를 찾았고 당시의 방문경험이 그의 소설을 이끌었다. 어머니의 가족사와 함께 혼혈 2세인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동서양 문화의 차이로 정채성의 혼돈을 겪는 여성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과거와 화해에 이르는지를 밝히는 그의 소설은 데뷔작으로는 드물게 지난 97년 영국의 유명출판사 하퍼콜린스 플라밍고사에서 출판되어 5만부가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이어 미국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아일랜드에서도 성공을 거뒀으며 일본어와 독일어판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어머니가 지어준 한국식 이름 ‘미라’를 자랑스럽게 쓰는 그는 지난 86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살면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인 그는 미국인이면서 영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자 다중문화로 설명을 한다.

“내 안에는 동서양이 혼재해 있습니다. 하나의 국적이나 하나의 고향, 하나의 문화 같은 것은 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말 현재의 시대 상황이고 문화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다음 작품은 지역을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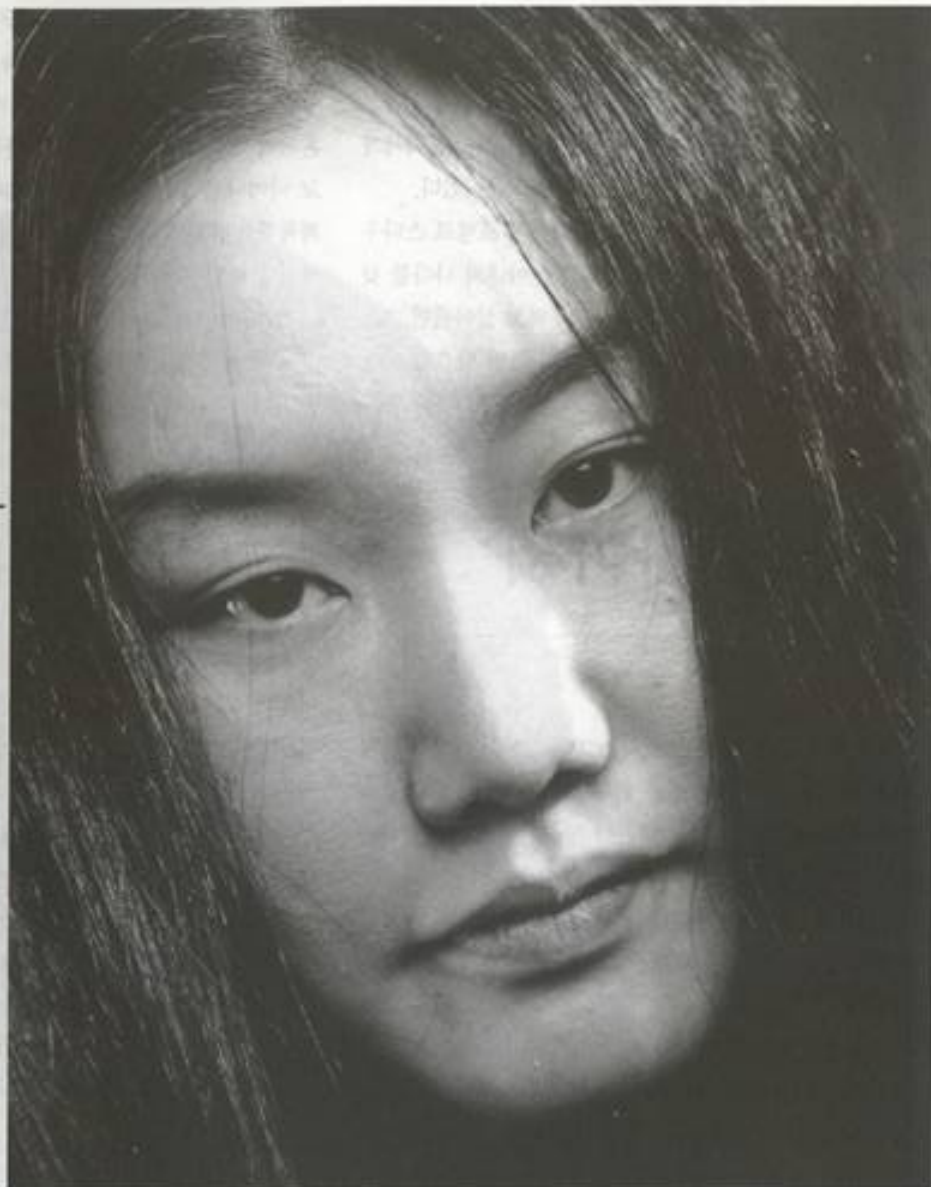
글 류숙영/ 사진 조아연

9월 18일 오후,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설악산 마석(선산)으로 가야 한다는 그는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그의 작품 『천그루의 밤나무』는 외가에 얽힌 실제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로 강릉 토호 집안 민씨일가의 부침을 통해 격동의 한국 현대사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아일랜드계 미국인 화가였던 아버지와 뉴욕 컬럼비아대학에 음악을 공부하러 온 한국유학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그에게 어머니라는 존재와 어머니의 나라 한국은 부정하고만 싶은 무엇이었다.

“어머니는 다른 미국엄마들과 양육방법이 달라서 저하고 많은 충돌을 빚었어요. 한국식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제 행동을 ‘한국식’으로 참견했고 미국에서 자라는 저는 사춘기 때까지 그런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뉴욕과 버몬트에서 자란 그는 고교시절 영국과 프랑스에서 2년 동안 사립 기숙고등학교에 다닐 정도로 어머니



프랑켄슈타인은

10년만에 개인전 가진 설치미술가 이불

설 치미술가 이불씨가 '사이보그와 몬스터'를 주제로 10년만에 개인전을 가졌다. 이름에 걸맞게 늦가을 장안의 모든 미술 관련 기사는 그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도발적인 퍼포먼스, 고정관념을 폭파시키는 그녀의 설치작품들은 항상 주류의 뒤흔수름 치는 시원한 일격이었다. 기존의 국내작가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던, 문턱 높은 모더니즘현대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세계현대미술의 압구정동)에 당당히 진입함으로써 한국주류화단에는 가슴편지를 날렸고, 낯고동어를 시퀀스로 장엄한 작품 <화엄>이 고매한 뉴욕미술관에서 '넵새스캔들'로 철거소동을 겪자, 이에 불복하고 소수함으로써 미술관측의 사과발언을 얻어낸 과정은 세계주류의 보수성을 스스로 시안하도록 하는 어퍼컷이었다. 그녀의 작품만큼이나 그녀의 캐릭터가 궁금했다. 일요일 빈 이프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름은 본명인가? 아버지가 다소 괴팍하셔서 형제들 이름 모두를 태양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지으셨다. 모두 '날일 변'을 가지고 있다. 이름 탓인지 환경 탓인지 자의식이 강한 삶으로 성장했다.

부모님이 운동권이셨던데 두 분 모두 사회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늘 사복형사들이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난 자연스레 모든 것의 배후엔 음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피해망상증을 지니게 됐다. 권력의 음모 같은 것... 어머니는 아직도 불타는 신념을 지키고 계신다. 황지우 선생이 어머니의 일대기를 쓰고 싶다고 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경계를 풀 수 없으므로...

튼튼한 몸집의 당신이 작품들과 만나 발인 퍼포먼스의 충격을 기억하는 이들은 최근 당신의 가늘어진 몸매를 서운해한다.

내 몸이 나의 캐릭터고 이미 하나의 기호화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젠 그 이미지조차 깨야 할 시기다. 작품에 따라 내 몸도 바뀔 것이며, 이후의 내 몸은 근육형으로 변할 것이다. (웃음)

이번 전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주제의 선진성에 비해 재현방식은 복고적이어서 이불답지 않다는 실망의 소리도 있는데...

복고적인 재현방식조차가 의도였다는 것을 읽지 못한다면 이불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사이보그와 몬스터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설치한 것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괴물과 사이보그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평론가들이 그점까지 잡아내진 못했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었지만 사이보그이기도 했다.

작품이 소통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난 게임을 즐긴다. 작품을 읽는 방식에 여러 가지 라인을 설정하고, 이 쪽에서 한 수 두면 저쪽에서 한 수 두고, 난 다시 판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 수 두고...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은 단순하게 사라진다. 난 모호함을 즐긴다. 뜨면 옮겨가고 뜨면 옮겨가는...

페미니스트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페미니즘이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삶을 수행하는 관점이라고 본다. 그것은 이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좁은 규정성이 싫을 뿐이다. 무엇을 깨고자 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 남이 뭐라 부르든 난 내 이름을 부를 때만 대답한다. 그게 나니까.

왜 당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는가?

기존의 여성성이란 스테레오타입에 따르든가 아니면, 거부하면서 게토를 형성하든가 하는 것이 여성작가들의 보편적인 모습일 텐데, 그 카테고리 안에 넣기엔 내 보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서바이벌했을까가 궁금한 것 아닐까. 내가 움직이는 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술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난 작품만 할 뿐이다. 언더그라운드엔 있을 때가 오히려 가장 안정된 상태다. 주류로 나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피나는 긴장의 시작이다. [1]

글 제이본



사회통합적

여성운동론이

미래사회

힘이 된다

한국여성연구소 초대

장하진

70년대 초 이화여대 최초로 『세일』이라는 지하 신문을 통해 이대 학생운동을 조직화했던 3명의 주인공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 정계에 입문했고 또 한 사람은 신문사 사장으로 언론계에, 또 한 사람은 학계를 지키면서 '따로, 또 같이' 학생 시절의 신념을 실천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서 있다.

이미경 의원, 내일신문 최영화 사장과 함께 이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렸던 이가 충남대 사회학과 장하진(46) 교수다. 산업사회 노동문제를 현장 운동권의 여성노동문제와 '연결시키는' 작업의 끈을 놓지 않았던 장하진 교수가 지난 10월 〈한국여성연구소〉 1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여성연구소〉의 출범은 민간 여성연구소로서는 최대의 인적자원을 가진 규모로, 한국 여성학이론의 정립을 위해 10년간 치열한 논쟁을 이끌어왔던 〈여성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구소 개소 심포지움은 사실 여성연구회 10주년을 기념한 의미가 담겼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합니다." 장소장은 30, 40대가 중심이 된 석·박사 전문연구자 130여 명이 이론연구, 여성사, 여성정책, 여성노동, 가족, 여성문학의 6개 연구실에 포진해 있다는 것을 한국여성운동의 제2의 성장에 커다란 잠재력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간으로 나오는 『여성과 사회』의 전신인 『여성』을 꾸준히 발간했던 '힘'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장소장은 여성연구소의 학술활동이 '사회통합적인' 여성운동을 위한 방법론과 전략 제공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그가 사회통합적인 여성운동을 말하는 것은 10여년의 여성운동 성과가 구제금융하의 경제위기로 다시 10여년 전으로 '후퇴' 하는 조짐들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의 핵심인 노동문제를 전공한 사회학자답게 21세기 여성지위를 결코 낙관하지 못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가치법칙에 의해서, 노사간의 상대적 경쟁과 달리 자본 대 자본의 '절대적' 경쟁이 더 격화되게 됩니다. 노동과정 안에 여

성들이 더 많이 진입한다 해도 여성들은 싸움의 핵심인 '남성적 경쟁' 속에서 아예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여성, 환경문제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안토니 기딘스의 『제3의 길』에서처럼, 21세기 새로운 사회철학을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성운동이 사회통합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만 해답의 모색은 결코 쉽지 않은 거지요."

장소장은 사회학자로서뿐 아니라 대전충남여민회를 만들고 충남여성발전계획의 팀장, 충청남도 여성정책심의위원으로 지역의 여성운동 활성화에 선두주자였다. 최근에는 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 국회제도분과위원으로, 올해는 전남대 교무교수로 서울과 대전, 광주를 오가는 승무원 틈 없이 바쁜 생활을 해왔다.

그가 늘 집을 떠나 있으면서 정력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해졌다. 지금은 조선대에 몸담고 있는 '최고의 명강사' 김홍명 교수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둔 장교수는 "자신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는" 남편 덕도 있다고 했다.

"사고의 폭이 자유롭고 굉장히 진보적인 편이에요. 제가 거의 집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손수 집안관리며 일하기를 좋아해요." 아내든 누구한테든 밥상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법이 없다는 남편과 두 아들에게 장소장이 늘 '가훈'이라며 하는 얘기는 "아무거나 잘 먹자"이다. 그래서 그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미식가. 안식년이었던 올해 그를 더 바빠 뛰게 만들었던 든든한 배경은 '세 남자의 협조'가 아니었을까.

현장에 발을 딛고 있는 성실한 학자로서, 제자와 후배들에게도 늘 '말을 놓는 법 없이' 자상하고, 모나게 자신을 드러내는 법 없이 늘 무거운 자료가방을 양손에 들고 세 도시를 오가는 장교수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

글 박해숙/사진 조어진

푸.른. 숲의 든든한 저임이

10월, 이달의 중소기업인상
수상한 김혜경 사장

88년, 시안 및 명이 만들었다는 출판사 <푸른 숲>을 91년, 김혜경씨(45)가 인수했다. '나도 책 만들 줄 안다'고, 또 '모르는 건 배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건네받은 지 8년여, 시행착오도 좀 겪었지만 올 10월에 '이달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될 만큼 <푸른 숲>은 탄탄한 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나이가 짐작되지 않는 동안에다 아담한 체구,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고 편안한 어투의 김혜경씨의 작지만 큰 성공이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공시대' 식으로 그의 성공요인을 알아보자. 먼저 첫번째 성공요인, "늘 새롭게 생각하자." 그는 자신에게는 물론 사원들에게도 "에너지쯤에 빠지지 말자"고 말한다.

"책을 펴낸다는 것은 늘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보기, 남과 다르게 생각해 보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 가지에 매몰되지 않는 것, 그래야 속에 있는 창의력이 맘껏 발휘될 수 있지요."

<푸른 숲>을 찾아온 기자나 자자들은 출판사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종종 묻는다. 사무실은 조용해야 한다는 편견으로 강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아서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는다. 일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어서인지 <푸른 숲>의 식구들은 이직율이 낮다.

두번째 성공요인, 무작정 '깎'으로 가지 않는다.

책 한권 잘 만들면 배우자가 되고, 몇 권 실패하면 문 닫을 만큼 부침이 심한 것이 출판계다. 김혜경씨와 <푸른 숲> 식구들은 기획하는 한 권마다 최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다. 예측불허의 보이지 않는 독자를 향해 무모한 게임을 벌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사회의 흐름과 독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꼭 펴내야 할 책의 목록까지 시간을 두고 기획한다. 중간점검으로 제대로 잘 되

어가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다. 상품성과 사회적 가치가 완벽하게 '객관성'을 갖출 수 있게 준비되어야 비로소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는 '무대에 올리는 한 편의 연극처럼' 책을 만든다.

'우리 식구는 내가 챙긴다'는 것을 세번째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 누구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식구라고 생각하죠. 직원마다 따로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서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불만이 있다면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려고 애썼어요. 새 직원을 뽑을 때도 경력이 있든 없든 '우리와 잘 살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요."

서로의 적당한 거리,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위계질서 속에서, 숲의 나무 사이사이로 바람이 넘나들 듯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만들었다.

마지막 성공요인은 김혜경씨 자신에게 있다. 결혼할 당시 '아이를 잘 키우는 좋은 엄마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는 4년의 전업주부 생활 끝에 가장 그리고픈 그림을 남편과 같이 나란히 출근하는 모습으로 바꾸었다. 일하러 나오면서 마음에 새긴 건 '절대 일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한 마디. 일이 주어지면 안 된다거나 못 한다는 말 대신 어쨌든 내 일을 해내겠다는 마음, 그래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겠다는 그 다짐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편할 때보다 일을 해야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는 그는 얼마 전에 출판인들의 새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를 만들었다. 인터뷰 내내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내용을 슬쩍만 들어도 그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인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짐작케 하고도 남았다. [E]

글 권해민/사진 조아연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한국기자협회내 '여성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 김미경

150

‘**붙** 어지면 죽고 뗄리면 산다’는 말은 생과 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전장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빠 남을 돌보지 않을 때, 남 일이라고 제쳐두었던 일은 어느 순간 바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모래알’로 흩어져 있을 게 아니라 ‘진흙’처럼 뭉쳐보자는, 그래서 아직도 여성에게 차별적인 이 사회에 ‘압력’을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모으자는 의도를 갖고 <한국기자협회> 내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기자들, 그 중에서도 사회, 경제 부처의 여기자들이다.

준비위원장인 김미경(38)씨는 한겨레신문의 생활과학부 기자다. 여성의 삶의 질적 향상과 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지만 이런 모임을 꾸려야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시대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자라면 일단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요. 게다가 여기자라면 나름대로 성공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 기자사회에도 엄연히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정리해고나 감원에서 여기자라는 건 일차적으로 불리해요. 남성들 일자리도 부족한데 운운하면서 밀어내기에 딱 알맞죠.”

여기자들이 해고시에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채용과 승진시, 또 부서배치 때 부적절한 고정관념에 의해 피해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감시하고 올바르게 대처해 줄 단체의 필요성은 여기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친목도모를 위해 여기자끼리 모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확실한 모임체를 꾸려야 한다는 계기가 된 일도 일어났다. 일간지 여기자가 동료남성기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이 개명천지에 이른바 ‘엘리트집단’인 기자사회에서 말이다. 피해자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해고시의 우선순위라는 것, 동료의 성추행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준비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자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남성기자들보다 많아요. 취재처에 따라 여기자들은 숙직실 문제에서 화장실 문제까지 불이익이 많지요. 이 모든 문제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각 방송, 신문 매체의 성차별적인 기사의 모니터 작업까지 여기자가 관련된 일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산적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화’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각사에 흩어져 있고 바쁜 여기자들의 상시적인 모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통신방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 맞대면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상으로 의견소통을 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여성특별위원회’는 12월중에 정상이동할 예정이다. 아직 참가할 신문사와 여기자 명단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란다. 또 이 위원회는 누가 ‘장’을 맡아 일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자들 자신이 각각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위원회 자체는 그 목소리와 몸짓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김미경씨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부각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의미있는 일이라 말았을 뿐”이라며 몹시 쑥스러워했지만 그가 모임의 적절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 낼 것 같은 신뢰는 엉뚱하게도 그가 데려온 ‘린’이란 이름의 딸아이와의 모습에서 느껴졌다. ‘어린 딸을 키우는 일하는 엄마’, ‘인터넷 써깅’에 푹 빠져 정보통신과 관계된 일을 하고자 하는 그가 바로 ‘여기자’로서의 모든 의미를 아우르는 그 지점의 한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이다. [1]

글 권혁관/ 사진 조아연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을

믿어요

한국여성상담센터 문연
현혜순 소장

한 국여성상담센터(Korean Feminist Counselling Center)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들에게 피상적인 도움이 아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지원체계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개원 일은 10월 22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손을 내미는 상담단체는 이미 몇 개 있다. 현혜순 소장(42)에게 여성상담센터가 기존의 상담소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몇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부주의 탓이라고 몰아부치거나 여성의 순결과 관련된 성문제로만 손쉽게 제단하고 있어서 피해자는 몇 번의 폭력을 되풀이해 당하게 되지요. 당사자가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눌러 주지않히는 셈이에요.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좌절하려는 피해자에게 힘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현소장은 센터의 영문표기를 눈여겨 보라고 말했다. 그저 '카운셀링'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카운셀링'이다. '과격하다' 혹은 '조금 안 맞는다'는 주위의 우려를 물리치고 단호하게 이 문구를 고집한 이유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여성이 대부분)이 상담을 요청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동정으로 끝나거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시킬 게 아니라 당사자 자신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딛고 일어설 힘을 내부에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여성주의 상담'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급박한 상황일 때의 위기개입에서 적절한 심리상담으로 안정을 찾게 하고, 격리가 필요할 때는 쉼터 제공과 후유증 치료까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한 사람을 다각도로 돕기 위해서 상담원은 물론 심리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상담전문위원회'도 두었다.

현소장은 여성상담센터를 열기 전에 이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 일을 했었고 피해자들의 쉼터인 <열린터>를 꾸려왔던 사람이다.

10년 정도를 전업주부로 살면서 '일하고 싶은 욕구'와 무던히 싸웠다. 이웃여자와 수다떨고 헬스장 다녀보고 무력감에 시달리며 '사회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는 자신을 속수무책 바라보기도 여러 해. 이것 저것 해보려다가 '아니다'라고 돌아왔는 그에게 '배부른 소리한다'는 비난도 들었다.

"일하고 싶은 거였지 돈만을 필요로 했던 건 아니었어요. 몇 년의 방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또하나의 문화>를 알려주더군요. '주부공부방' 1기로 들어갔어요.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공부하고 이야기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내가 원하던 일을 찾게 된 거죠."

관심의 영역을 넓혀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갔다. 논문 제목은 '친족성폭력 피해자 후유증에 관한 연구'. 사례자들을 만나고 논문을 쓰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대한 개념이 잡혀갔다.

대학원을 다니고, 상담소 일을 하는 동안 집안일과 아내, 엄마의 역할 사이에서 남편과 그야말로 '피터지듯' 싸웠었다는 그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할 수 있는 한 나도 열심히 하자"는 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바꾸었다. 어차피 더 붙어 '잘' 살자는 것이므로...

"힘없는 사람을 무작정 잡아끈다고 모두 따라오진 못해요. 내가 그랬듯이 중요한 것은 내부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라도 함부로 막 살게 되진 않아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깨달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첫 걸음을 시작하는 거지요." ■

글 권해민/사진 조여연

상을 해보자. 생명체라곤 없는 눈발이 사방을 덮고 있다. 지상의 삼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산소 탓에 신발끈만 묶어도 숨이 턱턱 막혀온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의욕상실까지 겹쳐 발걸음 메기가 힘들다. 몸을 아무리 접싸게 움직이려해도 저절로 솔로우비디오가 된다. 게다가 주변엔 아무도 없다. 잠도 혼자 자고, 새벽이면 혼자 일어나 끓여 보이지 않는 눈길을 또 걸어 올라간다. 날씨가 험악해져 산사태라도 나면 한 순간에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추위와 호흡장애, 극도의 피로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한 달을 꼬박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봉우리가 바로 히말라야 가세르브 롱 I 봉(해발 8,038미터)이다. 지난 여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14개 중의 하나인 가세르브 롱 I 봉을 서른여덟 살의 여성산악인 지현옥씨(청주서원대OB)가 단독등정에 성공했다. 이 봉우리에 도전한 여성산악인으로서 세계에서도 세번째로 등정에 성공한 것이다.

"해발 8,000미터 이상부터 최고 8,888미터까지 세계 최고 봉우리 14개가 대부분 히말라야에 몰려 있는데 그 14봉을 모두 등정하고자 하는 것이 산악인들의 열망이지요. 보통 산소량이 지상의 2/3가 되는 7,500미터가 죽음의 지대라고 하거든요. 8,000미터 이상이 되면 산소는 1/3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 도전하려는 것이겠지요."

전세계 수백만의 산악인 중 14개 봉우리를 다 오른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엄홍길씨가 10개 봉우리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지현옥씨는 이번 등정으로 지난 89년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미터)와 지난 97년 가세르브 롱 I 봉(해발 8,068미터)을 포함,

히말라야 8,000미터 이상 봉우리 세 곳의 등정에 성공하게 됐다.

지현옥씨의 이번 등정이 더욱 값진 것은 혼자서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등반에 자신있는 사람이라도 조난에 대비해 한두 사람의 동반자를 대동하는 것이 고소 등반의 상식이다. 단독등반은 체력, 기술,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팀을 이뤄 동반했을 때보다 몇 배 힘들다. 그래서 단독등반은 젊음과 패기만으로 안 된다. 연륜과 끈기가 필요하고, '죽어도 좋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지현옥씨는 청주서원대 미술교육과에 입학하면서 산악부에 취미삼아 들어갔다. 취미는 곧 삶이 됐다. 산에 미쳐 20여 년을 산에 올랐다. 8,000미터 고봉을 혼자 힘으로 등정해낸 그는 이제 어떤 산이든 올라서면 산을 뒀을 수 있을 정도로 베테랑이다.

지현옥씨에게 산을 타는 것보다 더 버거운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특히 여성산악인의 인구가 희박한 산악계에서 여성으로서 자기 몫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산악계에는 여성산악이라는 파트 자체가 아예 없다. 그 불모지에서 여성산악인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다행히 그는 기꺼이 그 책임을 받아 안는다.

"저는 이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저 이전의 선배들이 중견, 원로로 이어지면서 자리를 지켜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 저부터라도 시작해야죠."

히말라야를 혼자서 올라간 여자에 대한 경외심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사실은 키160cm에 몸무게 55kg인 아담한 체격을 가졌으며 그의 직업은 프리랜서 미술교사다. [17]

글 황금희

8천미터 등정은 죽음과의 싸움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단독 등정한 산악인 지현옥



임상 의학을 통해 인생을 의미한다

“호텔은 단순히 잠자고 식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세계 호텔은 세계로 통하는 창으로 부를 만한 곳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국내외 특급호텔의 남성 매니저들을 능가하는 역량으로, 호텔 홍보의 ‘대모’로 불렸던 서울 하얏트호텔 김봉영(60, 홍보부장)씨의 눈에는 호텔이 그토록 ‘매력적’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호텔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아무런 편견없이 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그 세월의 한가운데에 김봉영씨가 있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최고의 엘리트여성이었던 그가 통념을 깨고 호텔에 과감히 몸담았던 이유는 “호텔홍보 업무가 적성에 맞았고 재미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무슨 일이든 다 치는 대로 해내고야 마는 정열과 ‘열린 마음’ 때문이었다.

그도 애초부터 근사한 홍보업무를 맡았던 건 아니다. 남편의 하와이 유학길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행했던 60년대 말, 유학생 부인들이 그랬듯이 그가 돈벌이를 위해 했던 일은 진주고르기나 집사담기 등 하찮은 일뿐이었다. 밉스라는 진주가게에서 작업조건 개선을 건의했다가 느닷없이 해고를 당했던 경험 이후, 호텔블루 카탈라 힐튼 호텔의 키친헬퍼, 스트레스에 아스피린을 먹어가며 전화 예약 업무를 맡기도 했고 웨이츄레스 헬퍼를 맡은 뒤 능력을 인정받아 호텔블루 아더스 프랑스로 리셉셔니스트에 오르게 된 게 그가 호텔과의 인연을 맺게 된 발판이었다.

그러나 74년 귀국 후 그가 갈 만한 호텔이 한국에는 없었다. 미국에서 받았던 급여수준이 너무 높아 면접조차 거절당했고 당시 여자가 호텔에 근무한 전례가 없어 그에게는 무려 10여 년을 번역등에만 매달렸던 공백기도 있었다. 마가렛 미드의 자서전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 『레비스트로스와 그의 대화』 등이 다 그당시 그가 번역해 낸 책들이다.

힐튼호텔이 들어서던 83년부터 2년 후 하얏트로 픽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수차례 도중하차의 고비가 있었다.

합격통지를 받고도 부모들 반대로 젊은 여성들이 호텔 근무를 포기하는 와중에서, 낙하산 인사로 오해를 받아 사표를 쓰고 싶을 만큼 젊은 후배들의 ‘박해’도 견뎌야 했다. 하얏트로 옮길 때는 중국인 매니저마저 “남편이 교수인데 당신이 호텔에 근무하는 것을 남편도 허락하는지,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약속하라”는 주문에 흔들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남편 강신표 교수(인제대 사회학)의 조언이 늘 큰 힘이 됐다.

“힐튼에서 일할 때는, 그만두더라도 오해를 풀고 그만두라고 그러더군요. 모욕을 넘기고 나니 오해도 풀리고 견딜만하더군요. 하얏트로 옮길 때는 남편이 호텔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홍보부장이라는 좋은 자리에서 깰 수 있는 기회 아니냐고 그러더군요.” 김봉영 부장은 호텔로 출근했던 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올 연말 그는 그토록 열정을 쏟아왔던 그의 인생을 고스란히 바친 호텔을 떠난다. 호텔에서의 근무경험과 갖가지 일화를 담은 책 『호텔로 출근하는 여자』(세계의 여성들) 출판기념회를 지난 11월 7일 마친 그는 후배들에게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을 찾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마음 한번만 열면 어디든 배울 게 있다고 조언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는 생각만 했다면 아무 것도 못했을 겁니다.” ‘어디든 나보다 나은 것이 있고 어느 곳이든 배울 게 있다’는 김봉영 부장이 호텔홍보업계의 빛나는 보석으로 최상의 자리를 지켰던 비결은 소박한 곳에 있었다. 최상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는 그의 태도를 마음 깊이 새겨본다. ■

글 박혜숙/사진 조여권



호텔홍보 ‘대모’ 하얏트 김봉영 부장 은퇴 앞두고 책 출간

최상은

어디에든

있다

다시

새로운 열정으로

나를 태운다

전태일문학상 단편소설부문 수상한 김재영

66

년생, 85학번, 33세, 여자, 이름은 재영... 여기까지만 말해도 얼핏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그랬겠구나. 어쩌면, 그녀는 젊은 한 시기를 싸우며 울며 살았겠구나.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좀 더 크고 다른 세계에 밋 발자국은 디더보았겠구나. 어쩌면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지는 못하고 가끔씩 아플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

김재영씨(33)는 올 가을에 '제8회 전태일문학상'의 단편소설부문 상을 받았다. 제목은 「국화야 국화야」.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뒤늦게 삶의 한가운데로 던져져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그 옛날 이상을 향해 달렸던 시절의 의미를 반추하는 여자와, 산재를 입은 아들을 둔 가난한 할머니의 이야기다. 단편으로 매듭짓기엔 너무 많은 사연이 들어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 김재영씨는 할 말이 무척 많았던 것 같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스티로폼만 가득 찬 화분에 심겨진 난 한 송이처럼 결국은 시들어가고 말 거라는 안타까움. 뿌리가 썩어들어가는 저 속의 세계에 모두 눈을 돌린 무섭고 폭력적인 세상에 대하여 이제, 화분을 얹어 스티로폼을 걷어내고 향기로운 흙 한 줌을, 거름 한 줌을 복돋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묵아픈 호소를 하고 있는 게 보인다.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고 원고지에 쓴 첫번째 이야기라서 조직이 좀 성글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 걸었던 젊은 시절과 그 날의 기억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게 하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고 싶어서였으니까, 천천히 가야지요."

우리가 살다가 간혹 제 설움에 겨워 한 번씩 눈물바람을 하는 것처럼, 그도 가끔 운다. 두 아이의 치다꺼리에 치여 기진할 때, 토막토막 잘린 시간을 간신히 꿰어맞춰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울 때, 아무 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날 때, 그는 혼자 울 때가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연민의 한 가닥에 불과한 그런 눈물만 흘리진 않는다.

전자회사의 부품조립공으로 보냈던 시절, 처음으로 립스틱을 발라보고 스커트를 입어보며 최초로 '여성성'을 드러내보였던 그 때 만났던 동년배의 아가씨들, 아줌마들. 그들 곁에서 떠나온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질 때, 그는 아직도 운다. 현재 생활이 편하고 쾌적할 때, 아기를 갖고도 열악한 작업환경을 떠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으로 부끄러울 때 그는 눈물을 닦고 글을 쓴다. 소설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현재 삶에 대한 일종의 부끄러움과 조금의 부채감.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탠다면 자신의 꿈이다.

"어린 시절, 혼자서 시집을 만들곤 했어요. 글 쓰는 사람들의 철없는 낭만성, 비도덕성과 위선에 실망하는 바람에 멀어졌었지만, 운동에서도 현장에서도 힘을 쓸 수 없는 지금에선 글을 쓰는 것이, 그때의 사람과 생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예요. 이젠 정직한 글의 힘을 믿어요."

그의 소설은 지난 11월 출간된 제8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작품집,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다』(작은책)에서 만날 수 있다. ■

글 권해란/ 사진 조여권

여성해방의 출구,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있다

한국여성밀레니엄연구원 김성주 이사장
조미리 원장

페미니즘의 오랜 역사만큼 그 긴 시간 동안 페미니스트들이 풀고자 했던 해묵은 숙제의 하나가 잠자는 여성들을 깨우는 의식화 단계를 넘어서 여성들의 진정한 '해방'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여느냐였다면, 그 실현가능한 하나의 '방법론'을 들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과감하게 나선 여자들이 있다.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한다는 원대한 야망을 갖고 지난 9월 28일 한국여성밀레니엄연구원(Korea Women Millenium Institute: KUMI 퀴미)을 창립시킨 김성주 이사장(43)과 조미리 원장(43)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타이타닉 신드롬'에서 누군가 구명정을 올려 살려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여성입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사실 전근대성, 봉건성, 가부장제적인 사고와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정신적 위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전면적 구조조정 요청을 요구받은 거 아닙니까?"

남성들은 가부장제 시스템 내에서 고용을 구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체계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전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이 추구하는 여성들의 진정한 해방은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경제력'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이

버 공간을 통해서 그 출구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성해방의 정답은 바로 '자신감'과 '경제력'이라고 생각하는 김성주 이사장은 그 해방의 출구가 바로 인터넷에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 훈련'을 하게 된다면, 여성들이 현재의 반쪽 노동시장에서 100% 새로운 브레인 풀(pool)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로 퀴미를 설명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알 만한 사람에겐 많이 알려진 파워우먼이다. 얼마 전 한국 유일의 스피커로(세계여성지도자대회)에 나가 퀴미의 컨셉을 발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로부터 '한국경제계의 박세리', '한국경제의 희망'이라는 평을 받았고 또 <세계를 이끌 젊은 100대 기업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뽑힌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KBS 아침마당에 출연함으로써 엄청난 시청률로 화제를 일으킨 김이사장은 그후 세도하는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는 개인 김성주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인터뷰 제안이나 수억의 경제프로그램 출연 제의 등은 모조리 거절했다.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띄운 '퀴미호'의 순항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if의 인터뷰 제안에는 조미리 원장까지 설득해 함께 응해주었다. 퀴미와 이프의 미래지향성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한 것이다.

"직급이 높다고 반드시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세가 그 사람의 실질적인 능력과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세가 오히려 일을 하는 데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국내 굴지의 재벌가 대성그룹의 막내딸이었던 김성주 이사장은 연세대 졸업후 단 한푼의 집안지원 없이 혼자 유학해서 공부를 했고 귀국후에도 부모로부터 주식 한 주, 땅 한 평 물려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주)성주인터내셔널을 성공시킨 재계의 신화적인 인물이다.

퀴미호를 이끌고 있는 김이사장과 조원장은 올 3월까지



(퀴미) 김성주 이사장

만 해도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한 사람은 재계에서 이미 그 실력을 인정 받은 국제적 비즈니스우먼이었고 또 한 사람은 시부모, 부모, 남편이 모두 목사인 개신교계의 '로알패밀리'에 속한 목사로 교회여성연합 총무였다. 의견상 전혀 걸맞지 않는 '조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댈래야 댈 수 없는 수평적 관계의 환상적 파트너로 변신해 있다.

조원장과 김이사장이 만난 계기는 호주에서 날라온 한 통의 E-메일로 만들어졌다. 조원장은 지난 1월 오타와에서 있었던 대인지리 국제회의에 비정부기구 대표패널로 참석했다가, 친분을 쌓은 한 호주인사가 E-메일로 '김성주 사장을 만나보라'는 권유에 예의상 보답하는 차원에서 김 사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 두 사람의 '만남'을 가능케 했고 이 만남은 결과적으로 퀴미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신대 졸업후 남편과 함께 유학, 13년간 미국에 머무르면서 시카고 맥코믹신학대, 기독교교육 전문대학인 리치몬드 PSCE에서 석사를 했던 조미리 목사, 그는 흑인 상대로 악세사리나 뽕을 파는 등 '바닥생활'을 거치면서 공부했던 경험이 한국에 왔을 때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고 회고한다.

"김성주 이사장은 처음 만나면 눈이며 온몸에서 발산되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 파장이 엄청납니다. 사실 비즈니스는 그의 존재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김이사장은 퀴미의 모든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핵심 컨셉을 잡아내는

(퀴미)의 조미리 원장

“

이제

경제시장 논리는

노동자가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등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여성오너의 시대로

열어나갈 수 있다.

”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닌 휴먼리소스가 아직도 무궁무진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들은 첫 만남에서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고, 사회 구축극에 보석 같은 여자들이 숨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여자들을 어떻게 살려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놀라가며 만남을 지속했다. 그러던중 김이사장은 자사 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면서 21세기는 어쨌든 '인터넷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이 때 퀴미의 컨셉을 잡아내 '한 번 해보자'는 제의가 던져졌던 것.

김이사장은 퀴미의 원장자리를 두고 국내외 내로라하는 인물들 11명을 인터뷰한 끝에 조미리 원장을 택했다. 그 이유는 40대라는 점, 영어에 능통한 글로벌 시각을 갖췄다는 점, 그리고 '사심이 없다'는 3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서 교회여성연합 총무로 있던 조목사를 설득해 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인터넷 관련사업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관건이었지요. 그 차별화는 말뿐이 아닌 경제력의

창출과 이를 이끌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작업을 위한 연구원의 풀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조원장은 이제 '교수에게만 연구를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로 미래시대를 점친다. 정답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들의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 이론화되는 다이나믹한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00년을 보는 컨셉을 담고 있다'는 퀴미가 추진하려는 주요사업 프로젝트는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인프라 구축, 지구촌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활동, 21세기 여성리더십 워크샵, 여성정보화 교육과 정보 여성의 글로벌화 등 엄청나게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구조에 얽매어 있을 때가 아니라 글로벌한 정신을 갖자는 겁니다. 팬 코리아니즘(Pan Korianism)은 휴먼리소스가 더 큰 여성들의 두뇌에서 그 방법론을 찾아낼 수 있고 여성들간의 자매애(sisterhood)를 통한 힘의 창출,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런 자신의 컨셉에 따라 퀴미 회원을 '무제한'으로 잡았고 퀴미의 전략도 '윈-윈게임(win-win game)'으로 부른다.

이제 경제시장 논리는 노동자가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진출 가능성이 무한한 인터넷상을 누비면서 전자상거래등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여성오너의 시대로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게 두 사람의 얘기였다. 그들이 1차로 주목했던 부분은 '가부장제 구조에 길들여진' 남자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유연성과 섬세함, 열린 사고를 지닌 여성들의 무한한 잠재력이다.

“인터넷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1,2년 새 준비해서 들어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은 기본도구이고 무엇을 어떻게 매니징할 수 있느냐는 비즈니스적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조미리 원장은 일반대학 컴퓨터학과나 컴퓨터 학원에 서는 기껏해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산 또는 웹디자인

너, 캐드(CAD) 분야의 전문영역인 배출에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며 퀴미에서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컨셉으로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퀴미에는 이들 두 파워우먼 외에도 서경대 강선미 교수, 청일점 카이스트 김형관 교수, 박성연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 조경혜 서울여대 교수, 추애주 연대 교수, 박영혜 숙대 교수를 비롯해 김이숙 한국 파워넷 이사, 정혜숙 링크 인터내셔널 이사, 유완선 아이커멜스 코리아 사장 등 쟁쟁한 멤버들이 이사진과 운영진으로 가세하고 있다.

한국여성밀레니엄연구원의 성공은 어쩌면 이미 절반은 달성했는지도 모른다. 그 방대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그렇고 국내외에서 밀려드는 지원체제의 '자칭'이며 이곳에 쏠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8일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렸던 1차 포럼을 겸한 사업설명회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9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예정인 퀴미는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개인 여성들의 동참과 뜨거운 지지에서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E]

사진 조여권



박혜숙(매니징디렉터)

라인헤어컬렉션

Line Hair Collection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3-20 화랑빌딩 5F
예약 및 문의 : TEL (02)544-1991 FAX (02)546-9366
영업시간 : AM 9시30분~PM 8시 (일요일 정상 영업)



여성문화예술기획이 마련한 여성주의 문화실패자.

혹독한 시련을 주고 있는 IMF도 지식인들의 '몸'과 '문화'에 대한 관심에는 어쩔 수가 없다. 지난 10월과 11월은 그야말로 '몸'과 '문화'의 달이었다. 다양한 곳에서, 크고 작은 토론들이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송실대 여성문화연구소(소장 심정순)가 주최한 제2차 <섹슈얼리티와 대중문화>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국제심포지움, 여성주의 논으로 본 <몸/섹슈얼리티/공연성>, 일본문화 개방을 앞두고 커서린 이지 교수(조지타운대 연극 전공)가 발표한 <파란조각의 몸: 일본 에로만화/애니메이션, 질 폴란 교수(뉴욕시립대)의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론>, 유지나 교수(동국대 영화학)의 <영화의 여성을 소개하는 방식> 등은 현대 문화예술에 재현하는 여성의 몸을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몸과 예술을 기초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심포지움도 있었다. 이대 기초학연구소(소장 김용숙)가 마련한 <1998년 국제심포지움 몸과 미술>(10월 30

'몸'과 '문화' 주제로 세미나 봇물

한국여성학회, 송실대 여성문화연구소 등서 주최

일)이 바로 그것. 전통적인 몸에 대한 인식의 실패와 현대적인 수용, 서구의 사상과 우리의 전통사상이 파악하는 몸의 문제 등을 짚어본 이번 심포는 그 텍스트를 주로 미술장으로 삼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한국여성학회(회장 조은)의 추계학술대회(11월 21일)에서도 역시 문화에 대한 화두는 제기됐다. 오전에는 가족, 성의 정치, 여성정책 등이 발표·토론됐고, 오후에는 여성주의 미학과 인도문화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날 발표된 <심미적 쾌와 합리성>(김혜진), <여성미술가와 페미니즘 미학의 가능성>(김주현), <사신과 권력>(신정원) 등은 문화예술 장르 중에서도 시각예술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이었다.

이런 논의들이 대부분 이론적인 접근이었다면 여성문화예술기획이 마련한 <여성주의 문화실패자>를 한국 여성문화운동의 진상과 의의는 다분히 우리사회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현장에 대한 점검과 전망이었다. 문화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와 그 위상, 연극, 영화, 미술 분야에 대한 점검, 그리고 현장에서 문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승희(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편집장), 류숙영(페미니스트자널/

편집위원), 이남희(여성과 사회 편집장), 김이승연(돌꽃)씨 등의 사례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문화와 여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자' 평화로 만드는 여성회(대표 이우정)가 마련한 <남북여성 교류방안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10월 20일)에 참석한 여성들은 경제난 정치논리 못지 않게 문화의 통합이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남북한이 공간 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일제의 전후 보습문제, 의식주 문화 등)에서 남북여성의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도 여성의 성(female sexuality)을 주제로 잡아 지난 11월 29일 열렸다. 오르가즘, 여성불감증, 산부인과적 측면에서 본 성 등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였고 특히 세계성학회 전 회장이었던 인도의 고타리 교수의 카마수트라 소개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아무리 경제적인 불황이 우리의 목을 졸라도 이미 개량된 성문화, 기계문명화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인 듯.

연극 마요네즈 재공연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이혜진)의 극장(마네)이 대학로로 이전해 극장(오늘·한강·마네)로 이름을 바꿔달면서 야심찬 개관기념 공연들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11월부터 재공연되고 있는 연극 <마요네즈>(전혜성 원작 및 각색, 문성화 연출)는 올해 초 공연보다 관객들의 호응이 더 크다. 어머니와 딸의 애증관계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된 전통적인 어머니상의 허구를 드러내

는 이 연극은 오는 1월 10일까지 공연하며 금요일 오후 3시 공연 뒤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연극 공연중에도 이 극장에서는 4차례의 카바레가 11월 21일부터 열리고 있다. 이튿날(밤문화실험실 마네카바레), 놀이와 문화를 매개로 한 여성주의의 확장을 목표로 마련된 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에는 황보영, 지현과 같은 여성

연극가들과 배우 김여진과 함께 하는 토크쇼 <채널들의 아우성>, 마임, 영화상영, 무용그룹 가린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문의: 3475-0662/0663)

우아한 백조로 살고 싶은 페미니스트 다 모여!

페미니스트 경제공동체 Free-War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일을 벌였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경제공동체', 이른바 프리워(Free-War)가 발족했다. 프리워는



왼쪽부터 전현경(정보네트워킹2팀장, 번라나), 김이승연(안락뱅크2팀장), 김현영(정보네트워킹1팀장), 김신화(창업개발팀장), 장운주(정보지원연구팀장)

페미니스트 리벌루션 인 이코노미의 워(Feminist Revolution in Economic War)의 약자다. 지난 10월 31일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프리워는 각자 흩어져 게릴라식 페미니즘 문화 운동을 펼쳐온 마네, 돌꽃, 무임승 등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얼굴이나 익히지는 취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됐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다 보니 경제위기 상황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고, 차라리 없어 못 나오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문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의견을 모으게 됐다. 지난 8월의 일이다.

라나(번라나), 호랑(김현영), 샘(장운주), 댄사(전현경), 푸근이(김신화), 파투리(김이승연)는 이렇게 해서 '경제전쟁'에서의 페미니스트 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첫 활동은 9월초 이화여대 정문에서 연 벼룩시장이었다. 낡은 물건을 교환해 재활용하자는 환경적인 의미와 페미니스트들끼리 자매애를 고감하자라는 여성운동적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 신촌지역 다른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보따리를 싸들고 가게릴라 벼룩시장을 열기도 한다. 벼룩시장은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 매주 한번씩 이화여대 학생회관 로비에서 정기적으로 장이 열린다.

벼룩시장으로 시작한 프리워는 발족되면서 정보네트워킹 1, 2팀, 정보연구지원팀, 창업팀, 인력뱅크 1, 2팀 등 모두 6개의 팀을 구성했다. 6개의 팀을 꾸려나간다는 취지를 모조리 일자리와 일꾼을 연락시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개발한다.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조만간 통산공간에 사이버프리워도 띄울 예정이다.

이들의 계획 중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몇 개 눈에 띈다. 캐리커처가 들어간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해 자원인사를 중심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과 가맹점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지역별로 한 업종 당 한 가게를 프리워가 지정해 단골로 이용하고, 프리워 회원들을 통해 가게 홍보를 해주면서 역으로 프리워 회원들은 할인혜택을 받고 회원모집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프리워 발대식에 참석했던 현의사 고관순씨는 죽에서 여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한의원들을 프리워의 가맹점으로 가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프리워는 여성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실업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일자리가 있든 없든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로 살다보니 어느새 '백조'가 되어

버린 여성들, 그러나 결코 페미니스트임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은 다 모여라!

마침내 열린 퀴어영화제

퀴어영화제가 마침내 열렸다. 퀴어영화제는 지난 해 열려다 당국의 불허장침으로 무산됐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재단에 합의해 대안인 박두성씨의 축하차림 '배앗간'들에 마침내 찾아온 '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1월 8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이트선자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 개막식에는 수백 명의 관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또 8일 개막작품인 미국 동성애영화감독 스티븐 카작의 <파카소를 만난 적이 없어요>부터 14일 폐막작품 대안감독 차이밍량의 <하류>에 이르기까지 9일간의 영화제 상영기간 내내 상영된 8편의 영화가 거의 만원시세를 이뤘다.

홍경 수혜이 감독의 <퀴어아이>.

퀴어영화제는 영화감독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에는 새로운 형태의 동성애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 시기에 열린 퀴어영화제는 성의 소수집단인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존재함을 주류사회에 알리는 일종의 신고식이었다. 샘이

다. (문의: 서울퀴어영화제 사무국 766-5626)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전태일 문학상 받은 정신대 할머니의 수기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정신대로 끌려간 이후 반백 년을 고향 속에 살아온 한 여자가 외친다. “부끄러워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김윤심 할머니(69, 사진)는 정신대로 강제징용되었으면서도

해방 이후 고향을 찾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전전해 왔다. 왜 그랬을까? 조선의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략으로 삼은 일본군의 만행 못지 않게 그런 역사의 희생자였던 여성들에게 순결에 대한 죄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던 조선의 가부장제가 대를 물고 역시 부끄러워해야 할 너희이다.



김윤심

환경오염 심각성 일깨운 어린이 인형극 <쟁이의 물속여행>

간편해서 쓰고, 무실코 버리는 일회용 용기들이 모두 자연 속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할까. 꿈 속에서 갑갑 그곳으로 변해버린 쟁이는 물고기 초콜릿과 감물 속을 여행한다. 인간의 손을 떠나 자유방임 상태가 된 일회용 용기들이 강 속에서 만나 왕국을 건설한다. 가장 오래 버티지 않는 컵라면 그것이 대장이 되어 물 속을 더럽힌다. 물려오는 쓰레기(쓰레기)에 숨어 막혀오는 쟁이. 역물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한영희)이 기획하고, 여성예술집단 오름(대표 이혜란)이 만든 어린이 환경인형극 <쟁이의 물속여행>은 일회용기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어린이가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기획한 공연이다. 이 인형극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봉구민회관을 비롯해 서울지역 5군데에서 공연되어 많은 어린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공연이 끝난 후에 관람 어린이들은 인형극의 주인공인 쟁이와 함께 환경지킴이 선서를 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인형극이 공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273-9536)

김윤심 할머니는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글로 옮겨 “부끄러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수기를 썼고, 이 글이 제8회 전태일문학상 기록문·생활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애초 이 글은 김 할머니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썼던 것인데 글송씨가 뛰어나 자료로 보관만 하기엔 아깝다고 생각한 윤정숙 정대협 대표의 제안으로 전태

일문학상에 출품되었던 것이다. 전태일문학상은 지난 88년 전태일 일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매년 시, 소설, 생활글, 기록문 등 네 장르에 걸쳐 수상작을 내고 있다.

창간 준비중인 여성문화비평지들

여성의 눈으로 문화평가를 시도하는 여성문화비평지 두 가지가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소장 고갑희)의 『여성이론지』(가제)와 연세대학교 학부지인 『두입술』이 바로 그것.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여성이론지는 일 년에 두 번 발행되는 반년간지로 계획되고 있으며, 창간호에서는 젠더/섹슈얼리티(Gender/Sexuality)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이론과 영화, 연극, 미술 등의 문화비평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의 두입술편집위원회(편집장 김혜정)가 지난 11월 창간한 학부지 『두입술』은 유행처럼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여성문제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서의 ‘여성주의’를 고안하고 만들어내려는 의지에서 시작된 잡지. 『두입술』은 비로 불만함과 부당함을 감추며 다물고만 있었던 두 개의 입술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전복적인 일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간호

있는 제호인 셈이다. (문의: 연세대 총학생회실 361-3645)



글 황금희 객원기자

기독교 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아홉 돌

기독교계의 남성중심성과 여성차별 관행에 반기를 들고, 자율적이고 평등한 여성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지난 89년 문을 연 여성교회(목사 장숙자)가 지난 10월 18일 9번째 생일을 맞았다.

여성교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기존의 교회와 다르다. 장로, 침례, 순복음 등의 교파를 초월해 전 여성기독교인을 포용하는 초교파주의다. 목사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인 예배형식도 거부한다. 동그렇게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설교와 축도도 목사가 아닌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드라마예배는 여성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것을 신도들이 직접 드라마로 꾸며 성경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번 9주년 행사 때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거기 너 있었는가’란 제목의 드라마 예배를 진행했다. 일본의 국민기금을 반대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배상을 촉구하는 할머니들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다. 여성교회는 지난해 3월에 해외이주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만들어 해외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예배를 주관하고 있기도 하다. (문의: 266-1850)



여성교회 9주년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은희경 장편소설



모든 사랑은 반칙이다!

사랑과 결혼의 통념을 뒤집는 은희경의 파격적 상상력!

은희경식 독설과 농담이 돋보이는 작품. 자유분방한 사랑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결혼에 관한 우리 통념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 차 있는가를 드러낸다. —조선훈

고전적인 사랑이 발붙일 곳을 잃어버린 세기말의 ‘가벼운’ 사랑을 이야기한다. 사랑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버린 세기말의 세태에 대한 서글픈 때문에 배면에서는 오히려 독한 슬픔 같은 것이 묻어나온다. —세계일보

30대 이혼녀의 삶을 통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린 이 소설은 대중적인 소재와 팝송처럼 경쾌한 문체로 휴먼력 있게 독자를 사로잡는다. —경향신문

여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먼 곳에서 와서 무릎을
꿇었기에 작은 몸 안에
이토록 많은 배반과 그리움이
슬렁이는 것일까

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전경린 글 임택수 그림



‘정념과 귀기’의 작가 전경린이 탐사하는 삶보다 숭고한 여자의 근원

여자의 혼은 생래적으로 야성이며 반반이고 몽환적이고 유랑적이다. 여성성의 절정에 이르러서 그녀는 아이덴티티를 추구한다. 우리들의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는 그 무엇, 또는 그만한 문명화되지 않은 어떤 것을 그녀가 갖고 있음이 내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기차역같이 두렵고도 그림다. —해수아(소설가)

늑대를 안에 감춘 선녀. 그리고 선녀였던 늑대. 무뎠 여자란 선녀인 동시에 늑대인 것. 이 대목이야말로 전경린적 여성주의의 어떤 차원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 —최재룡(한겨레 신문 문화부 기자)





- 52 집중취재 | 여성들이 말하는 불감증과 성욕 권혁란
- 60 고대그리스의 에로스와 동성에 김이광재
- 66 미국의 페미니스트가 고백하는 '섹스와 여성해방운동'
- 72 프랑스 식수와 이리가레가 제기하는 '쾌락' 이용지
- 78 영화분석 시네마는 여성의 쾌락을 알지 못한다 유채지나
- 84 여성의 몸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의 수난사 유성혜
- 88 사회적 분석 '밝히는 여자'가 왜야하는 이유 변혜정
- 92 20대의 성 다시 치러야할 처녀들의 성찬 임소연
- 98 사례 10명의 여자가 밝히는 오르가즘이야기
- 114 수다방 | 여자들의 점심식사



특집

오르가즘을 찾아서





오르가즘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여성들이 말하는 불감증과 성욕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성교시의 쾌감의 절정.' 국어 사전에 나오는 '오르가즘'의 사전적 풀이다. 정신과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빚어내는 행복의 현상. 그것이 인간의 오르가즘'이라고 풀이한다. 일반인들은 그걸 보통 우스개소리로 '뽕 갔다' 혹은 '홍콩 갔다 왔다'는 말로 표현한다. 그 어떤 이야기이건 오르가즘이란 보통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아니 '성'에 대한 담론과 여성의 성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다. 전여옥은 『여성이며, 느껴라 탐험하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성경험과 몸에 대한 생각을 '뽕얼굴' 그대로 이야기했다. 비록 여전히 성기 중심적으로만 여성의 성을 왜곡하여 표현한 문제는 있지만 '여성도 성욕이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한 <생과부 위자로 청구소송>이란 영화도 개봉되었으며,

<처녀들의 저녁식사>, <정사> 같은 영화들도 개봉되어 어둡고 비밀스럽던 성담론을 대담하게 펼쳐보였다.

여성지 기사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아하지 않게 열린 화장을 하고 남편을 기다려라', '아한 실크잠옷을 장만하라', '낮에는 현숙한 주부로, 밤에는 섹시한 요부로 꾸며라' 등 남성의 성충동을 자극하고 남성의 오르가즘에 봉사하도록 노력하라는 기사들 대신에 '10년된 부부도 모르는 성', '여자의 몸 대탐험, 해피섹스' 등의 이름을 달고 솔직하게 여성의 성에 대해, 몸의 쾌감이 어떠한지에 대해 파트너와 대화하라는 기사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렇게 성담론이 본격적으로 얘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직도 말 못할 '성 트리플'로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어른들이 입다문 사이 아이들은 음란비디오로 성행위를 배우고, 섹스에 병적으로 탐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30대의 많은 기혼여성들이 한번도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 성에 대해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여성의 쾌락과 오르가즘에 대해선 늘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부터 여성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오르가즘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무엇이 방해하는가

"당신의 성생활은 어떠냐"는 질문을 던지면 일단 사람들은 '별 걸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 속스럽게 웃어버렸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데 문제는 없는가"고 다시 물어보면 그때서야 조금 진지해져서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하긴 누가 물어보았겠는가. 자기자신에게도 물어본 적이 없을 만큼 성생활은 '몰어둔 문제'였기 십상이다.

웬만큼의 성경험을 가져본 30, 40대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순결교육 이외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세대다. 의식있는 여자들조차 남자와 한번 '자면', 그 남자와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던 세대. 그들 중엔 이런 콤플렉스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도 있다.

박승희(가명, 35, 논술강사)씨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 사랑했던 남자와 이별한 후(섹스경험 없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 남자와 첫 성경험이 있던 날, 나의 처녀성(?)을 입증해 줄 '혈흔'을 그가 볼 수 없도록 시트로 가려버렸다. 성경험이 풍부하다는 남자에게, 내가 그 부분에서 무지몽매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가 않았다. 처음은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그런 첫날밤의 기억을 안고 결혼한 후 "온몸의 기운이 어느 한 구석으로 쏠려버리는 것" 같은 오르가즘의 느낌을 몇 번 느껴긴 했지만, 남편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

우리는 성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 성에 대해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여성의 쾌락과 오르가즘에 대해선 늘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각하면서부터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그만두었다. 반응을 그만둔 정도가 아니라 역 반응을 일으켰다. '어떤 종류의 스킨십도 싫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어 섹스를 하게 될 땐 눈물이 다 나온다. 그럴 땐 차라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서라도 내 몸을 안 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랑했지만 '너무 뭘 몰라서' 그리고 '결혼 전엔 하면 안 될 것 같아' 한 번 자보지도 못하고 헤어진 옛사랑이 너무 후회된다. 그녀는 자신의 불감증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섹스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의 남편과 첫경험을 한 사실을 스스로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이영인(가명, 34, 프리랜서 작가)씨의 경우는 낙태에 대한 죄의식이 오르가즘을 가로막는다. "결혼 2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섹스를 시작했어요. 결혼할 거고, 사랑하는 데 자는 게 뭐 어때냐는 그의 논리에 동조한 셈이에요. 그러다가 임신이 됐고 낙태를 했어요. 둘 다 많이 울었지만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일들이 상처가 깊었나 봐요. 그와 결혼하고 같이 잘 때마다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이 싫어요. 내 몸은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저 켄터버린 나쁜 죄,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쾌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마약 오르가즘에 오르려 할 때, 그냥 그만 하고 싶어져요."

33살의 전업주부 민선영(가명)씨는 "생리 하기 2~3일 전이면 내 몸에서 묘한 기운이 생겨요.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따스한 스킨십이라도 하고 싶지만, 남편에게 말하기가 꺼려져요"라고 털어놓는데, 남편은 그보다 열 살이나 더 많고 그래서인지 아내의 성적인면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다고 한다. 일로도 무척 지쳐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보수적인 사람이라 "만약 먼저 암시를 주거나 표현하면 날 이상하게 볼까 겁이 난다"는 것이다. 간혹 길에서 수영이 승승나거나, 좀 허술한 옷차림의 남자(남편과 정반대의 타입)를 보면 같이 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몸매도 자신 없고 미모에도 자신 없고, 그런 걸 밝히는 여자로 보면 어찌느냐"며 그냥 포기한다고 말한다. 이도저도 안 될 땐 가끔 '마스터ベーション'을 하는데, 그럴 땐 '잘게나마 반드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단다. 그녀의 성적인 욕구는 성관계에 들어가보기도 전에 '정숙한 여자' 신드롬에 의해 차단당하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흔히 남편에게 "몸을 대준다"는 표현들을 하곤 한다. 41세의 전업주

부 김진선씨(가명) 역시 그런 상태다. "섹스건 오르가즘이건 이런 관심 없다. 이 나이쯤 되면 다들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가 남편과의 성관계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으면 돼요." 40대 이후 여성들 중엔 성적인 욕구에 아주 초탈한 모습을 보이는 여성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들은 생활고에 아이기르기, 살림하기, 그리고 한국남자에 적응해서 살다보면 성적인 욕구는 이미 남의 집 일일 뿐이라고 말한다.

엄허버린 상처와 증오를 풀어야

여성의 경우 성욕이 최고조일 때가 30대 이후이고, 남성의 경우 20대라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지만, 사례에서 보듯이 대개의 경우는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 30대 기혼여성들의 경우 이미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도 그렇지만 성적으로도 크게 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외도를 선택한 여성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예 엄격한 자기검열을 거쳐 몸속의 성욕 자체를 거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0대 이후에 노련한 성경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불륜이든, 매춘이든 '외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남성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게다가 여성에 대한 최고의 가치기준이 '외모'인 사회분위기는 가혹이나 임신과 출산으로 '몸매에 균형을 잃은' 여성들의 자신감을 뿌리째 흔들어버린다. "성관계를 하다가도 내 몸의 군살이 느껴지거나 남편의 손이 그 쪽으로 가면 정신이 번쩍난다"(이영인)거나 "내 몸을 생각하면 낭만적인 섹스를 상상할 수가 없다"(박미선, 가명, 36, 주부)는 고백이 그런 예이다.

정신과 의사 배종훈씨(오산신경정신과 원장)는 "오르가즘 장애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여성들 대부분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에 서 어긋나는 경우, 상대에 대한 불신이나 무언의 복수심이 모두 마음에서 몸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몸이 그대로 반응을 멈추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 반응 자체가 증오나 분노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 성욕이 전혀 없다는 말 역시 "마치 식욕이 없다는 말처럼 거짓말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보다는 남편이나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말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



Foto Ag. MAFKA



속에 있는 성욕을 거부하고 포기한다는 것.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의 섹스파트너에게 어떤 식으로든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많이' 해주어야만 여성이 오르가즘에 오른다고 믿는 신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성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취재에 응한 많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단순히 횟수나 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인데, 그러면서도 여성들은 자신이 쾌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파트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여성 자신도 자신의 몸의 구조나, 쾌감에 대해 아주 무지하다는 것이다.

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소장 양혜경)에는 한 달 평균 400여 통의 상담전화가 온다. 이중 60여 통 정도가 성에 관한 상담. 이 상담소의 연구과장 안혜성씨는 "기·미혼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자신들의 성에 있어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말하지만, 여자들은 나이가 많은 적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지적한다. 상담을 요청하고도 막연히 "성관계가 싫다", "나는 좋은데 남편이 거부한다. 요구하면 이상하게 볼까 겁난다"는 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문제에는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여성들 자신이 자기가 억압된 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조차 모르고

무엇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에는 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충고한다. 즉 '여자도 성적인 지식을 갖추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느끼는가

남자가 '순간적인 성충동'이나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본능'을 가졌다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상당히 관대하다. 그러나 불공평하게도 여자들의 성본능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취재중에 만난 많은 여성들은 성경험을 갖기 전에 이미 '자위행위' 즉 '마스터베이션'을 해봤다고 대답했다. 중·고등학교 때, 드물게는 초등학교 때 해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답을 하면서도 스스로 멧멧하게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8세의 한 여성(회사원)은 "내 몸에 나쁜 피가 흐른다는 기분이 들어서 꺼려진다"고 고백했는데 이처럼 젊은 시절 자위를 하고 싶다는 성욕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불결하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정신과에서 자위는, 오르가즘 장애를 겪는 여성에게 권하는 첫번째 치료방법으로 통하고 있다. 배종훈씨는 "여성들도 능동적으로 자기 몸의 구조와 쾌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마스터베이션'을 권했다.

여성도 자신의 오르가즘을 책임져라

자기 몸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여성의 사례와 자신의 성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자.

김지은(가명, 35, 학원강사)씨는 자기 몸의 쾌락을 탐색하는 데 바로 '자신의 몸'을 쓰고 있다. "성행위에 대한 거의 모든 걸 소설을 통해 배웠어요. '꿀짜기'나 '무성한 숲'이니 '풍만한 엉덩이', '발기한 젖꼭지'니 하는 단어를 따라 어떤 남자가 내 몸을 만지는 걸 상상하면서 만져보다가 '우연하게' 거기서 오는 쾌감을 느꼈어요. 병적으로 빠져든 것도 아니었고 죄의식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남자를 사귀고 있어도 가끔 마스터베이션을 한다는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자위를 통한 오르가즘을 맛본 김지은씨는 결혼을 하고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섹스 채워나 성교삽입을 하면서부터는 별다른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내가 자위할 때 느끼는 오르가즘이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에게 내가 어느 곳을 애무할 때 '절정'을 느끼는지를 숨김없이 말하는 편이에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25세의 광고영업직원 전영미(가명)씨에게는 정래놓은 섹스파트너가 없다. 그녀는 "내 몸이 섹스를 즐긴다는 것을 안 것은 첫 섹스 때였다"고 말할 만큼 솔직하다. 자신의 몸이 섹스하기를 즐기고 누구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자신과만 섹스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가 지키는 원칙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상대와 함께 한다"는 것.

최근에 성격차이로 이혼한 정경희(가명, 37, 작가)씨는 얼마 전부터 사귀게 된 연하의 남성과의 섹스에서 '절정'을 느낀다. 이혼사유가 성적인 트러블이 아니었지만 이전 배우자와의 섹스가 원만치 못했음을 인정한다.

"남편과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적인 억압이나 금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덩달아 나까지 결벽증이나 강박관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만난 지금의 파트너와는 어떤 행위를 해도 불결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나는 섹스하기를 즐기는 나 자신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살아 있는 감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지요. 섹스를 할 때 최대한 내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랑의 감정을 더 나눠가지기 위해 힘을 기울여요. 섹스하기 전에 몸을 열기 위한 전희의 요구에서부터 파트너의 경직된 몸을 풀기 위한 안마에 이르기까지, 또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하는 말과 소리까지 숨김없이 나

"내가 자위할 때 느끼는 오르가즘이 '클리토리스오르가즘'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에게 내가 어느 곳을 애무할 때 '절정'을 느끼는지를 숨김없이 말하는 편이에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타내요.”

그녀가 섹스에서의 오르가즘에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이렇다. “내 마음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대견스러워 하듯이, 내 몸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요즘 때면 오르가즘에 오르지만 일상생활에선 오히려 결혼 전보다 성적인 집착이 없어졌다”고 자인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히려 몸이나 성에 대한 억압과 금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늘 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나기가 퍼붓고 난 뒤의 깨끗한 풍경처럼 말장게 갠 느낌”,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잠이 잘 올 것처럼 편안함 느낌”이라거나 “온몸의 마디 마디가 긴장했다가 펴 풀어지는 순간”, “온몸의 에너지가 어딘지 모르는 한 곳으로 쏠리는 정점의 순간” 등으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오르가즘을 설명했다. 어떤 이는 “내가 상위체위일 때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섹스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서 오르가즘을 느낀다. 동지적인 느낌이 드는 남자가 생기면 천천히 탐색해 보겠다”는 이도 있었고 “성기삽입이나 그런 것 말고 그저 좋아하는 사람의 뜨거운 눈빛이나 꼭 손가락의 느낌에서 충일감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었다.

걸어야 몇 분에서 짧게는 몇 초에 불과한 ‘오르가즘’, 고도로 집중된 에너지인 그것은 각자의 삶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르가즘은 가만히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남성이 주는 선물’이 아니며, 또 정신적인 억압이나 인간관계에서 생긴 분노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자신의 쾌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오르가즘’으로 가는 비상구를 찾는 일은 가혹하지만 여성 자신에게 달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권혜란



“할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무디 마소...” 가을이 깊어지면서 뜻도 없이 가끔 한 구절이 입 속에 자꾸 떠올랐다. ‘오르가즘’ 기사를 쓰느라고 더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 자신 없이 배우기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글을 썼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고 중간중간 자기검열을 하느라 힘들었다. 누군가는 자의식과잉이라 탓하겠지만, 깨달은 것 한가지는 몸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오르가즘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무척 아름다웠다는 것. 맑게 빛났다는 것... 무디, 내가 만난 사람들과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성’의 오르가즘 찾기에 더욱 힘을 기울이기를,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성과 섹스에 관한 성치료학적 이해

사랑의 관능이

상실된 이에게

♥ 아보다 K. 오피트 저 / 김종주 역



★ 신국판 / 368쪽 / 값 10,000원

우리는 성적으로 민감한 여성을 ‘밝힌다’고 매도해 왔다.

그러나 오르가즘을 잘 개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이며, 책임이다.

여성의 오르가즘 / 혼외 정사 / 월경과 섹스 / 펄라티오 / 남자의 바람기 / 오르가즘 혁명 / 임신과 섹스 / 수유와 섹스 / 중년의 상생할 / 남포대니아 / 동성애 / 식욕과 섹스 / 자위 행위 / 항문 섹스 / 콘돔링구스

아보다 K. 오피트 정신과 의사, 성/의료사, 코넬 의대 정신과 교수, 뉴욕병원 의사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 에스터 빌라 저 / 안인희 역



★ 신국판 / 225쪽 / 값 6,500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결혼하는가?

“결혼이란, 위대한 사랑도 위대한 우정도 나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아울러 사랑도 그리고 우정도 모두 나눌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 프리드리히 니체

나는 갈구한다, 고로 아름답다



고대그리스의

에로스와

동성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화살을 당기고 있는,

마치 덧없는 사랑이 사라질 때의 상징처럼,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작은 꼬마신이 에로스(Eros) 또는 큐피드의 이미지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사회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호머 이전 시대의 시인이었던 헤시오드는 그의 저서 『테오고니(神統記)』에서 “에로스는 바로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존재했다”고 말한다. “첫번째, 무질서가 있었다. 그리고는 이 넓고 광활한, 영원한 지구와 에로스가 만들어졌으니...” 헤시오드는 처음부터 에로스(사랑과 섹스)는 인간의 삶과 행복을 주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사랑’이란 단어처럼 광범위하게, 또한 그토록 모호하게 사용된 단어도 없으리라. 그리스신화에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비너스라고도 하며 에로스의 어머니)는 에로스의 화살을 이용해 수많은 사랑의 포로들로 그녀의 왕국을 수놓고 있다. 이 사랑의 여신은 호머의 서사시에서부터 그의 마지막 작품

까지 또는 당대의 비극에 이르기까지, 그 강력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사랑의 정의, 소위 아가페적, 에로스적인 사랑의 구분은 사실 플라톤이 그의 명저 『심포지움(향연)』에서 ‘세속적 아프로디테(Common Aphrodite)’와 ‘천상의 아프로디테(Heavenly Aphrodite)’라는 두 용어로 개념을 정의한 것에서 비롯된다. 고대 그리스사회에서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결국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좁은 의미로만 통용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사실 고대 그리스사회가 에로스를 찬양했던 것은 고대의 유명한 비극작가 소포클레스의 희곡 〈안티고네〉 중 한 섹시가 말해준다.

무적의 존재, 사랑이여!

그대는 아리따운 처녀의 뺨 위에서

부자전 거렁뱅이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심지어는 광활한 바다를 건너

그대 가까이 지나는 모든 이를 굴복시키나니

우리 인간 중 어느 누가 이 비참하고 쓰디쓴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대의 손아귀를 벗어날 자 있으리오.

그리스신화의 대표적인 존재인 제우스나 포세이돈과 같은 신들이 인간과 벌이는 사랑은 초인간적인 영웅을 탄생시켰고, 인간의 선을 위해 싸우는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근본이기도 했다.

호머의 서사시는 시적 에로티시즘으로 가득 차 있다. 여신들과의 미의 경쟁에서 황금의 사과를 차지하여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임을 과시하기 위해 아프로디테는 파리스 왕자에게 세상에 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을 나누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지만, 에로스의 화살이 매넬레오스 왕의 부인 헬렌에게 향하는 순간 당황스럽게 자리를 뜨고 만다. 헬렌에 대한 파리스 왕자의 눈먼 열정은 결국 트로이를 멸망케 하는 십여 년 동안의 비참한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플라톤이 말하는 ‘천상의 아프로디테’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심주제이기도 한데, 에로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신으로 인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가장 숭고한 형태의 에로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그리스 사회에선 에로스라는 단어가 결국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좁은 의미로만 통용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시대의 에로스(큐피드)는 여기의 이미지기보다는 청년의 모습이다.



나는 갈구한다

그렇다면, 미술적 요소가 담긴 에로스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도덕성의 완성과 연관된단 말인가? 여기서 에로스의 개념을 좀더 연구해 본다면, 옛 그리스어에서 *ερώ*(에로스)는 단순히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갈구하다', '열망한다'라는 뜻을 지닌 아주 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이 단어는 '나는 나의 부족함을 메꾸고 싶은 열망으로 끊임없이 갈구한다'라는 긴 해석을 허용하는데, 그 심리적인 갈구가 훨씬 깊은 내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수동적인 만족감'에 비해 에로스는 '지혜와 용기'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지혜와 용기의 연인이며 승배자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철학에 있어서 에로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된다. 해바라기가 해를 좇듯이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향한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의 발달된 문화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의 지성이야말로, 인간의 재생산과 관계없이, 인간 자체의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이미 깨달았다. 즉 고대 그리스의 에로스적 의미는 육체적 쾌락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육체적 접촉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리스인들은 에로스를 통해 인간의 삶을 지탱하려 했고, 더 나아가서는 에로스를 통해 청신불멸의 영원성을 얻으려 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실 그리스시대의 벽화나 그림, 조각들로 유추해 볼 때 인간의 육체에 대한 그들의 탐미적 시각을 느낄 수 있고, 남녀관계의 에로스는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그들의 동경과 찬미 속에서 더욱 옹호된다. 항상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 남자들의 특별한 우정관계에서 에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윤리, 도덕관이나 말로 남자간의 우애의 비밀이었으며, 강렬한 용기의 원천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육체 속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그리스인의 생각은 '페테라스티'라는 사적 교육기관을 만들게 하고 또 올림피경기기를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그 특권에서 제외되었다. 여자들은 또한 가정과 여자들의 영역에 한정되면서, 남자들은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동경의 대상을 남자에게 물리게 된다.

그렇다면 여자들의 세계는 어떠했을까 하는 우리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적다. 남성중심적 우주관 속에서, 여자는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것이다. 단지 플라톤의 『신포지움』에서 레즈비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행동반경이 한정되어 있는 그들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남편에 의해 소외당한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

저 성적 불만족을 해소하는 자위행위였거나 동성적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뿐이다. 사실 밀레토스라는 고장에서 자위행위의 기구인 인공남근이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판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당시 밀레토스의 여인들을 비모아 '비비대는 여인'이라고 불렀다.

레즈비언이라는 말 자체는 레스보스라는 섬에서 유래되는데, 이 섬은 여성들 사이에 특별한 우정관계를 향유했다는 점과, 사포라고 하는 B.C 7C경에 활동한 유명한 여성시인으로부터 출발한다. 루치안의 작품 『두 헤타이라 여인의 대화』(헤타이라는 기생과 공녀를 합쳐놓은 일종의 고급 창녀다)에 나오는 동성애 장면을 실어본다. 돈이 많은 레스보스섬의 한 헤타이라 여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녀와 데모나사는 나에게 기타라(현악기 이름)를 쳐줄 것을 부탁했고 얼마 후 술이 취한 메길라는 나에게 말했다.

"침대로 가자. 레오니아,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자는 게 어떻겠어? 너를 가운데서 재워줄게."

그들은 남자처럼 내게 키스했어, 내 입 안에 혀를 넣었다구. 그리고 내 가슴을 어루만지는 거야. 데모나사는 키스하면서 나를 깨물기까지 하더라니까. 얼마후 메길라는 자신이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던지면서, 근육질의 운동선수처럼 바짝 깎은 머리를 나에게 보여주었어. 너무나 놀라는 나에게 그녀는 속삭였지.

"나처럼 아름다운 남자를 본 적이 있니?"

"하지만, 메길라, 이 침대에 어떤 남자가 있다는 거지?"

"나를 메길라라고 부르지 마, 나는 데모나사의 남편, 메길로스야."

"그래, 메길로스, 당신은 남자인데 여태 그것을 감추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남자의 그것이 있나? 데모나사와 할 때 말이야."

"아니, 그런 것은 없어. 레오니아, 그것은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것이 없어도 어느 누구보다도 너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구."

"그러니까 당신은 양성이란 말이지? 젖가슴과 양성색스를 다 갖고 있는."

"그렇지 않아. 레오니아, 나는 다른 여자와 똑같애. 하지만 나의 성격과 욕망은 남자와 다른 것이 없어. 이리 가까이 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 했어...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말아줘. 너무 음탕해서... 아프로디테 여신께 맹세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구.

여성간의 성행위가 어떤 장르의 예술형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이 행



아프로디테, 욕망신과 에로스

소년을 만지작거리는 남자(위)
B.C 6C경에 그려진 아테네인들의 섹스파티 중 한 장면(아래)





사포 그녀는 여자를 제외시키는 남성중심적 우주관에 대해서 레스보스 젊은 여자들의 교육을 위한 '여성페데라스티'를 결성했다.

위가 남자 동성간의 행위와 달리 극히 제한된 일부 계층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동시에 남작예술가의 창작소재로도 흥미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여겨진다.

앞에서 언급한 '페데라스티'는 청소년의 이상적 인격형성을 위해 스승과 더불어 지내면서 덕과 지혜를 익히는 일종의 사교육기관이다. 여자는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재능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여자들은 그리스사회를 형성하는 어떠한 가치체계나 도덕관을 향유하거나, 그 형성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자들의 미덕의 기준은 무엇이었고, 여자들의 세계에서 그 미덕이 어떻게 표현되었고 또 증명되었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할 길은 없다.

단지 플라톤의 찬미를 받은 사포의 존재와 남성지배적인 사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그녀의 용기와 재능으로부터 고대사회 여성들의 지적 존재를 상상해 볼 수 있을 음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한 식귀를 적어본다.

뮤즈의 여신들은 모두 아홉이라고 하지?

그건 틀렸네 그러

열 번째의 뮤즈가 누구인지 아냐?

이 여자를 보게나.

레스보스섬의 사포일세.

사포는 여자를 제외시키는 남성중심적 우주관에 대해서 레스보스 젊은 여자들의 교육을 위한 '여성페데라스티'를 결성했다. 레스보스섬에 그 당시 혁신적인 '미인대회' (지금의 미인대회와는 성격이 아주 달랐음)가 있었던 사실로 보아, 이 섬의 문화가 상당히 진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인대회는 매년 헤라의 신전에 서 일종의 제사의식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여성전용 올림픽행사라고 할 수 있겠다. 여자선수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그들의 재능과 덕을 발휘했는데 그 당시 존재 하던 많은 여성들의 씨름 중에서 사포의 씨름이 가장 뛰어났고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그녀는 사실 젊은 여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역할을 수행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군사적 남성주의가 숭배되던 가부장적 문화에서 사포는, 그녀의 여성적 감수성만이 감지할 수 있는 서정성으로 남성주의적 제도에 대항한다.

어떤 이들은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행진하는 남자들이라고도 하고 말을 탄 기사라고도 하네,
또 어떤 이들은 바다 위의 배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사포는 결혼해서 슬하에 딸을 두었고 남자들과 사랑에 빠졌고, 결국 한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목숨을 끊는다. 젊은 처녀들은 사포의 제자로서, 그녀로부터 춤과 음악 그리고 여성적 우아함의 비밀, 매너 등을 배웠는데, 이것은 부모들의 사포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무리 진보적 사회였다 하더라도, 그녀의 행동이 조금만 사회적 규범을 벗어났다면 결코 자식의 교육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처녀들은 결혼 전의 준비기간에 교육을 받았고, 사포는 자주 자신의 제자들의 결혼식에 참여했다. 오랫동안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자신의 곁을 떠나는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그녀의 슬픔과 향수는 참으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B.C 6C 경의 그리스사회에서 이렇게 뛰어난 재능과 품성의 여인을 포용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그녀의 대담성에 질투적인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 그녀의 작품세계에 담긴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에 위협을 느꼈던 그녀의 동시대인들에게 우리는 올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만한 남자, 파오나스를 사랑한 사포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 레프카의 높은 벼랑에서 바다로 몸을 날려 자살하고 만다. 그녀의 섬세한 감성을 담은 시 한 구절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슴에 성령 다가온다.

사파나무 저 꼭대기

한 개의 달콤한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다.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아주 높은 가지에서

-누군가 저 사과를 따는 것을 잊었나봐.

-아니, 잊은 것이 아니에요. 손이 닿지 않았던 것뿐이죠. 11

김이강재

오래된 영혼을 가져서일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에, 서울과 같은 땅보다는 네덜과 같은 높은 곳에 더 관심이 많다. 한국에서 산 세월과 외국에서 보낸 날들이 비슷해서일까?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대학을 거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음. 배재대학교 교수를 거쳐 WFN Korea(한국국제여성연맹)의 대표로 있다. 'Engaged Art & Historical Novel'이라는 영문저서와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김이강재



“여성이여, 성을 노래하라”

미국의 페미니스트가

고백하는

‘섹스와 여성해방운동’

미국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해선 많은 잘못된 신화가 전해진다. 우리 나라에서도 성개방이나 성해방이 논의될 때면 언제나 서구 또는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거론되며 잘못된 페미니즘의 조류로 그들의 성이론이 들먹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성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한국의 여성들이 오르가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쁜 걸까? 오르가즘에도 국경이 있는 걸까? 미국 또는 서구의 여성들은 한국의 여성들과 성기구조가 다른가? 미국의 여성들은 왜 여성운동에서 성해방을 이야기하고 오르가즘을 이야기했을까?

다음은 미국의 초창기 여성운동시절인 1968년부터 뉴욕에서 활동하던 한 페미니스트의 고백이다. 미국의 래디칼 페미니스트그룹인 레드스타킹에서 펴낸 『페미니스트혁명』(Feminist Revolution, 1978년판)에 수록된 그녀의 고백은 성담론이 붓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는 98년 한국의 상황에서 더욱 우리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도 나 자신의 성의 역사와 내가 여성해방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내가 처음 여성해방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스물세 살 때였다. 난 일아홉 살 때 처음 남자와 잠을 잤다. 난 사랑에 빠진 첫 남자에 홀딱 빠져버려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하게 한번도 오르가즘을 느낀 적이 없었다.

사실 그와는 어떤 종류의 오르가즘도 느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난 혼자서 자위를 해본 적도 없었다. 당시의 나에게 자위라는 것은 감히 상상해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 섹스는 남자와의 사랑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지 남자가 해줄 일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머리 속에 떠올라지는 것조차 이상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됐지는 모르지만 난 남자를 위해서 오르가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마도 그에게 성행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가 섹스가 좋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가 내 위에서 빨리 내려가게, 즉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첫 남자 이후 남자와 잠을 자게 되면 그들은 예외없이 언제나 “좋았어? 그거 왔어? 왔어?”(Did you come? did you come?) 하고 물곤 했고 나 또한 언제나 오르가즘을 느끼는 듯 소리를 지르고 그렇다고 대답하곤 했다. 난 두 가지 생각을 했다. 하나는 다른 여성들은 모두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자들이 나에게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두번째로 나는 여자로서 무언가 심각하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난 남자를 위해서 오르가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마도 그에게 성행위가 끝났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섹스가 좋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가 내 위에서 빨리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미국여성들의 고백

♥ 나는 자위가 애인이 없을 때 성적 긴장을 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위를, 내가 스스로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과 맺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의 생애리듬은 매년 바뀐다. 어떤 때는 애인이 있어도 더 자주 자위를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위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몇 주일이 지나가기도 한다.

♥ 이제 나는 일흔세 살의 할머니이고 성적인 관계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위가 남자와의 성교보다 더 낫다. 이 나이에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 생각 등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 벅치고 설기다.

♥ 나는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탐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위를 시도했지만 몇 분만에 지쳐버리고 말았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재미가 없었다. 내게 섹스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 나는 사위할 때 수도꼭지의 물줄기를 나의 클리토리스에 집중적으로 흐르게 해서 자위를 한다. 나는 샤워시간의 그 짧은 쾌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

♥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남자친구와 잠을 자는 것이 죄악인지에 대해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다가 일어난 논쟁 때문이었다. 나는 죄악이 아니라고 말했고 신부님은 내가 혼전성교를 했다면 결코 정숙한 아내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신부님은 내 죄를 사해주지 않았고 나는 그 다음부터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 나는 마지막 성교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을 다했다. 심지어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오랄섹스까지 했지만 내가 처녀성을 잃는다면 대답해줄 것 이라고 느껴진다. 도대체 그 행위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

♥ 어떤 때 나는 따뜻하게 위로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정서적 필요에 의해 섹스를 한다. 어떤 때는 마치 기분 좋고 나쁜 것이 전부인 어린 시절처럼 안지고 맛보고 냄새맡고 보는 감각 자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섹스를 하기도 한다. 어떤 때 우리는 깨인과 황금여 서로 간지럽히기도 한다. 어떤 때는 섹스가 상당에서 신성한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현실의 긴장감과 내 정신상태의 심

여성들에 비해 성적으로 모자라며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섹시한 여성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나 자신의 성적인 이미지는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셀프 이미지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던 '외모'에 대한 비중과 함께 최우선으

로 중요한 것이었다. 지성이라든가 그외의 다른 가치기준은 외모와 성적인 이미지에 비하면 훨씬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바꿔 말하면 당시 난 아름다워지기 위한 것이나 진정으로 섹시한 여자가 되는 길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바꿀 수도 있었다.

당시 난 진정으로 섹시한 여자는 1950년대 이래로 여성 성경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프로이트의 질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여자라고 추측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지성적으로 뛰어난 여성들이 많았을 것이다. 내 나이 스무 살 시절 남자들에게 "당신의 비밀한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그들은 언제나 "니체와 같은 철학적인 글을 쓰고 싶다"든가 하는 지성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난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여배우 같은 외모를 꿈꿨었다.

그 당시 난, 남자들은 지성을 추구하는 존재고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판단했었다. 그 때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이제 와서 깨닫는다. 왜냐하면 지성을 꿈꾸는 여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금은 알았으니까. 나는 여성들이 매우 지성적이라는 사실을 여성해방운동에 노출되고서야 깨달았다. 지금은 오히려 남자들이 지성적으로 여자들보다 멀어진다고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난 남녀간의 지성의 척도를 흑백논리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어쨌든 난 여성해방운동을 만나기 이전까지 수년 동안 섹시한 여자가 되기 위하여 오르가즘을 가장해 왔고 그때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다. 난 나의 성적인 결격요건을 어두운 비밀처럼 내 속에 깊이 감춰왔다. 여성해방운동에서 성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아니 섹스에 대한 논의가 해방되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단—뜻밖에도 모든 여성들이 오르가즘을 가장한다고 고백했다.



모든 여성들이 질의 오르가즘을 가장한다는 초창기 여성해방운동의 토론 결과 앤 코예트의 그 유명한 『질오르가즘의 신화(The Myth of the Vaginal Orgasm)』(1971년 발표)가 나왔다. 난 그 논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그 이후에 오르가즘을 가장하기를 멈추었다. 그제서야 나의 성적인 반응에 대해서 나 자신 정직해질 수 있었고 그것은 해방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난 아직도 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신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마도 성적으로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뿌리깊은 신화를 내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오르가즘에 대한 다른 여성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그것은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총체적인 무엇이었다. 오르가즘에 관한 한 나는 지금까지도 나 자신의 경험이나 증거가 부족하다.

남녀관계에서의 성문제가 여성들의 페이크 오르가즘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슬라미스 화이엇슨이 1968년에 발표한 『섹스에 관한 여자들의 수다(Women Rap about Sex)』에서이다. 다음 해에 시카고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여성해방회의가 열렸고 이중에는 섹스 워크샵도 포함되었다. 워크샵을 조직한 여성들은 남자와의 섹스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이 진정한 여성해방의 길이며 그렇지 못한 여성은 운동에 대한 배신자 취급을 했다. 그것은 나를 너무 실망시켰다.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나를 분노케 했다.

난 내가 여성해방운동에 관여해도 단 한 순간도 남자와의 섹스를 포기해야



각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섹스를 한다. 어떤 때는 섹스를 통해 사람의 물결이 감동처럼 두 사람 사이에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섹스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기도 하다. 섹스가 주는 그 느낌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 나는 지금 나의 남편과 섹스하는 것을 그 누구하고보다도 좋아한다. 섹스하고픈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 사랑을 한다. 그래도 여전히 섹스가 어려울 때도 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남편에 대해서도 사랑스런 기분이 들고 애들문제나 직장문제, 주변 친지들의 문제가 내게 주는 압박감이 없을 때 우리의 섹스는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족스럽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아이처럼 보채고 싶은 기분이 들거나 주변사람들이 나를 너무 바쁘게 만들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남편과의 섹스도 시들하고 귀찮기만 하다.

♥ 우리는 둘 다 성적으로 매우 흥분해 있었다. 나의 연인은 내 클리토리스를 세게 문지르고 있었고 나는 아팠다. 그러나 아프다고 말하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난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저 그의 손을 잡아다가 조금 위로 옮겨 부드럽게 움직이게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 휴가중이거나 아이들이 없는 주말이라든가 시간이 날 때 우리는 몇 시간이고 서로 쳐다보고 토닥거리고 껴안고 안지고 몸을 꼭 붙쳐서 서로의 몸을 전체로 느껴보며 지낼 수 있다. 그러다가 성적인 흥분이 서로 어떤 지점에 달하면 그때 성교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상 우리는 그 동안 몇 시간 동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 어떤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망이 솟구치는 대로 순간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스릴있게 느껴진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천천히 감각의 작은 디테일까지 오조리 신경쓰면서 섬세하게 사랑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졸리기 때문에 산뜻하게 조금만 먹는다)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쥔다. 그리고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마시지하듯이 오밀아나로션을 발라주며 몸이 서서히 흥분하는 것을 지켜보며 오르가즘을 기다린다. 그것은 마치 오래 추는 섹스댄스에도 같다.

♥ 데이트하는 남성 중에 어떤 남자는 "관입하고 싶지 않으면 '블로우잡(blow job)'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의 페니스를 질 속에 넣고 싶지 않은데 하물며 입 속에는 넣고 싶을 것인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의 오랄섹스란 강간이나 다름없다.

♥ 내 남편은 내가 오랄섹스를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때는 그의 페니스가 내 입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예로틱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정액을 마시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나는 그것을 삼키지 않고 뱉어내거나 그냥 시트 위에 흘려내리도록 한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전혀 입 속을 페니스로 채우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 내가 상위체위로 가서 그의 페니스를 손으로 자극할 때도 있다.

♥ 내 애인이 맨 처음 내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난 뻘컘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서로 보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어떤 때 질 속에서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성교가 끝난 후 서로 오르가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에게 오히려 심리적 안도감을 주었다.

♥ 우리는 섹스가 끝난 후에 서로 부드럽고 길게 속삭이며 웃고 물다가 아기처럼 서로의 품 안에서 잠이 든다.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들은 사실상 이렇게 만족스럽고 친밀한 순간에 이루어졌다.

♥ 마흔다섯 살에 이혼한 나는 요즘 10대 소녀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다. 나는 데이트도 나가고 짝사랑에도 빠지며 처음 만나 데이트한 남자와 잠을 같이 잘까 아니면 그에게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릴까를 고민하여 지내는 것이다.

♥ 아이가 생긴 다음에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둘 다 성적인 욕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의 부드러운 살을 만지며 그 아이의 작은 몸이 내 몸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느끼며 나는 거의 성적인 절정을 경험한다. 나의 성적인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성격이 변한 것만은 확실하다.

♥ 결혼이 끝난 다음에 어떤 남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나는 그 남자로 인해 처음 오르가즘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야성적이며 미칠 듯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한다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 사실 그 당시 내가 남자와 맺는 관계는 성적인 것 밖에 없었다. 성적인 관계 안에서 언젠가는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랐고 그것이 내가 그 당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의 전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워크샵에서 바닥에 앉아 있던 어떤 여성이 용감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잘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은 다음부터 나의 질도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전에 나는 질에서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클리토리스걸이어서 성교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아기를 낳은 다음부터는 질에 오는 느낌이 좋아서 지금은 성교를 아주 좋아해요."

그녀 이후 모든 여성들이 서로 자신들의 솔직한 경험을 털어놓았고 그것은 기가 막힌 섹스 워크샵이 되었다. 한 여성은 자신이 남편과 섹스를 하고 절정에 오를 때 둘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고 말을 했다. 성적인 환상에 대해서도 온갖 얘기가 다 나왔다. 어떤 여성은 "난 내가 강간당한다고 상상을 해야 성적인 흥분을 느껴요"라고 이야기했고 '피해성' 환상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거의 합창을 하듯이 동의했다.

나는 이쯤에서 그 워크샵에는 30~40명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여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혼이다. 난 언제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한다. 물론 그룹이 나뉘어져서 의견이 통합되지는 않는다. 자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여기서였다. 한 여성은 "여성해방운동 그룹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경험을 토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그 일원이 될 줄은 몰랐다"며 자신의 성에 관한 환상을 이야기했다.

이 워크샵에서 여성들이 느낀 흥분감은 여성해방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도 전달되어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성경험과 자위, 섹스가 그들의 인생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성에 관한 이슈가 터져나오자 여성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섹스에 대한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 한번도 감히 자위를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신의 몸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다. 나는 여성해방운동과 성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더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현장이었다. □

편집부

〈나쁜여자가 성공한다〉 작가

김신명숙 발굴소설

불꽃의 자유혼

허난설현

(전2권)

조선 제일의 국제 베스트 셀러 시인
인습에 도전한 선구적 여성주의자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다. 조선에 태어난 것이 한스럽다.'

1563년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여덟 살에 이미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이라는

빛나는 글을 지어 여신동으로 소문났던 난설현 허초희.

하늘이 내린 시재(詩才)와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위주의 조선사회에서 억눌리고 고통받다가
스물일곱 송이 연꽃으로 스러져간 우리들의 선녀.

천의무봉의 황홀한 시로 중국과 일본의 추앙을 받은 세기적 대시인.

〈홍길동전〉작가 허균의 누이이자

조선여성사의 어둠을 밝힌 한 줄기 선구의 빛.

강렬한 의식과 탄탄한 구성, 숨막히는 문장으로 이름난

김신명숙 발굴 역작.

이 소설을 시작으로 조선여성사가 새롭게 쓰여진다!

값 각권 7,000원

732-6252 (팩스) 738-1110 도서출판 금토



19세기 (19세기) (19세기)



여성의 성, 메두사인가, 포개진 입술인가?

Her Majesty

식수와 이리가레가 제기하는 '패릭'

19 세기에만 하더라도 여성의 몸, 그리고 여성의 성욕은 병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금기시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남자와 손만 잡아도 임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인여자가 존재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30여 년 전에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금기시하여 여성용 피임기구를 삽입할 때마다 손가락 대신 집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극적인 전기를 이룩한 것은 70년대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낙태합법화 운동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다. 그중에



서도 특히 과격한 입장을 취하던 전위적 그룹인 '정신분석과 정치' 그룹의 중심 멤버인 엘렌 식수와 퀴스 이리가레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여성의 성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메두사

엘렌 식수는 여성욕체의 해방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메두사의 웃음」(1975)에서 여성욕체에 대한 금기를 켜 것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제목부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메두사는 이러한 금기의 대명사이자 상징이기 때문이다.

메두사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고르곤, 즉 바다에 사는 추악한 새 괴물들(모두 암컷임) 중의 하나이다. 그녀의 얼굴은 추악하기로 유명하다. 뿔고고기 괴한 얼굴, 덩수룩한 수염, 한가닥 한가닥이 모두 뱀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 청동의 몸체, 그리고 항상 부릅뜬 눈... 게다가 메두사의 눈은 그것을 본 사람들을 모두 돌로 변하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화에 착안하여 프로이트는 「메두사의 머리」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남성의 눈을 멀게 하는 메두사의 머리를 여성성기의 상징으로, 그리고 눈이 머는 현상을 거세공포의 상징으로 해석하였다. 신화에 의하면 남자는 결코 메두사의 눈을 볼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남성이 여성의 성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메두사의 신화는 여성의 성기, 더 나아가 여성의 성을 드러내 표현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을 되찾을 것을,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할 것을 주장한 식수에게 있어 메두사의 신화가 1차적 공격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신부들이야 별별 말라고 하렴, 우리는 우리의 성기를 내보일 테니까"라는 식수의 유명한 외침은 바로 이러한 금기에 대한 정면도전인 것이다.

식수는 왜 이렇게 과격한 목소리로 여성욕체의 해방을 원했을까? 그것은 여성억압의 근저에는 여성의 성에 대한 억압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는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여성에게 성에 대한 무지를 강요해 왔으며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는 호기심까지도 철저히 억압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탐색하거나 더 나아가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했

남자는 결코
메두사의 눈을 볼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남성이
여성의 성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메두사의 신화는
여성의 성기,
여성의 성을 드러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상징한다.



세르네테 (메두사를 죽이는 페르세우스)



Margo Meacham

남성은 여성의 성적 깨어남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깨어나 여성식의 사랑을 요구할 때 그것은 적어도 남성들의 사고체계 내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며 이러한 무지로 인해 여성은 남성이 만든 여성성의 굴레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성에 의해 정의 내려진 여성성은 진정한 여성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생각된 것이고, 또 한 여성의 독자적인 성적 자질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수에 의하면 메두사의 신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들은 어떤 알 수 없는 여성의 성적 속성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여성의 성에 여러 가지 금기를 부과하고 그것의 발현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통해 여성 자신들조차 자신들의 몸, 즉 자신들의 성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되어 스스로의 몸을 '검은 대륙' 즉,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프로이트 식으로 거만하게 묻는다. "도대체 여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들이 건 최면 속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잠자기를, 어쩌면 꿈꾸기를, 꿈 속에서 사랑받기를, 남자가 다가오기를, 그에게 애무받기를, 성적 쾌감의 절정의 언저리까지 다가가기."

남성은 여성의 성적 깨어남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깨어나 여성식의 사랑을 요구할 때 그것은 적어도 남성들의 사고체계 내에서는 남성들에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깨어난 여자의 사랑이 남성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가? 식수는 이것을 지금까지의 남성중심적(이것을 식수는 남근중심주의라고 부른다) 역사의 산물이라고 본다. 이 역사의 논리에 따르면 "욕망은 차이와 불평등에서 생겨난다. 짝을 이루는 두 항이 평등한 상태에 있으면 추진력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욕망을 일으키지 못한다. (소유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없으면, 투쟁이 없으면 무기력, 곧 죽음이 있을 뿐이다."

식수는 이러한 논리를 험잡이라고 규정한다. 소유를 통하지 않고 교환을 통하여, 동등한, 그러나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개체 사이에서 얼마든지 욕망이 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남근중심주의적 세계질서는 이러한 동등한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살아 있는, 전체가 온전한 여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여성의 성을 아는 것은 온전한 여성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식수는 흥취스럽다고 알려진 메두사를 쳐다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공포스럽다고 믿어왔던 메두사를 바라보고

그녀의 웃음을 편견없이 들어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녀가 죽음을 주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름답고, 웃고 있기" 때문이다.

입술



W. S. Iragaray

「메두사의 웃음」에 의해 긍정적인 가치로 주장된 여성의 성은 위스 이리가레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된다. 이리가레는 "여성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단계는 남성들, 특히 프로이트에 의해 제시된 여성성, 즉 남성의 입장에서 본 여성성에 대한 비판이며 둘째 단계는 여성의 입장에서 본 여성성의 특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 즉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은 주로 「다른 여성의 반사경」(1974)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의 성적 일원론을 비판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리비도는 오직 한 가지, 즉 남성적인 것뿐이다. 이것은 그가 리비도를 능동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프로이트에게 있어 능동적인 것은 곧 남성적이며, 반대로 수동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과 동의어로 쓰인다.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의 재독서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차이를 남성적인 것 하나로 환원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이론 근처에 깔려 있는 남성적 편견을 드러낸다.

이리가레의 공격의 주 대상은 프로이트의 성문화 이론의 핵심인 거세 콤플렉스의 문제이다. 프로이트는 거세 콤플렉스가 남녀에게 각각 다르게 작용하고 이것은 남녀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 때 남녀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남근의 존재 유무이다. 즉 남자아이는 남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세를 두려워하고 여자아이는 자신이 이미 거세되었다는 것을 알고 남근을 선망한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프로이트의 태도가 시선을 중요시하는 남성적 편견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남녀의 성차를 가시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에 의하면 보이는 것에 대한 중시는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남근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성적 특질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다른 성기구조를 가진 여성의 에로티시즘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성의 논의의 제2단계, 즉 "여성성의 성적 특질은 무엇인



여성 성기는
눈에 잘 띄는 남근과 같이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접촉하는
두 개의 입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를
만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라는 문제로 넘어간다. 이리가레는 「하나가 아닌 성」(1977)에서 시각이 남성적 감각이라면 여성적 감각은 촉각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에 의하면 여성은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에서 더 큰 쾌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여성의 성기구조와 관련이 있다. 즉 여성 성기는 눈에 잘 띄는 남근과 같이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접촉하는 두 개의 입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은 스스로를 만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까닭에 여성은 특히 촉각에서 쾌감을 느낀다.

여성의 성적 쾌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복수적이라는 점이다. 남성의 쾌감은 오직 하나뿐인 성기, 즉 남근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의 성기는 복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기의 구조 덕분에 여성은 여러 곳에서, 심지어는 온몸에서 쾌감을 느낀다.

여성에게 성기관이 없다고? 그녀는 적어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결코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녀는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녀의 성적 특질도 항상 두 개 이상이다. 그것은 복수적이다. ... 정말이지 여성의 쾌감은 예를 들어 능동적인 클리토리스와 수동적인 질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클리토리스의 쾌감이 질의 쾌감으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각각 따로 여성의 쾌감에 공헌한다.

마돈나와 최영미를 환영하는 이유

정상적인 여성의 성적 발달과정은 음핵기에서 질기로의 전환을 수반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앤 코트트는 1968년에 이미 「질 오르가즘의 신화」라는 논문을 통하여 이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여성의 성적 쾌락의 중심은 클리토리스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리가레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구분조차 무의미하며 여성은 도처에 성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처에서 쾌락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리가레의 주장은 너무 생물학적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남근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성 성기를 여성성의 근본으로 삼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부학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남근이 남성성의 모든 것이 아니듯이 여성의 성기 또한 여성성의 모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수와 이리가레의 중요성은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여성성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여성의 생리현상이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남성들이 규정한 여성성에 대항하여 여성 고유의 성적 특질을 찾기를 주장한 이들의 문제제기는 그 자체만으로 커다란 의의를 갖는 까닭이다. 이들 이후 여성성에 관한 담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실은 이들의 선구자적 역할을 증명한다.

여성의 독자적 경험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대단히 짧으며 여성성에 관한 논의 역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다. 그러므로 여성성의 이론은 초기단계의 다른 모든 이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흐름의 방향은 분명하다. 여성성의 문제는 이제 현대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남은 것은 공개적인 토의를 통해 이를 발전시켜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여성의 성적 경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는 제각기 나름대로 여성성의 본질 규명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돈나와 최영미를 다같이 환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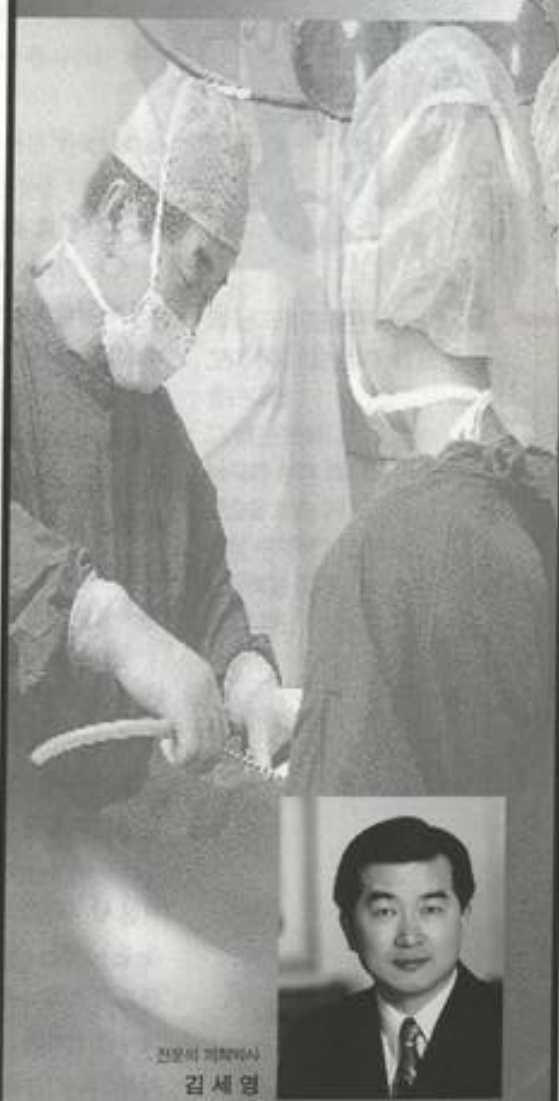


이봉지

5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잠시 기자생활을 하다가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 덕(?)에 프랑스 아닌 미국으로 유학갔다.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88년 귀국하여 배재대학교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소설을 가르치고 있다. 15세, 7세의 딸 둘을 키우고 있으며 자신의 딸들이 남자를 따지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꿈이다.

김세영성형외과클리닉

TEL 515-0030



전문외과 의사
김세영



시네마는 여성의 쾌락을 알지 못한다

보이는 여자, 감춰진 남자

영화는 늘 우리에게 성애에 관한 한 가장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텍스트가 되어왔다. 일반적인 영화와 구분되는 적나라한 성기중심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더라도 많은 영화들이 성애 장면으로 관객의 시선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내러티브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

우리가 그동안 목격해 온 영화 속의 성애장면들이란 대부분 남성의 시선에서 구성되고 남성욕망의 법칙에 따라 배치된 것들이다. 이런 장면들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욕망의 배설구로서 전면에서 가시화되는 반면 그 장면에 참여하는 남성의 존재는 그 흔적이 지워진 채 프레임 밖에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남성의 시선과 결합한다.

에로티시즘 영화의 고전쯤으로 일컬어지는 <나인 하프 위크>(1986, 에드리안 라인)는 킴 베이싱어와 미키 루크의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섹스담에 구두점을 찍어가면서 내러티브를 풀어간다. 어두운 화면에서 남성의 성기삽입운동으로(그러나 이 부분은 어둠 속에 흔적이 묻혀져 있다) 흔들리는 여성의 요동치는 금발과 얼굴을 그윽한 음악과 함께 고정된 카메라가 잡아낸다. 쾌락으로 일그러진 여성의 얼굴과 신음소리가 소위 에로틱하다는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지워진 남성의 소리와 이미지의 빈자리를 메워나간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채찍을 든 남자는 때로 그 채찍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여자에게 개처럼 기고 젓다가 돈을 주우라고 명령한다. 비록 여성이 "No, I don't want it!"이라고 거듭 절규하지만 오히려 그건 남자의 가학적 욕망을 자극하는 양탈 정도로 분위기 돋구기용으로 기능한다.

소프트포르노영화 전문가인 잼만 킹이 유독 한국에서 에로티시즘영화의 대

가로 격상되면서 소개된 일련의 영화들 <루 문 정선>(1988), <와일드 오키드 1, 2>(1990, 1991)에서는 우악스런 남자의 손에 잡히는(부드러운 애무가 결코 아니다) 여자의 몸—주로 허벅지와 엉덩이, 가슴과 머리 등—이 분절되어 전면에서 등장한다. 터프가이가 우악스러운 손 하나로 여자를 만족시키는 장면은 환희에 겨워 넘어가는 여성의 분절된 몸과 얼굴, 신음소리를 통해 에로틱 장관을 연출해 낸다. 그런데 왜 남자의 표정은 보여주지 않는걸까?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뻔하다. 남자가 성적 쾌락에 겨워 떠는 모습을 보는 게 남성 주체적 시선에서 자극적인 리가 없으니까. 이걸 남성의 성적 판타지에 봉사하는 전시용으로 만들어낸 여성의 쾌락일 뿐이니까.

섹스담론에 관한 한 일단 양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영화로 넘어가보면 여성의 몸이 성애장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더욱 확인하게 된다. 노골적인 성애묘사의 원조격으로 여성 섹스모험담을 표방한 <애마부인>(1982, 정인엽) 시리즈들로부터 에로비디오 선봉을 날은 <젓소부인 바람났네>(1995, 한시네마타운)를 거쳐 매춘부여성론을 당당하게 선포한 <과관대문>(1998, 김기덕)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은 더욱 가시화되고 남성은 더욱 비가시화된다. 이런 영화들에서 성애장면들은 남자의 손이 닿자마자 여성의 얼굴은 뒤로 젖혀져 환희에 겨워 몸부림치는 것으로 표현되고 뒤로 넘어간 머리 뒤에 카메라는 좀 더 크게, 벗겨진 가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며,

(나인 하프 위크)의 킴 베이싱어



그러다가 카메라는 허벅지 쪽으로 이동한다. 성적 쾌락에 젖은 여성의 몸을 클로즈업 쇼트들의 연결로 분절하고 이어붙이는 이런 전략은 숨소리조차 죽인 화면 속 남성의 빈자리를 요란스러운 여성의 신음소리로 덮어버린다. 만일 이런 장면이 사실적이라면 그건 당연히 소리지르고 나가자 빠지는 여성 때문인데 그 상대방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술책이 아니라면 바보스러운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비교적 대등하게 성애장면에 몰입하는 것으로 연출한 A급 감독들의 영화인 <경마장 가는 길>(1991, 장선우), <지독한 사랑>(1996)에는 적어도 남성의 몸이 여성과 함께 가시화되면서 되풀



(와일드 오키드)

왜 남자의 표정은 보여주지 않는걸까?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뻔하다. 남자가 성적 쾌락에 겨워 떠는 모습을 보는 게 남성 주체적 시선에서 자극적인 리가 없으니까.

남성의 성기중심 성애관을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면
여성의 쾌락이 된다고
착각할 정도로 우둔함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여성 주체를 상징한다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임을
보여주는 지표일까?

이래서 성애의 쾌락을 연출해 낸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여성의 쾌락이 남성의 배설욕망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을 목격한다. 재주도 좋지, 영화 속의 여성들은 어찌든 저리도 하나같이 남성이 배설할 때마다 오르가즘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으니...

이름에서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 임상수)를 떠올릴 만하다. 아마도 한국 영화사상 여배우의 입으로 가장 노골적인 섹스담론을 진행하도록 배려한 이 영화는 처음부터 오르가즘에 대해 대화하는 것으로 세 여성을 소개한다. 특히 두 여성(강수연과 진희경)은 여러 차례의 성애장면을 주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끈끈한 신음소리 대신 "힘 좀 빼", "빠지 마" 같은 남성판타지를 깨는 말도 불쑥불쑥 등장한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카메라는 여성시선으로 남성의 몸을 더듬거나 자극적으로 보여주기를 주저한다. 또한 이 여성들이 말하는 성애란 (남성쾌락의 핵심인) 성기삽입을 중심으로 한 아랫도리 중심의 성애와 오르가즘이다. 남성의 성기중심 성애관을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면 여성의 쾌락이 된다고 착각할 정도로 우둔함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여성 주체를 상징한다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임을 보여주는 지표일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1989, 린 라이너)에서 맥 라이언(셀리)이 오르

(자복한 사랑)

가즘 사기극을 재현하는 식당장면은 이런 의문에 대한 코믹한 힌트를 준다. 여자와 정사 후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떠난다는 해리에게 그건 여성모독이라고 셀리가 화를 낸다. 해리는 "그 여자도 즐겼어"라고 강변한다. "여자는 모두 한두 번 이상 오르가즘 흥분을 내서 남자를 속인다"라고 셀리가 되받자, 해리는 질세라 "난 여자의 진짜 오르가즘을 알아"라고 큰소리친다. 이때 갑자기 셀리가 오르가즘 연기를 한다. 황홀하고 몽롱한



표정을 지으며 "우-아-우-G-O-D! 바로 그거야! Yes, Yes!" 하다가 식탁을 친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재미있어 하면서 셀리와 해리를 구경하고, 해리는 주변 눈치를 보면서 일단 (여성 오르가즘에 관한 한 무지함을 인정하는) 판정패를 시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게 된다. 남성클럽의 시네마는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환상담론의 경연장이지만, 대상이던 여성이 쾌락의 주체가 되는 순간 갑자기 무력해진다. 마치 여성의 주체적 쾌락이란 시네마에겐 미지의 것이라는 듯이...

그렇다고 여성의 쾌락을 주체적으로 그려낸 영화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안토니아스 라인〉(1995, 마린 고리스)에서 안토니아의 딸 다니엘이 아이를 가지려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듯한 남자와 정사를 벌이는 장면은 환회에 일그러진 관습적인 얼굴 표정이나 여성의 몸을 나눠 먹지 않은 채 남성의 육체와 함께 균등하게 통째로 성애장면을 보여준다. 목적을 성취하고 오르가즘을 느낀 다니엘의 환희를 물구나무서기로 표현한 것도 신선하다. 많은 여성들이 그간 보아온 관습적인 성애 장면과 다른 이런 표현을 다소 낯설어하면서도 그간 가졌던 은밀함과 수치스러움을 벗어난 여성의 솔직한 오르가즘 표현에 매우 감동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이에 영화 자체가 여성의 성적 환상과 쾌락에 초점을 맞춘 〈에로피끄〉(1997, 리치 보덴, 모니카 트리트, 클라라 로)는 적나라하게 여성시선의 성애장면을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코드, 이성애와 동성애를 넘나들면서 과감하게 연출해 낸다. 남성에게 성적 판타지를 제공하는 폰섹스회사의 로지는 오히려 자기 고객 중 한 명을 찍어서 자신이 주도하는 성애장면 속에서 그를 대상화한다. 독일 함부르크편은 좀더 노골적이다. 이성애와 동성애를 교차시키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남성의 배설중심 성애를 여성의 오르가즘의 성애담론으로 전복시켜 버린다. 세번째 이야기는 중국의 전통적인 성독본 속에 현대의 여성과 남성을 놓고 다양한 체위의 정사 장면 풍경들을 연출해 낸다. 몸의 경험을 통해 전통과 만나고 그것을 통해 자



〈처녀들의 저녁식사〉



〈채녀들의 저녁식사〉, 섹스숍에서 일도를 만져보는 세 여자

실제로 우리는
여성의 쾌락이 여성의 시선에서
재현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기에
남성시선에서 재현된 것보다
더 낯설게 여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기정체성과 관계를 확인하려는 이 성애담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래서 그 상징성은 자칫하면 전통과 집단 속에 개인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막판에 너무 애쓰는 남자를 보고 웃어제끼는 여자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하다. 남자만큼 성애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자는 전통성애의 실습으로 인생을 해결하려는 남성의 과도한 성애집착에 대한 일갈처럼 깔깔거리는 데 그 웃음소리가 오르가즘 이상의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았던 중앙극장은 벌렁했다. 홀로 온 몇 명의 중년남자와 그보다 더 적은 숫자의 중년 혹은 젊은 여자들이 전부였다. 남자들 중 절반은(아마도 화끈한 엠마뉴엘류나 옥보단류를 기대했음직한) "이게 뭐야"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불만을 표시하며 극장을 나섰고 대체로 여성관객조차 이런 식으로 연출된 여성쾌락의 성애장면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였다. 나 역시 어느 정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여성의 쾌락이 여성의 시선에서 재현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기에 남성시선에서 재현된 것보다 더 낯설게 여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본 그 술하게 많은 성애장면에서 성적인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감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불감증이어서가 아니다. 어차피 이런 장면들은 여성의 쾌락과 환희, 오르가즘 따위를 남성욕망의 법칙에 따라 원하는 대로 꾸미낸 것들로, 프레임 안과 바깥의 보이지 않는 남성들을 흥분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수치심과 분노를 통해서도 길들여졌다는 점이다.

권력의 역사는 길들이기의 역사이다. 그 길들이의 실천 속에서 시네마는 남성의 성적 판타지로 우리에게 미학과 에로티시즘을 가르쳤고 세뇌시켰다. 심

지어 본능으로 일컬어지는 감각의 쾌락조차도, 그래서 시네마에서 여성이 쾌락을 만나기 위해선 우선 지금껏 본 것들에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먼저 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11



유채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 영화학 교수, 본지 편집위원



조미진의 비디오X-파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소원은 여자가 되는 것이었다(헛! 아들이 엄마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약속한 비밀이다). 왜냐?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여자는 생명의 뿌리라는 진리를 이미 깨달은 것이다.

나의 아들이 일곱 살 되던 해 때맞춰 바로 그러한 영화 〈나의 장미빛 인생〉이 개봉되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영화관에 들어서면서 "그런데 엄마, 그 애가 여자가 됐어?" 하며 정말 진지하게 물었다. 형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기뻐서 가려진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고 아들은 영화 속의 주인공 일곱 살난 소년 루도빅이 되어 있었다. 환상의 인형의 집으로 날아다니는 장면에서는 탄성을 올렸다.

자기 자신은 여자인데 하나님의 실수로 X염색체 하나를 쓰러기통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파티에 예쁜 드레스 입고 뽀글루즈 바르고 귀걸이를 하고 멋지게 나타난 루도빅에 환호했다.

동네사람들의 편협한 고정관념의 벽에 루도빅은 상처받지만 사랑하는 엄마, 아빠 또한 그 벽을 뛰어넘어 아들의 권이 되지는 못한다. 더 어렵고 악한 아들이 당하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당하는 악움참에 아들에게 화를 내고 기막히고 주눅든다. 유일하게 루도빅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외할머니의 보호마저 없다면 루도빅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잘못된 작품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어하고 코코하고 싶어하고 학부모들이 오는 학예회날 〈잠자는 미녀〉 연극에서 공주가 되어 친구와 보호하기 위해 진짜 공주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상대역이 되어 누워 있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 깨무라치고 만다.

이제 이 가족은 동네의 문제거리다. 회사에서 실직당하고 동네사람들의 이치에 대항이 된 가족은 결국 그 동네를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남자아이 같은 딸을 둔 엄마와 친구가 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게 되고 이제 사소한 차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마침내 동네잔치가 열리고 루도빅은 공주옷을 입고 여자친구는 카우보이가 되어 나타난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 무릎 위에서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아들은 무엇을 겪고 있을까. 자신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지 않는 루도빅의 자기존중감은 자신이 소중한 여가는 관계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지. 루도빅의 외할머니처럼 어유있고 기다려주는 성숙한 엄마가 준 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머리 억지로 자르게 한 거 미안해. 친아!



‘있다’와 ‘없다’의 끝없는 반복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의 수난사

얼마 전 나는 한 친구에게서 질문을 받았다. “나는 성적인 욕구(아마도 성교에 대한 욕구일 듯)를 전혀 느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성관계 후에도 전혀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데 이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여자가 결혼 전에 자위를 한 경험이 있으면 결혼 후에 불감증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의 질문은 “정말 그래서 그럴까?”였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슬그머니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며 소위 양성적이고 게다가 결혼한 지는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이런 어리석은 성담론에 속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마스터스(Masters)와 존슨(Johnson)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1966년 마스터스와 존슨은 인간의 성적 반응에 대한 생리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개설하였다. 두 사람은 276쌍의 부부와 106명의 독신여성 그리고 36명의 독신남성으로 구성된 지원자들을 통하여 성행위 동안에 인간이 어떠한 생리적인 변화를 겪는지에 관해 실험하였으며, 이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성 반응에 대해 최초의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마스터스와 존슨은 성반응을 흥분단계, 고원단계, 오르가즘단계, 마지막단계 등의 4단계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현저한 해부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남녀의 신체적 반응은 동질적’이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언명은 기존의 성담론에 도전하는 중요한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는 ‘여성은 성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도전이다. 그들은 오히려 여성이 더 성적이란 생각을 가지는데 즉 남성의 4단계의 변화는 한 가지 패턴뿐인 데 반하여 여성은 적어도 3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남성은 다시 발기하기까지 일정한 휴지기가 필요한 데 반하여 여성은 여러 번의 오르가즘에 연속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둘째 그들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질 오르가즘’에 대한 신화에 도전하고 있다. 프로이트 이래 우리는 성기삽입 성교를 가장 정상적인 성으로 인식해 왔다. 프로이트는 여아가 남근기 동안 음핵자위를 하며, 이는 성욕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아는 음핵이 ‘축소된 음경’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수치감에 음핵자위를 포기하며 사춘기 이후에 가서는 수동성과 수용성을 기초로 하는 질 오르가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는 질 부위의 오르가즘만이 성숙한 여성의 오르가즘인 것이다. 그러나 마스터스와 존슨은 프로이트가 이러한 질 오르가즘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르가즘의 기관으로서의 음핵(클리토리스)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여성의 오르가즘 반응은 음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교중에도 음핵이 우선적으로 오르가즘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결국 남성의 페니스에 대응하는 여성의 성기관은 음핵이며 남성의 사정에 대비되는 여성의 성적 반응은 질 분비임을 말해주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성적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 성기삽입 성교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는 성행위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들은 여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방법은 자위임을 지적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여성과 남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질은 겉속에 아주 둔감하고, 마취없이 수술이 가능한 정도로 신경의 분포가 많지 않은 신체기관이다. 따라서 성교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성행위의 한 양식일 뿐인데도 정상적인 성 그리고 궁극적인 성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음핵자극의 단계를 전회라고 부르는 것은 성이 얼마나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리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방법은 자위이며,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여성과 남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쯤 되고 보면 왜 나의 친구가 성교에 대한 욕구를 못 느끼는지, 그리고 오르가즘을 느끼기 어려움을 대답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불감증에 대해 다룬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하이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여성들이 성교를 통해 전혀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¹⁾

재미있는 점은 여성불감증에 대한 설명인데, "결혼 전에 자위의 경험이 있는 여성은 불감증이 된다"더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성이 수동적인 것을 벗어나 능동적인 것이 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들어 있다. 결혼 전에 자위를 해본 여성은 오르가즘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교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인류가 여성의 오르가즘 기관이 음핵이라는 것을 안 지가 약 30년밖에 안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는 이미 원시 시대에 여성의 오르가즘의 기관이 음핵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음핵절개이다. 음핵절개는 원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고 현재까지도 미국에 이민 온 중동여성들의 음핵절개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커다란 음핵은 추하고 남성적이라고 간주하는 것. 음핵을 작게 하기 위해 음핵에 화학약품을 쏟아붓는 관행 같은 것들은 인류가, 적어도 남성들이, 여성의 오르가즘기관이 음핵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 오래 전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

또한 그리스시대의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산부인과 책들에서도 이미 음핵의 기능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의 성을, 남성들처럼 쾌락과 관계시키기보다는, 건강과 관련시킴으로써²⁾ 여성은 결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논리화한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존재이며, 여성의 자궁에 정액이 주입되면 당연히 욕망은 충족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의 주류 의견에 맞서 싸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그는 음핵이 여성의 오르가즘에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식했으며(절과 음핵을 정확하게 구별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확하기는 했지만) 성교시에 언제 어떻게 쾌락을 얻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의 영향을 받아 후일의 학자들은 여성이 음핵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성행위 동안에 자극받

으며, 질분비액이 성교를 쉽게 만든다는 것을 서술하는 이론적 발전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물학적 사실을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미 원시시대부터 알려진 그리고 그리스 대의 문헌에 존재하는 단순한 사실, 도무지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르가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거기에 작용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2500년쯤에 또 다른 마스터즈와 존슨이 나타나 '인간의 성반응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결과'라는 평가를 받으며 여성의 오르가즘기관이 음핵임을 되풀이해 말하는 것은 아닐까.

여성의 몸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페니스의 크기에만 골몰해 있다. 그들이 자신의 성기를 몰래 내려다보며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발기상태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일은 정말 웃을 수도 웃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¹⁾

1)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질 오르가즘을 경험했거나 주변의 경험을 볼 때 질 오르가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주의자들의 일부는 이는 혼란—질 오르가즘과 음핵 오르가즘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이거나 아니면 속임—질 오르가즘을 정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으로 가장하는—이라고 설명한다. 또 한편으로는 질 입구에서 1/3쯤 되는 곳에 G-spot라는 것이 있어 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여성들이 30% 정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브 이빈호 「동굴—새로하는 성교육2, (242쪽~245쪽)에 자세히 나와 있다.

2) 여성들은 자궁이 지나치게 마르면 몸에 구멍, 두통, 생리불순, 마비 등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혼 내의 성교이다. 성교를 통해 자궁이 막히는 것을 막고 몸에 정액의 무게를 실어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이상적으로는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유성혜

세상의 어떤 아이기도 그렇지만 성에 관한 문제는 특하나 단언이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서로가 개인적인 성에 대해서 의사소통하지 않으므로 단언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과 관련한 주변 사람들과의 토론에서도 그것은 여성적 드러났다. 그러므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면 새로운 토론을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Honey Lee Cunniff

‘밝히는 여자’가 돼야 하는 이유

여성의 쾌락을 통제하는 얼굴없는 손

언젠가 엄마는 ‘아우성’을 보느냐고 물었다. 구성에씨의 폭발적인 인기프로인 성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아우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성에 대해 공부한다지만 한 번도 엄마와 성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없길래, 무엇이냐고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는 여러 이야기 끝에 “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니 참 좋은 세상이다”라며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어떠한 준비도 시켜주지 않아서 너무도 당혹했던 경험을 약간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하신다. 월경뿐 아니라 순진한 우리 엄마는 남녀 성관계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었다. 그래서 정말 첫날 밤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었다. 아! 환갑이 넘으신 엄마로부터 그녀의 성인식 과정과 경험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재미있었다. 성적인 것에 대한 침묵이 통제의 방식이라니... 외할머니의 ‘무언의 통제’는 엄마를 성적으로 입다물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침묵은 요즘의 성담론의 활성화로 인해 나에게 당신의 과거를 고백(?)하도록 한 것이다. (내가 중요한 자료라고 글에 쓴다고 하자 엄마는 부끄럽다고 조금만 쓰라고 당부하셨다. 아이구 순진하셔라!)

결국 이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 난 엄마에게 ‘남자는 늑대’라는 그 혼한(?) 성교육도 받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와서 엄마와 달리 난 여러 정보를 입수했지만 젠(?) 사람은 되지 못했다. 엄마처럼 성에 대해서는 ‘말없음’이었다. 무성적(asexual)이라고 해야 하나? 이러한 나의 행동을 지켜본 친한 친구 하나

는 ‘내가 말로는 진보적인 척 하지만 나만큼 성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그녀에게 진보의 척도는 성표현이었다). 자기는 밝히는 여자가 되고 싶다고,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욕구대로 행동하고, 그것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정말 그렇게 했다.

이제까지 성을 밝히는 여자들은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비난받아 왔다. 아니, 성적인 즐거움에 대해 여자가 감히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였다. 그래서 여자들은(그리고 나는) 밝히지 않았다. 아니, 욕구가 키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편의 여성들은 언제나 성적인 존재였다. 요부, 악녀, 심지어는 화냥년까지... 이 여성들은 성적인 욕망덩어리, 남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들로, ‘정상’이 아니라고 간주되었다. ‘밝히는 여자들’은 정숙한 여자와는 다른 범주의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남자들이 여자를 밝히거나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은 여성이 남편의 정당한 상속인 및 가(家)의 계승자를 낳아서 가부장제를 유지, 존속시키는 현실과 관련있다. 여성의 정숙함은 여성 존재의미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여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 여자의 능력이나 인격, 품위 등에 우선한다. 물론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만큼 그렇게 통제되는 여성을 상대해야 하는 남성도 간접적이거나 통제당할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제한다는지 여염집 여자를 강간하는 것을 엄벌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가부장제의 성통제가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타락’과 ‘정숙’ 중 택일!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여러 가지의 출구, 예를 들면 매춘, 축첩제도 같은 것이 있었으나 여성들은 정숙함을 중시하는 여성집단과 ‘정숙하지 못한’, ‘타락한’ 여성집단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해야 했다. 이러한 기제는 남자들이 하여금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타락한 일군의 여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정숙한’ 여자들도 보다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밝히는 여자들’이라는 낙인을 받지 않으려고 대다수의 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통제, 주체적으로 종속당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19세기에 나타나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만개한 새로운 종류의 권력을 ‘훈육하는 권력(disciplinary power)’이라고 명명하면서 여성의 주체화

‘밝히는 여자들’이라는 낙인을 받지 않으려고 대다수 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통제, 주체적으로 종속당하게 된다.



미셸 푸코



과정을 설명한다. 혼란하는 권력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를 태연 군부, 독재정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워해야 할 어떤 권력의 실체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의 권력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 제도들이다. 우리는 그 제도를 속에서 혼란당하고 감시당한다. 예를 들어 사회가 규정한 여성적 자질대로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사회가 규정한 여성적 자질이란 신체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정체성은 아니다. 여성은, 신체적 변화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성변화를 거친다는 것이다. (여성이 월경을 하면 그때부터 주변에서 야단이다. '남자들은 모두 늑대'라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몸조심을 강조한다.)

월경의 시작과 같은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라는 것은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동시에 여성의 성적 각본을 여성 스스로가 적극 수행하도록 한다. 즉 자신의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설정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에게 적합한 '섹슈얼'한 것들에 동화된다. '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미인이 되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고, 밝히는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감추고, 정숙한 여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을 갖다주는구나!'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안다.

물론 여성에게 '섹슈얼'한 것이란 가부장제를 유지하려는 남성의 욕구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며 정숙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다움의 자질은 지속적으로 유지, 재생산되어 가부장제 세력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남성들의 성적 대상으로 살 것인가?

저항을 위한 몇가지 전제

요즘 정숙한(?) 여성들의 성적인 쾌락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성적인 존재이고 성적인 욕망을 가졌으니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즐겁다(?)고 여자들이 야단이다. 실험적으로 성적인 쾌락을 찾아보는 여자. 내 몸은 내 것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는 여자. 남자들이 우습다는 여자에서부터 남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여자.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고 소송까지 하는 여자 등 등 갑자기 온 세상이 여자를 세상인 것처럼 들쭉거리린다. 갑작스러운 여자들의 움직임에 이 사회는 당황한 듯하다. 이런 여자들에 대한 우려와 질책과 동조와 비웃음이 한창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로 성에 대한 담론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저항이 미세하게나마 보인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여성들 스스로 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성의 역사에는 지배와 예속만 있었던 건 아니다. 성의 역사는 지배와 비판, 예속과 저항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적이고 중첩된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한 역사이다. 또 성통제 체계 내에서도 어떤 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 훨씬 권위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은 미약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저항의 강도와 형태에 의해 변화한다.

그렇다면 저항에 대해 얘기해 보자. 우리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여성들이 쉽게 피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쾌락찾기로 틈새를 만들 수도 있다. 각 개인의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지배담론에 저항하는 것은 대안적인 지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저항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담론의 창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양의 성에 대한 (심지어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왔지만 그것이 언제나 여성을 대상화시켰으며, 여자들조차도 쉽게 여자들을 대상화시키는 말을 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어떤 내용의, 어떤 시각을 가진 성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이 있다. 여자들의 쾌락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경제적, 제도적 권력관계가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만 여성은 진정으로 '밝히는 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변혜정

쉽게 쓴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내 의지대로 되찾아 온 모든 일이 의지대로 되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내가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가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거창한 이유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박한(?) 꿈 때문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전달해야 할 텐데... 그래야 나도 '밝히는 여자'로 살아볼 수 있겠지!



다시 차려야 할 처녀들의 성찬

20대 여성들의 성, 쾌락

그리고 고백

20대의 성, 아니 20대 여성의 성을 알고 싶다고? 물론 처녀들의 성을 알고 싶다는 거겠지.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도 있던데... 그걸 보니까 더 궁금하지? 정말 저런 걸까, 남들은 다 저런 걸까, 우리는 과연 어떤 걸까...

난 궁금했다. 각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밤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의 몸을 어떻게들 쓰고 있는지, 오르가즘은 느껴봤을까? 섹스는 어땠나? 언제 예로락해 질까? 애인과의 문제는 없을까? 성적 욕구가 있기는 한 걸까? 자위에 대해서는? 하긴 이런 궁금증은 서점에 가서 여성지 한 권만 사서 봐도 (안 사고 서서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긴 하다. 전체 여성의 몇%가 오르가즘을 경험했고, 애인과의 관계는 한 달에 몇 번 정도이며, 여자도 성욕을 느끼고, 자위도 몇% 정도의 여자가 한다는 등의 통계적인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겠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4명의 처녀들과 했던 인터뷰 테이프를 공개할 거다. 자, 이제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어론 누르기!(모두 가명임)

미진(21세, 학생)의 이야기

Q: 너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뭐?

Q: 왜, 남자애들은 그런 거 막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

A: 그렇지. 근데 난 경험이 없어서 할 얘기가 없는데...

Q: 경험 하고 말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A: 내 친구는 소개팅해서 두번째 만났는데 그 남자가 키스하려고 했대, 장난 아니지? 그런 남자애들 진짜 웃기지 않나? 하여튼 별 놈들이 다 있대니까.

Q: 남자애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얘기해 봐, 여자들 얘기가 중요하지.

A: 그래두 우리는 좀 나은 편이지. 내 친구는 여대 다니는데 진짜 순진하다. 아무 것도 몰라. 걱정된다니까, 그런데 키스하려고 했으니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

Q: 네 주위엔 그렇게 순진한 애밖에 없나? 그게 정상인가?

A: 아냐. 또 내 친구네 과 어떤 여자애는 장난 아니래. 같은 과 남자애들 거의 다 하고 자봤다던데. 한 스무 명 되나?

Q: 그치? 의외로 그런 애들 많지?

A: 그건 진짜 심한 거지. 근데 보면 경험 있는 애들이 많긴 많은 것 같애.

Q: 야, 남 애긴 그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너 성욕 느껴?

A: (수줍게 웃으며) 아니지.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Q: 한 번도 안 느껴봤다고?

A: 응...

Q: 너 전에 개량 사귄 때도?

A: 그때도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고, 손 잡고 싶은 거 그 정도였지. 그게 성욕인가?

Q: 응? 응... 비슷한 거 같은데 어휴... 너 진짜 순진하다.

오르가즘이나 자위에 대한 건 물어볼 수도 없었다. 미진은 그럴 줄 알았다. 생긴 것도 진짜 순진하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참 웃긴 얘기군.)

미진이 오르가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엔 남녀의 문화차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남학교에서는 야한 만화책과 비디오가 돌고, 자신의 신체와 욕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터놓고 이야기하지만 어디 여학교에서 그러한가? 소수의 '날라리'를 제외하고는 그저 어른들이 이 정도면 된다고 보여주는 것에만 길들여져 그렇게 순진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미진은 시도 때도 없이 서버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나 결국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오르가즘이니 성욕이니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미경험자인 미진에게는 남자들은 어떻게든 내지는 어떤 여자애는 어떻게든 류의 이야기만이 귀를 솔



것하게 하겠지.

유나(22세, 학생)의 이야기

Q: 너 형준(애인)이랑 어디까지 갔어?

A: 뭘 말하라는 거야.

Q: 끝까지 간 건지 페팅이라고 하나? 거기까지인지...

A: 당연히 거기까지지. 너한테 그런 거까지 다 말해야 되냐?

Q: 뭐 어때. 그냥 얘기하는 거지 뭐. 야, 너 그러면 오르가즘 못 느껴봤겠다?

A: 그렇지. 성교를 해야 느끼는 거 아냐?

Q: 오르가즘이 뭔데? 성적 쾌감과 같은 건가?

A: 정신적 오르가즘은 키스하면서 느끼는데 왜 그 육체적인 쾌감 있잖아.

Q: 아, 그거 말 된다. 음... 바로 그거야!

A: 그치... 잠지에서 보니까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 같고 머리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이 육체적인 오르가즘이지.

Q: 그거 다 환상 아닐까?

A: 그럴거야. 근데 진짜 그런 엄청난 느낌일 거 같애. 진짜 그렇대.

Q: 그러면 너 성욕 느껴졌네.

A: 당연하지! 형준이보다 더 심해. 내가.

Q: 우하하하하, 진짜?

A: 개가 나한테 키스 당하는 때도 많고, 키스 안 해주면 내가 빠지고 그래.

Q: 그래? 근데 너 왜 형준이랑 안 자냐?

A: 자고 나면 개가 나 싫어할 거 같애. 신비감 깨지고, 개가 나 버리면 그게 뭐냐?

Q: 개가 막 바라지 않아?

A: 당연히 바라지. 장난 아니야. 밤새 실랑이만 벌이다가 만 적도 있다니까.

Q: 그런데도 결국 안했단 말야? 하유나 너 진짜 대단하다!

A: 근데 난 진짜 안해. 성교라는 거 엄청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 같애.

Q: 너 정말 존경스럽다. 안하고 싶어?

A: 하고 싶진 않은데 궁금하긴 하지. 그래도 우리 사이에 신비감 깨지면 끝일 거 같애.

Q: 그럼 너 자위는 어떻게 생각해?

A: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걸로는 못 풀 거 같애. 넌?

Q: 나? (당황하며) 잘 모르겠는데 난 꿈에서 하는 편이야.

A: 정말? 나두! 연예인이랑 하는 꿈 많이 꾸.

Q: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히히...



유나의 경우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섹스에서 오는 쾌감이나 야
릇한 흥분상태를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특히 애무 정
도는 무리없이 즐기지만 '삽입'까지는 절대 불허!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상봉성을
따져야 하는 우리에게 '삽입당함'은 큰 흠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그때의 오르가즘이 극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유나는 신비감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건 만약의 경우를 위한 대비책이 아닐
까? 왜 남자들은 한 번 자고 나면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세희(22세, 학생)의 이야기

Q: 음... 있잖아...

A: 아, 빨리 얘기해. 다 말해 줄 테니까. 답답하게 소리...

Q: 알았어. 너 오르가즘 느껴봤어?

A: 나? 나 그거 포기한 지 오래야.

Q: 잉? 너 왜 그래? 하는 중에도 별로 안 좋았냐?

A: 난 하나도 안 좋았어. 그냥 멍뚱뚱하고 있었지.

Q: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A: 나도 몰라. 하기 전에는 무지 아름답고 환상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Q: 완전 박살났잖네?

A: 당연하지. 난 이제 남자 없어도 돼. 자위만큼 깨끗하고 경제적인 게 없다니까.

Q: 오~, 너 왜 그렇게 됐어. 그걸로 해소가 되냐?

A: 될 거 같애.

Q: 그래... 난 아닌데... 근데 너 만 애들은 어떤 거 같애?

A: 요즘 경험 없는 애들 거의 없을 걸? 뭐, 얘기 안 해봐서 모르지만...

Q: 그런 얘기 안해?

A: 야,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저들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하지. 절대 말 안 하고 뒤로
는 할 거 다 하는 거지.

아무런 느낌도 없던 섹스... 세희는 차라리 자급자족하겠노라고 말했다. 단정지어 말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상당할 거다. 우리는 영화의 뽀얀 화면발 너
미 이쁜 침대 위, 격렬하고도 부드러운 남자주인공의 터치와 여자배우의 천국에 온 듯한
표정을 보아왔으니까. 그건 신화였다. 늘 '이건 아닌데'라는 실망감 반, '진짜 느끼면 어
떨까'라는 기대감 반을 안겨주는 오르가즘의 신화. 그것은 깨져야 한다. 물론 깨지고도
신화는 계속되지만.

수경이(22세, 학생)의 이야기

Q: 나 궁금한 거 있어. 오르가즘이 뭐야?

A: 그런 경험 안 해보면 절대 몰라. 으. 온몸이 있지. 머리끝까지 확~. (강렬한 몸짓과 함께)

Q: 그런 느낌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해야 할까?

A: 그거 가벼운 거야. 강렬한 느낌이면 한테 가벼워.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지. 있으면 좋은 것일 뿐이야.

수경이는 경험도 많고, 섹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운 아이이다. 지금도 "어디 같이 잘 낚자 없나?"라며 가끔 나를 귀찮게 하고, "난 그냥 잠깐 놀 애인이 필요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하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당당하게 말할 줄 알고 절정의 순간을 그리워했다. 남자친구와의 예뻐나 성관계 후에 자책감으로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순수하게 즐길 줄 아는 친구라고나 할까? 물론 즐긴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는 아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있고 그가 요구할 경우)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욕구를 누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뒤따르는 '자책감 없이' 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진이, 유나, 세희, 수경이. 모두 다른 20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정말 다를까? 경험해보지 않은 20대가 그 신화에 빠져 고민없이 사는 동안, 경험하고 있는 나머지 20대는 왠지모를 공허함에 의아해 하거나 꼭박한 세상에 대해 짜증을 낼 것이다. 순진한 20대가 누가 몇 남자랑 잤다더라는 소문에 다시 한번 순결의 소중함을 되새길 때, 안 순진한 20대는 임신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재미없는 밤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다른 부류였다고 말할 수 있나?

난 절대로 어설픈 통째 따위는 내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의 이야기 그대로, 영화처럼 절편하고 적나라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처녀들의 저녁식사>는 리얼한 '영화' 일 뿐이라는 것을. ■

임소연

생물학 전공하는 친구들과 같은 과인 3학년짜리 학생. 정말 경험많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유유상종(?)이라고 내 주위엔 왜 그런 친구가 없는 건지... (너무나 아쉽다). 그나마 잡지에 내 글 나왔다고 얼마한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생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은근히 꺼려지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어설픈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국보법을 잊어지고 외치는 게 국보법 위반이 되듯이!) 이로써 '문단'에 첫 발을 내딛은 나. 앞으로 이쁘게 자주 얼굴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전화: (02)312-5564
팩스: (02)393-5214

명진출판

누구나 출세할 순 없어도 누구나 재미있게 살 순 있다



화제의
신간

신세대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당당해 보이지만 그들은 외롭고 불안하다.
다가오는 미래가 꿈처럼 밝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헤매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살고 싶지만 어떤 삶이 도대체 잘사는 삶인지 알 수 없다.
도망가고 싶는데 딱히 갈 곳도 없다,
그렇다고 세상과 정면 돌파할 힘도 용기도 없고...

당당해 보이지만 불안한 신세대에게 전하는 '자유' 메시지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로 독서계에 신선하고 날카로운 시각을 선보인 저자 김지웅. 그가 번역하는 문제의식으로 한국의 신세대 문화를 분석하면서 신세대들에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삶을 개척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김지웅 지음/ 신국판/ 256면/ 값 7500원

오르가즘을 찾아서 사례

오르가즘을 찾아서 사례

비밀수술 경험에 대한 이야기



이프 특집에 쓸 사례들을 청탁하면 발표지면과 기회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반색을 하고 주제를 묻는다. 그래서 이프 편집실은 언제나 원고가 넘쳐나 고민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달랐다. 여자들에게 오르가즘 경험을 밝히려고 공식적으로 지면에다가? 미쳤어? 페미니스트잡지라더니 페미니스트 포르노를 만들 거야?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하던 많은 여성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은밀한 경험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용감한 사례글을 보내주었다. 수많은 경험 끝에 최종 지면에 실리게 된 사례글의 필자는 도합 10명의 여성이다. 20, 30대에 판중된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인 10개 사례의 경험들이 한국사회 여성들의 성경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고시절 호기심에서 첫경험을 가진 여성에서부터 자위에서 진정한 첫경험(오르가즘)을 하는 미혼여성, 대학시절 강간과도 같은 첫경험의 후유증으로 5명의 남자를 거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오르가즘'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감증의 젊은 주부, '삽입섹스'만을 강요하는 남자와 육체와의 전쟁을 치르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레즈비언 성향의 여성, '생각도 간음'이라는 성경귀절에 세워당한 채 아직도 결벽증에 시달리는 부부생활 10년차의 아이엄마,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며 나몰라라 하는 남편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자신의 욕망을 거세시키는 취업주부에 이르기까지 이들 10명의 여성들이 보이는 성의식과 성경험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면서도 유사하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오르가즘의 정답은 없다. 자신의 정답은 자신만이 알 뿐이다. 그러나 진솔한 고백을 해준 이 여성들의 사례글이 독자들의 오르가즘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맨살로 느끼는 오르가즘

정화진(가명, 학생, 22세)

"하고 싶어..."

"그차..., 나두..., 근데 안 되는 거 알지?"

"알지만..., 나가서 콘돔 사올까?"

P가 담장이라도 나갈 것처럼 몸을 일으킨다. 이럴 때는 나도 좀 갈등을 하게 된다. 나에게도 상욕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싶다니...

키스를 한 이후로 그는 늘 나를 만지고 싶어한다. 그리고 단골이 그의 방이나 내 방에 있게 되면 늘 하고 싶어한다. 사실 나도 그가 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 주면 너무 좋다. 문제는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만 그는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런 그의 모습—"내 맘대로 안 된다 말야...", 그냥 하고 싶은데 어떡해"라며 굉장히 미안해한다—을 나는 귀여워하긴 하지만 가끔 너무나 신기하다. 나와 참 다르다.

처음엔 그와 맨살을 부비며 즐거워하던(100%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 뒤에 가서 밝혀짐) 간밤의 나의 행동을 한심해 하고 후회하며 아침을 맞았다. 정말이지 그 다음 날 아침은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나를 용납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밤새 잘 놀다가도 아침이면 우리 다신 이러지 말자 심지어 헤어지자고까지 말해서 그를 괴롭히기도 했다. 여성운동 한답시고 이것저것 책도 꽤 읽었고

광소의 언행으로는 전혀 순진한 것 같지 않던 내가 왜 섹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나를 끈질기게 괴롭혔고 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 순진한 척하는 것일까?

결론은... 우습게도 내가 순진하다는 것이었다. (예전엔 미쳐 몰랐던 사실이다.) 그와 어디에 놀러가서 뭘 먹었는지는 친구나 부모님께 말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했던 그 밤을 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것, 그 때문에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다시는 파란하늘을 볼 수 없을 거라고까지 생각했다. 내가 이런 전근대적인, 사회순응적인, 남성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다니 실로 놀라울 따름이었다. (혹시나 해서 그에게 물었더니 역시나 그는 나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내가 그토록 한심해하던 여자애들이나 들음직한 말—관할아, 이런 자연스러운 거야—을 그의 입을 통해 들으며 위로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K와의 관계를 떠올리면 난 금방 우울해진다. 내가 얼마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K에게 키스하고 내 몸을 맡겼는지 생각만으로도 그때의 기분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런 나에게 오르가즘이란 무엇이였을까... 전에 K와의 관계에서는 소위 '극치감'이라고 일컬어지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지든 문제는 '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나 술쯤 따위를 동반하는 오르가즘이라면, 그것이 내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찌르르하게 하는 것이든 눈 앞이 아득해지는 것이든 별로 느끼고 싶지 않다.

이 우울함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화장실에 쏙그리고 앉아 내 오줌방울이 하얀 테스터기에 퍼져나가는 것을 슬참으며 지켜보던 그날, 그날의 기억으로부터 온 것이리라. "너 배고플 때 밥 보고 참을 수 있어?"라며 날 끌어담기던 K, 그런 그에게 눈 한번 못 흘렸던 나... 걱정하는 나에게 처음에는 "너 나랑 결혼할 거 아니냐?"라

는 말로 안심시키더니 나중엔 "내 책임만은 아니잖아"라는 말을 아주 당연하게 했던 그였기에 미련없이 그를 떠나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감히 그런 말을...,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몸이 내 것일 뿐이라는 확실함에 몸을 떨어야 했다. 내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원했기 때문이었다니 그 때문에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들 뻔했다니..., 게다가 나는 K가 내 안에 있는 순간에도 'K를 위해' 오르가즘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 마이 갓!

다행인 것은 내가 점점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P에게 정말 감사한다.) 나의 쾌락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단계는 아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분위기따라 그가 원하는 데까지 별 무리없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쾌감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나의 오르가즘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소박(?)해진 것은 아마도 여자의 성욕을 인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교육받은 덕택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가끔 난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 내 곁에 있는 P가 들으면 안타깝겠지만 나는 그와 그냥 교육 겨냥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깨끗하니까, 거기에 그와 나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을 때 느껴지는 아늑한 기분까지 정말 맘에 든다.

그렇다면... 내 이랬때에 '그의 것'이 외달을 때 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일까?

나는 오르가즘을 위해 남편과 잔다

신진영(35세, 학원강사)

'오르가즘'이라고? 나의 35년 역사 속에서 이 괴물과 조우하게 된 게 언제였더라? 아마도 초등학교 때 삼류극장의 영화공고 포스터 안에서였던 것 같다. 무얼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빨갛게 칠해진 여자의 입술

이 좀 모자란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해 벌어진다고 눈은 질끈 감고 있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묘한 느낌을 주는 일색의 그림을 보며 나는 내 나름대로의 더럽고 추잡한 성의식의 첫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어린시절 이후 내내 플라토닉한 사람만을 꿈꾸며, 남녀가 붙들고 서로를 비벼대는 건 참을 수 없는 혐오감만 주는 어떤 행위로만 생각하고 청소년기와 대학시절을 보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미리 알았더라면...(호호호).

하지만 아무리 성에 대해 무지하고, 꿈공 튀어만 있던 몸도 때가 되면 자연스레 갈증을 느끼는 때가 온다. 좋아하는 남자와 있으면 온몸에 전율이 오고, 눈만 마주쳐도 손발이 저리고, 그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닿으면 황홀한 경련이 말초신경을 휩쓸고 지나가는 느낌이 통제불가능해지는 그 어느 때.

나는 그랬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내 몸의 그 욕구들이 칸막이 쳐진 카페 안에서 엄청난 죄의식과 싸우게 만들었다. 그 몸과 의식의 싸움에서 졌을 나는 사람이란 명목으로 욕망 앞에 관대해지기로 협상을 했고 사랑하면 육체란 자연히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해야 하는 그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는 아주 알파한 가치로 내 행위를 정당화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타협에도 불구하고 '오르가즘'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상태에서 받아들인 성이란 몸의 욕구에는 어릴 수 없이 굴복하긴 했어도 완전한 의식의 해방이 없다는 거침없는 패락을 주지 못했다.

결혼 전의 성행위는 늘 완전한 몰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어릴 수 없는 고정관념—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만 해줘야지, 내가 원한다고 그가 느끼면 나를 더러운 여자라 여길 것이다. 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지, 아무 짐승 등등—이 늘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 내 느낌보다는 남편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즐겁게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여자에 대해, 성에 대해 보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오르가즘'을 위해 남편과 잔다. 완전히 몰입해서 나를 잊게 해주는 그 짧은 순간이 나를 정화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르가즘'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나를 위한 정점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걸 알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인간의 성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성행위를 통해 도달하는 절정, 극치인 '오르가즘'도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가 두려워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오래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았는지...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게 쓰여질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만 한 것 같다. 구체적인 사례도 없이 말이다. 이게 아마도 지금의 내 한계일 것이다. 성에 대해서라면 아직도 '거침없이'가 안 되고 애물러가며 고상하게 이야기하려는 이 겉질을 깨는 데 또 얼마만한 세월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오르가즘'에 대한 마지막 의견. 그걸 많이 느낄수록 삶이 빠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내 경우에는 말이다. 많이 많이 느껴보자. 유한한 시간이 주어졌다. 절정과 극치의 순간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혼자 하는 '진짜 첫경험'

한바람(가명, 22세, 학생)

난 대학교 3학년이다. 그리고 어젯밤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오르가즘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의 섹스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와의 첫 성교는 성욕이 작용해서 라기보다는 호기심이 컸다. 물론 오르가즘은 한번도 느끼지 못했으면서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선 거짓 신음이 흘렀었던 것 같다. 그때까지는 성에 대해 나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친구와 헤어진 뒤에는 그 경험을 잊고 싶어서 그 애를 다시 만나는 것도 싫었다. 결혼할 때 처녀막 재생수술을 할까 아님 어떻게 처녀인 척할까 고민도 많이 했다.

대학교 때 사랑하던 남자와의 섹스
대학에 와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만약 알게 된다면 날 더럽고 해픈 여자라 여길까봐 고등학교 때의 경험은 완전히 비밀이었다. 나의 연기로 처녀인 줄로 아직도 믿고 있고 헤어진 지금 심지어는 나에게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 친구와는 1년간 거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었는데 서로 잘 맞았던 것 같고 오르가즘도 느꼈었다. 이 때는 난 술을 마신 뒤의 섹스를 좋아했었다. 나 스스로가 성욕에 대해 솔직해지고 과감해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 내가 그때까지도 성에 대해 많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 같다. 그 친구와 헤어진 지금은 성에 대해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어느 누구라도 진지하게 물어보면 나의 섹스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얘기해 주곤 한다. 섹시하다는 뜻이 뭔지 몰랐었는데 이런 멋진 남성을 보면 섹시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반태적인 행동인 줄 알았던(남자는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음탕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자위를 하기도 한다.

혼자 하는 섹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8개월쯤 됐는데 요사이 부빌 살갗이 없다는 외로움을 느끼는 데다가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김여진이 자위를 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나도 몇 번 시도해 봤다. 처음에 내가 내 몸을 어루만져주는 행위는 느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듯했지만 뭔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바로 어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나는 갑자기 자위를 하고 싶은 욕구에 못을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나를

스스로 사랑해 왔다. 기분좋은 웃음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오르가즘에 이르는 탄성, 애인을 위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기쁜 탄성이었다.

난 어째서야 비로소 진정한 첫경험을 한 듯하다.

일과 아이가 주는 또 다른 오르가즘

박정진(가명, 34세, 회사원)

나는 결혼 7년차의 취업주부다. 나는 남편과 혼전부터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매번 오르가즘을 느꼈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성적인 쾌감은 더 강했다. 아마도 안정된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이 더해져서였던 것 같고 또 서로의 느낌에 대해 더 익숙해져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없었다. 비록 생후 3개월의 아이였지만 옆에 누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뭔가 불편했다. 게다가 나는 그 때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탕탕하게 부풀어오른 몸을 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도 나를 성적으로 몰입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그 이후로 남편과 성관계를 할라치면 재발 발리 끝나기를 바라는 여자가 되어갔다. 아마도 나는 엄마라는 역할과 여자라는 역할을 조화롭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약 6년 정도가 지났다) 남편과의 관계가 호전됐지만 그래도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을 땐 도저히 불안해서 성욕이 일지 않는다. 그건 남편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남편은 아이들이 있어도 이불 속에서 나의 몸을 만지기를 즐긴다. 나는 교육적인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아이들이 있을 땐 전혀 아무 느낌이 없다. 그래서 매정하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곤 한다.





사람들은, 여자는 30대가 되고, 아이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성욕이 왕성해진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성욕이 왕성한 10대와 20대를 보냈고(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웠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성관계가 즐거웠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바로 얼마 전까지 성관계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그 무엇이었다. 아이를 기르고 직장일을 하는 나로서는 성관계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노동일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너무나 무기력해지면 그 전날의 성관계가 그리도 후회스러울 수가 없다. 물론 성관계에 들어서면 나는 적극적이어서 거의 항상 오르가즘을 느낀다. 그래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았고 그래서 몇 달씩 성관계를 피하면서 지나간 적도 있다.

자갈 돌이켜 보면 내가 성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선 엄마가 됐다는 사실과 가사노동, 육아, 직장일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피로함이 나를 자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성욕을 대체할 만한 것이 생겼다는 점도 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성적으로 억압돼 있다기보다 성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소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갖는다.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직장일에서의 성취감이 나를 상당히 만족시켜주는 것 같다. 또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고, 안고, 부비고, 핑구는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같다. 젖을 먹이는 것이 초기에는 굉장히 고통이었지만 두세 달이 지나자 정말 큰 기쁨이 되었다. 나는 수유를 하면서, 또는 아이와 전한 보포를 하면서, 또는 보드라운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슴이 뽐뽐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짜릿해지는 걸 경험한다. 진정한 스킨십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럴 땐 왜 남자와의 성관계도 이렇게 기쁨으로만 충일 수 없는지 아쉽기까지 하다.

언젠가 들었는데 여성은 성적인 경험을 굉장히 폭넓게

한다고 했다. 월경, 임신, 출산, 수유, 육아, 성관계 등등. 그런데 남자는 오로지 자위나 성관계를 통해서만 성경험을 하니 성관계에 대한 집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하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직장일 때문에 월경아이의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됐을 때는 정말 너무나 섭섭해서 한동안 심각하게 우울했다. 아편 정말 이런 기쁨은 끝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남편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을 거의 나 혼자 기르다시피 했다. 특히 첫아이 기를 때는 엄마가 예민해지기 쉬운데 그 때도 남편의 위안을 거의 받지 못했다. 남편은 상당히 노동시간이 긴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첫아이가 생후 10개월 정도가 될 때까지는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빠했다. 나는 그 당시 매우 히스테리컬했고, 그걸 아이에게 모두 폭발시킬 뻔 그러는 나 자신이 너무나 밉고 당황스러워서 울기도 많이 했다. 나는 나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고, 나의 고통을 덜어주고(그때 나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놓을 사람도 많지 않았다) 나의 극도로 예민해진 신경을 이완시켜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남편은 아니었다. 남편은 그 당시 바쁘기도 했지만 아버지로서 별로 노력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나의 잔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를 군소리 없이 참는 걸로 버티려고 하는 사람 같았다.

그런데 5~6년이 지나서 나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회피하는 내 속에서 어떤 분노를 읽어냈다. 남편이 성관계를 하자고 조르거나 고통스러워할 땐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소리가 뇌까려졌다. "그래, 한 번 너도 버티 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몇 년을 참았는데 당신은 그 정도도 못 참아?" 그리고 그런 고통을 더 당하게 하고 싶은 심술이 뱃속에서 치밀어올랐다. 그런 내 마음 속의 분노를 읽었을 땐 한편으로는 성욕이 없는 이유를 알게 돼서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했다. 그런 분노를 느끼면서도 남편과

아무 내색없이 살았다는 게 끔찍했다. 진짜 적과의 동침인가.

나는 요즘 몇 가지 노력하는 게 있다. 우선 모성성과 섹시함을 조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분노를 자주 말하려고 노력한다. 내 속에 있던 것들을 말함으로써 비워내고 싶다. 남편은 새삼스레 과거지사를 들먹이는 내가 이상하겠지만 사실은 더 이상 분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나도 진정으로 분노를 털어내고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더 아버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다그치고 있다. 그래야 새로운 분노도 쌓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 노력 덕분에일까, 요즘은 남편과의 성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다. 물론 지금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부담스럽지 않다. 이전 몸과 마음이 좀 더 유연해지고 자유스러워진 느낌이다.

남근의 폭력이 없는 사랑을...

김은경(가명, 25세, 회사원)

오르가즘이라, 오르가즘, 그게 뭐지? 도대체 뭘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걸까? TV나 영화, 여성지 등의 매체를 보면 오르가즘이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 속에 들어와 격렬한 피스톤운동 끝에 사정을 하는 순간 온몸을 압도해오는 쾌락의 정점이다. 그렇담 난 한 번도 오르가즘 근처에도 못 가봤다.

분홍 물방울무늬 원피스를 입고 언니들과 동네 뒷산에 놀러갔었다. 갑자기 나타난 웬 젊은 남자와 어린 남자에 놀란 언니들은 걸음이 날 살려라 도망을 가버렸고, 난 심장이 터질 만큼 달렸지만 그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나는 20대 중반쯤 되는 남자와 10대 초반의 남자가 억지로 준 종선점을 질경질경 씹어야 했고, 물방울무늬 원피스도, 분홍팬티도 모조리 벗겨진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재발 보내달라고 애걸했

지만 나는 별거벗겨져서 퇴학될 아래 오래오래 서 있어야 했다. 내 나이 한자리 수였을 때, 아직 내 이름도 잘 못 쓸 때 몇 시간을 낮선 남자들 앞에서 아직 털도 나지 않은 내 어린 성기와 갈비뼈가 도드라지게 비좁은 병약한 몸을 푸줏간에 걸린 고기마냥 다리가 아프게 세워두고 감상(?)하던 그들, 그 번들거리고 희죽거리던 그들, 내 몸에 손을 하나 대지 않았지만, 내 영혼에 깊은 생채기를 낸 결코 잊을 수 없는 성폭력의 기억. 나는 스무 살이 훨씬 넘어 그것이 성폭력이었음을 인지할 때까지 그 몇 시간의 기억을 향해 그게 뭔지도 정리를 못 하면서 다만 혼자서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있었다.

내가 겪었던 성과 관련된 최초의 기억이 아무리 불행했음지라도 내 몸은 잘도 지냈다. 학교 화장실이 너무 무서워 내내 오줌을 참았다가 급기야는 바지춤을 움켜쥐고 집으로 달려오던 우스꽝스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의 배근한 통증 끝의 묘한 쾌감. 가만히 힘을 줬다 뼉다 할 때 하체를 중심으로 뻗쳐오는 아득해지는 느낌. 따뜻한 밤바다에 몸을 딱 붙이고 얼드려 하체를 조금씩 움직일 때의 기분. 그런 걸 즐겼다. 처음 가슴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화장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슴을 만지작거렸는지, 부드럽고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그 느낌. 그 즈음부터 삼촌들이 몰래 숨겨두었던 책들을 열심히 탐독했다. 소위 말하는 춘화는 없었지만 아한 소설책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중학교 다닐 때도 하이틴 로맨스는 딱 한 권밖에 안 읽었다. 멍청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부자애다 미남인 남자를 만나서 희루연, 그러나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없는 호텔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류의 멍청함보다는 하나도 안 아름답지만 자극적인 삼촌의 소설책이 더 좋았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자위를 하고 상당히 즐기는 편이다. 자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대학에 와서 여성학 시간에 설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질문을 보고 아, 그렇담 남들은

자위를 하고 죄책감을? 억지로 죄책감을 느껴보려고도 했지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는지 이해가 안 갈 뿐이었다. 친구와 자위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냥 가슴이나 쓰다듬고, 자기 몸이나 더듬고 뭐 그러는 게 자위지 아니?”

“그럼?” 아니, 그 친구 자위마저도

남성성기를 대체할 불안가의

삽입으로 규정하고 있

었다. 오, 이런. 얼마

전 여침감독 3인이 섹

스에 대해 얘기해 보자

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에로

피크>라는 비디오를 봤다. 오,

이런, 이건 너무나 남성적

인 에로피크로군. 심지어

어 레즈비언 커플조

차도 케니스 모양의

장난감에 젤리를 들

럭 발라 상대의 질 속

에 밀어넣었다. 여성 혼

자선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난

아직 모르겠다. 난 자위로도 충분한데, 삽입섹

스가 그토록 환상적인 걸까? 경험이 없으니 할 말이 없다.

대학 때 남자친구와 ‘육체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신

경전을 벌였다. “우리 자자”를 요구하는 그에게 “그게 무

슨 의미냐?” “뭐든지 다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 뭐든지

가 뭐냐니까?” “뜨악한 표정이 된 그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말로 하니?” “왜 말로 못해. 난 말이 없으면 죽어.”

솔직히 그와 나누는 키스조차도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

었다. 무엇보다 그의 담배냄새가 질색이었다. 같이 술을

마시고 하는 키스는 안주로 먹은 골뱅이냉채까지. 으~

싫었다. “우리 이 닥고 키스할래?” (나는 그와 헤어진 이

후 애인은 반드시 비흡연자여야 한다는 신조 아닌 신조를

한동안 고수했었다.) 그와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불감증

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되었다. 그가 내 몸을 만질 때도 아

무 느낌이 없었다. 입으로 애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날 만졌을 때의 쾌감이 없었다. 차츰이 났다. 그가 억

지로 그의 몸을 만지게 했을 때 역시 나는 별다른 즐거움

을 느끼지 못했다. ‘아! 빼고립구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

의 성기는 딱딱하게 발라 서 있었지만 나는 그의 성기가

내 몸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혼

자 몸을 부비며 이곳저곳 입을 맞추다가 맥없이 사정하고

마는 그에게 한편으로 참 미안했지만 그와 잤던 수많은

밤 동안 나는 다만 내가 불감증 환자(?)라는 사실만을 확

인했다. 그는 다만 ‘박고 싶어했고’, 나는 그를 ‘사랑하려

고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쉽게 지쳐갔다. 참으로

웃긴 건 그와 만나서 방새 실경미를 받으며 그가 나에게

불감증을 확인시켜 주는 그 날들 속에서도 난 자위를 즐

겼고, 그의 후끈거리는 입김과 손길보다는 나의 익숙한

손길이 훨씬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훌쩍 벗고 새로

빨아 넣어서 햇빛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 자는 걸 무지

하게 좋아했다. 근데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꼭 긴소매의 웃옷과 바지를 입고 이불

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서야 잠들 수 있었다. 그가 심하

게 요구하던 날 밤 나는 열침을 당하는 악몽을 꾸었다. 가

위눌려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잠이 완전히 편

뒤에도 사지를 덜덜덜 떨면서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한참만에 일어나 창문과 방문, 현관문을 확인하

고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앉아 한숨도 못자고

덜덜 떨었다. 그후 그와 헤어졌다. 장간 위협까지 느끼면

서 만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역시 자책드릴 수

없는 나에게 깊이 실망한 채 매섭게 돌아섰다. 그러나 무

언가 끈적하게 달라붙은 감정적인 종속 때문에 나는 ‘사

람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내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기일을 행기듯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곧 쓰러질 것

같은 교락서니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

의’라고 한다).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난 이후 우리가 만

나 했던 말의 거의 전부가 “자자”와 “싫어”였으니 별다른

추억도 없다. 다만 내 속의 수많은 성적 딜레마를 직면하

게 되었고 나의 성정체성은 무얼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기가 되었다. 타인과의 사랑에 익숙치 않은, 익숙해지기

가 너무 힘든 나는 내 몸에 손도 까딱 안 할 사람을 바라

는가? 안전한(?) 사람을, 케니스가 없는 사람을, 남근의

폭력이 없는, 모르겠다. 글을 쓰면 쓸수록 모르겠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언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별

도, 나이도 아니다. 아마도 담혀버린 나의 언어와 마음 그

리고 오르가즘을 복원시켜 줄 섬세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닐까 한다. 재차삼차 계단계 되는 대명제,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없다. ‘달콤한 키

스, 황홀한 섹스’ 결코 그게 다는 아니다. 감정이입은 안

되는데 육체적인 합일은 가능하다? 나에게 있어 그런 일

은 없다.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자해하

고 싶진 않다. 그러니 나는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을 만

나 그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같은 언어로!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삼십대 중반의 아름다

운—극도의 편견—한 여자를 10분 넘게 따라가고 있는

나를 화들짝 놀라서 낯설게 바라본 적이 있다. 어떻게 그

녀에게 다가갈지를 고민하는 사이 그녀는 저만치 앞서서

희미한 뒷모습을 보이며 인파 속으로 사라져간다. 아, 사

람 앞에서 절박해지는 순간. 그러나 코끼리를 향해 날개

를 펼치고 만 공작새처럼 난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여기

서 있다. 아!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일주일 후 나는 성을 갈았다

이하늘(가명, 25세, 회사원)

고2 겨울방학이 끝나가면 무렵, 연대에서 문화공연이

있었다. 행사는 저녁 늦게 끝났고 난 K와 헤어지기 싫었

다. 우린 막걸리를 사들고 복변동에서 혼자 자취하던 나이

많은 선배님 댁으로 갔다. 선배가 먼저 술에 취해 자고 그

때 K와 첫키스를 했다(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 선배는

자는 척했었다고 한다). 그의 부드러운 입술.., 왠지 모를

벅함, 부드함. K는 교외(校外)모임 회장이었고 여자선배

들이 다 K를 좋아했으니까. 난 1년 동안 인기 많은 그를 짝

사랑하는 후배였다. 그후 난 그와 키스하는 게 좋았다. 모

임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좌석버스 제일 뒷자

리—내내 키스를 했다. 그리고 여름, 대학교에서 술을 실

컷 먹고 (그는 술을 못 마신다) 나만 인사불성이 됐다. 나

는 당황하게도 그때 그와 여관에 가고 싶었다. 내가 그의

바지 위로 성기를 건드리고 키스 또한 최대한 끈적하게 했

으나 실패했다. K는 불이 환하게 켜진 서울대병원 의사위

에 나를 눕히고 옆에 앉아 첫차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

으나... 풀밭 위에도 날 쓰러뜨리길 원했는에....

그리고는 학력고사 준비 때문에 한동안 못 만났다. 그

리고 겨울, 신촌에서 형과 하숙을 하던 K의 방에 갔다. 형

이 아르바이트 간 몸을 타 그 집에 놀러갔다. 기회는 온

것이다. 목욕도 깨끗이 하고 속옷도 잘 예쁜 것으로 입고

갔다—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속옷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더군.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방이라 어두웠다. 난

내가 준비해간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다. 케니-G의 섹스

존 연주곡... (흐흐... 난 치밀했다). 그날 난 남자의 알몸

을 처음 봤고 성기도 처음 봤다. ‘음, 남자의 성기에도 털

이 있군.’ 그때까지 목욕탕에서 얼마 따라온 꼬맹이들의

고추만 봤었던 나는 남자 성기에는 털이 없는 줄 알았다.

다비드를 봐도 음모는 없었으니까. 난 그를 킧볼부터 천

천히 애무해 주었고 목, 가슴, 젖꼭지... 그렇게 서로 부

통켜안고 난 그가 삽입해 주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

렸던 순간인가. 나도 소설 속이나 영화에서처럼 진짜 섹

스를 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난 성기삽입만이 섹스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삽입, 그가 성기를 삽입할 때

난 절정에 이를 줄 알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손가락으

로 자극해 주는 게 좋았다. 어찌된 일이지, 이럴 수가....

그에게 다시 요구했다. “그냥 만져줘. 그게 더 좋아.” K는



흥분된 내 성기를 손으로 비벼주고 입으로 키스해 주었다. 그때 그가 사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 안 난다. 난 흥분되어 내 몸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으니까. 난 그때 오르가즘을 느꼈다. 뭐랄까... 터질 것도 같았고 힘이 죽 빠져나가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곤 길게 잤다.

피? 흔적도 없었다. 그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전에 자전거를 타다 파손됐는지 아닌지 나의 처녀막이 엄청 튼튼해서 아직까지 그대로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쯤 성에 눈을 뜬 우리에게 '또문'에서 나온 『새로쓰는 사람이야기』와 『...성이야기』를 읽어보라고 모임 선배가 권해주었다. 우리 그 책을 서로 읽으며 성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너무 어린 나이에 남녀관계를 갖는 것과 순결 같은 것에 대해 두려워했는데... 그 책이 많이 도움됐다. 성욕은 식욕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꽤 주체적으로 섹스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멋있었던 것 같다. 주변에 스스럼없이 말했으니까.

그후 그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난 그가 너무 보고 싶었고 또 그와 자고 싶어 괴로웠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폰 섹스를 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알리라. 폰섹스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한참 난 상상의 키스를 '쪽쪽' 퍼붓고 있는데 그가 '더 조여줘' 하면 공~ 그때의 무색, 무안함이여.) 단체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가 서울에 올라왔다. 낮엔 열심히 뛰어다니다 벨리 어두워지길 기다렸다. 대낮엔 여관에 갈 수 없으니까. 가끔 술 마시고 못 견디게 보고 싶을 땐 밤차를 타고 그가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학교 과방이나 총화화실에서 불이 부동켜안고 떨어질 줄 몰랐다. 여관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지자 우리 학교를 택했다. 빈 강의실이나 과방 등...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했던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와 아주 사소한 일로 헤어졌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 잘못이 컸다.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와의 러브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

를 잊기 위해서인지, 그와의 섹스를 잊고 싶어서인지 자주 술을 마셨다. 그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모임동기들이 나를 따라다니던 후배들과 술 마시고 같이 자고 그리고 다음날 헤어지고 그랬었다. 상대는 나와 섹스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콧속말을 해대고 어느 때는 결혼하자고 하는 녀석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런 말 필요없어. 그냥 하루 같이 자는 거야. 별 의미 두지 마..." 나는 지루했다. 삽입에만 집착하고 얼마나 더 오래 사정을 참을 수 있나 대회하듯 질질 끄는 남정네들... 난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들은 여자의 몸을 잘 몰랐다. 남자들에게 싫증났다. 이런 K와에 탄 사탕과는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작년 이맘쯤 통신(chatting)을 통해서 S를 만났다. 술에없는 잡담을 주고받다가 술이나 마시자는 제안에 만났다—아마 내가 제안했던 거 같다. S는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날 참 많이 마셨다. 나 또한 그가 K와 많이 닮아—나에선 가장 큰 이유였다—그와 같이 있고 싶었고 그날 잠자리까지 함께 했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흥분...

S가 요즘 내 섹스파트너다. 우리 여관에서, 가끔은 그의 차 안에서 서로를 즐겁게 해준다.

그런데 얼마 전, 생리예정일이 지나도 생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죽을 맛이였다. 말도 안돼. 처음이었다. 말을 해야 하나? 관두자. 도움도 안돼. 임신 테스트를 2~3번 하고도 안심이 안 됐다. 낙태에 대해서 생각했다. 끔찍했다. 안돼, 키워야지. 누굴? 약—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의 애 또한 원치 않는다. 방충이니 책이니 요즘들어 왜 그리 낙태이야기가 많은지 그리고 그 많은 미혼모들을 무책임한 살인자로 모는지... 그럴 미혼부들은 뭐야. 날카로워졌다. 섹스는커녕 키스도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그도 눈치를 챘는지 병원에 가 보자고 했다. 나는 그에게 화를 냈다. 피임이 꼭 그의 몫은

아니지만 아무튼 콘돔은 남자의 성기에 하는 것이고 사정도 남자가 하는 것이니까. 그는 임신이 아닐 거라고 날 다독거렸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주변 결혼한 선배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 그래, 애를 낳든지 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테고 수술할 돈을 마련하든지 결혼 않고 애 낳아 키울 자신이 있는지 생각해 봤다. 결심했다. 불근! (나의 그때 결심에 대해선 노코멘트다.)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근했다. 다음날 생리가 나왔다. 허무했나고? NO~ 생리혈을 보고 넘넘 반가워 소리까지 질렀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다시 남정네와 같이 자면 성을 간다.

일주일 후 나는 성을 갈았다. 대신 많이 조심했고 철저해졌다. 체온조절법이나 질외사정은 정말 위험하다. 피임약은 부작용도 있을 듯하고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면이 있어 콘돔으로 피임한다. 그가 "우리 속궁합이 맞는 것 같지?"라고 말할 땐 그냥 웃는다.

서로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피임에 대해 확실한 준비가 있어야 하며(최근들어 질실하게 느꼈다)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자라고 밀에서 "죽여줘요"만 하고 있어도 재미없고 남자 혼자 죽어라 피스톤운동만 하는 것도 재미없다. 테크닉, 테크닉. 하는데, 서로의 몸을 해무하며 이전 어때? 여긴? 하며 충실해야 한다. 상대의 몸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표현해야 한다.

물론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겠지.(근데 그게 어디 흔한 일이겠어??)

난 한번도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다

전영미(가명, 26세, 주부)

대학 1학년 때의 첫 섹스에서부터 한달 전 남편과의 마지막 섹스까지 나와 섹스를 했던 남자들은 총 5명이었다. 그들과의 섹스는 단 1회에 그친 적도, 수년간 지속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나의 연애상대로,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지금 내 나이가 스물여섯. 5년 동안의 섹스 횟수를 떠올려본다. 70과 100 사이에 있을 법하다. '내가 꽤 많은 섹스를 했구나', 70과 100의 평균인 85라는 숫자에 나는 말이 놀라웠다.

'그 중 오르가즘을 느낀 적은 몇 번이나 될까?' 그런데 한참을 생각해도 섹스 횟수가 금방 헤아려진 것에 비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첫 섹스를 생각하자 한참이나 있고 있었던 대학 1학년 때와 그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올라 엷은 웃음이 배어나온다. 많은 고3들이 점수에 맞춰 적성과 무관한 과를 선택하고 막상 붙어서는 적응을 못해 고민을 해야 했다. 어떤 애들은 휴학을 하고 재수에 들어가지만 그럴 의지가 없는 애들은 술과 더불어 하층세월을 보냈고 나는 후자의 부류에 끼어 있었다.

자학 속에서 소주와 담배에 젖어 그렇게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우연한 기회에 소위 운동권에 속한 선배들을 만나게 됐다. 고교시절 대학생인 사촌오빠가 5월의 대학가에 대해 말한 기억을 떠올리며, 일찍 꺼져서 고등학교 때부터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운운하던 동창을 생각하며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한 일원이 되어갔다. 또한 내 방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게 되었고 나에 대한 혐오 대신에 내 주위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에 더 큰 혐오와 반항심이 생겨났다. 그럴 즈음 첫 섹스상대를 만났다. 학생회 간부인 88학번 형으로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역력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나도 그가 맘에 들었다. 멋모르고 마냥 경충거리는 맘이지 않았던 나.

문제의 그날은 타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 참석후 다 같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었다. 막 진입로에 들어서는데 그가 성큼성큼 앞서 걸어가더니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것이었다. '저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 보네.' 속으로 생각하며 걸는데 그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주위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그가 모는 오토바이에 실려 도착한 곳은 일명 '배기동산'이라 불리는 학교의 어두컴컴하고 인적 없는 곳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있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갑자기 나를 나무에 거칠게 붙여부치더니 곧이어 손으로 내 젖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곧이어 내 입술을 기습하는데 그 공격적이고 원력이 느껴지는 동작에 난 곧 두려움을 느꼈다. 이 순간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상황은 왠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육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끝에 박히는 강한 남자의 체취는 내 의식을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됐다.

또 다시 오토바이에 실려 도착한 곳은 그의 자취방이었다. 담배연기와 각종 물질로 인해 본래의 색깔을 잃은 누런 벽지가 땀처럼 눈에 들어왔다. 영글로 짜서 만든 흰색 시트의 침대와 작은 책상과 옷걸이가 아무렇게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지러이 널부러져 있는 수건, 팬티... 속으로 생각했다. '왜나 일약한 환경이군...'

몇몇은 몇 분이 흐르고 그는 아까 배기동산에서의 행동을 똑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아까와 같은 상태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떤 행위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행위의 가치관도 할 수 없는, 순진한 새살바기 아이와도 같은 상태.

그렇게 비롯된 첫 섹스는 삽입섹스는 되지 못했다. 내 질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의 성기는 너무도 딱딱하고 거칠어서 (마치 물조각 같았다) 난 "아악악~" 하고 괴성을 질러버렸고 그 소리에 놀란 그는 삽입하기를 중단해 버렸다.

하의를 벗고 다시 입기까지 흘러간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됐을까. 불을 켜자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하얀 시트

였다. 거기에 분홍 장미꽃처럼 열게 번져 있는 혈흔. 그런데 우습게도 그 당시엔 '저게 뭐야? 아간 없었는데... 나한테서 나온 건가?' 하는 멍청한 생각을 했었다.

'땀처럼 할 땀 다 아프다던데 그럼 두번째부터는 안 아플까?' 나중에 내가 스스로 내린 해답은 섹스를 하면 할수록 구멍이 커져서 안 아프게 되는 거다였다. 우습다. 충분한 정희로 질이 축축해지고 부드러워졌더라면 첫 섹스라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분명 초보는 아니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학교 내의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를 소문난 플레이보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많은 여자들이 첫 섹스를 할 때 통증이 따른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왜 그리 쉽게 중단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아마도 방음이 허술한 자취방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던 것이 그를 무척 당혹스럽게 했으리라는 추측은 해보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들과 그와의 관계를 우려하는 선배언니들의 교육에 힘입어 난 그를 만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오히려며 해명에 몰두하는 그를 매정하게 끌어버렸다.

섹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탄생의 비밀을 은밀히 듣게 돼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어우 더러워라~'라는 순진한 생각을 해봤고 그때의 생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화생이 될 때까지도 섹스에 대해 어떠한 호기심이나 관심도 갖지 않았던 나.

그런 나에게 첫 섹스는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날 보지 않았던 경험 많은 플레이보이의 장난에 그냥 넘어가버린 것 뿐이었다. 단순한 삽입만을 머릿속에 채우고 있던 그에 의해 나는 단 몇 분간이었지만 신체적 고통만을 당했던 것이다.

성적인 욕망이 뻗지도 몰랐던 그때 나는 왜 겁도 없이 그의 방을 따라 들어가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을까? 왜 난 순결을 잃고 난 후 내게 쏟아질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없었을까?

일탈욕구였다. 그게 원인이었다. 운동권선배들을 통해 알게 된 여러 지식들은 내 안에 내재된 이유없는 반항에 이유를 달아주었고, 모순투성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나를 일탈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 방법으로 남자와의 섹스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 후로 몇 명의 남자를 거쳐 지금 남편과의 섹스에 이르기까지 난 한번도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다. 충분한 전희를 거치는데도, 기술상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는데도, 심지어 충분히 사랑의 감정마저 느끼는데도 웬일인지 오르가즘은 늘 비껴갔다. 나는 심리학자가 아니므로 첫 섹스의 후유증이 얼마만큼 남아 있고, 어떤 식으로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강간이다시피 했던 첫 섹스, 순수한 성적 욕망이 아닌 내 어리석은 일탈의 욕구에 의한 첫 섹스는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첫 단추와 같다는 생각만큼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 이게 데이트강간이구나

구보경(가명, 22세, 휴학생)

오르가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보단 내 삶에서 오르가즘이란 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더 낫겠다 싶다. 누구나 그렇듯이 오르가즘이란 걸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다. 그러나 대학을 들어가서 총 여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오르가즘이란 것이 미디어나 아니면 우리의 환상 속에 또는 어른들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찾아보고자 실천에 옮겼을 때서야 그 전에 느꼈던 아찔한 느낌들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풀리게 되었다. 어느날 갑자기 마법으로 걸어놓은 자물쇠가 열려진 것 같은 느낌... 기억을 해보면 7살 정도에 아랫도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을 더 느끼고 싶어서 팬티 속에 수건을 넣고 다닌 적이 있다. 중학교 때는 오빠가 숨겨놓은 소위 『산데이 서클』 등의 잡지들을 보

면서 느꼈던 오한 싸고 싶은 느낌들. 고등학교 때는 할리 원소설과 야한 소설을 읽으면서 아랫도리에 미끈미끈한 것이 흠뻑 젖어 있던 기억들,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가장 답답해 했었던 것 같다. 뭔가 그 이상의 느낌을 가지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고... 그래!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 가장 미칠 것 같은 이유였다. 왜 그때는 아랫도리를 만질 생각을 못 했을까? 여하튼 고등학교 때는 수업 도중에도 칠판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야한 섹스묘사를 머릿 속에서 수도 없이 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플리토리스라는 등등의 말보다 나에게 더 와닿았던 것은 '여지도 자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실려진 몇 컷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와닿았던 것은 자신의 보지를 보았느냐의 문제. 그 때, 왜 나는 나의 보지를 볼 생각을 엄두도 못 냈을까? 여하튼 난 많은 경험(?)을 통해 자위를 통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고, 나의 성욕도 조금은 안정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살아 숨쉬는 타인과 섹스를 하고 싶었다. 상대방의 살을 만지면서, 음미하면서, 상대방의 호흡을 들으면서, 애무 받으면서... 대학교 2학년 늦봄이었던가, 40대 이혼남성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이를 상관하지 말고 한 번 사귀어보자는 제안을 했다(지금 생각해 보면 그 놀도 참 도둑 심보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너무 안 풀리고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었던 어느 날 새벽, 무작정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있는 인사동을 찾아갔다.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여관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난 성관계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그저 누구와 함께 같이 잠들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여관방으로 들어가니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내 뜻대로 돌아가질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간지럽다고 웃었다. 그 사람은 그 게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걸로 알았는지 삽입을 시도했다. 헛, 나는 흡입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결국 계속 난 아프다고 했고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시도하다 지쳤는지 자버렸

다. (쓰면서도 계속 짜증이 난다. 하지만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힘들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불쾌한 기분으로 학교를 갔을 때—물론 속으로 내가 기분이 왜 이럴까를 되뇌이면서—선배언니가 마치 성폭력 당한 피해자의 표정이구나 했을 때 그때서야 알았다. 아! 이게 성폭력이구나. 아! 이게 데이트강간이구나. 아!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헛갈려 하는구나.

몸으로 체득한 몇 가지 깨달음은, 흥분이 되었다는 것이 곧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구나였다. 아랫도리에서 곤란한 질 분비액은 나왔는데 열리지 않았다. 조금만 시도를 해도 아프기만 하고... 문제는 남성들이 질 분비액을 보고 이 여자가 날 열렬히 환영하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깨달음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고서는 성관계가 불가능하구나였다. 상대에게 신뢰가 가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그 불안은 편안히 즐기질 못하게 만들었다. 여하튼 원론적인 것 같은 이 깨달음은 경험을 하고서야 와닿았다. 물론 사람을 쉽게 믿는 나의 바보스러움도 한몫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금 난 28살난 남자를 사귀고 있다. 물론 나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했으며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사실 1년이 다 된 지금도 계속 살피고 있는 중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친구는 그 나이에 안 맞게 순창이었다. 몇 번 키스한 것 이외에는 경험 무. 그래서인지 함부로 여성을 주무르겠다는, 소위 성관계 내에서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도 처음부터 나의 의견을 확실히 말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다. 나는 키스는 좋은데 그 이상은 무섭다.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간다 등등... 놀라운 것은 이 친구도 어렸을 때 예쁘게 생겨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어서 성폭력의 기억과 경험이 얼마나 끔찍한지 머리가 아닌 느낌으로 알아주었고 그것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심조심, 차근차근.

22살 먹은 내가 최종적으로 느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오르가즘을 찾기에는 서로를 너무 모른다는 것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여성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애와의 섹스가 지속될수록...

정진영(가명, 21세, 아르바이트)

...생각처럼 글이 나오지 않는다. 두서없이 뛰어나오는 말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내심 걱정까지 했건만. 그러고 보면 성에 관한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본 일이 거의 없다. 답답하다. '오르가즘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달린 종이가 뭐든지 풀리는 대로 얘기해 보란 듯이 펼쳐져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습관들기 나름이니까.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좀 더 자연스레 말문을 트는 것을 연습할 것이고, 그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나는 21세의 레즈비언이다. 성에 대해 대충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한 것을 중학생 때로 잡는다면 그 뒤로 6년을 더 살았고, 그 중의 3년은 레즈비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해맨 기간이었다. 물론 뭐가 뭔지 모르는 막연한 것이지만, 달라진 것은, 처음 사귀었던 아이와 섹스를 하게 되면서 변하게 된 성에 대한 나의 생각일 것이다.

처음 그 애와 키스했을 때, 껴안았을 때, 서로의 몸을 만졌을 때, 서로 느꼈던 흥분이나 긴장감 외에 뭔가 흥기

는 기분이 나를 압도했었다. 그건 아주 어릴 적 우연히 클리토리스의 자극을 발견하고 그 '놀이'에 열중해 있을 때 그걸 본 엄마가 나의 팔을 꼭 붙들고 다시는 그 놀이를 하지 말라고 다짐하던 때부터 사춘기 무렵까지 즐기게 배운 '성=떴떴하지 못한 것'이라는 공식 때문일 것이다. 물론 나의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너무나 조용하다. 그러다가 성에 관련된 어떤 작은 단서라도 발견되면 아단이 난다. 덮어놓고 죄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나는 평소 자위행위와 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좀 더 많은 압박감을 느꼈었는데...

경이로움과 즐거움과 두려움과 흥기는 마음이 뒤죽박죽인 상태로도 그 애와의 섹스가 지속될수록 나는 솔직해지고 행복해졌다. 내가 자위행위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몸에 대한 애무를 그에게 해줄 수 있고, 그 애도 기뻐했으며, 우리는 서로가 즐거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게 됐다. 물론 어설프지만 서로 육체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정서적으로도 긴밀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성적인 '교감'이자 서로의 성적인 황상을 실현하고 '공유'하려는 움직임이었으니까.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 그를 정말 더 사랑했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오르가즘을 느꼈다.

너무 거창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랬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기의 삽입이 없는 우리의 행위를 과연 섹스라고 할 수 있을지 아리송했었다. 웃기지도 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느끼고 있다. 그 애와 내가 그만큼 말을 수 있었고, 그 애와 헤어진 뒤 2년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도 그냥 '그때 참 해봤어' 정도의 기억이 아니라 내가 레즈비언임을 '행복해' 하게 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연애에 재주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섹스의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이 내가 '섹스'라고 생각해 왔던, 남자의 성기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삽입, 피스톤운동,

사정 등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들보다 서로를 대상화한 '성기'로, 단지 '몸'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더 적었기 때문이라고... 편협한 발상일 수도 있다. 아직 많은 사랑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면서 살아야 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편협한 만큼 깨지기도 할 것이고, 내가 가진 한 상만큼 벅사리도 날 것이다. 그렇더라도 만약 몇 년 뒤에 같은 제목의 글을 쓰게 되었을 때 처음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신나게 해주었던 연애와 섹스에 대한 느낌이 허방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줄 만한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주홍글씨, '생각도 간음이다'

이연숙(가명, 35세, 회사원)

내 성의식은 사춘기 때 물레 두근거리며 본 한국문학 단편선 속의 성적 묘사에 관한 내용과 대학에 들어와서 본 몇 편의 에로틱한 영화에 머물러 있었다. 고등학교 때 가정선생님이 '애 첫 먹일 때 애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라고 한 말, '생각도 간음이다'라는 성경구절의 말이 내겐 나인처럼 찍혔다.

스무 살 시절,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순결, 섹스에 대한 무수한 질문들을 던졌다. '사랑을 하면 섹스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섹스는 임신과도 직결되므로 내가 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하라라'고 고민 끝에 결론지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난 남자의 성기(볼 기회가 없었기에 상상 속의 크기였지만)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거의 공포에 가까웠다. 키스, 가슴애무... 아! 황홀해. 하지만 성기삽입은 생각만 해도 내 양하벅지를 긴장케 했다. 대학시절 읽고 토론하던 여성문제 서적들의 수위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대안이 사랑과 섹스가 결합된 단 한 사람과의 결혼이었다.

그런데 난 결혼 전에 열렬결에 남편과 동거를 하게 되



있고(어느 정도 결혼을 전제로 하였지만) 섹스를 하였다. 처음의 '성기삽입섹스'는 고통스러웠다. 콘돔이 삽입을 더 힘들게 해서 중간에 벗겼는데, 그렇게 아팠는데도 혈흔이 묻지 않은 것과 이부자리 밑에 깔려 있던 그 날의 콘돔이 황망스러웠다. 동거중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신에 대한 걱정이 컸었고 콘돔사용이 잘 되지 않아 우리는 '질외사정'의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생리가 하루라도 늦거나 하면 난 극도로 예민해졌고 당연히 섹스에서 몸조리를 수밖에 없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심장적으로 조금은 편해졌어도 그 상태는 계속됐다. 결혼 전의 상관관계까지 10년이 되어가는 부부관계. 그동안의 나의 무지와 지금은 많이 깨졌지만 나를 가둔 또 하나의 나...

남편은 부부 성생활을 위한 책이나 비디오를 같이 보자고 했으나 난 굳이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 흔한 여성잡지 하나 사보지 않고, 그날 성은 자연히 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애무도 주로 받는 것이었다. 남편은 머리 끝에서 아래까지 오랫동안 애무하고, 삽입해서도 한참을 하는 스타일이다. 힘이 좋아서라기보다 사정을 참느라고 잠깐씩 쉬었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정으로 올라갈 때 나와 리듬이 충분히 맞지 않은 상태에서 질외사정을 해야 했다.

나도 처음엔 흥분을 하다가 생각이 다른 곳으로 새곤 했다. 몸에 흥분 젖은 남편의 몸이 내 맨송맨송한 몸에 포개져올 때 그 미진함이란! 그리고 섹스 다음 날은 몸이 너무 피곤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나로서는 월례행사처럼 해야 했다. 남편 역시 바깥에 서로 원하는 날이 일치하기 힘들었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임신의 가능성이 없는 날 몸이 잘 열리고 절정에 오르곤 했다.

남편을 애무하는 것은 힘이 들었다. 남편은 오랄섹스 받는 것을 원하지만 난 싫었다. 의사남편을 둔 친구가 수다중에 오랄섹스는 변태라고 한 말에, 그리고 나 스스로도 변태적인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컸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내가 하는 애무가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 하는 내가 지루할 수밖에.

더욱 결정적인 것은 나의 결벽증이다. 지금도 나의 결벽증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잘 모르겠다. 그것은 그야말로 '세균'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지만 그때는 심각했다. 영화 속에서는 밥 먹다가도, 일하다가도 섹스를 하는데 집에 와서 씻고, 밥 잘 먹고 누워 있다가 뭔가 분위기가 서로를 원하게 되어 섹스에 몰입하고자 할 때 난 남편에게 명령한다. 다시 씻고 오라고. 그러면 남편은 씻고 오면서 "흠 다 켜다"고 부릴거란다.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도 긴장이 되었다. 정말 시뻘뻘하고 불고 불고 하는 관한 관계임에도 내 품배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는 않을까, 등등.

임신했을 때도 난 당연히 임신 내내 부부관계를 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책에서는 임신중의 체위에 대해 그림까지 덧붙여 설명하고 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데 섹스를 할 수는 없었다. 내 욕구가 없으므로 남편에게도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가끔 "나를 수도승 만들어라"라고 했지만 1년을 넘게 기다려줬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관행을 거라고 했는데 삽입할 때마다 뻘뻘하고 아팠다. 남편은 '러브젤' 같은 윤활유를 발라보라고 했지만 난 그것도 싫었다.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꺼림칙했던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가끔 야한 비디오를 빌려와서 분위기를 잡고자 했다. 포르노도 몇 번 함께 보았다. 나도 처음엔 흥분이 되었는데 기분이 나빠지고 섹스할 마음이 더 없어졌다. 난 남편을 이상한 듯이 쳐다보았고, 놀리듯이 남편의 성적 호기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남편도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었지만 내 문제가 컸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가끔은 남편의 몸이 사랑스러워 원하기 전에 애무해 주기도 했는데, 대부분 마음을 닫고 몸을 닫았다. 물론 내 병적인 부분 말고도 남

편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이나 권태로움이 느껴질 땐 내 몸이 반응해서는 안될 것 같은, 반응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다. 섹스 후에 우리는 어땠었는지 이야기하고, 절수도 때린다. 내가 때렸는데 그것도 남편이 리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리라. 여하튼 나름대로 연구하며 개척하는 맛도 있었다는 생각을 든다.

기본적으로 나는 몸이 약해서 그런지 성적 욕망이 자주 일어나는 타입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러브젤'도 바를 수 있고, 이제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거니까 남편에게 불임수술을 권해볼 생각이다. 내 성기를 한 번도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내 성기도 볼 수 있고(결혼 전에 봐두지 않아서 아쉬울 정도다). 아직은 잘 안되지만 자위도 시도해 본다. 그리고 성적인 공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끔은 운명 같은, 사랑과 섹스와의 합일을 꿈꾸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도 성적 클립만으로 더 멋진 밤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편과의 오늘밤이 더 기다려지기도 한다. □

일러스트 난나

팬티 한장에 25만원? '기적의 섬유'로 만든 속옷이야기

원적외선 방사로 '생리통 해결' 임상실험 성공

지금까지 속옷은 워너워나 해도 평범한 면소재 100%로 만든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덕연구단지 전자공학 박사팀과 NCR 기술팀이 공동개발한 일명 '기적의 섬유'로 불리는 첨단섬유로 만들어진 속옷이 개발되어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유가 기적의 섬유로 불리는 이유는, 수백억 원짜리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원적외선'보다도 더 많은 원적외선이 상온에서 90% 이상 방사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신소재 섬유로 속옷이나 생리대를 만들게 되면 여성의 고인거리의 하나인 그 자궁 자궁난 생리통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신소재로 만든 속옷은 생리통 해결은 물론이고 이 소재로 만든 타월을 편 두통이 있는 분에게 실험한 결과는 편두통이 사라졌다는 반응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임상실험까지 마친 이 신소재로 만든 속옷은 실험에 응했던 사람들로 부터 '효과만점'이라는 굉장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생리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소재입니다.

해외에도 수출합니다.

이 제품을 입어보시면 그 속옷값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옷은 다이아몬드 속옷이라고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건강을 책임질 수 없지만 다이아몬드 속옷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엄청난 양의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특히 고열압, 저열압, 신경통, 류마티스, 두통 등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각종 증상의 해결에 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속옷은 그래서 조금 값이 비쌉니다. 1장에 25만원입니다. 문제는 효과입니다. 입어보시고 만약 효과를 못 봤다면 즉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서너 달 입다가 반품해도 괜찮습니다. 소비자의 양심에 맡깁니다.

이 제품은 한 중소기업인의 책은 자본으로 생산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광고 한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이 제품은 많이 알려지지 못했고 아쉽게도 엄청나게 판매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분리해서 지난 11월부터는 해외수출의 길이 우선 통로가 되면서 본격적인 외화벌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앞으로 39소방과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자카드 및 각종 신용카드로 구입 가능

주문전화 080-5-882-882 또는 02-706-0005

대리점, 취급점 개설 및 홈페이지대행 문의 환영



여자들의 점심식사

일시 : 1998년 10월 어느날 오후

참가자 : 봉래, 부들, 양남, 레오, 언넌, 초희, 은호, 끝순 등 여자 8명(모두 가명)

봉래: 근데 오르가즘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나는 한국남자를 보면 성적 감흥을 안 느껴.

부들: 서양남자를 보면 느끼고?

봉래: 서양남자도 다는 아니지. 근데 참 인간적인 남자를 보면 아, 저런 남자는 괜찮겠다 하는,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나는 서양남자들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고민은 했지. 나는 한국여잔데 왜 한국남자들한테는 성적 감흥을 안 느낄까...

부들: 근까 한국남자들은 국제경쟁력이 없다니까.

봉래: 어, 그래서 자극이 없는 거야. 영화배우 이정계를 봐도 별루야. 국제경쟁력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감이 딱 잡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게 식민지적인 건가, 사대주의적인 건가 얼마나 갈등과 변민과...

끝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남자들이 외국남자들보다 변강쇠

나. 성적인 테크닉에서 보더라도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 여자의 성감대를 잘 찾아내 주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윤리적이어서 여자의 원하지 않는 임신 그런 거 신경써 주느냐, 그것도 아니야. 뭐 왜 좋겠어요?

봉래: 우리 남편도 나랑 비슷한 거 같아. 우리 남편도 젊은 때, 학생 때는 섹스에 집착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일이 많으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둘이 너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다고 그래.

끝순: 그런 걸 궁합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은호: 우리 구성애씨 얘기 좀 해봐요. 어떠셨어요? 강의 들어보셨어요?

봉래: 응, 나는 좋더라. 나는 한국영화에서 섹스장면이 왜 그렇게 구성되는가 했더니 한국남자 감독들, 창작주체가 다 사춘기적인 호르몬정신 가지고 하도만.

끝순: 남자애들이 여자를 구멍으로 안다고 구성애씨가 얘기했잖아요.

봉래: 그렇지. 그것도 있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이거거든. 나는 구성애씨가 총무로 영화인들한테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여튼 나는 한국영화 보면서 한동안 내가 불감증인 줄 알았다니까.

부들: 남자들이 여자들의 오르가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애.

봉래: 사실 영화가 성이나 섹스에 대해서 가장 정보를 많이 줬지요.

"당신들의 오르가즘에 감염되면서"

부들: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래요. 연애소설, 사실 신문 연재소설 나 국민학교 때 그런 거 몽땅 다 봤는데 키스신이 나오는 데는 열 번도 더 읽어. 뭔가 에로틱한 그런 거를 다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왜 <빙정> 이런 거 키스마크 나온 거 땀에 난리

가 나잖아.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잘못된 섹스에 대한 관념을 갖는 거야. 자기 몸은 전혀 모르고, 그냥 섹스를 하면, 잠만 자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해보니까 너무 아냐. 좋지도 않거든. 나는 상당히 늦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끝순: 나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오히려 그 남자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포르노 잡지, 외국잡지들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책상 속에 있는 걸 내가 봤거든. 근데 진짜 보니까 여자들 다 다리 벌리고 있고, 다리에 천 하나 감고 있거나, 아주 에로틱한 포즈로... 아니, 에로틱이 아니지. 당신들의 에로틱인가? 하여튼간에...

부들: 당신들의 오르가즘?
끝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흥분을 느낀 거예요. 그것도 사춘기 시절도 아니었는데...

봉래: 어머, 여자 벗은 걸 보고?

끝순: 응, 내가. 왜냐하면 여자들이 성 관계를 연상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떤 거는 여자와 남자가 굉장히 이상한 포즈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언넌: 언제쯤이었는데?

끝순: 초등학교생인 거 같애.

부들: 오히려 때문에 노출이 일찍 됐구나.

끝순: 응, 응, 그 때 굉장히 흥분스러웠던 거 같애. 나 그때 내가 남자였다면 조금 더 성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

을 거고, 그러니까 뭐라도 했을 거예요. 진짜. 마스터ベーション이라도 했을 거야.

언넌: 우리 어렸을 때는 여자 벗은 몸밖에 성적인 이미지가 없었잖아.

부들: 그렇지. 여자가 흥분하는 것도 여자 몸을 보면서였지.

봉래: 당신들의 오르가즘에 여자애들이 감염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여자아이들의 성욕

언넌: 저는 성적으로 가장 민감했을 때가 중2 때었는데 그때 우리집에 100원짜리 세계문학전집이 있었어요. 그 때 읽은 게 뭐냐하면 헨리밀러의 '섹서스'하고 로렌스의 '차타레부인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성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가 아주 멍해질 정도로... 정말 완전 성적인 생각만으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그랬어요. 충격적이고 재밌고 또 막 흥분되고 그러면서도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자위행위도 했거든요. 중2 때부터 자위행위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저의 성적 환타지가 어떤 남성적인 이미지... 근데 나중에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을 보니까 딱 그 두 책이 완전히 반여성적인 책인 거예요. 그 때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래서 자위행위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흥분을 잘 못 느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순: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렇

진 않은 거 같애. 나는 그게 오히려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준 거 같애. 내가 성감을 알기 때문에 남자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자들도 진짜 그런 장이 있다. 여자의 몸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암시를 남자애들처럼 배우고 자라면 여자애들도 아마 성적 욕구가 만만치 않을 거야. 나도 10대부터 그런 성적 환상에 빠져 있었고...

언넌: 그래서 나도 꿈꾸다가 있잖아, 꿈꾸다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땐가 3학년 땐가 낮잠인가 밤잠을 자다가 엄마가 내가 막 앓으니깐 내가 응응...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낸 거야. 엄마가 너 어디 아프냐 그러면서 나를 막 깨웠는데 그 순간 내가 어떤 느낌을 딱 받은 거야. 성적으로 막 흥분돼 있다가 몽정처럼...

부들: 그게 섹스하는 꿈이 아닌데?

언넌: 그 꿈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봉래: 나도 언넌나 오히려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연애소설을 읽었는데 해운대 가서 첫날밤 지내는 거 그런 소설 있는데...

끝순: 하이틴 로맨스소설 있잖아요. 내 친구 하나가 애 낳기 직전까지 그걸 그렇게 탐독을 한 거예요. 만화가계에서 그걸 빌려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빠져? 자기도 나름대로 그래 주인공아줌마한테 아줌마 나 같은 사람 없죠. 했더니 아줌마들이 다 빌려간다는 거야.

봉레: 나도 그런 게 굉장히 좋은데.
 부들: 그리고 또 여성잡지, 국민학교 때 나 친구집에 가갔고, 언니가 보는 여성잡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걸 연재소설만 봐, 그게 다 연애하는 거 아니야.
 봉레: 그 땐 그랬지. 근데 성교하는 장면이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왔던 거 같애.
 부들: 옛날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
 봉레: 뭐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첫날밤에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침대시트를 딱 봤는데 그걸 '영혈'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어, 이게 무슨 말이나. 물어보지도 못하고, 책 읽다가 혼나기도 했어요. 언니가 뱉어가기도 하고, 남자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영화에서 보듯이 뭐가 나오는 건 아닌데 성교를 중심으로 한 대중의 상황, 그걸 읽고 또 좀 읽다가 다시 고개를 보고, 다음날은 또 거기서부터 봐, (모두 웃음) 거기가 재있으니까 그만보기 전에 또 보고, 다시 볼 때 또 보고... 그거에 내가 대단히 자극을 받고 성적 감흥을 느꼈는데...
 끝순: 근까 이게 성욕의 차이를 남녀로 나눌 게 아니라 기질상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더 환상적인 거를 좋아하고, 우리 남편이 그런 거 같애요. 나보다. 온몸이 성감대인 것도 우리 남편이요...
 봉레: 좋겠다. 어유, 좋겠다.

환상속의 섹스
 부들: 옛날에 여성잡지하고 신문소설은 섹스하는 순간을 묘사하면서 다음 순간 꽃이 어찌구 하면서 아주 환상적으로...
 봉레: 응, 그래, 맞아. 내가 본 건 파도야, 파도...
 부들: 섹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과학적인 지식과 생물학적인 지식은 전혀 안 주니까 모르는 거야. 그거는, 사랑의 환상만 주는 거지.
 봉레: 그러니까 남자랑 자면 다 그럴 거 같고, 다 꽃밭 속을 거니는 거 같고...
 초희: 그러면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리얼하게 섹스를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근까 나는 나중에 휴지가 필요하고 있잖아, 그런 것도 모른거지. 피임도 필요하고...
 봉레: 너무 비과학적이야.
 부들: 피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지.
 끝순: 여자들이 오르가즘에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임신의 불안감인데... 옛날에 한번 미국에서 대학생들 AIDS 방지 테이프 들어와 가지고, 정동철 박사가 기자들한테 물어준 적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콘돔을 막 끼워가면서, 얘기를 레가면서 남자하고... 그런 게 나와. 심지어 여자성기에 램을 대고 오랄섹스를 하는 게 나와.
 봉레: 램을 대고?
 부들: 아, 콘돔이 없었나 보지?
 끝순: 아니, 남자 성기를 에무할 때는

콘돔을 씌우는데, 여자성기를 에무할 때는 램을 씌우는 거야.
 모두: 에이즈방지를 위해서?
 끝순: 근데 그렇게 보여주면 환상이 깨진다고 생각하잖아. (영남 들어온다.)
 은호: 어, 이제 오면 어떻게 해, 빨리 와, 우리 다 얘기했어, 자기만 고백하면 돼.
 영남: 에이, 거짓말...
 언년: 아니, 진짜야, 나는 15살부터 자위행위했다는 말도 했는데...
 초희: 진짜 그 때는 성욕이라는 걸 느꼈던 거 같애. 근데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성욕을 몰라. 그러기 전에 요구를 받으니까.
 끝순: 여자들이 왜 대상이 딱 생기면 오히려 성욕이 없어지잖아.
 영남: 없어지는 거보다 컨트롤되는 거 같애.
 끝순: 두려움인가?
 영남: 성욕이 있다는 걸 보이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 같애. 상대가 생기면... 마음은 그렇진 않은데...
 레오: 응,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엄마가 선생님이었고, 집안이 천주교집안이어서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유교적이고, 또 시어머니 있었지. 나는 어릴 때 성적인 망상이 많았고, 중학교 때 자위를 해봤고, 또 굉장히 혼자서 탐구를 많이 하고, 많이 잠재돼 있었는데 후천적인 환경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억압을 많이 시켜가지고 분열이 일어나서...

그래서 분열이 많았는데 결혼생활에서 많은 게 안 좋았는데 특히 섹스도 안 좋았어.
 끝순: 안 좋았다는 게 뭐야?
 레오: 그니까 하기가 싫었어. 내가 특히 억압이 심해가지고 스물세 살까지 한번도 키스하거나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남편을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키스를 했는데 그때 생각에 나는 키스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끝순: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레오: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키스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한심했단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프 독자들한테 내 경험을 밝히고 싶어. 너무 억울해. 살아온 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오르가즘을 느꼈어요. 키스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몸의 느낌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남자를 유혹하다시피 해가지고 잤어. 근데 이 사람도 억압이 엄청 심한 사람이야. 유교집안이어서. 그때가 스물셋 살인가 그때까지 총각이었어. 군대도 안 가고, 이 남자도 총각이었고, 나도 처녀였고, 결혼하기 전에 한 달에 두세 번씩 같이 잤는데 그 땐 내가 처음 겪는 건데 오르가즘도 느끼고, 내가 먼저 원하고...

부들: 섹스씨커(sex-seeker)가 된 거지.
 레오: 응,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잘 되더라. 근데 좀 재수 없었던 게, 좀 꼬였던 게 나를 의심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혈혼이 없었어. 없.
 부들: 아유, 그놈의 처녀막 때문에 아주...
 레오: 그런 데다가 내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탄 남자 이름을 불렀대.
 은호: 어머, 진짜?
 레오: 아니, 난 모르겠어. 그래서 무진장 갈등을 하다가 신혼여행을 딱 갔어.
 "그놈의 처녀막 때문에..."
 부들: 그렇게 넘겨졌으면 뭔가 고백할 줄 알고 그랬을 거야.
 레오: 신혼여행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야. 시어머니랑 시고모랑 와가지고 온 집안의 팔래를 다하고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때 내가 느낀 건데, 이혼해야겠다.
 끝순: 왜?
 레오: 섹스가 안 돼. 그리고 난 다음엔 결혼도 재미가 없고, 잠자리도 재미가 없더라. 그때부터 내가 이혼하자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물두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공부, 나는 회사 일, 그때부터는 막 삭막해지다가 이따금씩 만나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요만한 소리가 나도 남자가 놀래.

남편이, 어머니가 있다는 거야. 저쪽 방에, 화장실 가시는 소리만 들어도 안 되고...
 부들: 너무 예민했구나.
 레오: 그때부터 자꾸 꼬이는데,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고 상상도 잘하고 자극도 잘 받아. 근데 문제는 남편이 억압돼 있고, 그러니까 밤이 돼도 잘 안 되더라. 연애할 땐 잘되고 좋았고... 나는 좋았을 때는 꽃가루가 눈 앞에 막 뿌려지는 상상도 하고...
 부들: 소설 보면 땀날 그렇더라.
 레오: 아니요, 나는 진짜로 오르가즘 상황에서는 눈 앞에 펼쳐진단다니까요. 보여져요. 눈을 감으면 꽃보라가 날려요. 그리고 땅에서 하얀 게 터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근데 결혼하고는 그게 한번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젖으려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난다. 그러는 거야.
 부들: 강박관념이지.





남자도 딴 여자 생각해

레오: 피임기구를 꺼낼 때도 소리 날까봐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아유, 막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생활을 계속할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게 많았어. 그 사람도 점점 세속적이어지고, 나는 나대로 하루종일 낭만적인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고, 밤에 자고 있는데 딱 들어와지고 불 끄고 누웠다가 만지고 쏙 들어오고 그게 무슨 섹스냐? 내가 바라는 섹스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거부해가지고 또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정리를 했거든.

레오: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레오: 그럴 땐 꼭 강간당하는 거 같고, 그래도 어떤 땐 몇 번 피스톤운동을 하면 성선이 자극이 되니까 흥분이 되지. 그러면 나는 막 절정에 이르려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일단 하면 내가 되게 많이 움직인다.

레오: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나? 레오: 몸이 쾌락을 찾으니까, 들어오면 어떻게든 움직여서 쾌락을 찾고 싶으니까. 안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눈을 감고 딴 사람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별별 사람을 다 떠올리는 거야. 몸을 막 움직이면서 눈을 딱 감고 그날 제일 자극적인 얼굴을 떠올려. 그러면 돼. 그리고 속으로는 남편이 옛날에

나를 의심했던 것처럼 떠올린 사람 이름을 막 불러. 누구야, 누구야, 어떤 선생...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도 죄야. 그런 생각이 들었죠. 끝순: 뭐, 남자도 딴 여자 생각해. 자기 마누라하고 하면서 딴 여자 생각하고 그래.

레오: 맞아. 자기 마누라 얼굴에 신문물 덮고, 그게 스포츠신문이야. 스포츠신문에 색소한 여자 얼굴 덮고 한 다. 이런 농담을 많이 한대. 근데 나는 이중적으로 즐기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는데 딴 사람 생각하는 거보다 나 혼자 사는 게 나을 거 같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돼서 깨진 거지. 그게 한 4년 잤어. 나중에 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어. 영화 보고 그날 영화배우 딱 생각하는 거야. 나는 주로 디카프리오하고 조지 클로니오하고... (모두 웃음)

레오: 그런 남자들하고 많이 해봤어? 레오: 남 같지 않지. 레오: 그렇게 상상한 게 한 20~30명 되지.

레오: 다 나를 거쳐간 남자들이야? 레오: 너무 재밌다. 남자들 그런다고 욕하는 거 아냐, 우리가?

레오: 그리고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진짜 나에게 맞는 남자를 찾고 싶었어. 근데 나는 또 변강쇠를 찾는 건 아니더라. 근육질은 참 싫어하고... 총체적으로 나한테 만족이 돼야 해.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

을 해서...

레오: 서울로 상경을 했구나. (모두 웃음)

레오: 어느날 연극을 보러 갔는데 혼자 갔어요. 나도 사람을 찾고 싶으니까 혼자 많이 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린 사람 기호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 찌들지 않고 일단 생각이 젊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배하고 싶어. 물질적으로는 뛰는 내가 지배하고 흔들고 싶어. 되게, 그래갖고 연극을 보러갔는데 대각선 방향에서 어떤 남자가 앉아서 연극을 보는데 보는 순간에 내가 섹스하면서 상상했던 모든 인물이 딱 보여져. 생긴 게, 끝순: 어머머, 무당이야.

레오: 그래서 연극 끝날 때까지 연극은 안 보고 거의 개만 봤어요.

레오: 와, 그렇게 해서 만난 거야? 레오: 예, 근데 개도 거기서 나를 본 거야. 보고서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

레오: 내가 애엄마들 옆에 앉아 있어서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같이 온 친구들은 말고 자기만 보더라. 그런데 이 사람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연애도 많이 해봤으니까 알지. 아, 나를 노리는구나.

레오: 그래서 눈이 맞았구나.

레오: 응, 눈이 맞아가지고는 나는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을 해서 그날 여관에 갔어요.

레오: 그런데 그때 또 내가 예민해서

가지고는 갑자기 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을 했어. 갑자기 지금 내가 미쳤나 싶게 세상에 남자놈들은 다 때려죽일 놈이라는 등...

레오: 개한테 자기 존재를 알린 거지. 나는 이런 여자다.

또 다른 오르가즘

레오: 응, 알린 건데 내가 너 좋아하지만 오늘 밤뿐이고 한번 자보는 것뿐이다. 니가 나한테 다른 맘을 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했는데 애가 좀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들어갔지. 생긴 것만 갖고 그랬다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만나는 거지.

레오: 잘해줘?

레오: 지금 좋은 거는 일단 섹스에 있어서 둘 다 되게 세. 남자도 전회에서부터 후회까지 시간이 되게 길고, 이 남자도 근데 전까지는 억압이 있어서 충각이었던 거. 거의 군대에서 깨졌다. 개는.

레오: 그리고 애가 문학을 하거든. 그러니까 말도 되게 잘해. 그리고 잘 만져줘. 머리로 만져준다든지 귀에 속삭인다든지... 그 답에 정서적인 걸 되게 중시하는데... 이 남자애는 이제

까지 거의 여자들이 찍었어. 나도 몇 개 찍었듯이 다 여자들이 덤빈 거야. 술자리 같은 데서도 여자들이 계속 쳐다봐가지고 부킹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굉장

히 공허했다. 그게, 그런 섹스가 공허해서 나 만나기 전 일년은 발기가 잘 안 됐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또 캠퍼스커플이랑 헤어지고... 이 여자애는 어떤 애였나 하면 순종형. 그리고 오로지 이 남자 하나.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 보다는 남자를 30~40명 정도 겪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 거 같더라. 그래서 헤어졌다. 지금도 자기만 생각하는 순진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고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여자가 훨씬 더 좋대. 남자 백 명이랑 잤으면 어머네. 지금 자기만 사랑한다면 그리고 성적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레오: 그렇지만 너무 성적이기만 한 것도 싫다는 거지. 나랑도 1~2시간 섹스를 한다면 한 5시간 얘기를 해요. 레오: 그 친구가 섬세하고 여성적이구나. 레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체위가 상위체위를 좋아해. 그리고 학대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때려, 레오: 어딜 때려? 레오: 누가 학대해?

레오: 내가 때려. 나는 사자좌거든. 나는 지배욕이 되게 강한 걸 알고, 전에 남편이 힘들었던 이유가 나를 보살피주려고 하고 나를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걸 싫어했는데 애는 내가 지배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나는

죽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공격적인 게 여자로 살면서 많이 억압되지 않았네. 맞거든. 지나갈 때 남자들에게서 회통당할 때 기분 나쁘지 않았네. 그런 거 생각하면 때려래. 레오: 속죄양이야?

레오: 심리치료를 사다. 이거는.

레오: 응, 심리치료책도 되게 많이 봐. 나 때문에 히스테리연구 책도 많이 봐. 내가 히스테리기가 있대. 히스테리 유형에 되게 맞대. 프로이드 임상학에서 보면 사회적 자아가 많이 발달했는데 개인적 자아가 부실한 경우거든. 내가, 그게 딱 나야.

레오: 완전히 비교분석했구만.

레오: 우리는 만나면 무진장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정말 사람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오퍼들이나 아비지도 폭력적인 게 전혀 없었는데 집 밖으로 나와서 겪은 폭력은 되게 많잖아요. 선생이 여자애들 때릴 때 내가 그 선생을 죽이고 싶었는데 못한 거. 또 살면서 밤길에 뛰어야 되는 억울함. 남자들 소리치르는 거 뭐 이런 게 막 쌓여 있었어.

레오: 나도 그런데... 나도 남자가 폭력적인 거 보면 미치겠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레오: 응, 그 때 못한 게 되게 쌓였거든. 그래가지고는 그 말하고 한번 때려보라고 그러더라. 내가 위에 올라타 있는 체위에서 쌓인 것들 다 자기한테 풀래. 그러면 자기는 또 좋고

홍분되니까, 그래가지고 때렸다.

부들: 필로?

레오: 손으로, 나중에 여기가 별걸
부풀어오를 만큼 손으로 막 뽐을 때
렸거든, 그래서 소리 막 지르면서 때
렸는데 너무너무 후련하고 오르가즘
이 생기는 거야. 또 다른 오르가즘이
야, 그래갖고 나중에 그 친구 엄청 아
프다고, 맨소래담 바르고 난리났어.

부들: 그것은 남자들이 폭력하는 그
런 이유나 마찬가지로. 그지?

레오: 아니요, 그게 그렇게 상시적
인 게 아니고 한 7~8번 하고 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애. 근
데 처음에 그랬다는 거지. 그 다음엔
애기를 해서, 성적인 상상을 해서 애
기하는 걸로 오르가즘을 얻고... 또
뽐 시키냐 하면은 오늘 자기를 만나
기 전에 나한테 성적인 자극을 준 거
있으면 다 애기를 하래. 영화배우든
누구든 길에서 누구 만났는데 어땠냐
물어봐.

부들: 아, 섹스하는 와중에?

레오: 예, 섹스하기 전에 하는 대화하
고 섹스중하고, 섹스 후의 대화가 다
틀려요. 섹스 전에는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좋았다, 사랑한다 하면서 평
장히 우아해, 일단 섹스에 들어가면
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고, 개는
좀 쾅쾅거리는 식으로 되고 그러면서
나를 말을 시켜서 나의 억압이나 그
런 걸 풀게 하고 또 개는 그걸 통해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내 무의식까지도
다 알고 사랑하고 싶대, 무의식까지,
성적인 상상까지 다 소유하고 싶대.
그러면 더 자극이 온대, 그래서 매번
섹스를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해.

끝순: 오, 이벤트? (모두 웃음)

언년: 어머, 너무 별천지야, 너무 다
른 세상이야.

전 남편의 재비화

끝순: 근데 내 친구 한 명이 남자관계
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동안 섹스에
서 별로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난 남자친구가 진짜 재비화
그러면서 애기를 하는데 여자의 느낌
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서 진짜 환
장하잖대, 좋아가지고, 그런 게 처음
이라는 거야.

레오: 나도 처음이지.

끝순: 나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재비
이거 재평가되고, 재정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웃음)

부들: 한 가정에 하나씩 재비를 키움
시다. 전 남편의 재비화...

레오: 이번 기회에 또 한 얘기를 하자
면... 나는 내가 애무하는 게 되게 좋
거든, 허로 이렇게 애무하는 게 성기
위주 섹스보다 훨씬... 근데 어떤 때
며칠 헤어져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내꺼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성기 가
지고는 안 될 거 같애, 그러면 나는
뉘어놓고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다

할아줘요, 그럼 되게 좋아해, 거의 그
때 오르가즘을 느낀대, 막 으악으악
그래.

언년: 와,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런
게 해.

은호: 침 좀 닦고 들어야지.

끝순: 나 지금 침 흘릴까봐 입 다물고
있다.

레오: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거하고
이 남자를 만난 이후하고 삶이 너무
달라.

은호: 남편하고는 그런 애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레오: 그런 적이 없었어, 남자 성기를
한번도 애무해 보고 싶은 적이 없었
어, 남편이 결혼하고 한두 번 정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막 토했다니까,
근데 애는 내가 막 만지고 싶어.

끝순: 그러니까 남녀관계는 참 상대
적이야.

언년: 근데 성기 크기나 이런 거하고
는 상관없어?

레오: 응, 상관없어, 그냥 눈빛 같은
거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다음에 내꺼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정말 막 침을 전부 다 바
르고 싶은 거지, 정말 침바른다고 하
잖아.

초희: 나 근데 후회 모른다, 후회가
뭐야?

영남: 그냥 쓰다듬어주고 이야기하
고...

초희: 닦기 바쁘잖아.

레오: 아니, 닦기 전에 성기를 만져주
고 뽐뽐을 해줘야지, 닦아주고...

초희: 그게 여자가 남자한테 해주는
거야?

레오: 같이 서로...

초희: 닦기 바쁘대...

레오: 아니, 왜 닦아? 얼마나 좋은 건
데...

초희: 묻잖아, 시트에...

레오: 묻는 게 어때? 그리고 후회는
중요한 거는 뽐뽐으로 있을 때를 오
래 끌고 싶으니까 뽐뽐으로 자꾸 철
씩 철씩 부딪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게 끝났어도 위에 올라와서 계속 안
고...

초희: 막 젖어도?

레오: 응, 막 젖어도 계속 안고 부비
고 이러면서...

언년: 아유,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레오: 응, 나도 다른 세상이야.

초희: 얼굴 빨개졌다. (모두 웃음)

레오: 다들 지금 있는 쪽하고 개발해
봐, 나는 내가 만약 다시 전 남편하고
산다면 애를 막 개발시켜서 잘 살 거
같애, 그 사람도 굉장히 잠재되어 있
을 거 같애.

영남: 전 남편이?

끝순: 그런데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
가면 진짜 소유욕이라는 게 불탈 수
가 있지 않아요? 식상하는 부분이 생
기는 거야.

초희: 도망치고만 싶지.

끝순: 도망치고 싶다고보다 성적인

홍분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 인간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래, 오늘 해보자 하고 큰 맘 먹지 않
으면 아무 생각이 안 생기는 거지.

모두: 맞아.

언년: 억압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남: 남편하고라서 안 될 수 있잖아.

언년: 배가 나와서 너무 싫어.

레오: 그것도 중요해, 근까 애는 내가
버릴까봐 헬스 다니잖아.

영남: 와아...

"우리 다 한다!"

언년: 그러니까 섹스는 너무나 독특
한 대상을 만난 거 아니야? 보통 우리
나라 한국 남자가 아니잖아.

끝순: 근데 그런 대상을 노력해서 남
다르게 찾았기 때문에 걸린다 이거지.

영남: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지.

언년: 레오씨 그걸로 소설 써라, 여성
을 위한 포르노소설...

부들: 그걸 또 연극으로도 하자.

영남: 근데 내가 여자들한테 자위행위
했냐고 물어보면 많이들 안 해봤대.

은호: 나도 한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 들었는데 가슴 만지는 것까지는 하
겠지만 더 이상은 못 하겠다라고.

영남: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서 들었는데 불감증 치료할 때 자기 몸의 쾌감
을 자기가 한번 찾아보라 그런대요.

부들: 미국에서 여성학도 자위부터

시작해요, 깃털로 하든지, 손으로 하
든지, 펜으로 하든지.

영남: 나는 깃털로 해봤는데.

부들: 깃털은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구해?

언년: 뭐냐면 화장할 때 하는 거, 두
꺼운 거, 불타지...

레오: 아... 나는 손으로만 했는데.

언년: 나는 성기가 이상한 느낌을 준
다는 건 국민학교 때 알았던 거 같애.

뭐냐하면 목욕탕에 가서 샤워기에서
물이 쏘 나오잖아.

끝순: 클리토리스 자극하잖아.

언년: 응, 그래, 물줄기가 거기 가서
닿았는데 몸이 움푹 한 거야, 어 이상
하다 했는데 그 느낌을 나중에 중학
교 때 소설 읽고 자위를 하면서 경험
한 거예요.

영남: 근데 구상에서도 그렇게 구체
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여자자위에 대
해서는 얘기 안 해요.

언년: 여자자위를 얘기하는 건 굉장
히 어려워요, 나도 지금은 자연스럽
게 얘기하지만 내 남편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죄의식이 정말...

끝순: 그럼 우리 연대라도 하자, 우리
다 한다!

언년: 학교에 가면 내가 제일 지저분
한 거 같고, 음란한 생각 때문에 괴로
웠고 옆에 있는 개는 할까 막 이런 생
각만 들고...

레오: 나도 어릴 때부터 창녀의 과거
흐른다 이렇게...

은호: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앞에 예고런 나오잖아. 근데 장미희가 나오는 영화였어. 카피가 나쁜 피가 흐른다'였어. 나는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받았어.

영남: 왜? 죄의식을 느꼈어?

은호: 사실 나는 한 것도 없어. 아래를 만진 적도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벗고 가슴을 만져본다거나 창문에서 달빛에 비춰본다거나 정도...

부들: 오 예!

글쎄: 진짜 무슨 피가 흐르네.(모두 웃음)

영남: 언제?

“뭐, 그렇게까지...”

은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실제로 마스터베이션 같은 건 안했지만 생각 같은 거요. 남자 동생 보면서 근친상간 같은 거를 상상한다거나 그런 거는 얼마나 죄의식을 느꼈겠어요? 그렇게 몇번 생각하다 말았고, 대학교 때 좋아하는 사람이라 키스하고 그런 거 너무 좋은데 나는 아래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있지. 남자 성기가 들어온다는 거 자체가 으악이야. 으악.

글쎄: 그럼 동성연애 해야겠다.

은호: 만지고 키스하고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큰 성기가,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지만...(모두 웃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를 의식에 큰 성기가 자신의 몸을 뚫고 나갈 거라는 그런 두려

움이 있대요. 한편으로는 자위라도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모두 웃음) 글쎄: 근데 생각을 전환시키면 남자하고 하는 걸 뭐 그렇게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는 결혼했는데 자위가 더 낫다는 거야. 훨씬 깨끗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레오: 나는 그거는 아닌 거 같다. 나는 성이 제일 좋은 게 밀접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혼자 하면 좀 재미는 없을 거 같은데...

부들: 아니, 자위를 하거나 자위에 대해서 허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자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나아지게 되는 거지. 허용치가 넓어지니까.

언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자위행위를 많이 했잖아. 그레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성관계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스스로 자책감이 들어. 내가 너무 일찍 자위를 해가지고...

레오: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러고도 진짜 좋아하는 남자 만나니까 죽이더라니까.

부들: 자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섹스는 무한하게 잠재돼 있는 거야. 달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

영남: 남편한테 자기가 자위를 했었다는 얘기를 해봐.

언년: 어휴, 어떻게 그래.

글쎄: 그거는 성관계할 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더라.

부들: 아니, 그리고 뭐 자위하고 싶을 때 따로 있고 성관계하고 싶을 때 따로 있는 거지. 그걸 때론 같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영남: 아니, 말인즉슨 그런 거지. 자위할 때는 좋았는데 막상 같이 할 때는 자위할 때보다 덜 좋았다는 얘기잖아.

부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럼 한동안 하지 말아 봐.

글쎄: 그럼 점점 더 하기 싫어요, 용불용설이야.

언년: 우린 그래서 정말 너무 안해요. 너무 안 하니까 스스로 죄책감이 드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안 하고 싶을까?

부들: 아냐, 그게 일종의 증세야. 신드롬, 왜 둘 다 전문적이잖아. 신경 많이 쓰고, 피곤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어 가잖아.

언년: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은 게 내 안에 뭐가 있나 깨치고 싶단니까. 정말, 그래서 뭔가라도 몸으로 풀어내고 싶어.

은호: 우리는 왜 상상도 하잖아요. 그런 데 생각하는 것만도 간음이다. 나 그런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글쎄: 나는 섹스가 봐, 나도 그런 생

각 많이 했어요.

초희: 섹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레오: 그럼... 너무 억울해. 살아온 나날이...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한바탕 싸웠어. 얼마 전에.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날.

부들: 아유, 알미운 딸이야.

레오: 내가 엄마는 지금도 내숭이나고, 자기는 좋으면서 나한테는 성은 항상 나쁜 거다. 뭐한 거다. 금해야 하는 거다. 항상...

언년: 어머니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

“얼마나 억울해?”

레오: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얼마, 아버지하고 좋지? 근데 왜 내 앞에선 그런 얘기 안 했냐고 딱 한번 따졌어요. 울고 불고 하면서...

글쎄: 그래, 부모자식지간에 쌓인 건 풀어야 돼.

레오: 그랬더니 엄마가, 바보같이 내가 그런다고 그렇게 살았니. 그래, 얼마나 억울해?

초희: 나는 섹스했는데 내가 못 느꼈잖아? 그러면 복수심이 막 들어. 자기만 좋고 끝났을 때 있잖아. 더 이상 끌고 갈 수도 없고, 너는 느꼈는데 나는... 그럴 때.

글쎄: 이런 오르가즘 얘기 자체가, 여자들이 쾌락을 안다는 게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할 거야. 아마.

레오: 아니, 자기네들은 여자친구 있어도 자위하잖아.

글쎄: 아니, 자위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쾌락을 알고 찾아나선다는 게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될 거야. 부들: 근데 남자들은 회사에서 보면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도 놀 갈구해, 아니 저 마누라하고 재미있게 잘 살면서 댄날 그렇게 애인을 타령이야.

은호: 나 소개시켜주세요. 그럼.(모두 웃음)

언년: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애인을 만들기까지 가요?

부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술집에서 여자도 만지고, 금상첨화로 다 른 여자애인들까지 구하는 거야. 치들이 결혼했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너무 당당하게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를 해.

초희: 근데 우리 얘기하니까 편해지지 않아? 자위니 이런 것도 오픈시키니까 참 편안하잖아. 아까 자위가 여성학 입문의 첫 관문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선언 같은 거야. 여자로서 당당하다는 거.

레오: 내가 이프를 내 발로 찾아와서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가장 솔직하게 억압돼 있던 얘기를 하는 데가 바로 여기라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데도 전혀 뒷풀이 땡기지 않아. 근데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의 담론이 참...

언년: 그래서 페미니즘을 아는 친구들도 남자하고 모든 거에서 평등하고 하지만 침대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관계가 역전되는 거야. 나는 너무 하기가 싫어. 정말,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섹스머신 같애. 그냥 대주는 느낌. 정말 비참해.

부들: 돈 달라고 그래. 난 돈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 못하는 거야. 내가 어떤 여자한테 그 얘기해 줬더니 자기도 써먹었다. 근데 그 남편은 나중에 줄게, 하면서 했다.

영남: 우리 남편이 하도 외치증세가 심하니까 남자에 대한 의심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너 남자라고만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여자만 만나면 자거나 말거나 아무 의심 안 하는데...(모두 웃음)

부들: 근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남자들은 그 말을 굉장히 무서워할 텐데 모르는 남자들은 흥 그래, 해봐... 근까 지 소유물이 기스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동성애를 아는 남자들한테는 자기 여자가 동성애자라는 게 엄청난 모욕이지. 여자한테 뻣겼다는 게.

영남: 남자에게 뻣겼다는 거보다 더 모욕이라고?

부들: 그렇지, 남성성에 대해 철똥을 내리치는 거지.

글쎄: 그럼 의심받을 때 남자 만나러 가야 된다고 거짓말 해야 되나? (모두 웃음)

부들: 그리니까 이런 거 같애. 아까 언넌씨 연극하고 싶다는 그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인 거 아냐. 그건 인생에서 오르가즘을 확대시킨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이쁘잖아.

언넌: 우리 남편은 그 소리 들더니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던데. 돈도 못 버는 게 뭘. 이러면서.

부들: 그 남자가 한심하다. 예.

언넌: 알았어요. 그 말 전할게요.

레오: 나는 성적인 오르가즘이 아무리 중요해도 삶이 주는 총체적인 오르가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끝순: 삶이 주는 총체적인 오르가즘이 뭐야?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어떤 그림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게 진짜 삶이 주는 오르가즘인데... 그건 뭐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절대로 안 죽고 싶거든.

레오: 삶에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몰입할 때 오르가즘. 그리고 삶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화롭게 잘 흘러간다는 총족감 그런 순간순간을 맛봐야 된다는 거지. 죽기 전에, 섹스에서 주는 오르가즘을 포기하더라도 총체적인 오르가즘이 더 좋다고 그러면 대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

부들: 나는 삶이 주는 오르가즘을 표현하라고 그런다면 '만남'이라고 말

하고 싶어. 아까 연극을 하고 싶다는 건 일 말고 자신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 이런 자세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의 자세야. 근데 예술가를 월드메이커라고 표현하거든.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야. 오르가즘도 대상과 합일을 이뤄서 어떤 우주를 창조하는 거 아냐. 그 순간에. 그걸 만드는 게 섹스도 있고, 예술도 있고, 하나의 우주를 만난 거지. 뭐. 그래서 자꾸 뭔가 만남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만남의 경험은 굉장히 육체적인 경험이야.

모두: 카아—

언넌: 그런 얘기 좀 해봐요. 변태...

부들: 변태?

은호: 어디서 어디까지 변태?

부들: 성숙한 성인끼리 쌍방이 합의 하면 변태 아니야. 변태가 어딴? 그

것보다 더 영계. 더 어련애 찾아서 돈으로 사고 팔고 그런 게 변태야.

은호: 나는 정말 오랄섹스조차도 최근에 변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고 그렇거든요.

끝순: 해주는 게,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게?

은호: 둘 다 싫었어요.

영남: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모호하지. 근데 어쨌든 인생에서건 섹스에서건 오르가즘을 얻으려면 능동적으로 자신이 찾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애.

끝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고... 자신의 느낌이나 원하는 거나 이런 거를.

은호: 진짜 붓 하나 사야 되겠네.

부들: 자, 이제 끝내야겠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CONCERT

날짜 : 1998년 12월 16일(수)~20일(일)
시간 : 평일 7시 30분 / 토·일 4시, 7시(2회)
장소 : 청동문화예술회관 (779-0693)
문의 및 예약 : Tel 3142-5410



전통차 대중화는 이제 한방차 복분자(覆盆子) 입니다



어렸을 적 터질 듯한 산딸기를 따서 입에 털어넣던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 산딸기를 예로부터 선인들은 귀중한 약재로 사용하였다.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므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고 오줌줄기를 힘차게 해주어 남녀 성인들의 '성' 문제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자다가 오줌싸는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좋다.

간장 기능의 강화로 눈을 밝게 해주고 몸을 가볍게 하며 흰머리를 나지 않게 한다.

동글레차, 쑥차, 침차 등과 함께 우리차 문화를 정착하는 데 건강차 복분자차를 애용하자.



지금까지 몰랐던 복분자의 '놀라운 효능'

- 신장(腎精)을 더해주고 소변을 보는 데 이롭게 해주며 오줌을 누면 오줌그릇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분자라 하였다. (本草綱目)
- 복분자는 맛이 달고 신정을 보익하며, 여자의 잉태를 돕고 모발을 검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 (方藥合編)
- 성질이 고르고 맛이 달며 시고 독이 없고, 남자의 신장허갈(腎虛虛渴)과 여자의 자식 없는 것을 치료하고 남자의 음위(陰胃)를 강하게 하며 간을 보하고 눈을 밝게 하며 익기경신(益氣輕身)해서 머리털이 희지 않는다. (東醫寶鑑)

복용방법 : 한 되 주전자에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 넣고 30분쯤 달린 후 하루 여러 차례씩 복용한다. 대추를 넣어 다리면 맛과 효과가 더욱 좋다.

구입방법 : 약재를 파는 큰 시장에서 살 수 있는데 서울 경동시장, 대구 약령시장, 충남 금산시장 등에 가면 도매가로 살 수 있다(600g당 6천~7천원).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 하우청

구입문의 및 상담 전화 : 966-8836



난나의 if 세상 **자** 떠나는 여자들 ①

if 가을 독자여행을 다녀와서



chu clinic

주 종합검진센터
CHU HEALTH SCREEN CENTER

“주 클리닉이 드리는 믿음은 양질의
검진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전화 581-2324~8
팩스 581-2329/3472-2389
서울서초구 서초동 1338-2 코라아 비즈니스센터 2층

원장/의학박사
주혜란



▶ 184쪽에 계속.



21세기 세계화시대 한림대학교가

새로운 천년을 가슴 설레면서 설계해야 할 지금, 외채 더미에 눌려 있는 우리나라는 빛을 줄이는 일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 돈이 될만한 것들을 모두 팔아 외자를 조달해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의 관광자원과 도시,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이 바로 컨벤션 산업입니다.

한림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는

- 국제회의, 교역전시, 국제행사 분야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여 연구하고
- 이를 유치, 기획, 운영할 전문요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회의학과 석사학위 과정 및 6개월 연구과정을 97년 9월 1일 개설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개설된 국제회의학과에서 여러분을 21세기 새롭게 각광받는 컨벤션 분야로 초대합니다.

교육특성

- 컨벤션관련 이론과 실습의 병행
- 국제회의 관련 업체에서의 견학, 실무 경험을 위한 인턴십 활용
- 외국대학 교수를 초빙한 컨벤션 전문가 인증 교육과정 실시
(Certified Program for Convention Professional)
- 국내외 국제회의관련 조직, 기획, 운영실무 분야의 학자로 구성된 최고의 교수진
- 컨벤션관련 융역 프로젝트 참여



밝고 깨끗한 학교

한림대학교

서울센터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12 논현빌딩 4층
TEL : (02)3446-2471~2, FAX : (02)3446-2473
춘천본교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TEL : (0361)240-1160~1, FAX : (0361)240-1192

컨벤션 전문가 양성 열어가겠습니다

일송재단부설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
icem Korea

한국컨벤션산업 경영연구원은

컨벤션관련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산·학 연계를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97년 10월 31일 개설 되었습니다. 국제회의, 교역전시, 국제행사를 주관할 기관이나 단체의 담당자 또는 기존 컨벤션 실무자들에게 기획, 운영 등의 기법을 교육하여 경쟁력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위탁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다음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컨벤션 분야 자료 수집, 교재 개발
- 컨벤션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 컨벤션 분야 컨설팅
- 외국 컨벤션 전문 교육·연구기관 및 업체와 교류

icem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7-12 논현빌딩 4층
TEL : (02)3446-2451~2 FAX : (02)3446-2473
E-mail : icemkorea@hanmail.net / icemkorea@hotmail.com



10 창간 10주년

여성신문을 읽는 사람들의 사회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여성신문

구독신청 (02)389-9271

<http://woman.kidb.co.kr>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 For Lunch (낮 12시~저녁 6시)

9,900원의 풀코스

다운 언더 세트 메뉴를 즐기세요.

기분은 up, 주머니 걱정은 down!

호주풍의 전문 스테이크 하우스



두툽하고 푸짐한 진파(serious)스테이크와
다양하고 감칠맛나는 메뉴가 가득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공향점 : 3661-1101

강남점 : 3445-4701



온 가족이 즐기는 중국식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문의 전화번호 422-8886



Special Present

NO.1 결혼정보

‘듀오’에서 배우자정보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년여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96년 출발한 젊은 기업 듀오(DUO)는 신뢰있는 정보제공을 기초로 한 새로운 운영방식, 고품격의 전문적인 서비스 전략으로 업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3만여명의 국내 최대 회원보유, 150여 항목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엄격하고 철저한 입회심사, 전국의 네트워크 및 미주를 연결하는 활발한 회원교류, 게다가 고객 개개인에 대한 섬세한 맞춤 서비스 규모와 신뢰, 서비스에서 듀오는 단연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듀오의 DMS 컴퓨터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커플 매칭을 과학적으로 진단해주는 국내 초유의 매칭 전문 프로그램으로써 매주 MBC-TV<사랑의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최첨단 정보과학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듀오를 통해 행복한 결혼에 골인한 커플이 총 1,300여쌍에 이르는 것으로도 듀오의 정보력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PC통신사인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인터넷 등에 상대의 사진과 프로필을 공개하는 화상정보시스템으로 1:1 PC미팅서비스를 제공하는 IP사업부와 전국지사를 연결하여 대규모 테마미팅을 제공하는 이벤트사업부, 다양하고 알찬 해당정보를 제공하는 해당정보사업부를 두어 배우자정보 외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담없이 듀오의 폭 넓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듀오로 직접 전화주십시오. 전문컨설턴트의 상세하고 친절함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 지개의 뿌리를 찾는 일처럼 좀처럼 만나지 않는 연인에 대한 호기심을 간직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99년 화려한 커플되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 소원성취상 듀오 배우자정보 정회원권(585,000원) 1명
- 솔로탈출상 듀오 배우자정보 단기회원권(385,000원) 2명
- 천생연분상 듀오 1:1 PC미팅정보 상품권(37,000원) 40명
- 신청방법 : 듀오 이벤트사업팀으로 전화하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응모권을 붙여 보내주세요.
(주)듀오 이벤트사업팀 ☎ 02) 584-0003

배우자를 소개하는 어렵지만 소중한 일,
듀오는 그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오 서울본사 고객상담실 (대) 02-584-0004
부산·경남지사 (대) 051-442-2777
대구·경북지사 (대) 053-421-7007
미국 LA 지사 (대) 1-213-382-0077



듀오는 2년여의 걸쳐 MBC '사랑의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원(고려대 명예기자 · 경영학부 96학번)

김형신(이화여대 명예기자 · 영문과 96학번)

지성의 오작교

익숙하지만,
늘 새로운 만남입니다.
대학 · 대학인 · 사회가 만나는
매주 목요일,
캠퍼스라이프는
독자들에게 기쁨을 나눠드리는
오작교가 될것입니다.

믿음직합니다

캠퍼스라이프를 발행하는 중앙전자 · 출판(주)는 3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중앙그룹 산하 회사로 중앙정보처리학원, 중앙컴퓨터아트스쿨, 중앙정보처리(주) 등의 계열사와 함께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방학중에 발행하지 않는 다른 대학신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1년 48주 연중무휴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합니다

92년 9월17일 창간, 10만부 발행, 대학생 선호도 1위 신문... 확실한 광고효과를 입증하는 캠퍼스라이프만의 자랑입니다.

디지털 캠퍼스라이프

온라인을 주도합니다(www.campuslife.co.kr). 매일매일 수시로 네티즌과 대화하는 새로운 방식, 아르바이트 정보 · 오늘의 네티즌 · 캠퍼스 핫 폴 등 신선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1992. 9. 17 창간

대학신문

캠퍼스라이프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67-11 중앙사옥
TEL : (02)312-5901(교)200
FAX : (02)312-6321

정결세대, 청결한 가족, 청결한 우리 집안을 가꾸어주는 옥시 세제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IMF시대에 안성맞춤입니다

팅커벨 네센스



신제품



스티커를 떼어내면
향이 날아요~

공기청향제 하나라도 IMF 시대엔 부담없게!
넓은 공간을 위한 공기청향제 「팅커벨 네센스」

요즘같은 댄 공기청향제 하나도 부담되지요? 저렴한 「팅커벨 네센스」가 새로 나왔어요.

스티커 탈착식의 간편한 용기와 3가지 타입의 유럽풍 향기가 오래 오래 -
이제 저렴한 「팅커벨 네센스」로 실내 곳곳을 향기로 가득 채우세요.



네센스

Natural Essence

팅커벨 네센스는 3가지 타입: ROSE GARDEN(산뜻한 장미향), POWDERY(부드러운 파우더리향), EXOTIC FRUITS(시원하고 상큼한 열대열 정열이 느껴지는 향)



"맛있다, 오뚜기!"

늘 곁에 있는 맛있는 세상

기억해 보세요! 향긋한 카레,
감칠 맛나는 스프, 고소한 셀러드, 새콤한 케찹
우리의 식탁을 즐겁게 했던 맛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맛, 오뚜기
앞으로도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담은 물론, 건강한 식생활문화 선도로,
맛있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늘 곁에 있는 맛있는 세상, 오뚜기-
이제,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오뚜기

마(馬)장조의 아름다운 화음



절묘하게 조화된 화음이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주듯이 우리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역할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우리사회 구축구축이 밝아질 수 있고
우리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전한 레저공간 제공과 함께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이 사회의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LWAYS COCA-COLA

PART ADJONG

1998

98. 11. 26 ~ 99. 1. 25



ELLEN KIM MURPHY
GALLERY

778-10, 775-9 HANNAM-DONG, YONGSAN-GU, SEOUL, S. KOREA
TEL : (02)792-7495 FAX : (02)792-3696

...

BERGAMOT STATION
G5, 2525 MICHIGAN AVENUE, SANTA MONICA, CA 90404 USA
TEL : (310) 453-7976 FAX : (310)453-8996

12월의 요리특선



샘표

일요일 오후엔 국시장국으로 솜씨를 발휘하자!

집에서도 뽐내자!
소문난집 가다랭이 국물맛

소문난 국수집들 맛의 비결은 가다랭이
천연 가다랭이를 주원료로
깔끔하면서도 깊은 국물맛을 내줍니다.
이제, 집에서도 가다랭이
국물맛을 뽐내세요.
물에다 알맞게 섞어서
국물을 내면 소문난집
국물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매주 금요일,
수퍼에 가실 때는
샘표 국시장국을
기억하세요.



- 천연 가다랭이를 주원료로 하여
느끼하지 않게, 비릿지 않게
깔끔한 국물맛을 내줍니다.
- 6개월 자연숙성 선택 양조간장을
사용하여 자연의 맛이 깊게
살아 있습니다.
- 소면, 메밀국수는 물론 사프리카,
포시요양, 양파, 도라성 등에
사용하셔도 맛이 좋습니다.

소문난집 국물맛

국시장국

5분요리 사브샤브 만드는 법

1. 기름기 적은 닭백숙 소고기 안심을 준비해 고깃국과 반죽을 함께 삶아 놓는다.
2. 표고, 느타리, 팽이버섯을 준비해 각각 손질해 둔다.
3. 양파, 양파, 양파를 준비해 각각 손질해 둔다.
4. 잘라둔 다사리나 한가위를 찢은 닭무로 삶아두고 이의 찬물에 담가 놓는다.
5. 물과 국시장국을 5:1의 비율로 섞어 냄비에 넣고 끓여준 다사리를 넣어 국물을 우린다.
6. 손질 해 놓은 야채를 넣고 삶아 익히고 삶아 익힌 닭과 찢은 닭무 소스에 넣어 먹는다.
7. 야채를 익혀 건져 먹지 않게 삶아 고기를 삶아 삶아 소스에 넣어 먹는다.

롯데칠성음료(주)

마일드 & 헤이즐넛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더욱
부드러워진커피

커피, 크림, 설탕이
알맞게 조화되어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
롯데레쓰비 마일드

바로내려 맑은커피

헤이즐넛향 원두를 바로 내려 크림없이
즐거는 깔끔한 맛,
롯데레쓰비 헤이즐넛

레쓰비

(주)성주인터내셔널의 실용적시에
참여하시고 주심을 통해 사은품도 받으세요.
(집지 및 면에 별첨된 양서 참조)

정직한 상품과의 만남
마크 앤 스펜서



MARKS & SPENCER

100년 전통의 영국 최대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 전 세계 35개국 680여개 매장에서 세계 여성에게 편안함과
실용성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주요 백화점 매장에서 직접 만나십시오.

수입판매권: (주)성주인터내셔널: 269-7741 / 구입처: 롯데백화점(본점 8층) 319-8971 / 현대백화점(천호점 1층) 498-2000 / 현대백화점(면포점 3층) 3477-3422

Mayonnaise 마요네즈



제작/ 여성문화예술기획
기획/ 여성문화예술기획

원작·각색/ 전혜성
연출/ 문성의

출연/ 이주실(어머니),
김진희(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남·여) 나이: 세

주소:

전화: 직업: (기혼·미혼)

E-mail 주소: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
발송유효기간
1998. 12. 1 ~ 1999. 11. 30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제2795호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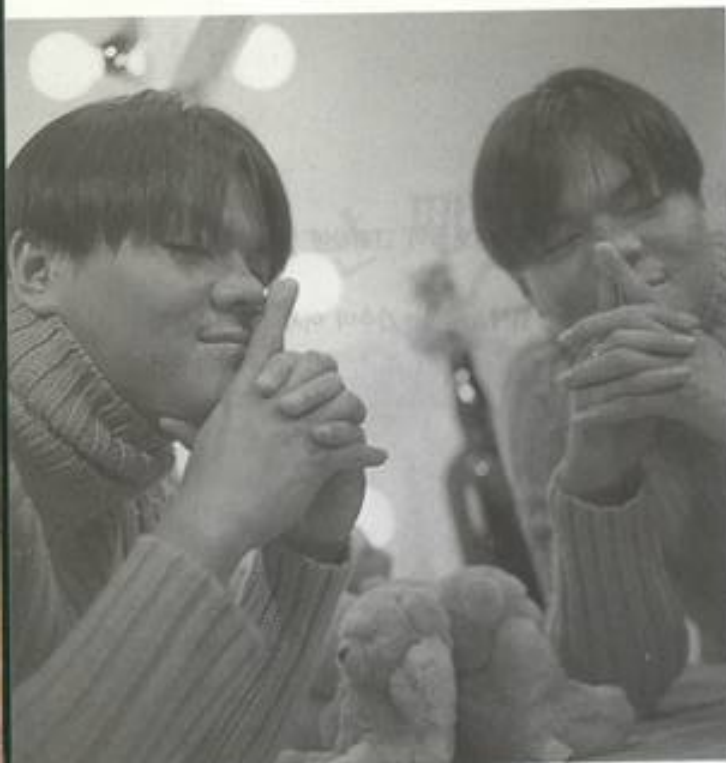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118번지
환경그룹빌딩

(주)성주인터내셔널 마크 앤 스펜서 Team

100-391

MARKS
&
SPENCER

Quality
Value
&
Service



영인이며 어머니는 화가이고 한 분뿐인 누나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다. 가족 모두 방송국에서 출연을 의뢰해도 절대로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으며 어머니는 동네상가에 알려지는 것도 꺼려서 박진영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상점에는 아예 발걸을 끊는 정도이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박진영의 연예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드사진에 얹힌 일화 하나

그의 부모는 거짓말만 안 한다면 무슨 일을 해도 자식을 믿어주는 스타일이다. 무조건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의 절대적인 신뢰가 가수 박진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외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는 일화 하나, 아버지의 미주지사 발령으로

초등학교 시절 2년 동안 미국 뉴욕에서 보낸 박진영은 어려서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팔다리가 긴 그의 신체조건은 춤솜씨를 유별나게 돋보이게 했고 그 점을 의식한 그는 어디에서나 춤을 즐겼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춤을 출 곳이 없었다. 그래서 박진영은 고교시절 아버지에게 나이트클럽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술을 안 먹는다는 다짐을 받고 고등학교 학생 아들을 성인 나이트클럽에 데려다주고 맘껏 춤추게 한 다음 끝나는 시간에 다시 데리러 왔다.

"기자한테

난 연대에서 여성학 강의를 세 과목이나 들었다. 성의 상품화가 뭔지 알고 싶으면 여성학 공부 좀 하고 보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딱 한번 있었다. 박진영의 가수 데뷔 이후였다. 온 가족이 저녁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TV에서는 9시 뉴스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TV 화면에 박진영의 누드사진이 비치면서 기자가 성의 상품화 현상을 보도했다. 식사 도중 밥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란 아버지는, 다음날 어떻게 얼굴을 들고 회사에 출근하겠느냐고 역정을 냈다. 당시 박진영의 아버지는 대기업 중역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지요. 뭐, 아버지가 화내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박진영은 아버지에게는 죄송했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그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가 상품화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는 자기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남자누드 찍은 게 성의 상



품화가 아니고 뭐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당신 여성학 강의 들어봤느냐고 물었죠. 물론 하나도 안 들었죠. 그래서 난 연대에서 여성학 강의를 세 과목이나 들었다. 성의 상품화가 뭔지 알고 싶으면 여성학 공부 좀 하고 보도하라고 그랬어요."

박진영의 누드사진은 95년 여성잡지 『이브』(지금은 폐간됐다)의 요청으로 찍은 것이었다. 사진과 기사가 총 53페이지에 달하는 대형기획으로 전면사진은 없었지만 여러 컷의 누드사진이 나갔고 박진영의 누드가 화제가 되어 당시 그 잡지는 제권까지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왜 누드사진을 찍었어요?"

"일반 잡지에는 여자누드 사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는 포르노성의 저질인 것도 많지요. 여자들이 느끼는 성욕도 있는데 왜 남자들의 눈만 생각하는 거죠? 논란이 되긴 했지만 우리 사회 성문화의 이중기준을 폭로하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누드사진 찍자고 하면 찍을 수 있어요?"

"에이, 요샌 안돼요.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부하느라고 앉아서 있으면 요즘 군살이 좀 붙었어요."

박진영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해외지사로 나간 아버지를 따라 2년 동안 외국생활을 한 것 외에는 줄곧 서울에서 자라고 큰 그는 배명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이 되자 학교 행사에 가수 김현철을 섭외해 학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박진영의

춤솜씨는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고 그 인연으로 라인기획에 픽업되어 가수 김건모의 백댄서가 되었다. 당시 김건모의 백댄서는 박진영과 클론 2명으로 도합 3명이었고 박진영은 백댄서를 하면서 안무도 하고 춤도 가르쳤다. 박진영은 1990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들어갔지만 3학년 때 가수로 데뷔하면서 학업이 늦어져 졸업은 6년만에 했다.

94년 10월 1집 〈날 떠나지마〉에 수록된 〈Blue City〉로 데뷔하고 95년 〈청혼가〉, 〈엘리베이터〉 등의 곡이 수록된 2집 〈따따라〉 발표, 96년 〈Baby come to me〉등이 수록된 영어음반 〈It's time〉 발표, 97년 〈그녀는 예뻤다〉등이 수록된 3집 〈썸머싱글〉 발표, 98년 전국 투어콘서트와 함께 4집 〈십년이 지나도〉



를 발표했다.

파격과 파동의 연속, 방송계 트러블메이커

박진영의 가수활동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격과 금지, 파동의 연속이었다. 결혼한 사실도 감추고 활동을 하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그는 데 뷔하면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을 했고 자작곡인 〈청혼가〉에서는 “너 의 노예가 되어도 좋다”고 외쳤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라는 가사가 나오는 〈엘리베이터〉는 방송금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벼운 키스를 나누는 경험은 흔히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 때문에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엔 앞에 나온 대로 누드집 파동이 일어 성의 상품화 가수로 찍혔다. 야하게 춤추고 야하게 옷을 입는 박진영은 외상, 머리, 엄석, 악세사리 등 출연연예인의 스타일에 대해 각종 검열을 시도하는 TV방송에 대해 불만이 많다.

“검열도 담당PD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 와서 해요. 94년에 데 뷔곡인 〈날 떠나지마〉가 히트할 때 비닐옷을 입고 출연했는데 비닐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겹옷을 다른 옷으로 입고 있다가 실제 공연할 땐 벗고 비닐옷 차림으로 하려고 생방송만 끝라서 출연을 했어요. 또 〈청혼가〉로 가요대상인지 받을 때도 남자가수 수상자 10명 중 9명이 턱시도 차림이었고 저 혼자 스킨스쿠버복을 입었던군요. 그런 것들이 짜증이 나지요.”

“왜 그렇게 튀려고 그러죠?”

“일부러 튀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의 폭을 넓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오히려 좁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싫어하고 틀을 깨려고 하죠.”

박진영은 한국의 연예인 중 여성의 성에 대한 솔직한 발언으로 종종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으로 손꼽힌다. 고정게스트로 출연하던 그를 사과 방송까지 하고 도중하차하게 만든 사건은 96년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이던 〈김현철의 FM 디스크쇼〉에서 벌어졌다. 일주일 에 한 번씩 고정출연해 김현철과 대화를 나누던 박진영은 당시 기독교계에서 불을 일으키던 ‘순결서약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어떤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순결서약을 하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 사진 보고 화가 나서 이중에 한 명이라도 혼전순결을 지키면 성을 잘겠다고 하고, 교장선생님이 한국남성들의 성문화를 잘 알 텐데 왜 이런 현실성 없는 것을 학생들에게 시키느냐고 말했죠. 그리고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섹스하지 않겠다’는 서약운동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운동을 주창하던 쪽에서 항의가 들어와 다음 주부터 출연을 못 하게 됐죠. 비공식 출연정지 같은 것이죠.”

“혼전순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박진영은 이 질문에 아주 흥분해서 열렬하게 대답했다.)

“저는 한국남자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섹스하지 않겠다’는 서약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전순결요? 아니 결혼하면서 그 시시한 부모님 족보까지 캐면서 왜 그 중요한 성적 테스트를 안해보고 결혼을 해야 해요? 바보 같은 것 아니에요? 성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남자들이 육체적 콤플렉스가 많은 것 같아요. 거부장적 권위가 무너질까봐 여자들이

무지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왜소콤플렉스 때문에 모성애적인 아내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술집여자들과는 온갖 변태적인 것을 다 하면서 자기 부인은 집에만 꼭꼭 묶어두려고 하죠. 저는 남자들이 자기 부인과 늘 새롭고 신선한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혼전순결요?

아니, 결혼할 때 그 시시한

족보까지 캐면서

왜 그 중요한

성적 테스트를 안해보고

결혼을 해야 해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착한 여자는 병적으로 싫어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예요. 저는, 주장도 없고 소신도 없이 만인에게 착한 여자는 병적으로 싫어해요. 제 노래 〈청혼가〉에도 “너에게 아침을 지어주고 싶다”는 가사가 나오는데 와이프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러면 가사분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 기죠. 저는 억눌림이 없는 건강한 여자가 좋아요. 웃을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걸 찾는 그런 여자요. 여자들이 깨우쳐주길 바라는 것도 내 연애가 재미있길 바라는 이기적인 이유죠. 죽어 있는 여자는 매력이 없어요. 하다못해 침실을 뒤흔 먹고 싶은지도 자기 의견이 분명한 것이 좋고 키스도 감정표현인데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여자가 좋아요.”

“그런 여자 만났어요?”

"데뷔할 때 여자친구 있다고 고백했고 또 누드 찍을 때도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실연했어요. 그런데 한국여자들이 못난 것 같아요. 화생이 집나서 밀쳐일어나질 못하고 남자한테 안주하죠. 우리 나라 여자들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자아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싸움이 안 되면 재미없어서 살기 싫어요. 그래서 파트너 관계로 연애를 오래 하고 싶어요."

"여자에 대한 생각이 한국의 보통 남자와 다른 측면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이 좋았어요. 여자애들은 손도 예쁘고 마음도 깊고 또 감성도 섬세하고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더 친했어요. 여자의 성욕에 대해서 얘기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저는 늘 성채방을 얘기하는데 언제나 그걸 성채방으로 알아듣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방은 억눌린 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우리 나라 여성들은 성의식이 제일 많이 억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한국의 재벌이나 정치권력자들을 물리는 여자 연예인들 얘기를 들으면 통쾌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가는 호스트바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의 성욕도 인정되어야지요."

귀고리 한 가수출신 정치학 박사

그는 한국가요계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가요사에서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한다.

"음반을 낼 때는 우리 가요팬들의 수준을 가늠하여 약간의 타협을 해서 전략을 짜지만 내가 추구하는 음악의 색깔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요는 아름다운 서정성과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흑인댄스음악은 리듬감이 뛰어나면서도 끈끈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한국가요계에선 이 두 가지가 절충받이처럼 제각각 놓고 있지만 저는 한국가요의 서정성과 흑인음악의 끈끈함을 합성해 두 가지가 다 살아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악 얘기를 하는 중에 그는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저 하늘에" 하며 멜로디를 부르고 리듬을 몸으로 타며 열성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을 설명했다. 매니저 홍현정씨는 옆에서, 박진영이 '댄스류적도 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거



들며 그가 댄스음악으로 편곡가상도 받았다고 귀뜸을 해준다.

가수 박진영의 트레이드마크는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어필하는 '섹시함'이다. 그는 몸으로 노래하는 가수인 것이다. 다른 댄스가수들과 그가 다른 것은 그의 춤과 노래에는 그의 정신과 생각, 그의 철학이 몽땅 담겨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의 정신이 그의 목소리와 노래말과 그의 눈짓, 몸짓에 녹아들어 총체적으로 섹시한 매력을 풍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요즘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다.

"왜 정치학을 공부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하는 게 뭔데요?"

"가수로 노래만 하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정치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관에 박힌 스타일이 아니라 자유로운 발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데 가능하면 박사학위까지 할 생각이예요."

"공부할 만해요?"

"공부하는 건 자신있는데 피로운 건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30분 이상 가만히 있는 건 고문이거든요. 어쨌든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는 귀찮을 거예요. 귀고리 하려구요." 그는 자신이 희망하는 롤모델로 미국 CNN의 래리 킹이나 프리랜서 방송인 정범구 박사 같은 사람을 든다. 아마 몇 년 뒤에 우린 귀고리를 한 가수출신 정치학 박사가 정치코멘터이터로 등장하는 것을 볼지도 모른다. [1]

류숙렬(문화일보 기자, 본지 편집위원)



“
당신이 진행하는 아침프로를 보고 있자니
슬몃 이견 좀 심하지 않은가 싶을 만큼
치미는 속을 달랠 길이 없지 않겠어요.
”

슬몃 이견 좀 심하지 않은가 싶을 만큼 치미는 속을 달랠 길이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잘 생긴 남자 탤런트 하나가 출연한 날이었습니다. 그이는 세간에 섹시한 매력을 지닌 남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요즘 한창 쫓가가 오르고 있는 전직 모델 차승원씨였지요. 그이는 일찍부터 남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데, 그 주된 이야기

속내인즉슨 연상의 부인과 매우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28세에 이미 10살짜리 초등학교 아들을 둔 이력을 지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어려움을 겪은 젊은이답게 상당히 진솔하고 익살스러우며 절절한 그의 입담을 그런데 당신은 틈만 나면 가로막더군요.

“참, 먹일부터 까졌었다”거나 “집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뭐라고 부를지 고민 되겠어요”, 아니라고 답하는 출연자에게 계속 쫓겨가듯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너무 나이 차가 나서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요?”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같다. 국경이든 나이든 별 의식되지 않는다. 십년 이십년 차이 나

도 그건 매한가지다”라고 애써 말하는 그이에게 또 당신은 부득부득 “집에서 부를 때 누나라고 하나요? 누나, 누나라...”라며 물고 늘어져 소탈한 인상의 출연자가 “에이, 무슨 누나는 누나예요”라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까지 연출하더군요. 끝으로 덕담처럼 “이제 앞으로는 느끼하게 보지 않아야겠어요.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식의 마무리까지... 한선교씨, 당신은 혹 출연자를 계도하고 훈육하는 생활주임으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도 차승원씨 출연 때보다는 연극계의 말형 격인 최종원씨 면박줄 때가 더 나았던가 모르겠네요. 개성있는 외양만큼이나 뭔가 자기 나름의 원칙과 생각이 있어보이는 그이를

당신은 정말 승기쁘게 몰아세우기 바쁘더군요. 물론 어느 토크쇼에서 최종원씨가 부인을 ‘다룬다’고 할 수밖에 없는 무개념의 남편노릇을 자랑할 때도 있긴 했지요. 그때 최종원씨가 거의 독재에 가까운 횡포를 자랑스레 늘어놓을 때 어이없이 허만 차던 내가 이제 와서 당신에게 야단맞은 최종원씨를 감싸고 돌려니 좀 우스운 꼴이 되었다 싶긴 하지만 어찌겠어요? 오늘 제가 할 일은 당신이 아침마다 무심히 날려던 불발탄을 쏘는 일이니. 그거 애들이 주워서 갖고 놀면 크게 다치는 거거든요. 늘상 여자출연자들을 애 취급하는 당신이니 제 말



한선교씨,

당신은

혹

출연자를

계도하고

훈육하는

생활주임으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

뜻, 잘 알아들으시겠지요?

그날 “팔들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당신이 물었던가요? 그러자 최종원씨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상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단호히 보였고 그러자 당신은 정색을 하고 “얼핏 들으면 좋은 아버지 같지만 큰일날 소리다. 근자 이런 부모들이 가정과 나라의 질서를 망치고 있다”는 어조의 꾸지람을 해서 속없는 이들은 동조의 웃음을 크게 터뜨렸고, 최종원씨 당자의 얼굴빛은 어색하게 일그러졌더군요. 마치 진행자와 출연자가 무슨 사감(私憾)이라도 있는 양 대내 살얼음 같은 분위기로 그날 순서는 막을 내렸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 글을 당신께 띄우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배우 이미숙씨가 출연한 날 때문입니다.

옛된 남자와 공연한 기분을 오로지 몸의 느낌만으로 물고 늘어진 건 그렇다치고, 나이 든 여성의 욕구를 솔직히 토로하는 이미숙씨가 역겨웠던지 아니면 우스웠던지 “왜 젊은 남자 몸매 좋으니까 자꾸만 만지고 싶었어요?”라고 당신은 물었지요. 그러자 “네, 이정재씨 벗은 몸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촬영 아닐 때도 슬쩍 만지고... 멋있잖아요”라는 그녀의 답변 사이사이, 당신은 계속 “참, 나 참네” 하는 추임새를 은근슬쩍 못마땅하게 흘리더군요. 그래요, 그런 심술쪼미야 배 나오고 지친 중년의 아저씨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시샘이런 반응이라 짐시다. 하지만 다음 건 어떨까요, 아무리 봐도 진행자의 기본적인 상식과 자

“

아침프로에서

유일하게 견지내는

진실이

하나 있다면

신산한

살을 겪은 경우일수록

그걸 이겨낸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더욱 한하게

빛난다는

정도일까요.

”

질 문제가 아닐까 하네요.

“어떠세요. 집밖에 나시면 한 남자의 아내라는 걸 의식하고 일하십니까? 처음엔 얼마나 배우로서 전문가 의식이 있는가를 다잡아 묻는 적절한 질문으로 전 받아들였지요. 이미숙씨도 아마 그런 저의를 파악했는지 아니면 그저 숨직한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요, 전 집밖에 나서면서부터는 철저히 배우 이미숙으로 살아요. 누굴 만나도, 연기를 해도 그래야 잘 몰입이 되거든요’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당신의 엉뚱한 유도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일하다 만난 남자랑 차도 마시요?’ ‘네?’ ‘아니, 나가면 한 남자의 아내인 걸 잊는다면서요. 차도 한잔 하고 따로 만나고 데이트도 하나는 거죠.’ 그러자 이미숙씨는 조금 당황한 듯 멍칫하더니 ‘에이, 아니죠. 데이트는 안 하죠.’ 이어 기다렸다는 듯 당신은 ‘거 봐요. 이미숙씨도 결국 한 남자의 아내잖아요’라고 단호히 일갈했고 일순 확자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미숙씨의 어색한 웃음. 마치 뭔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열등생이 모처럼 손 들고 발표를 했다가 모진 선생한테 원통 박살이 난 듯한 무색함...

나는 안타깝게 그 옆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의 곁에 앉아 늘상 ‘살’과 관련된 화제로만 언급되는 보조진행자 노사연씨를.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안고, 그러나 그녀는 어느 때처럼 그저 호호 웃으며, 일하는 여자를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기는커녕 당신의 철저한 보조자로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숙씨가 계속 당당하고 솔직한 태도로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일 겁니다. 구설수도 많았고 손가락질도 술하게 받았던 그녀가 아무튼 현재 삶에선 자신의 욕구나 희망을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다는 점, 그 속내야 어떻든 살아가는 모퉁이 구비구비 건져낸 현명함을 받게 보여주었다는 점, 이처럼 아침프로에서 유일하게 견지내는 진실이 하나 있다면 신산한 살을 겪은 경우일수록 그걸 이겨낸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더욱 한하게 빛난다는 정도일까요. 것도 대개는 당신들의 힘이 아니라 마이크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시청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출연자들의 공과가 크다 하겠지만 말입니다.

사람 좋은 강남길씨도 처음엔 꽤 사람살이의 속내를 ‘달수’처럼 짚어내려는 구나 했더니 언젠가는 강수연씨를 보자 대뜸 배드신에 대한 질문만 질기게 물고 늘어지다 원통 면박을 당했고, 사기결혼을 당한 거나 다름없는 김청씨를 불러놓고는 그 아픈 사연 좀 제발 속 시원히 풀어놓으라고 거의 반고문을 해대더군요. 그날 더욱 가슴쓰러웠던 것은 사기결혼 사실을 당사자만 빼고 다 알았으며 사후약방문을 하던 노사연씨의 동정어린 말투였습니다. ‘어머, 김청씨 때

고 우린 그 남자 이상한 거 다 알았었는데...’, ‘아무래도 김청씨가 너무 비사교적인 성격이라서 당했다’는 등. 참으로 여자의 적은 누구라더니 하는 순간적 분노가 확 치밀더군요.

반면 당신과 두 보조진행자는 외모가 출중하거나, 내조에 열심인 여자출연자에 대해선 그리 관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숙씨나 강수연씨의 경우는 거의 그녀들의 미모와 젊음에 대한 언급이 지겨울 만큼 수시로 이뤄졌지요. 또 아무리 바깥일이 바빠도 남편이 들어오기 전 여자는 집에 와 있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거의 사투를 하며 사는 서정희씨는 지해롭고 아름다운 아내로 칭송되기 바쁘고, 공인임을 마치 특권처럼 이용해 차선도 마구 위반하고 온 공방을 상대로 사기치다시피한 서세원씨의 일화는 아무 여과없이 신나게 화제에 올리는 당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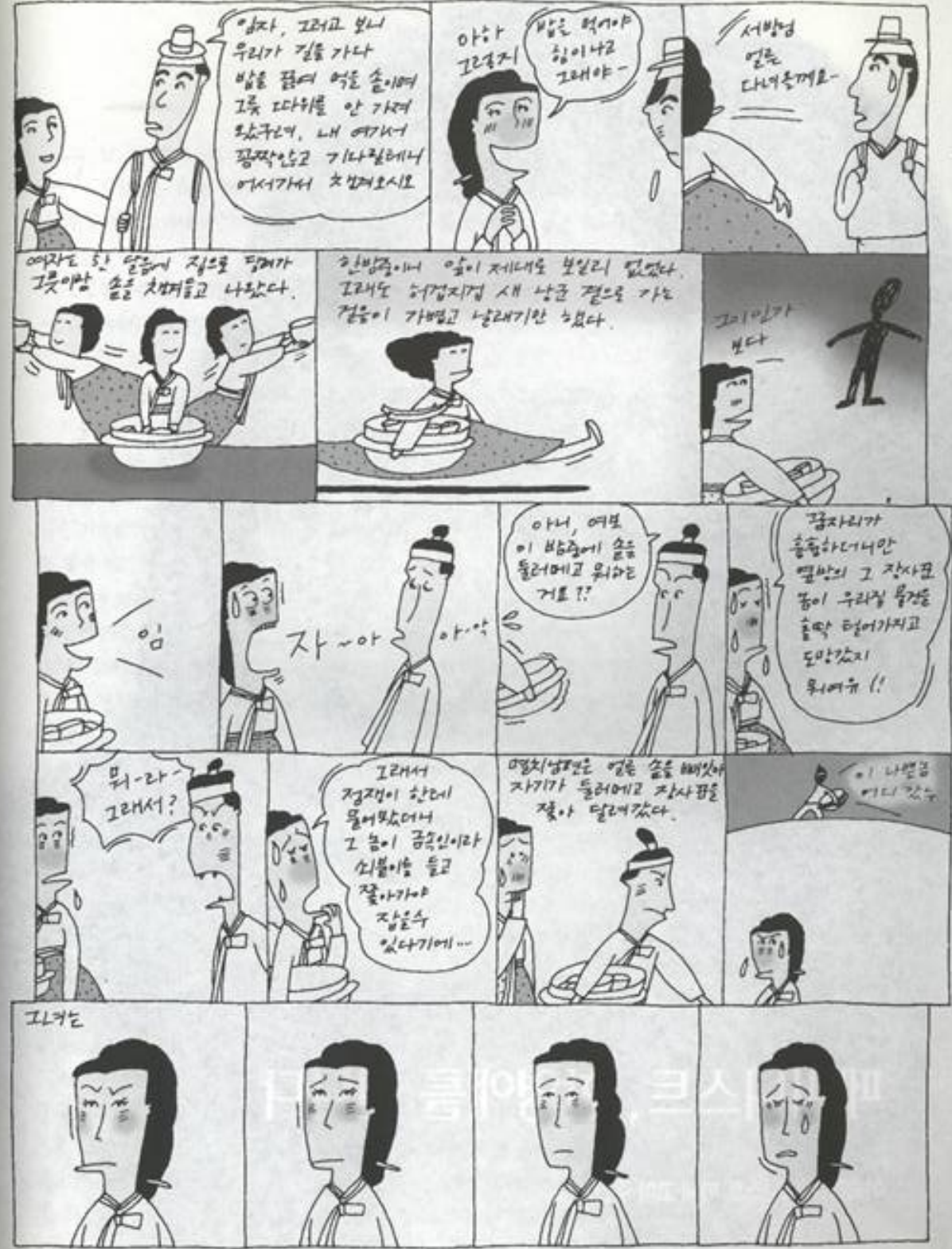
그랬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프로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어찌면 쓸데없는 편지를 걸었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방송이란 매체를 통해 아침마다 마이크로 총을 쏘대는 당신들이 시청을 최고의 아침방송 진행자들이란 게. 오늘도 세상의 아침을 여는 공중과 방송의 어디를 쏘아보아도 당신과 잊비슷한 마이크들이 똑같은 옷과 넥타이로 무장하고 세상의 거실 안에 무차별 사격을 해대는 상상을 하니 두렵다 못해 소름이 오싹 끼치는 심정이기도 하구요.

총알은 날아가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라고 쏘는 것이겠지요. 참을성 없이 까불거리는 여자들 가슴마다 한발, 감히 세상의 흐름에 거꾸로 가려는 모든 금밖의 사람들에게 연발, 남달리 불온한 생각을 갖고 좀 뛰어보려는 작자들의 발아래로는 불발탄 무더기... 컬러시대에 흑백시대의 진행을 하는 당신, 그리고 당신과 비슷한 공중파의 저 많은 저격수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리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게 정말이지 참 무섭고도 궁극한 것입니다. [1]



이숙인

소설가, 본지 객원기자





페미니스트, 한영애를 만나다

이숙경(페미니스트 카페 고마 주인)

그 날, <페미니스트카페 고마>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고마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몇몇은 내가 가수 한영애를 고마에서 인터뷰하기로 했다는 말에 "와!" 하며 탄성을 지르고, 몸단장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 고집 세고, 편파적이며(전적으로 페미니스트 입장을 고수하려는), 맘에 안 들면 온몸으로 거부하는 인간들이 '한영애'라는 여자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페미니스트들이 한영애를 좋아하는 두세가지 이유들

가수 한영애가 "가슴을 저리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위안을 주는, 정말 미치도록 눈물나게 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고, "드세보이는 외모에 당당하고 나이가 많아도 자신의 색깔을 지닌 노래를 부르고, 최근에 일고 나온 거침없는 배품 드러나는 패션이 그녀다와서" 너무 좋다는 사람은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고마에 드나드는 손님들과 외부 행사나 모임 때 만나게 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한영애에 대해 물으면 "멋있잖아", "개성이 있어서", "힘이 느껴지니까", "밝은 노래를 불러도 슬픔이 느껴져, 그래서 위안이 돼"라고 대답들을 했다. 특이한 건 내가 "한영애 좋아해?"가 아니라 "한영애 노래 좋아해?"라고 물어도 '한영애'라는 사람이 갖는 이미지나 느낌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다. 한영애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의 노래와 목소리, 모습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이 받은 위안과 감동은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왜 결혼 안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목소리와 분위기를 갖게 되었을까?",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등의 의문들이 가장 많았다.

이프에서 한영애 인터뷰 기사를 청탁받고, 한영애를 두 번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게 꿈인가 생인가' 했다. 나아말로 대학 졸업후 처음 들은 한영애의 목소리에 반해, 그 실란한 곡조에 취해 누추하기만 했던 20대 중, 후반을 달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후배들과 어울려 노래방에 가면 한영애의 <건널 수 없는 강>을 꼭 부른다.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아 강둑 뒤에 숨어서 아름다웠던 지난 일들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건널 수 없네...' 하는 노랫말이 환상과 꿈에 취해 살던 20대 초반의 기억들과 '안녕!' 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 좋았고, 누군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존재와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 같아서 절절하다.

한영애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의 노래와

목소리, 모습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이 받은 위안과

감동은

만만치 않았다.



이숙경씨

나이말로

대학 졸업후 처음 들은

현영애의 목소리에 반해,

그 심란한 곡조에 취해

누추하기만 했던 20대 중, 후반을

달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주 오랜 시간 그녀의 노래에 위안을 받으며 살아온 내가 생시에 만난 그녀는... 한 마디 질문만 던져도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는 타입이 절대 아닌, 한 번, 두 번, 세 번 질문해도 안 할 얘기는 절대로 안 하는 '강직'이었다.

현영애와 가졌던 두 번의 만남. 첫번째 인터뷰할 때는 한두어 시간 고마 손님들 틈에서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번째 인터뷰는 오전 손님 없는 시간에 세 시간 정도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보았고, 과연 이 작은 체구의 당차보이는 여자가 15년 동안 단 네 개의 음반을 내면서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위안과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해보았다.

하나, 무대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콘서트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가수라면 1년에 300번 정도 공연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기회가 많지 않아요. '밤일' 하고 싶은 맘도 없고... 그래서 1년에 150번 정도하고 있어요. 매일 무대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무대 위에서 제일 안정감을 느껴요. 존재를 확인한다고 할까. 나를 해체하고 들여다보는 거울이 무대예요. 앞에 관중이 있을 때 더욱 그렇죠. 극단출신이라 공간성, 연출력이 확보되죠. 순간적으로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도 극단경험의 영향이지요. 하지만 이미지가 음악보다 커지면 곤란한데, 내 노래보다 이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아 실패했구나' 하고 느끼죠. 노래를 기억해야 하는데..."

둘, 삶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후후, 저요?(뭘 자꾸 캐물으려느냐는 듯한 표정으로 웃으며) 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구요. 남들처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것두 없구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부모님 다 계시구요. 남들처럼 사춘기에 방황도 했고,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환희, 그후에 환상이 깨지는 경험들도 했구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무언지 찾느라 방황하는 시간들도 있었죠. 남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것만큼 부딪혔던 것뿐이죠. 다만 방황이나 경험후에 갖게 되는 정서나 느낌의 부피가 더 컸을 거예요.

집에서는 내가 가수인지, 유명한지 뭘 하는지 아직도 확실히 몰라요. 부모님은 재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시죠. 어려서부터 뭐해라, 공부해라, 결혼해라 이런 강요를 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요즘에도 어머니는 내 눈치를 보시면서, 자식도 나이들면 어려울까봐요.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적이 가끔 있지요.

어려서부터 내가 많이 뛰어 보았어요. 눈에 광채도 있고, 사람들 눈에 그냥 띄어요. 그래서 스물 다섯, 여섯 그때는 남의 눈에 안 띄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랬어요.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살에 끌려가고 싶은 맘은 없죠. 그냥 살아가는 게 기쁜 거. 그런 게 좋죠. 요즘의 속제는 그냥 '만족'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법. 그리고 너무 아무 생각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고 관계 맺고 이런 것들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셋, 노래를 하는 이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노래 시작할 때 '신촌에 목소리 이상한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꼭 퍼지고, 노래 부르라고 해서, 노래가 좋아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떤 욕망이나 목표 없이 노래 그 자체가 좋아서.

나는 화가 잘 안 나요.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대신 진짜로 화가 나면 무섭대요. 화가 나면 사건, 사람에 대해서 백지상태가 되고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편이죠. 대신에 무대에서 그 모든 걸 쏟아내게 돼요. 그럴 때 '아, 나는 이미 무대가 내 삶의 중심인 사람이 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요.

나는 이제부터 프로로 살려고 해요. 가수로서의 정체성이나 구체성을 갖고 '프로'로서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 15년간 노래를 했는데 그동안 한 걸 정리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노래는 대사 올듯이, 연극대사는 노래하듯이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가장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노래', 진짜 가수다운 가수처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픔에 대한 직설적인 가사보다 노래를 듣고 따뜻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넷, 나이에 대해서

"나는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아요. 한번도 내 나이가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어요. 우리 나라는 나이에 대한 편견이 심해요. 나이관념 때문에 지레 나이를 먹고 그러죠. 저 사람 몇 살이래 그러면 이미 끝난 거같이 생각해요. 유럽은 사십이 되어야 일을 왕성하게 한다고 여겨요. 열정과 능력이 있어도 나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 나라는 나이 먹은 가수, 특히 여자가수가 활동하기가 참 힘

“

집에서는 내가 가수인지, 유명한지 뭘 하는지 아직도 확실히 몰라요.

부모님은 재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시죠. 어려서부터

뭐해라, 공부해라, 결혼해라 이런

강요를 하신 적은 없어요.

”



이숙경



들어요.

60세, 그 이후까지도 계속 노래하고 싶어요. 얼마 전 이미지씨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화가 났어요. 비밀 언덕이 있어야 나도 기댈 텐데, 독보적으로 지탱되는 일이 없잖아요. 페티김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공연할 때 보면 힘이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평생을 걸쳐 노래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선배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다섯, 좋아하는 것들과 일상에 관하여

“여행하는 거, 무조건 떠나는 거 좋아요. 요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구요. 먹고 자는 거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음식 먹고, 인스턴트는 절대 안 먹고, 시간 맞춰 식사 하고 밤에 일찍 자고, 약간의 운동도 꾸준히 해요. 보이스 훈련은 항상해요. 아직도 충분치 않아요. 음악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관리죠.”

연예인 치고는 일찍 자요. 밤 9시나 10시에 잠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절미 하나 먹고, 신문 보고, 악보도 정리해요. 침실을 맛있게 지어서 먹죠. 혼자 먹어도 상을 꼭 제대로 차려놓고 먹어요. 오후에는 외출해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해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잠기에도 능하지 않고, 수다도 잘 안 떨고, 단조롭지만 바쁘게 살아요.”

여섯, 재능있는 여자후배들을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수업, 강의 의뢰가 오는데 현역으로 더 일을 하고 나서 기회가 되면 할 생 각이에요. 재능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끈을 댈거주고 싶은 생각도 있 구요. 우리나라는 여자에게 달려 있어요. 후배들에게 길을 좀 터주고 싶은 생 각이 있지요. 하지만 프로와 열정의 차이는 천지차이예요. 주체 못하는 열정이 시작의 전부이긴 하지만 프로로 갈 것인지 많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일곱, 5집 음반과 콘서트에 관하여

“5집 앨범은 제목이 없어요. 그냥 〈한영애 5집〉으로 갈 생각이에요. 이번엔

사운드에 변화를 좀 주었죠. 테크노적인 요소를 가미했어요. 21세기에 어떤 음악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음악 하나 하나에 구체성을 띄고 싶어요.

5집에 〈봄날은 간다〉를 새로 편곡해 보았구요. 〈섬아이〉, 〈따라가면 좋겠네〉 같은 곡들이 노랫말이 아주 재밌어요. 녹음은 한 절반 정도 진행되었죠. 11월 말에 시판예정이에요. 이번 12월 예정된 콘서트에서는 곡 하나 하나에 실린 노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요.”

참고로 밝히자면 그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정동문화예술회관(773-8960)에서 공연될 한영애 98 겨울콘서트 〈난다 난다 날자〉를 준비하고 있다. 신보에 수록되어 있는 〈섬아이〉, 〈따라가면 좋겠네〉, 〈사랑의 무상〉 등을 부를 예정이며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던 그녀의 히트곡 〈코랄소〉, 〈누구없소〉, 〈여울목〉 등을 새롭게 편곡(테크노적인 요소와 프로그래밍된 사운드)해 부른다. 또 다른 가수들의 노래도 그녀만의 색깔로 선보일 예정이다.

페미니스트들이 한영애에게 바라는 두세 가지 것들에 관하여

한영애는 지난 76년 〈해바라기〉에서 음악활동을 시작했으며 2년 후 극단 자유극장에 입단해 연극배우로도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신촌블루스〉 프로젝트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가수이자 연극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4개의 음반을 세상에 내놓았고, 그의 연극배우로서의 경력은 마침내 지난 97년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렸던 〈신중현 Tribute Live 콘서트〉의 총연출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한영애는 이십여 년간 노래와 연극으로 세상과 소통해 온 셈이다. 자신의 말대로 일상의 자갈한 정서들이 절제된 생활 속에서, 거기에서 모아진 힘과 열정을 다시 무대로 옮겨 혼신을 불태우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수해 온 것이다. 가수 한영애는 20여년 동안 노래를 불렀으면서도 “이제야 진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고 말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가수 한영애가 노래만큼, 아니 그 이상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수로서, 장인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독신의 여자선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자신의 끼와 영혼을 가두지 않고 연극과 노래로 맘껏 풀어내며 살아온 한영애의 삶은 모든 여자들에게 비슷한 삶을 살 것을 강요하는 이 땅에서 더 크고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만난 가수 한영애는 압권, 없

나는 그녀가

조금 다르게 살려는

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에서 힘을 얻어,

자신의 삶을

담은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는 듯 있으려해도 뛰는 눈빛 때문에 '특이한 아이'로 찍히면서 자랐으며, 자신의 특이함을 죽이지 않고 자기답게 살려낸, 질감을 수 없는 자유혼의 여자였다. 노래가사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인터뷰하려는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표현방식조차 너무 그녀다워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우리 주변엔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성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 '조금' 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너무 '크다'. 그렇게 큰 대가를 치루면서도 자기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서로가 '비밀 언덕'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수 한영애는 '삶에 끌려다니지 않기', '진짜 가수로 살기', '떠나고 싶을 땐 훌쩍 떠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닮았다. 우리 역시 주어진 해답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으며, '진짜 가수, 학생, 운동가, 출판, 장사꾼, 편집자, 화가...'인 여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가수 한영애가 우리 삶을 대변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일까? 나는 그녀가 '조금 다르게 살려는 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에서 힘을 얻어, 자신의 삶을 담은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예요?" 하는 한영애의 오랜 기다림과 우리들의 목마름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날이 기다려진다. ■

이숙경

서울출생. 여성학을 공부하고 나서 여성학적으로 사는 것과 여성학을 공부하는 것의 차이 속에서 분열감을 느낀다. 일정한 여성학을 가르치고, 여성학적인 책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요즘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를 운영하면서 여성학적으로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여성학적으로 카페라이스를 만들고, 여성학적인 매식차를 만들어 여성학적인 사비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페미니스트 정체감을 갖고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 묵하 고민중.

「보봐르와 사르트르(비앤에스)」는 결혼의 주체적 회복과 결혼 문화를 개선하고자 타겟혼정보회사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미혼남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결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러들의 결혼

아웃사이드러의 현실에 순응하여 살기보다 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살아가는 진취적·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행동하는 비관적 지식인으로 현대 프랑스 사상계를 대표하는 보봐르와 사르트르는 계약결혼을 단행하여 남녀 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생을 통해 부부가 함께 할만한 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부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들처럼 결혼을 위해 「배경이나 조건」 따위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 결혼에 있어서도 당신만의 합리적이고 진지한 기준을 지닌 당신은 멋진 아웃사이드러입니다.

영화나 음악에 남다른 자신만의 개성있는 취향과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좀 특별한 시각을 가진 당신

결혼에는 적령기가 없는 것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당신에게 아직 세상을 모른다나, 철이 아직 안들었다나...

이제 아웃사이드러와의 만남을 꿈꾸신다면 B&S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B&S가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드러들을 한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평등부부상을 지향하는 결혼정보회사

B & S
Beauvoir & Sartre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회원가입문의 323-2988, 326-2980 (이메일: 한영애@bbs.co.kr, 유니텔: 나우누리, 넷츠고: go coupon)

- 「비앤에스」는 성혼이 이루어진 경우 회원자에게 한해 여성주례를 주선합니다.
- 사회시민단체에 근무하신 분께는 가입비의 3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당당히 보이려면 불만인 상대방에게 던지는 새로운 인생법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일본문화평론가 김지영) 중 「신세대 페미니스트의 「정답」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읽어주세요.

조상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다



곧 신정. 구정 명절이 다가온다. 명절은 한국에 사는 여성들에게 곧 '살항의 날'이며, '뜨거운 감자의 날'이다. if는 명절을 앞두고 여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글을 기획했다. 마침 기대 이상의 필자를 만나 좋은 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의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나는 1949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조물주는 분명 '아차, 저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데...' 실수였는 걸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23살까지 나는 한번도 행복한 순간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말도, 학교 선생님의 말도, 친구들의 말도... 그 어떤 언어도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의식의 물 밖으로 끌어내 햇볕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했다. 나는 그런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남편을 만났다.

17살 때 남편은 내 앞에 스승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의 언어를 처음 듣는 순간 온몸이 전류에 감전된 듯 꿈쩍 할 수가 없었다. 그 선생님은 잘 생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토록 목말라하던 내면의 언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6년 뒤, 나는 그 선생님과 결혼했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떠났으며 5년 후에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갔다. 그런 내게 그곳에 이민 와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이 다가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북미여성들에게서 풍기는 반들거리고 편안한 윤기가 한국여성들에게는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거의 모든 한국여성들은 나와의 관계없이 나와 조금만 관계가 시작되면 내 앞에서 울었다. 나는 늘 그들의 울음소리에 놀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15년간 북미에 체류하면서 겪은 온갖 체험의 자료들을 가슴에 끼안고 1987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과 6·29 선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런 때였다.

한국여성들의 울음소리

나는 딸며느리며 딸딸이다. 독자들이 이미 짐작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는 그 어느 누구의 울음소리도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게 시집식구의 묘한 행동은 또 다른 일격을 가하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을 내게 요구했고, 그러므로 각자 엉뚱한 욕망과 기대를 걸

고서 내 앞에 엉겨주춤서 있었다.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마치 나로 하여금 '죄짓고 빚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은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각자의 자리에 똑바로 서 있도록 해보려고 시도했다. 나는 제발 그들이 나를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오히려 그들의 위로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나는 비합리적으로 우둔하고 약삭빠르고 다루기 힘든 인습의 경박함에 분노했다. 나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시도는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주체성과 인습'의 싸움이었다.

이런 내 앞에서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울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북미에서 것처럼 쫓겨다니는 기분으로 뿔뿔 멀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보기에 따라서 형편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저 조그마한 체구의 시골 아낙네가 내 영혼을 그토록 오랫동안 틀어쥐고 조종했다는 사실은 정말 나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내가 사람의 울음소리에 꿈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간파했던 것이다.

나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인습과 싸우면서 왜 한국여성들이 반만년 기나긴 역사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가를 확실하게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다. 왜냐? 나는 잘못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괴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부유층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상식적인 차원에서서는 대단히 부드러운 남편을 만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나를 만나면 늘 칭찬만 부지런히 하는 지극히 착한 시집식구를 만났다. 그런데 내 등덜미는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는 귀신들에 의해 꽃김을 당했고 내 영혼은 불안에 떨었다. 마치 죄짓고 빚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처럼 여성들의 울음소리에 짓눌렸고, 한국여성들에게서 풍기는 '괴해의 냄새'와 남성들의 '권위의 냄새'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극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항상 어머니들의 울음이 번쩍 떠올랐다. 나의 내부 어딘가를 후려치고는 어디론가 후다다 사라져갔다. 도대체 여자들의 울음소리와 이 모든 것이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인가?

나는 사실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괴로움을 느낄 필

요가 없는 부유층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부드러운 남편을 만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나를 만나면 늘 칭찬만 부지런히 하는 지극히 착한 시집식구를 만났다. 그런데 내 등덜미는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는 귀신들에 의해 꽃김을 당했고 내 영혼은 불안에 떨었다. 마치 죄짓고 빚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처럼 여성들의 울음소리에 짓눌렸고, 한국여성들에게서 풍기는 '괴해의 냄새'와 남성들의 '권위의 냄새'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극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항상 어머니들의 울음이 번쩍 떠올랐다. 나의 내부 어딘가를 후려치고는 어디론가 후다다 사라져갔다. 도대체 여자들의 울음소리와 이 모든 것이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인가?

자식에게 뽀는 어머니의 독

드디어 나는 여자들로 하여금 울면서 의지가 꺾인 채 한 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가부장제도의 희생자들인 우리 어머니들이 그 시퍼런 독을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뿌려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이 얼마나 예누리 없는 보복인가? 이 얼마나 완벽한 살의 질서인가? 생명이란 죽는 날까지 당당한 어머니라는 뿌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왜 한국남성들이 엉뚱한 권위의 물을 뒤집어 쓰고 그토록 방황하고 만졌을 하며 또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나는 정신병원을 방문해 여성환자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미친 듯이 용의 심리학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런 전부를 벌이고 있을 그 언제쯤 나는 수도 해야 할 수 없는 만류의 망령들이 짙게 드리워진 대창을 맞고 드디어 햇빛이 뽀뽀하게 내려쬰다는 모래밭 위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망령들은 외쳐댔다.

"건방진 년! 한국인이 먹여주는 대로 받아서 치먹기나 할 것이지! 뭐 인간인 여자! 어째서 여자가 인간이냐? 여자가 감히 기억을 하다니! 여자는 여자일 뿐이지! 짹짹..."

나는 피를 철철 흘리며 작전상 후퇴를 하기 위해 도저히

이 지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산 근교의 장안 골짜기로 숨어들어 왔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 골짜기에 들어오고 나서 언제부터인지 나는 더 이상 망령들에 의해 시달림을 받지 않았다. 나는 자연이,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있는 자연이 이 모든 비본질적 요소들로 날뛰는 망령들을 물리쳤다는 결론을 그때 얻었다.

이렇게 내 창작성과 자존심의 부활을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나는 수시로 '시'를 쓰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했고 또 해답을 요구했다.

나는 이 과정을 6년에 걸쳐 거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여성문제'라는 잣대를 갖다대면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는 것과 가정의 제사예식과 경제분배와 애정분배에서 여자는 이미 심리적 불균형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여자의 내면음울은 균형감을 잃고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데 여성문제를 제외하고는 교육문제, 정치, 호적제도, 제사, 관습, 전통, 도덕, 효행상, 예의범절, 선과 악, 핏병...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나는 드디어 한국남성들이 여성문제를 외면하면서 혹은 실실 웃으며 외치는 민주화란 구호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잡는 데 성공했다. 왜냐하면 민주화란 안방에 떠다놓은 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중한 제사를 왜 내게 주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자라나면서 느꼈던 불행의 원인과 서양에서 느꼈던 충격과 귀국해서 느꼈던 충격의 생체현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계기를 맞았다. 그것은 이 땅의 집단무의식에 깔려 있는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여성성의 '정서적 지형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결론을 지금은 내리고 있다.

이런 정서적 배경을 끄집어 올리기를 위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표어를 내건 심정으로 과격한 게릴라

전을 펴고 있는 내게 가정의 제사예식이 입을 따악 벌리고 다가섰다.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거리며, 으히히 웃으며, '너 드디어 우리에게 걸려들었지'라고 특의만만해 하며... 나는 드디어 그 흉칙한 물결을 한 괴물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내가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왜 한 나라 인구의 절반인 남성들에게는 위대한 꿈의 꽃인 제사가 내게는 흉칙하고 거대한 괴물로 보이는가? 때로는 90도로, 때로는 30도로, 때로는 15도로, 때로는 납작 엎드려, 때로는 숨이 차도록 도망다니며... 그러나 그 어느 각도로 어느 자세로 내가 서보아도 이것은 꽃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수천 개의 거짓 언어들로 둘러싸인 괴물... 이 괴물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쳐부수야만 하는가?

나는 나를 덮치기 위해 엄청난 청산을 울음섞인 목소리로 하며 돌진해 오는 시어머니를 '낯붙힐 줄 모르는 감각으로 반만 년이나 명칭하게 연장되어온 낯은 권리를 움켜쥐고 우는 것과 제사 지내는 것밖에 모르는'이라는 언어 속에 가두고 나서 그들이 애써 씌운 족쇄에서 탈출하기도 했고, 부모가 어찌고 저찌고 하며 내 부모가 되고 싶어 우글거리는 시아버지에게 "부모가 뭔대요? 부모는 책임지는 자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책임졌지요?"라는 언어와 "며느리는 자식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많은 문제가 며느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당신 아들이 죽어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자식입니까?"라는 언어를 던지며 가까스로 그들의 음모 속에서 빠져나와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기도 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당신들 아들이 잘났으면 아들 데려가라. 그렇게 치사하고 아니꼬운 것이 남자라면 남자 포기하겠다"라는 언어와 "그렇게 제사가 중요한가?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을 왜 날 주지? 내가 이 집안에서 그토록 소중한 사람이었나? 언제 나를 한번도 소중하게 다루었던 적이 있었나? 놀라운 일이라고"라는 언어를 마지막 카드로—나는 아직 이 카드는 사용해 보지 못했다—준비하기도 했다. 또 "그렇게 시시한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임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혼자 남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나 자신을 향해 "내 기꺼이 혼자서

죽으리라"라는 다짐을, 아들에게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었다. 나는 드디어 이 불행사냥과 우아하지 못하고, 여성의 창작성을 말살시키는 독약으로 그득한 괴물을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란 누군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여성에게 기억조차도 강요시키는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고, 어른이되면서 내 자식들에게, 인간 본연의 모습에 젖줄을 대놓고 있지 못한 이런 제도를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조상은 괴물이 아니다. 조상이 조상인 것은 조상답기 때문에 조상이다. 남성에게는 조상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에게는 여성의 혼을 파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괴물이 되는 그 무엇도 아니다.

이 땅은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 내

개인사이지만, 내가 만약 제사를 받아들이면 일 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불일을 다 볼 입장이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나로서는 선택권은 빼앗기고 강요만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한 발자국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언제 그 조상을 보기도 했던 말인가? 나에게 그 조상은 기억 밖의 일이다.

동학의 제사예식을 찾아

나는 남에게도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공평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40살이 넘어서야 하게 됐다. 내 영혼은 나 자신에게 불공평한 개념(희생의 개념)에 젖어 있던 나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땅에는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지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논리가 팽배하다.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난다면 이런 글은 쓸 필요도 없다. 대강대강 그때그때 맞추어서 살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삶이 그런가? 정말 그렇게 천박한 게 삶인가? 이 나이가 되어서 알아낸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삶은 완벽한 질서의 세계'라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잘못—본질적인 잘못—한다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 잘못이 무지에서 시작되었건 아니건 말이다. 그래서 진정한 삶을 가르키는 어른과 사회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삶을 배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제사의 가장 큰 문제가 '언어와 형식'에 있다고 보았다. 나는 이 해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이란 확신을 하며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어느날 나는 동학이라는 개념을 만나기에 이르렀다. 남편과 같이 서둘러 경주 근교에 있는 수운 최제우 생가에 지어진 '용담성지'(경북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를 찾아갔다. 뒤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지어진 그곳에 도착하자 나의 가슴은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이곳에 내가 찾는



해방개념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 만약 이곳에서조차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제사예식을 만들리라. 그래. 그러자. 지금 제사예식도 그 누군가 만들지 않았겠다.

나는 잔디밭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내게 남편은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음료수를 건넸다.

‘그래, 너는 미소를 지을 입장이고 나는 그 미소에 고마워해야 할 입장이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잘난 동물이구나. 나는 죄짓고 빗지고 하늘에서 어느날 그냥 이 세상에 떨어져 스스로 공짜로 자라났고, 너희들은 인간의 자궁을 빌어 태어나 한 여자의 희생과 정성 속에서 비싸게 자라난 우아한 고급동물이구나. 그래, 그래서 그렇게 날 한 번도 키운 적도 정성을 들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너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를 향해 별뿔처럼 달려들며 너는 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 짝은 결국 그것이다. 그래,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여자의 어머니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남자의 어머니는 시퍼런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가슴 펴고 서 있는 것이구나. 그래, 그래서 그토록 아들! 아들! 하며 일 년에 3만 명의 여아가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날카로운 칼에 잘려져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 속을 스치고 지나가자 나는, 음료수를 마시며 먼 들녘을 기분이 좋아 쳐다보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역사의 보복

마침 어떤 50대 남자가 용담정 앞에서 나왔다. 나는 두 눈을 반짝거리며 벌떡 일어섰다. 그 남자에게서 건네주는

『천도교 의절』이라는 책자를 받아주고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제사예식을 찾기 시작했다. 아! 나는 그곳에서 ‘향아설위’라는 개념을 만났다. 제사상 위에 청수(淸水)와 향과 촛불만 간단히 놓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내면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술의 장이 그곳에는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것이었구나! 여성에게 희생만 요구됐고 여성 자신은 배제됐기 때문에 그토록 내 감성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구나! 그것이었구나! 그거었구나!’ 나는 이렇게 탄성을 내치르며 드디어 대탈출의 꿈을 착착 진행시켰다. 나는 종교적 언어를 좋아하지 않는 취향을 갖고 있다. 삶에 대한 해답은 예술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동학의 기본틀에 현대적인 언어의 삶을 붙였다. 그 언젠가 지면이 있다면 이 제사예식을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당분간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 내게는 매일매일 20여 마리의 들고양이들이 찾아오고 있다. 나는 이들에게 매일 두 번씩 음식을 만들어준다. 나는 한국의 심각한 동물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12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의 행동을 이 시대에 태어난 최의 대가를 치르는 기분과 더불어 나 나름대로 이 땅에 바치는 ‘제사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가족조차도 내면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만, 내 조상만, 내 새끼만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너무도 씁스럽다. 어느 여성이 나에게 말했다. 제사를 잘 지내야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것은 너무도 끔찍한 말이었다. 그렇게 종위가 없는 말을 하며 복을 구걸해야 하다니! 어떻게 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그런 복은 재발제발 당신이나 많이 받으라고, 나는 그런 복이 나에게 윤희와 30여 년간 밤낮으로 떨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절 때만 되면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그 혼란 장면이 떠오른다. 남자와 아들이 한복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제사상 앞에 서 있고 온갖 수고를 다한 여성은 치

마꼬리를 붙들고 문 쪽에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말이다. 나로서는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다. 이런 내 말에 놀라지 말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여자들이 당신들 자리에 서 있고 남성들이 여성자리에 서 있다고 가정한다면 남성들, 그대들의 기분이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남에게 그런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곳엔 반드시 보복이 따른다. 지면상 그 보복의 사례를 말 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세계화니 제2의 건국이니 하는 언어를 남발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나는 남성의 위치가 무엇이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를 존경할 수가 없다. 나는 우리사회가 정신적인 IMF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울러 그 원인이 가부장제를 받아들인 보복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조상에게 향한 축대를 후손에게

가부장제의 핵은 제사다. 30여 년간의 투쟁 속에서 얻어진 결론은 조상으로 향해 있는 이 축대를 후손에게 돌리지 않는 한, 아울러 평등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의 창의성은 꽃피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의 정신세계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된다면 나는 이 동학의 개념으로 제사를 지낼 생각이다. 그리고 그 제사예식을 찾은 30여 년간의 투쟁경위를 설명하면서 내 아들—나에게는 철훈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다—에게 넘겨줄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예식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 누구나 고아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강요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부모는 너무도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강요한다면 자식들 대부분은 끔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내 아들과 그의 가족들의 기억 속에 의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남아 있고 싶다. 내가 좋은 인간이었고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시어머니였고 좋은 할머니였다면 이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고 심리적 짐을 잔뜩 건네준 엉뚱한 조상이었다면 과감히 나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라고 말할 것이다. 또 내 조상을 위해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이 어둠과 엉망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밝게 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능력껏 너희들의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존경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경배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나는 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요즈음 마지막까지 가본 해방감에 사로잡혀 있다. 드디어 내 영혼은 그 모든 족쇄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족쇄를 의미한다. 사회적인 족쇄는 또 다른 차원이다. 나는 다음 단계로 사회적인 족쇄를 풀기 위해 앞으로 남은 여생을 다 바칠 생각이다. 사회적 족쇄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작업은 공동으로, 각 분야에서 앞으로 100년 정도는 노력해야 겨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리엇의 시귀로 기억되는 시 한 줄을 적으며 이 글을 맺겠다.

난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알 지 못한다.

얼어죽는 새조차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

이하선

중복 재전 출생. 20~30대에 걸쳐 15년간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 70년대 중반부터 캐나다 한국문인협회에서 동인활동을 시작해 그곳에서 60여편의 시를 지상에 발표했으며, 연술가 이상삼산생과 함께 토론토에서 극단 〈일〉 창단하고 연극활동도 했다. 90년 이후 부산 근교에 여섯 가지 ‘해방개념’이 들어간 살림집을 짓고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과 생활하며 글을 쓰고 있다. 소설 『조용히 일어나 대지는 깊이 잠들지 않는다』(통나무 출판), 『불타는 대지』(중명)를 낸 바 있다.



한국 무용계의 '앙팡테리블' 최테레사



역 시 최테레사답다! 지난 10월 20일과 21일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된 최테레사무용단의 〈한 여자, 내게 자유를...〉을 본 사람들은 "최테레사답다"는 한마디로 공연평을 요약한다. 〈한 여자...〉는 최테레사의 안무로 김주연, 이가현, 박영수, 최테레사 등 4명의 무용수가 출연한 작품이다. 최테레사는 이 작품을 통해 "때론 남자에게 구속되고 싶어하지만 때론 남자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여자의 심리를 통해 남녀관계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자들은 기존의 여성이미지나 태도를 그대로 그려내지는 않는 듯하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최테레사 춤이 재현해내는 여자의 모습은 몹시 반항적이고 전복적이다. 최테레사의 춤은 다듬어지거나 꾸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추는 것이다. 온몸으로 호흡을 한 후에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화 풀어내버리듯 관절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격렬하게 몸을 털어내는 동작이 최테레사의 테크닉이다. 그 테크닉을 통해 표현되는 여자의 모습은 삶에 안주하거나, 삶에 얽매었다기보다는 삶을 날카롭게 직시하며 현실과 맞서는 당당함으로 표현된다. 그의 공연에 '파격', '격렬', '저항' 같은 수식어가 동원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내가 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최테레사는 한국 무용계의 '앙팡테리블' 혹은 '게릴라'로 불린다. 보수적인 무용계 동토 속에서 그는 어느 계보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용단을 이끌어오면서 자기만의 춤세계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직업무용수가 된 이래 그는 늘 자기의 이름을 건 무용단을 창단해 직접 안무하고, 춤을 췄으며 단원들과의 공연을 통해 최테레사식 춤꾼을 키워왔다. 물론 처음부터 무용단을 창단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이름을 건 무용단을 창단하는 것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 단원의 월급과 최소한의 운영비, 공연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공연비를 벌어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무용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



그의 춤은
아름다운 몸짓이나
꾸밈이 될 수 없다.

그의 춤은
거칠고,
과격하며,
반항적이고,
분노에 밀려서
때로 화산이
폭발하는 듯
극렬
하다.



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무용단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사실 나는 직업무용단의 능력 있는 무용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마음껏 춤을 추고, 춤 만큼 평가도 받고, 그만큼 돈도 벌 수 있고, 춤을 통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원하는 판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결국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고 싶은 춤을 출 수 있도록 아무도 직접하고 무용단도 만들어야 했다."

85년 콜럼비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직후 최태레사는 미국에서 콜럼비아 졸업생과 뉴욕대학 졸업생 7명을 모아 〈서회 앤 댄서즈〉라는 무용단을 창단했다. '서회'는 최태레사의 예명이다. 미국에서 창단해서 〈허드슨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공연했다. 뒤돌아볼 여유없이 흘러가고 있는 인생을 강으로 비유한 이 작품은 88년 최태레사가 서울에서 〈서회 앤 댄서즈〉를 창단할 때 〈살이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공연되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한 무용가 9명으로 시작한 〈서회 앤 댄서즈〉는 단원들이 급료를 보장받는 어엿한 직업무용단이었다. 뉴욕과 서울에 나란히 같은 이름의 무용단을 만들어 양 도시를 연결하면서 내실 있는 국제무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최태레사는 당시 스물여덟 살이었다. 20대 여성이 무용단을 창단해 공연을 한다는 소식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무용계는, "내가 설 판이 없다"면서 국내 무용계 풍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젊은 여자의 파격적인 춤과 왕성한 창작활동에 적잖은 당혹감과 충격을 느꼈다.

그즈음의 일화 한 가지. 87년 12월 최태레사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의 무용과 교수로 임용된 적이 있다. 신문에 난 교수모집 광고를 보고 무용단원 중의 한사람이 응시를 권유했고, 별 기대 없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덜컥 합격했다. 합격한 이후 재단 이사장을 만나 공식적인 인사도 했고 학교 입시 때 시험감독까지 했다. 그런데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 나갈 준비를 하려고 전화를 걸어보니 임용이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영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학교측의 공식적인 임용취소 해명서 한 장 없었다. 최태레사는 이 일에 대해 88년

5월호 『춤』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교수임용이 취소됐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 내가 단지 학교에 집착하지 않고 춤예술 활동에만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일이었다. 대학 당국의 이런 횡포로 무슨 한 나라의 교육을 떠맡는다는 건지,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진다. 나는 피해의식은 갖고 있지 않다."

최태레사의 임용이 왜 취소되었는지 그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80년대 후반 한국 무용계에 등장해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겠다"고 나선 한 젊은 여성에게 박수갈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남보다 한발 앞서 가려는 사람들에게 으레 따르는 경계와 거부가 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춤을 통한 리얼리즘 추구

최태레사의 실험정신은 90년대로 이어진다. 93년 〈서회 앤 댄서즈〉는 신촌에 있는 한 소극장에서 9번째 정기공연을 무대에 올리면서 하나의 실험을 한다. 〈그가 떠난 밤, 그녀는 울었다. 환생의 주일〉이라는 이색적인 제목으로 올려진 이 공연은 무용공연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14일간 장기공연을 했다. 어느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시각적 배경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밀도있게 포착한 이 작품은 현대무용(컨템퍼러리댄스)의 성격을 강하게 깔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고 싶은

춤

출 수 있도록

아무도 직접하고

무용단도

만들어야 했다."

94년 최태레사는 또 다른 실험을 한다. 그는 자신을 비롯해 이명미, 김소연, 김성미, 윤지희 등 독립안무가 5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춤 페스티벌〉을 기획해 공연한 것이다. '새로운 춤'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제약과 규율도 없이 안무가의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춤을 말한다. "기존에 굳어진 규범이나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정받지 못하는 국내무용계의 배타적인 풍토 속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무용세계를 개척하고자 하는 독립안무가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활동의 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춤페스티벌을 기획했다"는 것이 '새로운 춤 페스티벌' 선언문이기도 하다.

최태레사는 춤을 통해 리얼리즘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춤은 아름다운 몸짓이나 꾸밈이 될 수 없다. 그의 춤은 거칠고, 과격하며, 반항적이고, 분노에 밀려서 때로 화산이 폭발하는 듯 극렬하다. 〈서회 앤 댄서즈〉가 88년부터 94년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며 공연한 작품은 〈아버지, 신부님〉, 〈가자, 우리의 땅으로〉, 〈타오름〉, 〈약탈〉, 〈혁명시대〉, 〈모지(母地)〉 등 주로 사회성 짙은 내용들이다. 사회, 정치적 이슈를 춤의 주제로 다룬다고 해서 최태레사의 춤을 '민중극'이나 '역사극'으로 상상하는 건 금물이다. 예술에 있어 '사실'이란 이미 현실적인 '사실'과는 다



르기 때문이다. 최테레사의 춤 역시 사실주의를 추구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리얼리즘적 춤이라고 말하면 흔히 사람들은 무용극이나 일상적인 무대를 연상하는 듯하다. 나의 춤은 전체에서 일부분을 극대화하는 즉 마르셀 뒤샹의 그림 같은 춤을 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자유' 테크닉 개발

최테레사 춤의 리얼리즘은 춤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의 테크닉에 녹아 있다. 테크닉에 리얼리즘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리얼리즘을 해석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테레사의 춤을 본 사람들은 그의 춤의 힘이 주제나 스토리보다는 춤의 테크닉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최테레사의 테크닉은 자신의 몸에 맞는 '맞춤' 같다. 그것은 꾸미고 다듬어 예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을 고민한 끝에 개발된 것이다.

최테레사의 테크닉은 몸에 대한 탐구 끝에 고안된 것이다. 84년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대학 무용·무용교육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그는 동양인의 체격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고민했다. '무용인에 관한 해부학' 강의에 심취하면서 인간 몸의 순간동작들을 연구하기도 했다.

"한국무용이나 일본의 전통무용은 상체를 많이 쓴다고 한다. 이 상체를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지체의 움직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다. 나는 동양의 호흡법을 중시하고 있다. 호흡도 운동이기 때문에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긴장보다는 이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몸을 어떻게 긴장하게 만드느냐

도 중요하지만 그 긴장을 풀기 위해 숨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춤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구조의 되살림일 것이다."

최테레사는 95년, 7년간의 한국생활을 접고 파리 제8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가 콜롬비아대학과 그간의 공연을 통해 구축해온 자신의 테크닉을 이론적으로 정리했다. 논문의 제목은 '세 가지 자유'. '세 가지 자유'란 움직임의 자유, 감각의 자유, 호흡의 자유를 말한다. 이 무용철학은 동작, 호흡, 감각을 최대

한 활용해 몸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다시 되받는 최테레사식 춤을 만들어냈다. '최테레사의 테크닉'은 유럽무대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인정받는다. 그만큼 그의 테크닉은 독특하고 그만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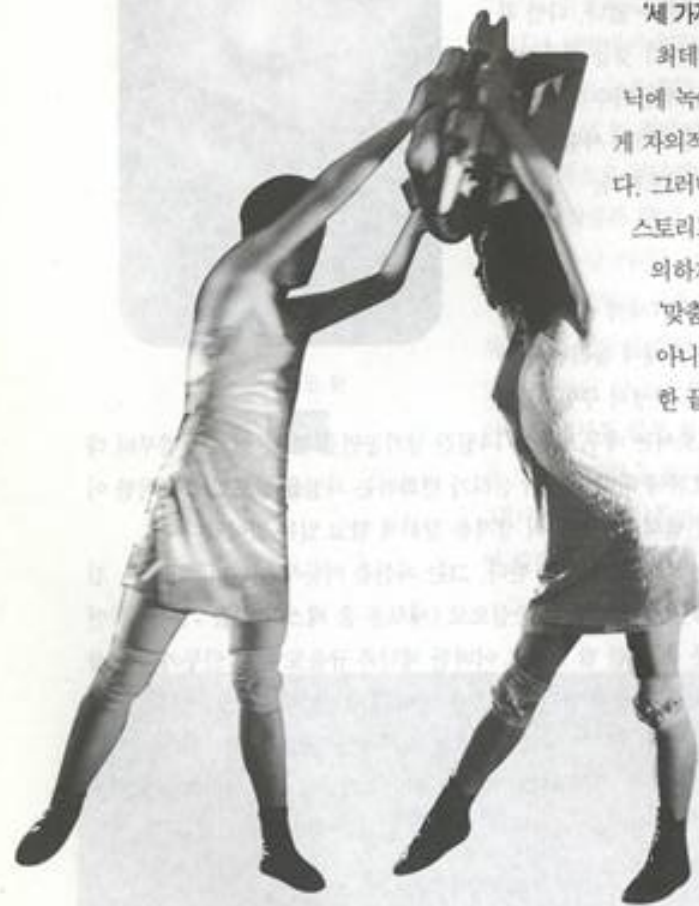
작가정신 가진 안무가로 재도약

95년 이후 최테레사의 중심무대는 유럽이다. 프랑스 파리에 〈최테레사무용단〉을 설립해 국내활동보다는 주로 그곳에서 활동해 왔다. 〈최테레사무용단〉은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전국에 있는 1,000여 개 무용단 중 하나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세금 면 만큼 혜택도 고루 받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연으로 단원월급과 생계유지뿐 아니라 무용제작비까지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좋아 춤을 추는 희일을 느끼기도 한다.

평론이 힘을 발휘하는 파리에서 최테레사는 '레세종드라당스'와 '당세' 같은 유력 춤전문지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레세종드라당스'는 최테레사의 춤을 "용암처럼 분출해 불태우는 것 같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한 여자 내게 자유를...〉은 지난 11월 6일과 7일 열린 프랑스 〈당스 아 릴(Danse a Lille)〉무용제에 출품됐다. 무용작품을 사고 파는 곳 안되는 국제 무용시장으로 일 년에 세 번 열리는 릴무용제에 동양인의 작품이 출품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테레사는 작가정신을 가진 안무가이기를 추구한다. 안무가에게는 동작이나 테크닉 못지 않게 작품세계가 있어야 한다. 자기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무가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파리는 자기세계를 탐구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너를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관객과 평론가들의 등발 때문에 "나를 찾지 않고는 못 배기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에서 "작가정신을 가진 안무가로 새로 시작했다"고 말한다. 새롭게 태어날 작가 최테레사의 춤은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는 유럽과 한국 무대를 오가며 공연을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1]

글 황금희 객원기자/ 사진 조여권



유쾌한
입심

그러나

허전한 뒷맛



구성애의 '아우성'을 보고

황금희

여성학과 대학원 재학 중인 구성애씨의 팬이다. 청담이지 너무 매력적인 '아우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책없다 싶을 정도로 학근하게 물어보는 그의 입담은 부럽기조차하다. 구성애의 '아우성'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전한 성문화만들기 열풍에 찬물을 끼얹거나, 구성애의 역할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글은 일종의 톨세랑기 작업이다. 구성애의 성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보자는 것이다. 구성애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다. 톨세랑을 찾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미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박이 터졌다는 말이 이번처럼 잘 어울리는 경우가 또 있을까. MBC가 기획방송한 구성애의 '아우성'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다. 평일 심야(11시)방송에 광고가 무려 34개가 붙었다. 통신은 통신대로, 신문은 신문대로, 시사주간지, 여성지 할 것 없이 온통 구성애의 '아우성'을 주제로 감탄을박을 벌인다. 통신에서 구성애라는 키워드를 넣고 정보를 검색하면 수십 건의 기사가 주루룩 올라온다.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연세대 간호학과를 나와 조산사로 7년을 활동했으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타고난 입담으로 성교육강사가 되었다는 구성애의 이력을 줄줄 외울 지경이다. 요즘 구성애의 '아우성'을 모르면 진짜 간첩이다.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기 전 이미 구성애는 성교육강사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는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 이른바 '아우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0여 년 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왔다.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새삼스럽게 웬 난리인가 싶을 것이다.

구성애씨의 강연이 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일까. 이유는 많다. 편안한 외모와 재치있는 입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용기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그의 대중감각 역시 탁월하다. 또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문화에 대한 예리한 비판력이 그의 강연에는 잘 조화되어 있다. 무엇보다 그는 '자녀들의 성'을 이야기한다.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어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자는데 어느 부모가 슬깃해하지 않겠



는가. 성담론 특유의 사회성도 구성애의 인기를 부추겼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은 여전히 음지의 영역에 있으며, 그것을 끄집어내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성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다양한 가족이 없다

자타가 공인하는 명강사 구성애씨의 성

교육강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만큼 재미있다. 그러나 귀신에 홀린 듯 강연을 듣고 나면 어딘지 허한 느낌이 든다. 여자로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의 성교육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구성애는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그 가족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산물인 아이가 있는 가족이다. 구성애는 강연을 통해 그렇게 구성된 가족이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장 행복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다. 그의 성교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기꺼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부부와 자녀가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결혼' 안된 가정만이 존재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편부모 가족, 아이들이 가장인 가족, 조부와 손자로 구성된 가족, 비혈연 가족, 동성애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다. 가족학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일처의 핵가족은 물론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가족형태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구성애의 강연은 특정 가족형태를 완전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서 그와 다른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소외시킨다.

구성애의 강연에는 또한 여자가 없다. 청소년의 성, 남자들의 성은 있는데 여자의 성은 없다. 물론 구성애는 항변할 수 있다. 포르노그래피, 성폭력을 논의하면서, 그의 강연의 핵심인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여

오래한
이식

자들의 성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렇다면 나는 또 물겠다. 남자아이들은 출생에서 성장하는 과정에ダイナミック하게 성체형을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왜 여자아이들의 성은 부끄럽고 수줍은, 보호받아야 할 유리그릇처럼 묘사하느냐고.

구씨는 사춘기 남자아이들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성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춘기 소년들의 자위행위는 그들의 욕구가 성폭력으로 치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자들에 대한 구씨의 설명은 참 빈약하다. "사춘기가 되면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내성적이 되어서 신체와 심리적인 변화를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정도이다. "문을 꼭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게" 고작이라는 것이다. 남자아이는 아폴로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데 여자아이는 아혼아홉 간 구름심처에 갇혀 도덕경을 읽고 있는 꼴이다.

어머니, 아내 아닌 여자는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사춘기 여자도 성적인 관심이 많으며, 성충동을 갖는다.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고 성적인 고민으로 24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남자 아이들이 모두 자위행위를 하지

않듯 여자아이들도 모두 수줍음으로 사춘기의 변화를 감추지 않는다. 사실 10대 소녀들의 성욕은 연구대상이 될 만한데, 그간 너무나 억눌려왔기 때문에 남자애들보다 더 강렬하고, 집요한지도 모를 일이다.

구씨는 지난 11월 4일 <구성애의 '아우성'> 마지막 편에서 순결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처녀막이 있고 없고, 성관계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순결한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거기에 단서를 달았다. "단, 그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필요한데 저는 첫날밤 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숭고한 것을 인정하고 그곳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 전담까지 순결을 '필사적으로' 지킨 후배의 결혼식장에서 하얀드레스를 입은 후배를 보고 "고결하다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신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구성애씨의 성교육강연에 존재하는 틈새는 이제 명백해졌다. 구씨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어느 한 가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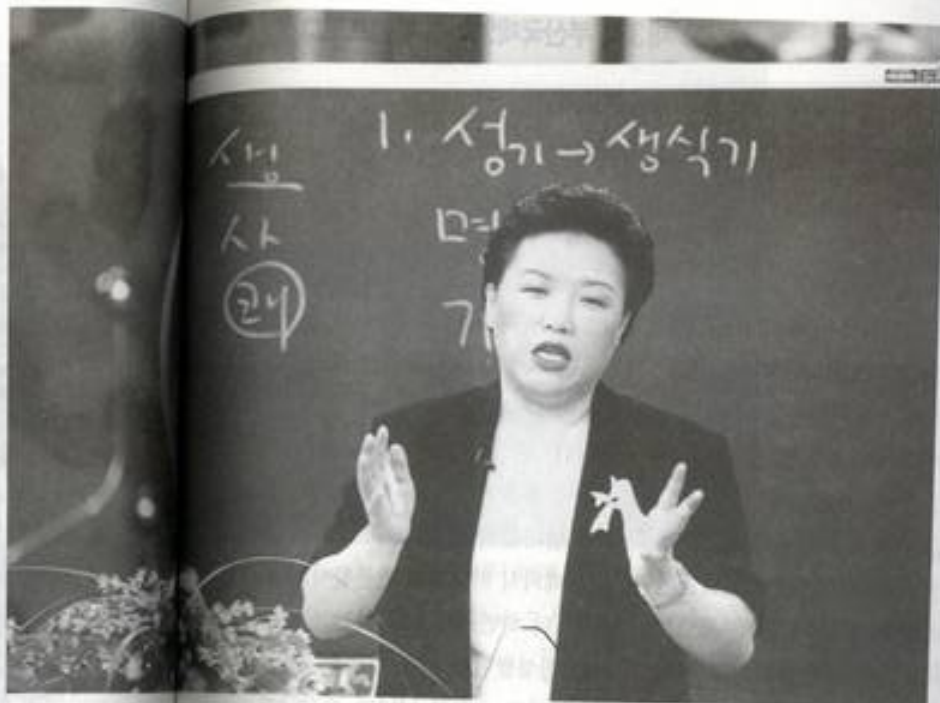
꼭 짚어 이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길만이 정상이고, 고결하며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말한다. 일부일처 가족에 대한 생각이 그렇고, 성적 존재로서 여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그렇다.

구씨의 강연은 매우 과격적이고, 감동적이며, 당장이라도 길거리에 나가 음란물퇴치운동을 벌이고 싶은

충동을 이끌어낼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어쩌면 그것은 아무 것도 바뀌내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씨의 성교육은 음란한 성문화를 없애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드웨어는 지배세력의 몫이다. 핵가족이 가족구조를 만들고, 남성의 성담론이 여성의 성을 규정한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다양한 성체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두운 우리들의 성'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구씨는 어머니(특히 아들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아이들의 성을 바라보고 있다. 사실상 그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구씨는 제기하고 있다. 그로서는 최선이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역할은 충분히 훌륭하다.

어머니가 아닌 여자, 아버지가 아닌 남자, 아내가 아닌 여자, 남편이 아닌 남자, 그리고 아들이 아닌 딸의 입장에서 성문제를 논의하는 일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어머니나 아내의 입장에 파묻히지 않고 여자의 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 구성애'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



아시아에서 여성감독이 된다는건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 특별프로그램



이남

중앙일보 영화담당기자로 활동하다 지난 5월 중앙일보 뉴미디어로 옮겨 인터넷 영화뉴스 사이트 goCinema(<http://gocinema.joongang.co.kr>)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영화, 특히 여성감독들이 만든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중의 장벽—아시아에서 여성감독이 된다는 것>이란 특별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아시아 여성감독들의 작품을 상영하고, 또 관객들과 만나는 토론시간도 있었는데 이번 부산영화제가 워낙 많은 프로그램을 짧은 기간 동안 소화하는 바람에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기획이었다.

<이중의 장벽...> 프로그램에는 일본에서 고즈 나오에, 가자마 시오리, 하네다 수미코 등 3명의 감독과 필리핀의 마릴루 디아즈 아바야 감독, 중국의 Ning Ying 감독, 몽고의 나살린 우라치메그 감독 등 6명의 외국감독이 작품을 들고 참석했다.

'이중의 장벽'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난 올해 부산영화제에선 주로 여성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을 찾아보려고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살아갈수록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여성감독이 만든 영화들이 그 정서나 시선이란 측면에서 확실히 더 친근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다 같은 인간이지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남자를 구별하려드는 게 여성들의 피해의식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아' 하면 '어'로 통하는 상대는 같은 여성들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남자가 똑같다고 보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여성적인 가치(이분법적인 논리나 권력지향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베푸는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주관적인 과장일까)가 세상을 지배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남성을 속에도 억제된 여성적인 가치들이 잠재해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부산영화제에서 인상 깊었던 작품들은 여성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두 편이었다. '와이드 앵글' 부문에 출품됐던



하네다 수미코 감독의 <치매노인의 세계>

미국감독 줄리아 록테프의 <충격의 순간(Moment of Impact)>과 일본 원로감독 하네다 수미코의 <치매노인의 세계>이다.

<충격의 순간>은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감독 자신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돌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치매노인의 세계>는 일본의 치매노인 전문요양소에서 지내는 치매노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을 통해 치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록물이다. 두 작품 모두 뇌손상으로 인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불가능해진 사람들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감독 특유의 약자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배려를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감독 모두 부산을 직접 방문해 관객과의 만남을 통해 작품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록테프 감독이 "찍고 나서 보니까 아버님의 치절한 모습을 컬러로 담았다면 내 스스로 보기에 끔찍했을 것"이라고 밝히듯 흑백영화로 처리된 '충격의 순간'은 1989년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감독의 아버지 레오나드 록테프의 이야기다.

러시아이민 1세대인 레오나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인텔리였다. 아내 라리사도 컴퓨터 프로그램 분석가로 이들은 콜로라도주에서 인텔리 부부로 남부럽지 않은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성취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이들 부부로부터 장미빛 가

능성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영화는 단순히 이들이 겪는 상실과 고통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 다. 카메라는 아버지 레오나드의 의도하지 않은 무표정과 남편을 돌보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종일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 아버지를 보살피는 어머니 라리사가 어떤 신체적, 감정적인 변화들을 겪었는가를, 그들의 갈등과 분노 그리고 방향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실감있게 전달해 준다.



감독 자신이 등장해 어머니와 끝없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자신의 잃

어버린 인생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절망하고 갈등하는 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고 싶지는 않다고 역정을 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무표정이다. 가족사진들을 통해 멋있고 활동적인 인텔리였음을 알 수 있는 아버지 레오니드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근육(신체)에 감히버린 섬세하고 지적인 사람임이 드러난다. 감독은 아버지의 무표정한 눈을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자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살 속에 갇혀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의 처절함을 통해 정신과 육체, 나이가 싫이란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만들었다.

〈치메노인의 세계〉의 하네다 감독은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치메노인들의 생활을 2년 동안 가까이서 추적하며 기록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하네다 감독은 "일본이 고령사회로 변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야 하

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치메노인은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제작의도를 설명했다. 영화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는 "회사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준다고 생각한다. 딱딱한 사회문제를 다루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방식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여성의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가 덧붙인 "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 80%가 여성관객이었다. 사회문제를 중요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성들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도 가슴에 와닿는 지적이었다.

45년 동안 영화작업을 해온 아시아에선 보기 드문 여성 원로감독인 그는 젊은 여성관객들과의 대화에서 그 경륜에서 오는 충고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본에서 여성의 영화계 참여가 막혀있었던 시절, 더군다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는 일조차 회귀했던 시절, 그는



〈치메노인의 세계〉

"뭔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록영화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간 게 인연이 되었다고 했다. 기록영화 쪽은 아무래도 상업적인 극영화 쪽보다는 여성들에게 문호가 상대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실력을 불신하고 못미더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투쟁했다는 그는 "남자들이 비아냥거릴 때 현명한 처세술은 무엇인가"는 한 관객의 질문에 "나도 처음엔 날 불신하는 카메라맨들에게 1주일

내내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내가 원하는 컷대로 찍었다. 그렇게 찍은 것들이 성공적임이 판명되면서 처음엔 말을 안 들던 사람들도 납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남녀의 구별은 없어진다. 하지만 친한 카메라맨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다. **■**

ONCE IN A BLUE MOON JAZZ CLUB



Tel. 549-5490/5497 Fax. 549-8776
Business hour 11:00 a.m. to 12:00 a.m., 7 days a week
85-1 Chungdam-Dong Kangnam-Gu Seoul Korea 135-100
Tel. 549-5490 Fax. 549-8776



비오는 날의

육체 畵

독일 여성작가 14인의 <육체의 논리>



제미란

if 아트디렉터
가차도 버스도 모두 볼수있다는
간금타전에 편집장 할 "어머
잘했네. 필계있는 외박을 할 수 있게
했으니!" 밤새 수양하는 꿈만 꾸던 것
같고, 맑게 갠 아침 향취를 보니
보문단지 어느 호수가 버드나무
사이로 누군가가 유유히 수영을 하고
있었다. 아제 일온 모두
농답이었다는 뜻이.
이번 전시가 자나는 내공을 시간이
자나면서 실감할 수 있었는데
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고장난
기계가 그려내는 이상한 드로잉이
떠올랐다. 고장나는 순간 자신의
자유의지를 회복한 기계, 일탈을
통해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우리 중 누군가를
찾아 있었다.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 한 장에
미혹해서 경주까지 내달았
어. <육체의 논리 — 독일에서 온 14
인의 여성작가들>(9.30~11.29)/ 경
주선재미술관)라는 전시였어.

부랴부랴 애들 챙겨보내고, 전날
밤 함께 가겠다고 호언하던 이를 허
탕으로 기다리다 출발 일본 전야야
열차 꼬리를 붙잡을 수 있었지. 빗길
을 뛰어다니느라 다 젖어버린 등짝을
객실의자에 붙일 수 있게 되자 비로
소 취재를 빙자한 하루짜리여행의 호
젓한 흥분을 실감할 수 있었어.

차창에 머리를 기댔지. 제법 굵어
진 빗물들이 달리는 열차의 창문을
흘러내리며 대각선을 그리다가는 곧
알 수 없는 허공으로 떨어져나가더군.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 빗줄기들이
사력을 다해 차창으로부터 떨어져나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 '사
력을 다해 떨어져나가다', 웬지 부조
리한 말 같지 않아?

대개 죽을 힘이란 우리가 무언가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

해 쓰는, 그 노고의 혁명성에 비해 내
용적으로는 보수성을 지니는 말 같으
니 말이야. 그래서 대개의 연상작용
의 관성은 사력을 다해서 붙어 있는
쪽을 상상하게 되고 결국 이 말은 마
치 '죽을 힘으로 도태되려 하다' 라는
말처럼 느껴지게 되지.

그런데 부조리하기로야 내 경주행
의 빌미가 돼준 전시회의 제목 <육체
의 논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지. '육
체' 그리고 '논리'. 이 각각은 이성의
역사 이래로 누천년 동안 어울리지
못한 채 서로를 배반해 온 말 아니야?
존음을 해치며 일사천리 인류문명을
발전시켜온 당사자인 이성에게, 육체
란 수십만년에 걸쳐 진행되는 미세한
진화로나 발전논리에 응답하는 구체
불능 지진아일 테니까. 참다 못한 이
성이라는 이름의 합리주의 위계질서
는 논리에 가당찮은 육체라는 놈과,
논리 반론어치도 없는 여자라는 부류
와, 도대체가 비논리적인 예술이란
놈, 이 셋을 뚫틀어 엑스트라(extra)
라 칭하고, '논리'라는 광명세계로부



로즈마리 트로텔 <육체의 논리>전 포스터

터 멀찌기 격리수용했다는데, 이때 엑
스트라란 우리말로는 '따라지' 들인 셈
이지.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포스
트' 바람이 남풍은 남풍인지 이 엑스
트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따져문고

권리주장을 외치는 세상이 됐어. 몸
애기 빼고는 시체논리가 서질 않아.
육체의 논리란 이제 유행어라고.

나를 매혹시킨 포스터를 좀 봐. 물
결같이 흐르는 오렌지색 머리카락을
늘려 드린, 옛된 몸매의 누드여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맑은 그린톤
의 이미지 만큼이나 아름다운 건 화
면 구도가 만들어내는 의미의 함축
이야. 두 커다란 색면, 벽에 칠해지
는 그림이라는 2차원과, 마치 여인
의 내부에서 나온 배설물처럼, 3차
원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물감의 호
름이 서로 관통하고 연결되는 지점
이 바로 여인의 몸이란 걸 주목해야
해. 동시에 이 몸은 예술이라는 환타
지와, 몸이 내놓은 배설물이라는 그
로테스크하고도 에로틱한 리얼리티
를 연결하는, 다시 말해서 이상과 실
재를 잇는 영매로서의 신체가 되는
셈이야. 이 작품은 아마도 당분간,
몸과 여성과 예술이라는 세 엑스트
라들의 복권 이미지로서, 내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될 거야(년 분명 너무
나 잘 빠진 여자의 몸매가 논리적이
로 불편스러워지기 시작했었지만).

이젠 비가 아니라 아수라의 폭우로
변해버린 사이를 뚫고 도착한 경주선
재미술관에서 일순 난 당황했던 것 같
아. 무언가 요란하고 낯선 해방 이
미지의 전시를 기대해석했을까. 혹하
고 어떤 냄새를 맡은 것만 같았는데,
왜 있지. 터럭하나 오차 없이 간간하
고 칠해진 독일 냄새. 어려웠어.

이미 전시기획자(구드론 인보덴)
의 전언이 있기는 했지. 그대가 이번



카린 산더, 《알의 일》, 1994

전시장에서 멍해질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애기인즉슨 육체의 논리란 바로 '개방성'에 있다는 거야. 그것은 이성의 논리가 그래왔듯이 한 방향으로 뿔아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 수평적으로 허무는 일이라는 거지. 이 작품들은 확고부동한 의미로 자신을 관찰해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들을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그

래서 낯선 체험!

너무 개

방해서 이해

가 난감한 상

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난 다소 아이

러니한 선택을 해야

했는데 바로 '열림'과 '닫힘'

이라는 틀거리로 '육체의 논리'를 포

획하기로 한 거야. 꾸러미를 메고

돌아가야 했거든.

우선 이 사람 얘기부터 시작해 보

자. 카린 산더. 그녀는 칠하고 바르

는 대신 벗겨내는 작업을 해. 캔버스

라는 인위적인 화면을 벽에 거는 대

신, 이미 현장에 존재하는 벽을 사용

하지. 전시장 흰 회벽의 일정부분을 갈아내고 또 갈아내는데, 그 벽이 마치 얇은 셀로판지를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감미로운 느낌으로 반짝일 때까지, 두

께를 만들며 시간이 쌓여가는 방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투명한 신비를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막혀 있던 회벽은 주변의 사물들을 비춰내기 시작해, 벽은 보는 이를 비추고 보는 이의 동공은 자신을 비추는 벽을 비추고... 이 연관은 마치 뉘비우스의 띠처럼 감미롭게 서로를 수용하게 되지. 칠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내는 최소한의 간여로써 이뤄낸 신비라니!

이런 연관의 실험은 마리아 아이허 호른이란 작가에게서도 명확히 보여져(다소 진부한 방식이긴 하지만), 전시장 안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제단과도 같은 위압적인 단상 위에 관람자들이 서명이나 낙서나를 할 수 있는 방명록을 올려놓았던군. 그녀의 작품은 나와 너의 참여로 계속 변하게 되니까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생성중인 긴장감'을 유도한다는 거지.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권위적인 분리를 교란시키고, 관



마리아 호른, 《무제 브라운머신》, 1993. 깃털·쇠줄·전기줄



로즈마리 트로켈, 《고장난 기계와 알금기의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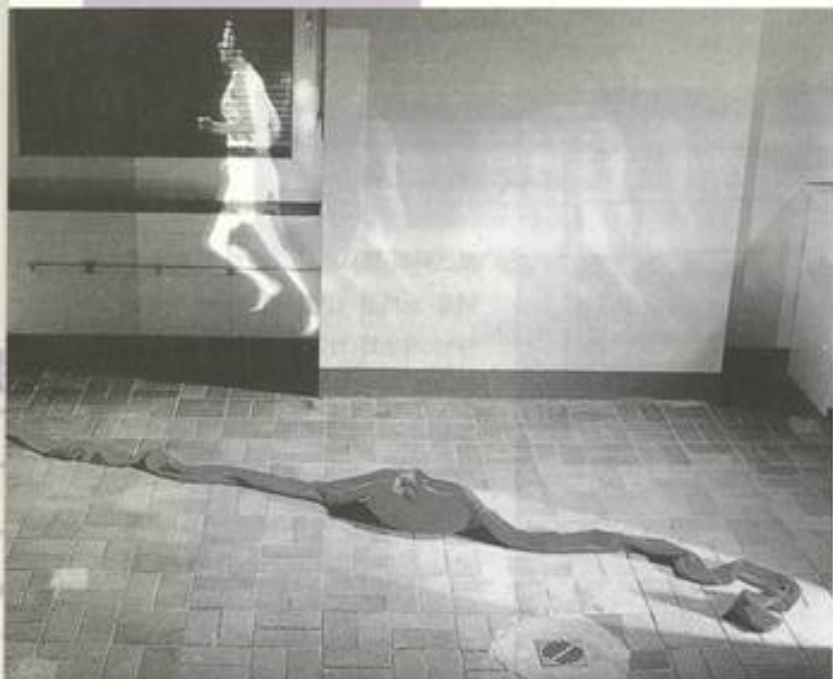
계를 열어버림으로써 일방적인 규정성을 흔들겠다는 게 그녀의 의도야.

오히려 위압적인 폐쇄감으로 열림의 절박성을 전달하는 작품도 있었어. 거칠고 황폐하게 마감된 콘크리트 돔을 눈높이에 설치한 이자켄츠겐의 작품《분홍빛 방》 앞에 서면 내은 시야를 뒤덮는 음울한 공간을 실감하게 되지. '모든 이에게 적어도 하나의 창이 필요하다'는 그녀는 닫힘과 열림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체험하게 해.

제단에 두 사람의 예수를 붙여놓고서 성상의 단일 불가침을 냉소했다는

로즈마리 트로켈의 대담한 위트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옛날 직조기(?) 같은 기계에 마치 여인네들 머릿다발 같은 붓들을 매달아 놓았던군. 이 기이한 기계가 실제로 작동해서 그려낸 흔적들이, 미친 여인네들의 숨죽인 호느낌이거나, 호늘어진 존재증명으로 느껴진 것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잘 터지는 내 페미니즘적 감정과잉 탓이었을까? 이 기계는 기계의 소명으로 기대되는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아. 불규칙한 놀넛이로 비비물어진 붓들이 바닥(화면)과 만나고 조용하면서, 그때마다 몸을 바꾸어 각기 다른 흔적을 보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유동적 일탈'로서 '예정된 일관성'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

자의식을 지닌 기계의 압권은 레베카 혼의 작품에서야. 그녀의 기계는 '영혼과 섬세한 감정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와도 같다. "이 기계들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 움직이고 진동하고 전율하며, 때로는 실신하고 갑자기 깨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브러쉬 머신》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있는 공작새가, 마치 자신의 날개짓을 관조하며 그것을 천천히 펴고 접는 것처럼 보여, 속을 보이고 누운 굴껍질 안에 진주 같은 검은 구슬을 담는 《굴 피아



다그아 데링, 〈상대적으로 동행이 금지된〉, 비디오프로젝터, 드레스그림.

노)란 작품은 일곱 개의 건반처럼 천천히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데, 왜 있잖아, 진주라는 보석은 긴 세월 깊은 상처를 통해서만 빛어진다는 상식, 검은 진주일 땐 더욱 그렇고, 그래서 인지 굴 피아노의 소리 없는 연주는 눈으로 듣는 침묵의 레퀴엠 같았어.

전너 방에선 한 여자가 자꾸만 뛰고 있어. 런닝 바람으로 그제 글썽 뒤로만 뛰는 거야. 작품들 중 유일하게 드라마틱했지만 참으로 황당한 역동성이지. 그야말로 수직구조의 다람쥐 쳇바퀴를 수평화한 건데, 전기만 계속 흐른다면 끝나지 않을 악몽인 게야(회전영사기를 통해서 전시장벽을 뚫고 있다), 계속 뛰지만 바로 그 자리라는 건 속명적인 폐쇄성을 상징하지, 왜 시지프스가 실어나르던 삶이라는 바윗덩이 말이야, 뛰는 여자

의 한가운데로는 기형적으로 소매가 긴 붉은 드레스가 있었는데, 부질없이 내닫다 좌절돼 버린 욕망처럼 또 아리를 풀고 늘어뜨려져 있었어.

그 욕망의 헛헛함과, 삶이라는 쳇바퀴와, 정신병원이라는 폭력적인 감금이 오버랩되는 와중, 전시장을 나섰을 때, 내리던 폭우는 몇십년만에 경주 일대를 강타한 태풍으로 진화해 있었고, 난 의도하지 않은 채 태풍의 눈 속으로 잠입해 들었던 셈이지. 범람한 강물은 다리를 넘었고 해저물늪 이미 칠혹 같이 어두워진 경주는 다른 도시들로부터 고립돼 가고 있었어. 쥐 한 마리 경주 밖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야. 태풍으로 모든 스케줄은 유보되었고, 그날 밤을 마무리할 화목한 가족관계는 유예됐으며, 예정되고 안정된 질서는 교란되었어. 자연이라는 거대한 퍼포머가 벌인 잠정적인 거대한 혼돈. 그날 그 폭우는 전시의 하이라이트이자 대단원이었던 것만 같아. ■

역사 속의 여성들

올 겨울엔 역사 속의 여성들을 만나보시라. 서점에 나가보면 따끈따끈한 여성전기류의 책들이 꽤나 눈에 띈다. 그동안 남성사(男性史)의 뒷전에서 서성이던 여성들이 후대 여성들의 손에 이끌려, 혹은 자신의 의지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자신이 여성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이 험난한 시기를 버텨갈 힘을 얻고 싶다면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온 우리 선배여성들에 귀 기울여보라.

우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여성 두 명이 소설을 통해 복원됐다. 김신명숙씨가 쓴 『소설 허난설헌』과 이탈리아의 여성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예술과 사랑을 담은 『아르테미시아』가 바로 그것이다. 아르테미시아는 남자의 누드를 보거나 그리는 것이 처벌을 받던 바로크시대, 화가의 딸로 태어나 아무도 모르게 남자 누드화를 그리는 등 그림의 열정을 키워나갔다. 그녀는 아버지 친구와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강간재판에

휘말리는 파란빛을 삶을 살았던 여성이기도 하다. 두 여자가 한 남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참혹하고도 사실적으로 그린 〈홀로페르네의 목을 베는 유디스〉(if 3호, 『여성작가의 자화상』에서 소개된 바 있다)의 작가가 바로 그녀다.

중세라는 엄혹한 시대에 이미 아버지 하느님이 아닌 '어머니 하느님'을 불렀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빙젠의 힐데가르트 수녀의 얘기다. 글로 자기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은 17세기 멕시코의 후아나 수녀, 고문 끝에 화형까지 당한 16세기 영국의 앤 아스큐, 칩거생활로 자신의 재능을 죽여야 했던 19세기 미국의 에밀리 디킨슨 등등. 『역사속의 페미니스트』를 통해 7세기부터 1870년까지 살았던 페미니스트를 만나보자.

이제 정치는 여성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계를 움직인 열두 명의 여성』에서는 세기의 여성지도자 12명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파키스탄의 부토·인도의 인디라 간디·영국의 대처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활동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이 소개된다. 각국의 정치·문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국여성정치연맹의 총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자씨의 자전적 에세이 『아름다운 만남』은 한 시골소녀가 여성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과 YWCA 활동, 박예스터 선생을 비롯한 당시 여성지도자들의 활동상에 대해서 보여준다.

•『소설 허난설헌』

김신명숙 지음·김보령 펴냄

•『아르테미시아』

카렌 브람지 지음·홍은주 옮김·동녘 펴냄

•『역사속의 페미니스트』

저다 러너 지음·김민성 옮김·평민사 펴냄

•『세계를 움직인 열두 명의 여성』

조기숙지음·여성신문사 펴냄

•『아름다운 만남』

김현자지음·푸른솔 펴냄

수필

한국사회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여성 세 명이 수필집을 냈다. 소설가 박완서씨와 닥종이인형으로 유명한 김영희씨, 그리고 출판 흥신자씨는 자신의 영역에서도 부끄럼 없는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지만 무엇보다 삶의 깊은 철학을 지닌 우리사회 어른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어른노릇 사람노릇』은 박완서씨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과 삶의 지침을 담고 있다. 『눈화장만 하는 여자』의 김영희씨는 여성을 성적인 것대, 도덕적인 것대로만 대하러는 한국사회의 풍토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딸에게 주는 사랑, 자유 그리고 명상 이야기』의 흥신자씨는 사춘기를 맞은 딸을 위해 책을 썼다. 쿡가루 집안이라고 불릴하고, 군살부성의 몸을 타박하고, 네모진 얼굴을 깎고 싶어하고, 브랜드 옷을 선호하는 흥신자씨의 딸, 회야, 그러나 흥신자씨가

딸을 대하는 품은 역시 다르다. 딸에게서 배우고, 딸에게 해주고픈 이야기들을 들여보자.

위의 세 여성이 현재의 '어른'이라면 백지연은 '미래의 어른' 품 될까. 방송계에서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이제 여성앵커로서는 베테랑이 된 그녀에게서 전문직, 그것도 방송분야라는 일터에 대해 여러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을 일이다. 『앵커는 닳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송계를 지원하는 여성후배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 어른노릇 사람노릇

박완서 지음·작가정신 펴냄

• 눈화장만 하는 여자

김영희 지음·샘터 펴냄

•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 딸에게 주는 사랑, 자유 그리고 명상 이야기

흥신자 지음·안그라픽스 펴냄

• 앵커는 닳을 내리지 않는다

백지연 지음·문학당 펴냄

이론서

언어회통 — 남성의 언어회통과 여성의 자기 방어법

수정영 지음·심정순 옮김·살림 펴냄

남자와 여자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니라 동상이언(同床異言)이 가장 큰 문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어떻게 어긋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언어 문화를 가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히즈라

세레나 난다 지음·김경학 옮김

한겨레신문사출판부 펴냄

중성으로 태어난 사람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기질을 지닌 사람들, 히즈라를 소개함으로써 남성, 여성 외에도 제3, 제4의 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일상의 여성학 — 여성의 눈으로 세상읽기

박삼근·김현미의 지음·박영사 펴냄

여성학 개론서가 요즘 감각에 맞게 다시 쓰여졌다. 여성학으로 일상 바라보기, 사랑론, 남성중심적인 시선에 묶여버린 몸체에 대한 권리 찾기, 정보화사회를 위한 준비까지...

사랑의 관능이 상실된 이에게

아보타 K. 오퍼트 지음·김종주 옮김

·사유서 펴냄

성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 성치료사인 저자는 다양한 성행위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권한다. 도덕적인 판단은 노우. 신이 허락한 가장 고상하고 신비한 즐거움을 누려라.

젊은 여성을 위한 심리동화

알렌 B. 치넬 지음·공경희 옮김·황금가지 펴냄

융학과인 저자는 8년 동안 각국의 7,000편의 동화들 속에서 '여성동화' 12편을 골라내어 아주 꼼꼼하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했다. 저자의 여성주의 동화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심도깊은 심리학적 분석이 이 책의 매력.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 사슬잡기

폴린 찰슨의 지음·정민 옮김·연구사 펴냄

동성애자 해방운동론과 운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 저자는 외친다. "법적 평등권 획득이 전부는 아니다. 노동자계급과 연대하라, 그리고 분리주의에 저항하라!"

소설

검은 사슴

한강 지음·문학동네 펴냄

한낱 도심의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달음박질을 한 기억상실증의 여자를 찾아다니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유년기와 가족사의 깊은 상처를 탄탄하게 엮어냈다.

식사의 즐거움

하성란 지음·한대문학 펴냄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 때문에 알콜 중독이 되면서 불박이장동처럼 점점 뚱뚱해지는 어머니. 그런 가족을 부양하고픈 한 남자의 새로운 가족 꾸기.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서하연 지음·문학자지성사 펴냄

마치 현 가구처럼 취급되는 30대 여성의 결혼생활. 어렵게 외출타기를 시도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기혼여성들의 자화상을 그린 소설집.



강물이 될 때까지

신경숙 지음 · 문학동네 펴냄

80년대는 아직도 빗이 고통이다.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각자 외롭게 그 짐을 지고 서 있는 개인들의 삶을 담은 소설집.

가역의 상처

노은 지음 · 좋은날 펴냄

성폭행당한 문화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성폭력 가해자뿐 아니라 언론, 법 역시 강간당한 여성을 유린하는데...

어른도 길을 잃는다

박경호 지음 · 창작비평사 펴냄

분단이라는 울가미, 그 울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들의 삶. 그리고 그 어른들의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어린 소녀가 바라보는 분단의 고통.

내 생의 알리바이

공민숙 지음 · 창작비평사 펴냄

훈천 김치를 먹으며 뱃속의 아이를 키우고, 생존의 벼랑끝까지 밀려나면

서도 아동임시보호소에 맡긴 아이를 찾아가는 가난한 여성들의 모성애에 대해 쓴 소설집.

피리새는 피리가 없다

김형경 지음 · 한겨레신문사출판부 펴냄

한 여자가수가 이름을 걸고 이루고 싶었던 나만의 세계, 나만의 노래, 나만의 사랑... 그러나 숨통이 막힐 만큼 조여오는 세상의 많은 억압과 거짓 속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무엇일까?

사랑의 묘약

루이스 어드미 지음 · 이기세 옮김 · 열음사 펴냄

인디언보호구역 안에서 백인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인디언 특유의 금기와 미신 등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원주민들의 이야기. 특히 원시적인 생명력을 간직한 인디언여성들의 삶이 당당하다.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아니 에르노 지음 · 김신희 옮김 · 열림원 펴냄

치매에 걸려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죄스러워하는 딸의 관계를 그린 자전적인 소설.

기타

우리,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

꿈을 찾아가는 job 소리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펴냄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가 맞벌이부부 생활지침서와 여성취업가이드북을 자료집으로 만들었다. 『우리, 결혼하길...』에서는 맞벌이부부의 가장 큰 갈등인 가사노동의 분담, 성평등한 아이키우기, 현명한 부부 대화법 등을 배울 수 있고, 『꿈을...』에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서점관매음이 아니므로 277-7833으로 연락하시길. **11**

글 윤숙경

주목받는 책

반쪽이네 딸, 학교에 가다

최정현 글 · 그림 · 김영사 펴냄

“반쪽이의 육아일기”로 젊은 엄마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선사했던 최정현씨가 이번엔 『반쪽이네 딸, 학교에 가다』를 출간했다. 하예린의 초등학교 생활과 가족이야기가 이번에도 '역시' 진솔하게 펼쳐진다. 한 권의 책으로 읽으면 한 편씩 읽을 때보다 아쉽다는 느낌이 훨씬 재미있다. 게다가 전의 2권과 비교해도 흥미진진함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요즘 인기절정인 구성애씨는 자신의 사생활을 거침없이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의 신뢰를 받는다. 그러나 반쪽이네만큼 사생활이 노출된 가족이 또 있을까. 마치 친한 이웃의 이야기처럼, 아니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익숙하고 정겹다.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공감하고 웃으면서 우리는 삶의 귀중한 것들을 건져올릴 수 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방법은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반쪽이네 가족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이번 책도 어김없이 일상의 미세한 것들, 무심코 흘려보낼 것들에 반쪽이라는 이름의 현미경을 들이댔다. 반쪽이는 우리 사회 남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일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과장하지 않고 드러내는 재주를 가졌다. 아이의 숙제, 늦잠, 학부모로서의 작은 갈등들, 가족들의 수다 등등이 반쪽이 만화의 소재다. 그런 얘기들이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배우고 한다. 개인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집에서 일하는 화가라는 직업의 아빠와 늘 바쁜 영화평론가인 엄마를 둔 하예린이네 가족은 사실 그리 평범한 가정은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네 가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놓고 초보 학부모로서 실수도 많고, 격정도 많다. 또 약속 자란 하예린이 엉뚱한 행동과 말로 부모를 당황하게 한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그리고 곧 초등학교가 될 아이를 둔 부모가 읽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1**





‘삐삐’는 ‘삐삐’가 아니다

PCS 춘추전국시대, 통신문화 유감

“고독이 힘들고 지친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소리가 있다.”

요즘 사람들에게 뜨는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Phone: 개인휴대전화) 광고 중 이런 멘트가 있나 보더군. 제법 멋있는 말 같지만, 알고 보면 나를 알아달라는 간절한 투정이나 나를 안아달라는 보충 같은 거지. 인간이란 존재가 별스런 영물인 줄 알았는데 말야, 별거 아니더라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내뱉을 수 있는 입이 발달한 동물일 뿐, 그 말의 노예가 되어버린 슬픈 짐승 같아. 시간을 때우기 위해 억지로 입을 가지고 노는 동물 말야. 어디서 굴러먹은 개백다군데 함부로 그런 건방진 말을 하나구? 후후, 난 원래 말을 가지지 못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리를 가지지 못하지. 단지 인간의 말을 옮겨주거나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해.

인간은 말이 발달한 슬픈 짐승이야

인간이 써놓은 음양잡기(陰陽雜記)에 보면 기물(器物)이 백 년을 넘으면 신령으로 변하여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고 하더군. 난 아직 백 년을 채우지 못해 신령으로 변할 순 없지만, 아주 가끔 요즘처럼 바람이 잦아지는 시기에 바람결에 살짝 실려서 사람의 발성법을 흉내낼 수도 있지. 대체 정체가 뭐냐구? 굳이 말하자면 음성감지용 집적회로를 연결하는 칩(chip)의 일종이라고나 할까? 때로는 더러운 입냄새를 감수해야 하거나 일 년 내내 껌밥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고역도 있지만 내가 소리상자를 내 몸신으로 택한 이유는 순전히 인간의 울림통, 그 목소리의 진동에 홀딱 반해서였어.

내 몸신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코드화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지. 사실 내가 인간에게서 정말 부러운 건 전화통을 타고 흐르는 그 목소리였어.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음색이 있고 말하는 기분에 따라 어조와 억양이 다 다르더군. 특히 사랑을 할 때 속삭이는 그 바이브레이션은 정말 놀라워. 사람이 사람을 당기는 심리적 파동이 목소리를 타고나면 아름다운 빔(beam)이 나오지. 설렘이나 흥분, 그리움, 애절함 등등... 간간이 뱉어내는 그 한숨소리에 실리는 파장을 해독하는 일은 정말 신나는 일이기도 해. 그래서 소리상자 안에서

백년을 기다려 신령을 얻고 싶었던 거야. 목소리의 전기적 파장을 잘 감식해서 미세한 감정군열을 해독해 내면 나도 언젠가는 영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PCS폰의 장풍싸움이 불만하더군

일피감치 목소리 감식가로 나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생생한 목소리 전송을 위해 전파전쟁의 용병으로 뛰어드는 분위기 덕분에 까다로운 내 입맛을 돋궂주는 잡음없는 고품질 음성을 취향대로 마음껏 탐식하게 됐지 뭐야. 아날로그 시절부터 소리상자 안에서 음성코드 탐지하느라 생고생한 보람도 있는 거 같고, 머지않아 나도 내 목소리에 어울리는 탈립판을 얻게 되지 않을까 가슴이 벅차기도 해. 자고나면 새로운 기종의 센서들이 최적의 주파수를 자랑하며 목소리 채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나야 팔자가 늘어진 게지. 기존의 불박이 전화기는 퇴출당한 지 이미 오래고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였던 호출기마저 찬밥신세가 되고 있는 요즘, 바야흐로 휴대폰의 춘추전국시대라나? 북풍(北風)보다 무섭고 세풍(戩風)보다 강력한 게 광풍(光風)이라는군. 더구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초소형·초경량 볼터형 PCS폰에는 장안에 고수들이 다 붙어서 장풍싸움이 불만하더군.

PCS폰 달려들이 파워디지털을 내세워지며, “우라에게 맡겨라. 전철이든 섬나라든 어디라도 날아간다”, “기다리느라 애태을 일 없이 한방이면 속이 화 풀린다”, “소리의 맛도 다르니까 따져봐야 한다”, “걸기만 하면 내 손 안에 정보가 다 걸린다”, “소리가 보인다구? 웃기지 마라. 우리는 진짜 비주얼폰이다”... 세력구축에 열을 올리지, 새로 등장한 위성통신은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게임도 안된다.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다며 한술 더 뜯다더군. 이런 설전(舌戰)이 아니라 숫제 혈전(血戰)이지 뭐야.

사실, 지금 당장 연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의사전달이 가능한 휴대폰이 기적의 매신저일 수도 있지. 하지만, 요즘은 연락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자신의 기호도를 드러내는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것 같더라구. 뭐 전화가 없어서





연락을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길거리든 사무실이든 하다못해 커피숍이나 슈퍼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잖아.

생각해 보니 그 동안의 매체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수용자 역할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전송이었던 데 비해, 휴대폰은 사용자가 왕이 되는 매체인 것 같아. 과거의 첩보영화에서 힙합 주인공이나 들고 품잡던 무선전화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매체가 되면서 개인들의 자기채널 확보욕구가 폭발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 어쩐지 멋있잖아. 맘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널 위해 준비했어" 프로포즈하기에도 근사하구. 그래서인지 주로 받아서 건네주는 역할만 했지 자기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수다쟁이로 내몰렸던 여성들이나 네까짓 게 뭘 안다고 나서나고 어른들에게 타박이나 들던 청소년층이 휴대폰 매출신장의 천봉장이래. 눈치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든 말하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자발성'에 불을 당긴 거겠지. 자기 목소리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려는 광장지향형 자기발산 욕구와 나만의 너, 너만의 나에 대한 고유한 코드해독을 선호하는 밀실형 자기확안 욕구가 장소와 거리의 경계선을 해체한 PCS폰을 통해 무섭게 번지는 걸 보면, 부단한 인내심과 침묵을 강요받으며 자라온 역눌림 탓도 큰 것 같아.

휴대폰 없다고 원시인 취급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말야, 자신의 편리를 위해 휴대폰 없으면 원시인 취급하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생활을 무조건 방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까탈스러움을 결벽증 환자나 미개인으로 몰아부치는 것 같잖아. 자신이 전파수신기처럼 누군가에게 쉽게 중용되는 느낌이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도 말야. 솔직함과 거침없는 화끈함을 빙자해서 시간의 세례없이, 감정의 여과없이 자기 삶의 틈새를 예집고 들어오는 무례함이 거슬릴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존재의 비상구를 뚫어보자고 상대방의 자기방어 시스템을 무장해제시키려 드는 건 너무 고약한 거 같아.

그런데 말야, 사람들이 잠지도 쉬지 않고 지껄이는 동안 나를 감동시켰던 그 목소리가, 심리적 파장이 점점 단조로워지면서 탁하고 차가운 금속성 음향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서글프더군. 맑고 잡음이 섞이지 않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숨결이 섞여질 때 느껴지던 맥동은 이제 내



더듬이에서 멀어진 지 오래야. 여분의 충전бат테리를 들고 다니며 당장 휴대폰이 터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표정으로 버튼을 눌러대는 조급증 환자의 성난 얼굴을 보면서 무슨 시한폭탄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말부터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잊었나봐. 자기 목소리의 진동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목소리를 해독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왜냐면 인간은 그네들 특유의 오성(情性)에 의한 인지작용이 목소리에 의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거든. 자기 목소리의 여음을 듣지 못하거나 음폭을 건디지 못하는 사람은 늘 타인을 저주하고 혼자서 절망하지. 아무도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야. 자기 말을 비틀고 꺾고 휘젓는다고 절규하지. 그러나 그 사람이 정작 외로운 이유는 자기의 말을 자기가 알아듣지 못해서일 거야. 타인을 향해 말을 내포기 바쁜 현대인들은 자기 내면의 동굴에서 울리는 목소리의 반향을 기다리지 못하고서, 자신의 말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상대방의 심장에 박히길 바라는 모양이야. 자기공명의 시간이 없는 인간의 목소리에서 진동이 사라지고 말 텐데 말야. 한 번 속도의 마약에 중독된 인간이 그 유혹을 떨쳐내기란 너무 버거운 일 같아.

속도의 마약에 중독된 인간은...

어쩌면 인간들은 조만간 세상이 자기 손 안에 원히 잡히는 멀티비전형 위성휴대폰을 만들어낼지도 몰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입력하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사정거리 7m 안에 들어왔을 때 요란하게 신호음을 울려준다는 러브게티(LOVE GETTY, 호출기의 일종)처럼 걸어다니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아니, 자기에게 적합한 사람)만 만나도록 위성휴대폰이 레이저선으로 즉시 통보해 줄지도 모르지. 지금 영국 런던에서는 최첨단 통신망으로 인간의 모든 오감과 행동을 제어하는 유선인간(Wired Man)도 개발중이란다. 내가 백년을 채워서 신령으로 변하여 인간의 목소리를 얻고 나면 그때 누가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1]

김정복



오랫동안 나는 내 자신과 너무 멀리 있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모델들을 숭배하여 그들의 일을 아낌없이 흉내내는 동안 나는 나에게 너무 불친하고 불안했다. 그렇게 곁돌아서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나를 배신했고, 내가 우려해보던 이들은 나를 거들며 보지도 않았다. 마른 침을 삼키고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상처를 매어보니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린다. "괜찮아, 그렇게 입을 다물고 조금만 있어봐. 다 지나간 거야. 떨 빈 건 스스로 채워질 거야."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길은 의외로 가까웠다.



여성 폭력으로 확인되는 '사나이' 들의 연대

청소년 성폭력가해자들의 성문화

과연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자랐길래 여성들의 고통스런 하소연에 아랑곳없이 지금도 어디에서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남성들의 성문화에 대해 종종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들은 도대체 왜 아무렇지도 않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성폭력가해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다.

성폭력가해자 중에서도 청소년 성폭력가해자 연구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 그리고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배이데올로기인 남성다움의 극단화된 측면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성문화를 더욱 극단적으로 모방에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성인남성들의 성문화를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감지해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성적인 각본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윤간이 대부분인 청소년성폭력

성폭력이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성폭력의 특징은 피해자가 같은 또래이고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청소년성폭력은 집단강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서도 집단강간의 경우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다. 집단강간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가해자에 의한 집단강간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선 전체 성폭력의 1/4, 심지어 1/2 이상이 집단강간이라는 것이다. 12명의 연구대상들 중 8명이 집단강간(윤간)의 사례였는데, 그들 중 3명만이 강간통념(일반적으로 강간은 밤시간에 한적한 길을 가는 모르는 여성을 보고 성충동을 느낀 가해자들이 우연히 저지르는 행위)라고 알려져 있다. 대과 일치하는 사례였고 나머지는 모두 다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아는 사람이었고, 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경우에 피해자는 '결레'라고 소문이 난(즉 여러 사람과 성경험이 있는) 또래의



소녀들 중에서 선택되었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 거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피해자들이 성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 '그 여자는 그런 일을 당해도 빠다', '여지도 강간을 즐긴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의 동기는 성적인 만족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인 동시에 또래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에 기반한 것이었다.

각자의 동기는 다 다르게 설명되지만, 이들을 집단강간에 가담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힘은 또래집단의 규범인 '남성다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남성다움 이데올로기는 한 집단의 남성성과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집단구성원의 의식이나 사고를 통제하게 된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따라서 끊임없이 남성다움을 증명하려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압력은 특히 그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남자가 암시스럽게'

'전 그 애하고 잘 몰라서 한쪽에 앉아서 담배만 피고 있었는데, 남자끼리 서로 통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고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여자를 놓고 같이 노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여자 모르니까 그냥 있었는데, 선배 한 명이 먼저 들어가서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랑 하나 보자'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형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더니 형들이 저보고도 하라고 해요. 내가 그래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재가 머뭇거리니까 선배 한 명이 칼 들고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암시스럽다'고 그러구요.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하고, '너 그거 달렸냐'고 하구, '너 그런 것도 못하면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칼 들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안할 수 없잖아요. 그때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형들이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형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형들한테 칼맞고 기만하 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했다고 뭐 진짜로 칼로 찌르기가 했겠어요? 사실은 겁도 좀 났지만요. '나는 남자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A, 16세)



(나쁜 영화)의 한 장면

그들의 폭력적 문화에 동화되면서 다른 집단에 대한 '정복'을 의미하는 '남자다움'은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의 일부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낙인이다.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멸시는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의 중요한 원천인 동시에, 남성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A의 '나는 남자인데...'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A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녀서 새로 전학을 가는 학교마다 그곳 학생들의 탓세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많은 형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매개이다. 그는 남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항상 음담패설과 같은 성적인 농담을 하게 되고, 여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이는 그와 어울리는 또래들의 대부분이 여자들을 멸시하고 단지 섹스하기 위한 상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집단강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하나의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남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또래의 연대감을 공고히 한다. 타인을 학대하거나 정복함으로써 집단 내 유대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남성문화 혹은 남성적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발견하는 특징이다.



“그렇게 나쁜 것인 줄 몰랐어요”

“나는 남자인데...”라는 생각엔 ‘남자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이라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무성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는,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무지상태에 묶어두면 성적 일탈을 막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성교육의 부재가 성적 일탈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경우 이런 무지에서 성적 일탈이 발생한다. 즉 남자의 성욕은 때론 억제할 수 없다는 통념이 팽배해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남자의 성폭력을 허용하고 나아가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우리 애가 특별히 말뼉을 피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내 아이들은 그러기 마련인데 이번에 너무나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B는 아직도 엄마 젖 만지면서 잘 정도로 어리고 순진해요.” (B의 어머니)

“전 딸아이한테는 조심시키지만 남자애라서 성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또 엄마가 아들한테 그런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애 아버지가 같은 남자로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비뻛서 애하고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학교생활도 잘하고, 전혀 말뼉을 부리지 않던 아이예요. 애 아버지는 아이가 저지른 일이 물론 나쁜 일인긴 하지만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지만, 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애 아버지는 남자라서 그런 심리를 더 잘 이해하나 봐요.” (C의 어머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내아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통념은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태도는 소년들에게 ‘여자는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존재이며, 남자의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비난을 받는 쪽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비뻛되어 쓰러진 인간 정신의 부활을 꿈꾸는 행이 [증동]들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눈물을 안 보이려고 했는데... 전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한 사진도 돌려보고 비디오에서 본 내용도 얘기하고 하는데...” (B, 16세)

B와 C(16세)는 소위 ‘범생’이다. B는 같은 동네에 사는 5살파리 여아를 강간했는데,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들은 공식적인 성교육을 비롯해 어디에서도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었으며, 포르노비디오를 통해 성개념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청사진이며, 그대로 따라해야 할 생각본이다.

“비디오 같은 데서 보면 여자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해도, 나중엔 좋아하잖아요. 아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나면요,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D, 14세).” D는 여성의 ‘싫다’는 의사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었다. “저는 진짜로 싫어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영화에서 봐도 그렇고,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던데...”

청소년 성폭력가해자들은 자신이 비행청소년이 아니며, ‘정상적인’ 보통 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 남자지만 일시적으로 실수를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평범한’ 청소년들이 성폭력가해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방식으로 친구나 선배, 술에 그 책임을 돌린다. 이러한 변명들의 공통점은 모두 ‘남성의 성욕은 때론 억제할 수 없이 강하다’는 암묵적인 통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 패륜성이나 극악성에 대해 어른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성교육 강연자 구성애씨는 요즘 청소년들은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구멍’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성인남자들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사회 ‘짜나이문화’는 청소년들의 남성다움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다른가. 대학이나 직장의 초년생을 강제로 성경험하게 하고, 원하는 여자를 폭력으로라도 소유하지 않으면 포대로 몰아부치는 우리 사회는 10대 남자애들과 얼마나 다른가. 강간을 통해 결혼을 하고는 ‘남편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여성들은 또 10대 소녀들과 얼마나 다른가. [1]

권수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성과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대 여성학과에서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성폭력가해자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각본에서 파생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골다공증의 예방

골다공증이란 사람이 노화되거나 폐경기 후에 골량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골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여성에게 오는 폐경기의 영향이 가장 큰데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6~10배 가량의 높은 빈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하여 골의 생성과 흡수를 조절하는 골대사과정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인체가 노화되면서 골생성과 골흡수를 조절하는 골대사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골다공증이 악화된다. 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생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골절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도 날로 상승되어 점차로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골절의 특징은 발을 헛디디 넘어지거나 가벼운 충격 등으로 인한 사소한 외력에 의해 척추의 압박골절, 대퇴골 근위부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이 쉽게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골절의 수술시 골절을 고정하는 내고정력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골절이 발생하기 전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골다공증의 원인과 병리기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골다공증의 예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골다공증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치료는 골다공증의 예방이다. 즉, 가능한 골량을 최대

로 유지시키고 폐경기와 노화에 관련된 골 소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방적인 방법으로는 인체의 골성분 중 가장 중요한 성분의 하나인 칼슘의 적절한 운동이 예방적인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제와는 달리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운동방법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막연히 운동 자체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은 운동자체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골량의 증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관절염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이 골량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으로 인하여 골내의 수분과 전해질 공급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골 생성을 자극하게 되며 골의 재형성과정에 도움을 주어 골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골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용에 기인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골량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도움이 되더라도 적절한 영양의 섭취가 결핍된다면 오히려 골량을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폐경기와 관련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 부족한 영양의 섭취는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게 되어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런 예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진행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여성호르몬, 칼시토닌, 비스포스포네이트, 플루오로아이드 등의 약제의 도움을 받으면 골절까지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마비되어 쓰러진 인간 정신'의 부활을 꿈꾸며.....

불타는 대지

작가 이하천이 던지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

"나는 한국인의 심리 속에 집단주의식으로 잠재해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으며, 마비되어 쓰러져 있는 인간정신의 부활을 이 소설을 통해 꿈꾸어 본다. 그것은 어쩌면 주인공 김상준이, 음지를 대변하는 김경민과 양지를 대변하는 백상희를 양과 음으로 거치면서 영혼의 마비로부터 풀려나듯 '여성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작가의 말에서

대학 시절 열성적인 운동선수였던 주인공 김상준은 그 후 1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세상에 나오지만, 세상은 여전히 너무도 달변한 삶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진다. 그때부터 주인공 김상준은 자신의 심리 속에 이 절망을 뛰어넘는 미지의 영역을 키우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상준은 근현상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김경민의 자살기도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다. 정신장애자가 되어버린 경민을 꺼안지도, 버리지도 못하면서 우울하고 어두운 심리적 허탈을 배회한다. 어느날, 대학 시절 상준을 추종하며 따르던 후배 백상희가 나타나고 이만간 지 11년만에 더 이상 소녀가 아닌 성숙하고 당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상희의 등장은 상준에게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게 하는데.....

이하천 지음/삼국판 285쪽/값 6,000원



깎고, 올리고, 풀고

그 화려한 아우성

클레오파트라에서 비달 사순까지

여성이려면 누구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난 뒤 주위로부터 실연했느냐는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심경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기는 힘들어도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일만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체 가운데 가장 손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머리다.

아름다워지고 자하는 욕망을 위해서, 왕족이나 노예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개인주의가 싹트는 근대에 들어서 는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이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것이 헤어스타일

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상징이었다면, 영화 <산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의 마릴린 먼로의 머리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모니카 르윈스키의 등장으로 미디어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린턴스캔들의 주역이었던 폴라 존스, 야간소 주정부의 임시직원이었던 그의 헤어스타일은 보글보글 붉은 빅헤어. 머리에 든 것은 없고 헤프기만한 여자를 은근히 지칭하기도 하는 빅헤어는 그의 신뢰성을 반감시키는 요소가 됐다. 올해 초 대배심증언을 앞둔 그가 일대 변신을 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풍성한 머리를 짧게 깎고 단정한 모습으로 바꾼 것은 그만큼 헤어스타일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예증이다.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거처온 헤어스타일의 역사, 클레오파트라의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행대(1770년) 모양의 관을 쓴 이집트 여인. 그의 긴 머리는 실상 가발이었다.



머리 모양을 단정하게 바꾼 폴라 존스

클레오파트라는 대머리

이집트 왕들의 무덤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 파라오와 왕비, 신하—이 중의 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이다—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고, 뱀대가리나 태양을 형상화한 관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긴 단발머리는 실상 가발이었다는 것이 이집트 학자들의 주장이다. 뜨거운 열대에서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이'의 변식을 막기 위해 머리를 남녀 없이 박박 밀고 의식이 있을 경우에 만 신분에 따라 가발을 썼다는 것. 남자들은 머리뿐 아

니라 수염도 깎고 가짜수염을 달았다고 한다.

시저는 삭발한 클레오파트라를 보았을까? 장식을 좋아했던 고대이집트인들은 가발과 함께 아이세도, 마스크라, 립스틱 등 화장법을 발명하기도 했다. 퍼머를 발명해낸 것도 이집트인들이다. 그들의 방법은 젖은 알칼리성 점토를 머리에 발라 웨이브와 컬을 만들고 햇빛에 말려 빳어내는 것. 전기나 열을 이용해 컬을 만드는 기계식 퍼머가 등장한 것은, 1906년이었던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이집트인이 끼친 공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다.

고대에 삭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물질과 욕망이 지배하는 현세를 떠나 금욕적인 삶을 살겠다는 서약의 의미. 현대에 이르러서도 승려들이 머리를 깎고 수녀들이 두건으로 머리를 감추는 식으로 그 의미는 이어져오고 있다. 사실 머리칼이 성적인 일정이나 관능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로렐라이가 뱃사람을 유혹하는 노래를 부르며 긴 머리카락을 빳었다는 독일의 전설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에드워드 왕조시대의 영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기 위해 위로 말아올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가 결혼식을 할 때는 머리를 풀



18C 귀족여성의 머리 모양





발집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한 소녀들과 비틀즈 앞머리 모양의 소년들

번발이 품위와 남성다움의 상징이었다고?

손문의 개혁으로 없어지기까지 중국에는 번발이란 우스꽝스런 헤어스타일이 있었다.

앞머리는 삭발하고 뒷머리만 길게 길러 땅을 번발풍속은 17세기 중국을 정복한 만주족에 의해 도입됐다. 만주족은 이 번발한 스타일을 품위와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피정복민인 중국인에게는 지배민족의 미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말하자면 번발은 복종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머리를 장식하는 일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프리카 원주민인 마사이족에서는 여자와 전사가 아닌 남자들은 모두 머리를 삭발했지만 전사들은 앞머리를 길게 땅고 뒷머리를 허리까지 길러 땅아내리고 다닌다. 이러한 머리손질은 몇 시간이 걸리는 데다 한 번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사이족의 전사들은 싸움이 아니면 머리손질만 하고 있었던 셈. 그런데 전쟁이 사라진 오늘날에도 이들은 머리장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제 그들의 놀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전투능력이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놓은 '미모'가 됐기 때문이다.

헤어스타일을 발전시킨 것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계급이었다. 역사적으로 헤어스타일의 발전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을 들자면, 프랑스 루이 16세 비 마리 앙드레

어내려 자신이 처녀라는 사실을 나타냈다고 한다. 결혼한 후에는 머리를 짧게 자름으로써 남편에 대한 복종을 맹세했다. 오늘날까지도 정통파 유대교를 믿는 여성들은 결혼한 이후 머리를 사이틀이란 가발로 가리고 다닌다. 외간남자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는 머리를 남편에게만 보여 주겠다는 의도이다.



비달 사순은 다투기 쉬운 길이까지 머리를 자른 스타일을 마무리지었다.

와네트와 15세의 애첩 마담뽕과두르를 뺄려서는 알 될 것이다. '병도 고기도 얻지 못한' 백성들의 분노로 일시에 무너지기 전까지 프랑스의 절대왕권도, 귀족여성들의 틀어올린 머리장식도 함께 높아갔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철사나 울, 말총, 지푸라기, 가발 등을 총동원하여 두건의 높이를 무려 5피트 이상 끌어올린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 탑처럼 높은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미용사가 시다리를 놓고 작업을 했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 목에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스타일이 유행한 것은 당시 교회의 권

위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첨탑양식이 헤어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후 여성은 또 다른 종류의 주장을 하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이용했다. 귀족들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이른바 '희생자풍'이란 이름의 헤어스타일을 함으로써 처형자에 대한 냉소를 표현했다.



헤어디자이너의 '사실'로 불리는 Vidal Sassoon

비달 사순과 활동적인 현대여성의 출현

현대식 미용실이 설립되고 퍼머넌트, 염색, 가발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20년대. 전쟁터에 나간 남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정 밖으로 뛰쳐나온 여성들을 중심으로 보이쉬한 보브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했다. 앞머리를 눈썹 위에서 가지런하게 자르고

두상이 드러날 정도로 짧은 이 스타일은 사회활동으로 얻어진 여성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데 유용했다. 여성의 짧은머리는 외모 외에 더 신경 쓸 것이 많다는 것을 은연중 나타내기도 한다.

과학의 발전도 헤어스타일의 다양화에 공을 세웠다. 20세기 초 개발된 퍼머넌트는 처음에는 1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200파운드가 넘는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에게까지 널리 보급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20년대로 넘어오면서 화학적 방법, 탈색과 샴푸, 염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염색기술의 발전으로 본격적인 미용실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영화, TV 등 대중미디어가 보급된 뒤로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결정지은 것은 과거의 왕족이 아니라 영화배우나 인기가수들이었다. 57년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의 헤어스타일은 젊은 세대에게는 그대로 교과서가 됐다. 68년 미국의 반전운동, 프랑스의 5월혁명으로 절정에 이르는 60년대는 젊음과 반항의 시대였다. 이때는 남녀 모두 긴머리를 하면서 성의 구별도 어



려워질 정도였다.

근대 헤어스타일의 역사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탈 사순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런 시대적 조류와 함께였다. 헤어스타일에서 근대개념은 비탈 사순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선풍을 불러일으킨 그의 역할은 재능있는 헤어아티스트에 그쳤던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지점 설치, 헤어케어 용품의 개발, 보급 등 사업가로서도 재능을 발휘했고, <비탈 사순 아카데미 & 스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미용교육을 도입하기도 했다. 헤어관리에 대한 그의 접근방식은 복잡하고 바른 현대 생활과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 현대여성의 요구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며칠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고, 기존의 한정된 스타일에서 탈피한 다양한 스타일로 다른 여성과는 차별되는 외모를 갖고 싶어 하는 여성을 만족시켰다.

런던의 유태인 빈민지역(게토)에서 태어난 그가 성공하게 된 것은 미니스커트를 선보여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패션 디자이너 마리 쿼트의 눈에 띄면서이다. 모델의 플어올린 머리에 염증을 느낀 마리 쿼트의 요구에 따라 기하학적인 헤어컷을 선보인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헤어 디자인의 샤넬'로 불리는 그의 단골고객은 카트린 드뇌브, 신디 로퍼, 제리 그란트, 로드 스투어트 등 굉장히 다양하다.

현대에 들어서 헤어스타일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69년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집결지였던 우드스탁 음악제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제멋대로 기른 장발, 60년대 말 흑인들의 자의식 발현을 계기로 유행하게 된 아프로스타일, 콘로스타일, 드레드록스타일 등이 대표적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여가수 시너드 오코너의 박박 깎은 머리는 섹스심벌에 대한 그녀의 강력한 저항을 나타내는 것.

헤어스타일은 의외로 많은 것을 얘기한다. 직장에 첫 출근하는 여성이나 얼마 전에 만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다시 한번 거울 속의 자기 헤어스타일을 점검해 볼 일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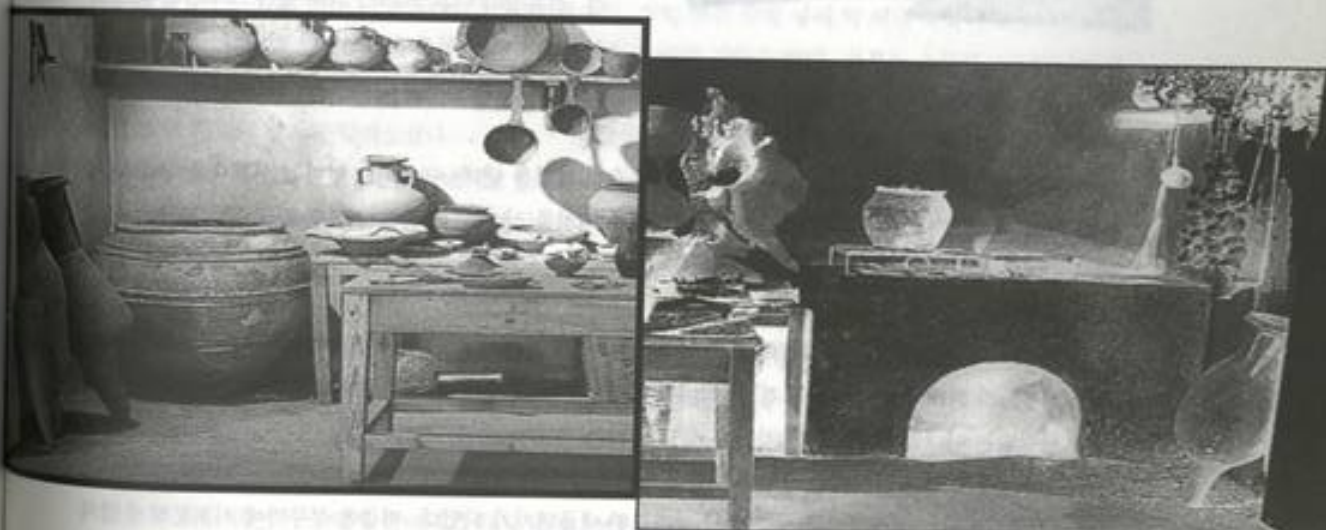


김동선

59년생. 대학에서 의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90년 신문에 입사했다. 소위 패션잡지 기자라고 하지만 평소 머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명한 헤어아티스트에게 머리를 맡기기 위해 일부러 멀리 찾아가서 피아약을 바른 채 몇 시간씩 시간을 죽여야 하는 일은 도저히 내 성미에 맞지 않는 것. 이 글을 쓰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됐다. 아이와 일에 시달리는 30대 아줌마의 부사시한 머리에 한번쯤 호사를 시켜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어보기도 했다.

부엌, 그 이·울·배·반의 공간

어머니에게 있어 부엌이란, 일평생 자신을 묶어둔 속박의 공간이면서 가장 편안하게
있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했다.
딸에게 있어 부엌이란, 엄마가 늘 지켜줬으면 하는 공간이면서,
자신은 절대로 있고 싶지 않은 공간이다.
부엌은 식구들을 먹여살리고, 즐겁게 하는 음식을 창조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창조적인 남자'들이 절대로 가지 않으려는 곳이기도 하다.
과연 엄마가 있어 호사스러운 딸들은 아무 노력 없이도 부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부뚜막, 엄마의 자화상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다. 그 날은 외할머니가 와 계신 날이었다. 평생 큰돈 한번 만져보지 못하는 사업을 했던 아빠의 사업자금에는 주로 계를 이용한 엄마의 빚짓돈 굴리가 많이 동원됐다. 그런저런 핑계로 엄마는 자주 외출했고, 자주 늦게 왔다. 일만 끝나면 집으로 들어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빠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살그머니 들어오는 엄마를 향해 밥상인지 뭔지 아무튼 뭐가 남아있고, 집안은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됐다. 이날 싸움은 평상시의 그것과 달랐다. 엄마의 엄마인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 엄마는 늦게 귀가한 죄보다 할머니 앞에서 난리를 피운 아빠에 대해 극도로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할머니는 “나, 내일 간테이...”를 읊조리며 심란한 표정으로 낄낄대며 웃었다. 며칠만 더 계시다 가시라는 엄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자 할머니는 냉정한 뒷모습을 보이며 외갓집인 부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엄마의 눈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옥집의 낮은 부뚜막 위에 고급 나무걸을 뿔뿔이 싱크대가 짜안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뚜막과 싱크대의 만남이라. 정말이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였다. 엄마는 딱 설치를 끝낸 싱크대를 깨끗이 닦아내며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다”고 말했다.

왜 하필 싱크대였을까. 옷을 사거나, 보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엄마는 싱크대를 통해 편리하게 부엌살림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싱크대의 이미지를 산 것이리라. 지저분하고 불편한 부뚜막 신세에서 벗어나 싱크대가 설치된 세련되고 풍족한 주방에서 홈드레스를 입고 나폴나폴 오가고 싶은 바람을 엄마는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20살에 (아빠의 빚에 넘어가) 손가락 통째리 하나 없이 결혼해 살면서 냇이나 되는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가 꼬부라질 지경”인 엄마에게 싱크대는 그 시대 조 아무개씨의 구호처럼 성공한 남편과 사는 사랑받는 아내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뚜막 위의 싱크대는 엄마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얼마 안돼 싱크대는 부뚜막을 덮아갔다. 구질구질해지고 서랍장도 찬장도 아닌 어정쩡한 애플단지가 되었다. 비좁은 부뚜막에 지저분하게 방치된 싱크대. 20대에 이미 네 아이의 엄마가 된 우리 엄마의 자화상이었다.

함금희(학생, 31세)

할머니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의 할머니는 1910년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일곱 살이 되던 해부터 남의 밭일을 해야 했던 당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밭을 짓기 시작하셨다. 열다섯에 열일곱 살 신랑에게 시집 오셔서 시부모와 남편 밑 일곱 동생들의 밭을 짓기 시작했다. 때론, 아니 아주 빈번하게 때꺼리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고 가마솥가에 붙은 죽을 휘휘 물로 행구어 부엌에서 마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식사였다. 하여 지금도 죽을 드시지 않는다. 남편인 할아버지는 결혼 직후부터 만주로 일본으로 떠돌았다. 가끔은 지방의 어느 낯선 도시의 여관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부르기도 했다. 밭할 사람이 없었을 때.

그 곳에 남편은 자신의 사업상의 술자리 동반자들을 끌고 들어오곤 했다. 당신은 좁은 여관의 부엌에서 모자라는 쌀로 남편과 그 친구들의 밥을 지었다.

나에게 기억되는 부엌은 언제나 할머니의 공간이었다. 평생 교편생활을 하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할머니는 네 명의 고만고만한 손녀들의 식사와 간식, 일 년에 열세 차례씩 돌아오는 제사음식을 만들어내셨다. 8대 종손인 아들과 딸 곳에 살림이 있고 제삿날에만 들르는 남편이 술을 따라 올리는 쟁쟁을 만들기 위해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수돗가에서 언제나 채소며 생선을 만지고 계셨다. 깨를 찧어 다식을 만들어내시고 밀가루를 개어 엄청난 양의 부침개를 하루종일 부치셨다.

대를 이어야 할 손주가 하나도 없이 줄줄이 태어난 4명의 손녀들에게 할머니는, 우리가 모두 서울로 대학을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설거지를 시키지 않으셨다. 우리 자매들은 밥을 먹고 상을 부엌으로 내다놓으면 그만이었다. 비오는 날이면 김치를 송송 찢어넣은 부침개, 어떤 때는 쑥을 넣어 막 찢낸 쑥떡이 하교하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한 기억은 없다. 하루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둘째언니가 점심 때 라면이 먹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는 점심시간에 맞춰 주전자에 끓인 라면을 담아 그리 멀지 않았던 학교에 급하게 달려오셨다.

어머니가 40여 년의 교편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부엌은 두 분의 공간이 되었다. 60이 넘은 며느리와 80이 넘는 시어머니는 가끔 음식에 관한 의견충돌이 있다. 신식 여성이었던 며느리는 양념을 아끼고 음식을 짜게 만드는 게 습관이 된 시어머니께 부드럽게 충고를 드린다. 그러나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드디어 부엌의 전권을 며느리에게 이양하셨다. 밭은, 습관대로 또는 문명의 이기인 전기밥솥으로 지을 수 있지만 이제 반찬은 자신이 없으시단 말씀을 여러 번 쓸쓸하게 하신다. 그리고 아직도 그 시리게 추웠던 옛부엌을 잊지 못하시고 바닥까지 따뜻한 실내 입식부엌을 신기해 하신다.

이제 나의 할머니는 일곱 살 때부터 하신 일에서 80이 넘어서야 완전히 은퇴하셨다. 그래도 한, 두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녀들의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냉장고부터 살피신다.

나는 율회를 믿는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태어나셨을 때, 그때는 글자도 익히시고 공부도 큰 학교까지 그 총명함으로 하시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휘저으며 다니실 것을 상상한다.

그때는 할머니를 일곱 살 때부터 묶어놓았던 그 정글정글한 부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몸과 영혼을 풍요롭게 살지우는 행복한 공간이 되어 있으리라.

성낙진(프리랜서, 33세)

지워지지 않을 어머니의 자리

지 난 봄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신 어머니께서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른다섯 다소 늦은 나이에 둘째 아이를 임신중이어서 변변히 병문안을 드리지 못한 것이 내심 죄스러웠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궁색한 살림 면하지 못하고 사는 둘째 딸의 처지를 늘 밤 아파하신 터라 초췌한 모습 보여 어머니께 근심걱정이나 끼쳐드리지 않나 싶어 자주 찾아뵙지 않은 까닭도 있었다.

지리한 7월의 장마처럼 어머니의 투병과 나의 우울한 임신은 함께 했고 얼마 전 둘째 딸을 출산했다. 출산한 딸아이 집을 처음으로 찾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병색이 가을만큼 익어 행한 겨울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여동생 등쪽에 매달린 축치진 배낭도 모자라 당신 양손에 검정 비닐봉지를 힘겹게 들고 오셔서 내려놓기가 무섭게 간난아이 눈도장을 잠시 찍으시곤 내쳐 부엌으로 나가셨다. 좁은 부엌에 한가득 벌려놓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환자분이 왜 저러나 싶어 이연실색 만류했지만 허사였다. 오랜만에 오셨으니 조 단조단 모녀표 말쑥지 끌어놓고 쉬었다 가셨으면 하는 맘에 화가 치밀어올라 잔뜩 찌푸리고 있자 동생이 한마디 던진다.

“언니, 그냥 내버려둬. 그냥 엄마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하시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 맘...”

그래, 동생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암말기 환자의 저 날렵한 몸놀림은 누가 봐도 말이 안돼.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쟁그려졌던 낮빛이 행방을 잃고 있을 때 먼 기억 속에 자리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리게 떠올랐다. 어느 작가가 말했다. 도시락 편지에 사랑을 실어 자신의 파스함을 전했다고. 그래서 주방에 자리한 식탁이 그녀의 정체성의 구심점이라고... 그렇듯 낭만적인 부엌이란 어머니에게 없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힘겨운 돈벌이 끝에 원수 같은 남편과 자식 끼니 걱정에 시간에 쫓겨 연탄불에 코를 박고 계셨고 연탄불을 모면할 즈음엔 티끌 모아 태산처럼 불어난 빚보증에 식당일을 시작한 후부터 올봄이 오기까지 식당 부엌을 못 면하셨다. 정사각형으로 변해버린 뚱뚱한 어머니의 손바닥을 볼 때마다 코끝이 갈라지는 아리한 무언가에 늘상 부채의식으로 괴로웠는데 오늘마저 어머니 내 가슴을 후려치신다. 나의 삶의 길어로 어머니의 ‘구정물의 세월’을 재기엔 감히 송구스럽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질리도록 끓여놓은 미역국과 텅 비었던 냉창고를 가득 채운 웅기종기 밀반찬이 아니다.

그렇게 한나절의 편치 않은 신경전 끝에 어머니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곤 다음 달 2차 수술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신다는 말을 남기곤 가셨다.

늦은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난 그때서야 임신기간 내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부엌 바닥을 말끔히 닦아놓으신 걸 알았다. 어떠한 색으로도 물들일 수 없는 하얗게 내려앉은 어머니의 자리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지만 끈끈 잠든 두 딸을 보며 저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내 어머니의 가슴아픔으로 자리하지 않으리라 시린 결심을 한다.

성주애(주부, 35세)

부엌에서 노래를

내가 태어난 집은 내 나이와 같다. 양지바른 오목한 곳에 터를 잡은 그 집은 아버지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대를 보를 올렸다. 아이들 셋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던 나까지, 여섯 식구가 비비적대기엔 작은 집이었지만 연탄불 구멍을 틀어막아도 온돌이 잘잘 끓을 정도로 따뜻한 곳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과학적인 실험을 즐기셨다. 맥가이버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었지만 특이한 간식거리를 만들어내서 곧잘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다. 아버지의 생산 품목은 이런 것들이었다. 알미늄 양푼을 틀로 해서 만든 빵, 설탕과 소다를 절묘하게 섞은 사이다. 누룽지가 앉은 가래떡 구이... 뭐든지 부풀게 하던 소다에 심취한 아버지를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 역시 우리들 못지 않게 아버지의 실험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곤 하셨다.

우리 엄마는 음식솜씨가 아주 좋았다. 경남 통영 출신인 엄마가 이북 출신 아버지의 은근히 까다로운 입맛을 완전히 평정하고 나아가서 역시 월남해서 서울에 터를 잡은 세 명의 숙모들을 제치고 제사음식을 진두지휘했던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이북 출신 음식의 푸짐함이란 거의 식고문에 가깝다.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만두만 해도 어린 내가 먹기엔 숨이 찰 지경이었다. 또 무쇠솥을 뒤집어 기름을 들쭉 두르고 굽던 녹두부침개가 그리워서 급기야 언니가 복원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아직 못 미치는 것 같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또 국물을 많이 잡아 습습하면서도 푹쫓는 청량감을 주는 이북식 김장김치는 어떻게든, 지금까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그 맛은 엄마가 그리울 때 외롭고 허기질 때 무시로 떠오른다.

부엌은 나의 문화센터였다. 엄마는 내게 아이라면 알아야 할 노래들을 그곳에서 가르쳐주었다. 주요 레퍼터리는 동요였고 사이사이 즉흥곡이나 창작동화가 곁들여졌다.

“송알송알 싸리잎에 은구슬...”

아, 지금도 부엌 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햇빛이 생생하게 생각난다. 그로부터 나는 노래에 관한 한 어디서건 자신있는 레퍼터리를 구사할 수 있었고 특히 지금까지도 웬만한 동요는 가사를 고민하지 않고 부를 자신이 있다. 늘 “옛날에 옛날에~”로 시작되던 엄마가 지어낸 이야기는 어린 내 가슴을 흥행거리게 했다.

얼마 안 가서 우리 집은 번듯한 싱크대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부엌 하면 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누추한 집이 떠오르고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순댓집, 따뜻하던 부뚜막이 즉시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엄마가 나와 나이가 같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기억 속의 엄마는 그렇게 위대했는데 아직도 철없고 우왕좌왕하는 나는 뭔가, 무릎에 앉혀놓고 노래를 가르쳐줄 아이가 없기 때문일까.

이신숙(월간 『뉴유먼』 기자, 37세)

줄창 뜯어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엄마는 예전 가난한 집 딸며느리가 갖춰야 할 덕성을 고루 갖추신 분이다. 부지런하고 손 크고 아무나 잘 거둬 먹이고... 스물둘에 시집 오셔서 그렇게 근 40년을 사셨다.

남편, 자식과 시어머니, 일곱 식구를 기본으로 거느리신 우리 어머니에게는 군식구가 없었던 적이 없다. 한들, 말게는 다섯 정도를 늘상 거두고 사셨다. 게다가 집안에 어른이 계시고 식구가 많으면 손님도 많게 마련이다.

그 최고정점이 나 고등학교 때였는데 끼니 때마다 지금 떡 하는 만큼씩 밥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한 달에 쌀 한 가마 하고도 서 말은 더 먹었다고 하면 상상이 갈까? 부식은 또 오죽 들었겠는가. 싸다는 도매청과를 시장이나 육·어류전문시장에 가서 부식거리를 한보파리씩 이고 지고 들고 힘겹게 들어서시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그렇게 수북하게 차린 음식을 싹싹 비워내는 입들을 보며 우리 엄마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밥새워 김치를 담그고 명절음식을 준비하시면서도 짜증을 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짜증은 언제나 집안의 유일한 딸로 그런 엄마를 보조해야 했던 내 몫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식구들이 독립해 나가고 자식들도 분가해 나가면서 식구들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글방 안다고 그 행랭그레함이란... (물론 나는 '호젓함'이라 느꼈다. 얼마나 근사한 느낌인지) 그때부터 별안간 엄마가 끼고 사시던 그릇들이 커보이기 시작했고 음식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엔가는 늘상 쓰시던 큰술과 냄비, 합지박들을 작고 예쁜 그릇들로 싹 바꿔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며칠 안 가 옛그릇들이 다 나와 있지 않은가.

"엄마! 왜 큰 그릇들이 도루 다 나왔어?"

"자꾸 음식이 넘쳐서 할 수가 있어야지..."

"참나, 작은 그릇에 음식을 많이 하나까 넘치지."

엄마는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지 실없이 자꾸 웃으셨다. 그후로 다시 시간이 흐르고... 요즘 우리 엄마는 통 음식을 안 하신다.

그때부터 밀어닥치기 시작한 엄마의 의욕상실과 회한은 정말 견줄 수가 없었다. 손이 발이 되게 산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높고 병든 몸과 구실이 다 되어서도 시집살이를 시키려드는 시어머니, 정년퇴임한 남편, 노처녀 딸뿐이라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나보다. 한 번씩 거칠게 몸을 뒤척이실 때마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식구들도 상처투성이이다. 빛나던 강한 생활력과 부지런함과 힘은 이제 더 아프고 힘든 상처를 만들 뿐이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꼴저꼴 보느니..."

"엄마, 이만하면 다들 잘 큰 거야. 뼈투루 나간 자식 하나 없고 건강하고 열심히들 살잖아. 나 배군 가정들도 다 이뤘고... 그러면 된 거지 뭐 더 바래? 출세? 나쁜 짓 안 하고 엄마 살던 거에서 한 발 낮게 살면 그것도 엄청 노력을 한 거야."

그렇지만 어떤 말도 엄마한테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실감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엄마가 정리하고 찾아 돌아오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엄마가 찾아들어가는 곳이 다시 부엌일지 아닐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 예전의 '엄마의 부엌'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다. 아버지도 암묵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물론 엄마도 내키면 언제든 푸지고 맛난 음식을 차려내기는 할 것이다.

문득 몇 달 전 엄마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난다.

"빨리 시집가서 애기 낳아. 엄마가 조금이라도 힘있어야 몸조리도 해주고 애도 키워줄 거 아니니?"

"아악! 엄마 제발! 나한테 뭐 해줄까 고민 말고 뭐 뜯어먹을까 좀 고민해. 그래야 한이 없는 거라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속으로 무척 겁냈었다. 엄마가 정말 그러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엄마가 '엄마의 부엌'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줄창 뜯어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홍진숙(동화작가, 32세)

더 이상 눈물은 없다

어릴 적 부엌에 들어갔다가 치마 앞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어머니를 여러 번 봤다. 아버지와 다투하거나 속상하실 때, 부엌에 가서서 소리죽여 눈물을 닦아내곤 하셨다.

어머니는 시집 와서 첫애부터 내리 세 번을 유산하셨다. 한번은 집안에 큰일로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도 못 낳는 게 여자여"라고 창피를 당하셨고, 민망해진 어머니는 방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가셨고, 그뒤로는 집안 어른들이 모이면 늘 자리를 피해 부엌에 가서 일만 하셨단다.

이런 수모 끝에 낳은 게 계집애—바로 나였다.

나를 낳고도 어머니의 아들 낳기 위한 집념은 꺾이지 않았고 내가 고2가 될 때까지 유산은 계속 되었다. 애를 유산시키고, 퇴원해 집으로 와서는 아들 못 낳는 죄로 누워보지도 못하고, 부뚜막 따뜻한 곳에다 몸을 기대며 몸조리하셨다. 부엌은 그렇게 엄마에게는 몸을 숨기고, 혼자만이 쉴 수 있는 곳이었고 눈물이 땀 장 소며 산후몸조리를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부엌은 더 이상 눈물로 얼룩진 장소가 아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지금, 부엌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실제로 아늑하거나 외진 공간도 아니다. 세상의 많은 딸들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자라지만, 결혼 후 애낳고 살다가 문득 엄마와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지금 신혼인 나는 (늦잖아 신부?) 부엌에서 남편과 관계를 가질 때도 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짓눌린 과거에서 멀어지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확인해 본다.

정성민(주부, 34세)

서울처녀의 시골 시집살이

내 또래 20대 초반의 여자애들은 아궁이와 부뚜막을 기억할까? 어쩌면 연탄과 곤로도 기억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엄마의 기혼여성으로서의 첫 부업은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야 하는 그런 부업이었다. 정확히 하자면 할머니 나이가 나의 증조할머니의 소유였을 그 부업. 나는 지금도 어렵듯이 부업과 그 부업을 안은 옛집을 기억한다. 부업 아궁이에서 때는 군불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처하던 안방이 데워졌고, 그 안방과 부업이 연결되던 작은 문. 안방과 부업이 붙어 있던 벽쪽에 있던 다락. 그리고 부업과 안방을 들고 내려면 내 작은 키에 무릎보다 훨씬 높았던 턱들. 또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추운 겨울이면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어김없이 말뚝을 일으키던 퐁프.



작쟁이 서울처녀였던 엄마는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간밤에 걸어놓은 커다란 가마솥의 물을 끓이고, 밥을 얹힐 아궁이 고래에도 장작불을 지켰다. 데운 물은 음식을 만들고 온 식구들의 세숫물이기도 했다. 부지런히 밥을 해 상을 차리고 끓었다가 식어버린 물로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당신의 아침을 먹은 뒤 허리를 펴면 곧 점심이 되고 곧 다시 저녁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지루한 하루의 이런 일상들은 지금의 내가 상상해 본 것일 뿐 내 기억 어느 곳에도 없고 난 단지 그 부업 자체의 잔상만 지니고 있다. 닭아도 닭아도 시커멓기만 하던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있던 가는 허리의 엄마의 모습은 기억에 없다. 그때의 난 고작해야 주걱 하나만 손에 쥐어주면 좋아했던 겨우 짚을 수 있었던 아기에 불과했다.

정확히 그때의 난 엄마의 딸이 아니었다 싶다. 내가 명명하고 싶은 딸이란 엄마와 얘기하면서 때로는 까르르 웃고 때로는 울 수 있는 사이이다. 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서로를 알 수 있는 사이이다. 난 그때 엄마의 기쁨과 슬픔은 전혀 알지 못했던, 딸이 아닌 그냥 아이였다. 내가 진정한 딸이었다면 부업에서 쪼그려 일하던 엄마의 쓸쓸한 뒷모습을 읽었을 것이다. 시골로 시집 온 서울처녀가 겪어야 했을 문화적 차이와 새로운 가족과의 갈등을 난 읽었을 것이다.

또한 그때의 엄마는 자신의 부업을 소유하지도 못했으며 자신이 일하던 부업에서 해계모니도 없었다. 단지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간장은 여기에, 소금은 저기에 놓으며, 정해주는 메뉴에 따라 장보기에서 설거지까지 마칠을 것이다.

나의 엄마가 당신 자신의 부업을 갖고 물론 해계모니까지 쥐게 된 것은 새 10년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필요는 당연히 없고 아침에 빵을 먹을 수도 저녁을 아주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 먹을 수도 있는, 나머지 식구에게는 힘들지만 엄마 자신의 엄청난 자유를 누리신다.

요즘 가끔 내가 밥을 하거나 다른 가족을 위해 밥을 차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신선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싫을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할까, 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자리에 서 있는 엄마에게 삶증이 과연 존재할까. 이젠 더 이상 주걱을 좋아하지 않고 훌쩍 커버린 난 자신의 부업에 계신 엄마의 뒷모습을 본다. 과연 지금의 나는 내가 명명하고 싶은 딸로서 엄마의 뒷모습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엄마는 지금도 냉장고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들고는 씻고 계시다. 진정한 딸이 되고 싶은 난 엄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내 눈에는 엄마의 뒷모습만 가득하다. 차라리 도와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얼른 일어난다.

김보미 (프리랜서, 25세)

엄마의 부업엔 휴일이 없다

“타 다닥... 짜아...”

한가로운 일요일, 어젯밤 밀린 숙제하듯 몇 편의 영화를 해치우느라 늦게 잠들었던 나는 부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뒤척인다. 하지만 그 소리에 아랑곳 않고 더 깊이 침대 속으로 기어든다. 나를 깨우는 것은 알람시계의 요란한 몸부림이 아니다. 사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덜어준 것은 바로 엄마의 움직임이다. 부업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배란대로... 오늘도 여느 때처럼 엄마는 부업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내게는 어쩌다 흥이 나아 할 수 있는 부업일이 엄마에게는 일상이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손놀림은 능숙하다 못해 단조롭기까지 하다. 엄마는 마치 숙련노동자처럼 일사천리로 부업일을 처리한 후 또 다른 일을 찾는다. 일요일이 되면 엄마의 작업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인천에 사는 오빠와 언니, 형부, 그리고 조카아들이 우리집을 꼭 채우기 때문이다. 누구나 “쉬고 싶다”를 외치는 일요일에도 엄마는 여전히 쉬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평온한 휴일을 기대하는 나는 갈등한다. 엄마의 바쁜 모습과 휴식을 갈구하는 내 안의 욕구사이에서.

“엄마, 지겹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 다 안 먹고 사는 방법 없나?”

“할 수 있지. 그렇게 살라고 태어난 걸.”

“아니, 영화에서처럼 하나만 먹으면 하루종일 배부르다는 캡슐 같은 거 먹고 간편하게 살면 되잖아.”

“그래, 너 결혼해서 애 낳고 살 때쯤 그렇게 해라.”

10년 전쯤의 얘기다. 고3 딸의 도시락을 2, 3개씩 싸느라 일요일도 없이 바쁜 엄마가 안쓰러웠던가 보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 딸은 엄마의 부업일을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못하고 있다. 그저 가끔 설거지하는 것 외에는, 아빠는 “엄마 좀 도와드려라. 웬만한 건 너희가 알아서 하고”라는 말로 지나쳐 버리면 그만이다. 다른 가족들은 “역시, 엄마 요리솜씨가 최고예요!” 하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며



슬그머니 책임을 비껴간다.

대다수 주부들의 반복적인 가사노동과 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에 분노하는 나는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더 드물다는 홍황의 식문화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니 뭐니 거창한 많은 것들을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고스란히 엄마의 손에 남아 있는 집안일에 대해 무대책이다. 다만 나의 최소한의 양심과 더 많은 이기심이 충돌하면서 적당한 결말을 찾느라 분주할 뿐이다.

솔직히 엄마의 부업을 미화할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지독한 친형의 공간으로 묘사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엄마의 부업'에서 '엄마의'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고 싶을 뿐이다.

"엄마, 직접지? 매일같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게, 지금은 이력이 붙어서 그나마 쉽다. 정말이지 처음에 시집 와서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나고, 시집 보낸 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밍더라니까."

"엄마, 진짜루 캡슐 같은 거 먹고 살면 좋을까? 그런 날이 올까? 오겠지?"

"오겠지,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난린데, 근데 그 캡슐인가 뭔가는 어디서 구하냐?"

"글쎄, 슈퍼나 약국에서 팔겠지."

"하긴,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데 들이는 시간만 반으로 줄여도 살 것 같다. 그러면 이 엄마는 진짜루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텐데."

"뭐 하고 싶은데?"

"많지, 못 다한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휴일 한낮, 모녀간의 수다는 이렇다. 엄마가 엄마라는 역할관계로 규정되면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나는 모든 척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딸내미는 이런 말을 한다.

"엄마, 캡슐이고 뭐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는 못 할 거야, 그치?"

"..."

김현정(이대 여성학과 논문학기, 29세)

'구조'는 변해도 '여자'는 남아

"엄마, 왜 우리집에서는 여자는 일하는데 남자는 앉아 있는 거지?"

일요일 늦은 아침을 준비하는 내게 10살난 딸 소연이가 사뭇 불만스럽다는 투로 묻는다. 식탁을 치리는 걸 도와달랬더니 부업에 오면서 하는 말이다.

나는 순간 찡금해져서 "아냐, 진오(소연이 남동생)는 좀 전에 엄마 도와줬어. 그러니까 여자만 일하는 건 아니야" 하고 변명섞인 대답을 했다. 그래도 소연이는 아빠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 신문만 보고 있는 것이 못내 공평치 않게 생각되었는지 입을 내민다. 딸애는 그 동안에도 가끔 엄마가 고생해서 불쌍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곤 했는데(사실 집에서 별로 일도 안 하는데 딸애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양심에 찔리기는 했다)

어릴 적 부업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안쓰러워했던 내 어린시절을 되돌아 보는 것 같아 묘한 느낌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집 부업은 제채식이었다. 지금 그렇게도 흔한 싱크대니 가스렌지 같은 것이 없을 때 엄마는 부뚜막에 허리를 굽혀 불을 때고 연탄을 갈면서 밥을 하셨다.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올라와 집안일을 도와주는 언니가 있었지만 엄마는 그런 부업일을 언니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하시곤 했다. 내가 10살 때 엄마는 척추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로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부업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문득 가슴이 찡하게 아려오는 느낌을 갖곤 했었는데 아마 내 딸이 그런 걸 느꼈나 보다.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근대화되었듯이 우리집 부업도 급격히 변해갔다. 신발을 갈아신고 들어가야 했던 부업은 방에서 문만 열면 갈 수 있게 되었고 따뜻한 날을 골라 명석 깔고 질풍처럼 댕댕 댕 댕을 내던 낫그릇 대신 닭기 편한 쇠주발로, 도기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부업환경이 근대화되는 만큼 엄마의 부업일도 조금씩 편리하게 변해갔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여전히 부업일은 엄마만의 차지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커서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는 아이들 모두 서울로 유학 보내셨고 여전히 부업은 엄마가 독차지하셨지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본 기억은 없다. 오히려 부업에서 엄마는 굉장히 힘이 있었고 만물박사인 것 같았다. 부업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우리집 공장이었고 엄마는 관측하는 공장장이었다.

엄마가 부업일을 즐겁게 했든 말든 나는 어린 마음에 일방적으로 엄마를 꽤나 동정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내가 엄마를 방에 억지로 앉혀놓고 밥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술을 만져보니 점점 따뜻해져 오고 뚜껑을 열어보니 제법 밥이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뿔싸 웬 지푸라기들이 똥똥 떠 있는 것 아닌가? 쌀을 씻지 않고 물만 부은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엄마는 말이 부업일 하는 게 그다지 좋지 않으셨던 것 같다. "나중에 다 할 텐데..., 아주 모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봐두기만 하렴" 하셨다. 하지만 나는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다는 지극한 효심(?) 하나만으로 엄마의 부업을 기웃거렸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결혼해서 내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후에는 잡랄한 자산이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머리가 커진 후로는 부업 안에서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 부업 밖에서 느긋하게 밥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참 싫어졌고 그래서 내가 부업에 들어갈 때는 오빠를 꼭 불러들여 무슨 일이든 맡기곤 했다.

그런 내 신념은 결혼 초에 현실로 실현되는 것 같았고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성공했다고 만족해했다. 밥을 먹고 나면 남편이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그러나 웬걸, 한 1년 하고 나더니 이 평계 저 평계 대면서 슬그머니 풍무니를 빼는 것이 아닌가? 그 이후 나는 곧바로 식기세척기를 사버렸다. 그것도 12인용으로..., 그리



고 나서 새로운 장기전략을 수립했다. 우리 아들에게 부엌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맘먹고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반드시 딸애와 함께 불러 일을 부탁하곤 했다. 처음에는 이 녀석이 아씨는 안 하는데 왜 해야 하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더니 이제는 당연히 하려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먼저 와서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하기도 하고 계란후라이나 라면끓이기 정도는 서툴지만 해내기도 한다. 그런데도 딸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부엌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지 않을 수 없고 한편 먹는 즐거움도 크다. 여기에는 여자나 남자나 예외가 없다. 고로 즐거운 먹을거리를 온 식구가 함께 만드는 일은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우리 딸 소연이와 아들 진오는 나중에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랬듯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의 부엌을 즐겁게 기억해 준다면 나는 엄마노릇을 잘 한 게 될 터이다. **■**

유진희(한국소비자정책연구소장, 41세)

어머니의 정성을 한상에 담았습니다

여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스포월드 골프연습장 후문에 자리한 한가위는 순수 토속 음식집이다. 여주인 이해자씨와 음식에 대한 자존심과 솜씨도 뛰어나지만 3개국어에 능통한 이씨의 외국어 실력 때문에 해외 손님들 접대하기에도 적격이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의 별실을 여러개 갖추고 있으며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 한층 입맛을 돋운다. 한가위의 토속적인 맛은 밑반찬에 있다. 각종 찜을 직접 담그며 산지직송한 무궁해야채를 쓰는 등 최상의 재료선택에 큰 비중을 둔다. 낮에는 인근 직장인들을 위해 심비로 점심식사를 내놓고 있다. 신선한 해물로 끓인 해물 편장찌개가 5천원, 불린 닭고기를 햇물에 삶아 데치갈 비와 삶은 우거지를 넣고 구수하게 끓여 새우젓 양념에 간유 해 그 맛이 일품인 콩비지도 5천원이다.

특히 외국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은 영양돌솥밥(8천원)은 약수에 인삼 삶은 물로 밥을 얹혀 밥, 은행, 대추, 인삼, 단호박 등이 들어가며 구수하고 달콤한 원정찌개가 곁들여 나온다. 한가위의 자랑인 간장, 계장 등의 밑반찬은 피로에 쌓인 도시인들의 잃어버린 입맛을 만족시켜주기에 손색이 없다. 고향길 안방같은 분위기에서 깔끔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값이 싸서 오히려 손님들에서 미안해하며 해물파전이나 복어찜 등을 따로 청해 들기도 한다.

한가위에서는 잃어가는 우리의 토속미각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 나오는 요리중심의 한정식 또한 어느 것을 들어도 입에 잘 맞는다. 이밖에 술안주감으로 내놓는 모듬전, 굴전, 해물파전, 복어찜, 제육 굴보쌈과 홍어찜 등도 청성을 들인 깔끔한 먹을거리들이다. 자체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연중무휴다.

예약문의 : 555-8375

한가위

한가위

KOREAN RESTAURANT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전세계 교양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괴테의 명작

안주하기 쉬운 삶에 반역을 꿈꾸게 하는 책 - 소설가 공지영

관광객이 아닌 여행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풍부한가! - 조선일보

베네치아 · 로마 · 나폴리 등에서 접한 고대 예술작품에 대한 뛰어난 묘사력이 압권 - 중앙일보

● 박영구 옮김 / 값 15,000원

츠바이크의 발자크 평전

탐욕과 불합리로 뒤엉킨 위대한 작가의 내면 풍경

● 슈테판 츠바이크/ 안인희 옮김/값 15,000원



인간적인 것과의 재회

박호성 교수의 새벽 산책같이 맑고 신선한 수상록

● 박호성 지음/값 8,500원





나는 아직도 결혼을 꿈꾼다

행복이5월이193도



오순애

87년 가장복력연극 (매맞는 아내),
88년 가장관공극 (꽃다운 아내 청춘) 출연, 기획
89년 <궁궐을 벗고서> 영화 출연, 제작
여성영화제 15주년 기념대회 출연을
현재 서울여성영화제 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위원

꿈 이 깨졌다.

깨진 꿈은 접착제나 다른 것으로 붙일 수 없다. 그냥 사라져버린다. 내 꿈도 그랬다. 참 많은 꿈이 깨지고 사라졌다. 실현 가능한 꿈, 무참히 짓 밟힌 꿈, 개 같은 꿈, 꿈 같은 꿈 등.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꿈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할까. 꿈은 곧 활력이자 희망이다.

결혼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수만류이나 그 꿈도 다양한 것이다.

나는 결혼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보다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독신주의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혼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독신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단지 현재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독신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죽어도 결혼하지 않으리라 결정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반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영원히 혼자 사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남들보다 10년 내지 20년쯤 뒤쳐져 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결혼적령기'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리라. 나는 예전에 결혼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마다 결정을 하지 못했다. 물론 그때는 결혼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욕심과 그 성취감 때문에 혼자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결혼은 그야말로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은 일이

더 소중했다. 결혼은 선택이지만 일은 밥을 먹듯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일과 결혼생활을 똑같이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것은 같이 일하던 여러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나는 남자가 평등한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며 사는 결혼생활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은 너무나 멀고도 힘든 길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존경한다. 너무나 이기적인 사고방식일지 모르지만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 결혼인 것 같다.

결혼하면 안 외로운가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결혼 안한 사실을 안 순간 사람들이 내게 꼭 하는 질문이다.

이젠 의례적인 질문은 그냥 지나쳐야지 하다가도 대뜸 대답 아닌 대답이 튀어나온다.

"결혼하면 안 외로운가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남녀를 막론하고 거의 질문의 내용이 똑같다. 사람들은 내게 자꾸 외로움을 강요한다. 너는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워야 하는 것이라고.

왜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외롭지 않아야 하는 걸까. 더욱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외로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 텐데 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라고 전혀 외롭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러나 정작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내가 혼자여서가 아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울고 싶도록 외롭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외로움은 개개인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살기 때문에 나는 때때로 그 외로

움마저도 즐길 여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 그렇지만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결혼을 선택했듯이 나 또한 독신을 선택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독신으로 사는 방식이 내가 추구하는 삶과 일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제대로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욱이 나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못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위인전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



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부들이다. 나는 그들처럼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틀 속에서 살 자신이 없었다. 즉 가정생활과 내 일을 병행해서 할 자신이 정말 없었다. 또 나의 어머니처럼 오로지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생각도 없었다. 살림하는 게 어디 만만한가. 가족관계 또한 소홀히 할 부분인가. 그렇다고 자녀교육인을 어떠한가. 요즘같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옳지 못한 방법인 줄은 알고 있지만, 당장 내가 부모일 장이라면 나 또한 어찌할까.



어머니의 평생 배부른 생활

나는 어렸을 적부터 무수히 '독립만세'를 꿈꾸어왔다. 우리집은 식구들이 너무 많아 집안이 항상 북적였다. 나는 딸이 다섯이나 되는 집안의 넷째 딸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할머니는 눈길을 주기는커녕 미역국도 제대로 끓여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커가면서 할머니를 미워했다. 고백하건대 철없는 생각에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빈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 하나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아니면 할머니의 등쌀에 못 이겼는지 계속 아들타령을 하다가 결국 딸을 다섯이나 낳은 후에 팔로 아들 하나를 또 낳았다. 어머니는 뱃속에 평생 아이를 담고 배부른 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 결과 종합 숫자가 일곱 명, 줄줄이사랑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삶이 징그러웠고 한심했다. 더구나 사사건건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자라야 했다. 심지어 밥상에서도 아들은 하얀 쌀밥, 딸들은 보리밥, 이런 식이었다. 나는 겉으로 반항은 못했지만 화가 났다. 그래서 물레 소쿠리에 있는 쌀밥을 여러 번 훑쳐 먹었다. 말할 수 없이 통쾌한 기분이었다.

무남독녀인 어머니는 꽃다운 나이 열여덟에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리고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다. 어머니의 생애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서른여덟에 혼자 되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줄지에 가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장편소설 속의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자식들의 착취의 대상이 된 어머니의 삶도 싫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삶이 더 싫었다.

누군가는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어머니'라는 단어 뒤에는 평생 헌신과 희생이라는 숨은 뜻이 있다. 빈껍데기인 어머니의 삶, 희생과 복종과 그늘 속

에 살아야 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어머니의 삶. 그러다가 한순간 돌리려하는 찰나에 이미 생을 마감해야 하는 어머니의 삶이 나는 정말 싫었다. 나는 사춘기시절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결혼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고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매일 그 삶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꿈을 꾸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니었다. 혼자서 조용히 나만의 공간을 갖고 살고 싶은 소박하고도 절실한 꿈이었다.

내게도 스물 몇 살 무렵 두 번쯤 결혼할 뻔한 때가 있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수없이 선을 뚫다. 그러던 어느날, 집안어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몇 번 만나고 있는 와중에 양가 어른들이 서둘러 날짜를 잡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부랴부랴 혼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도망쳤다.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다. 괜찮은 외모와 탄탄한 직업 등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소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사회와 여성,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생각은 나와는 전혀 달랐다. 내가 꿈꿔온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결혼에 대한 꿈은 더더군다나 아니었다. 누군가 자꾸만 뒤에서 내 뒤통수를 잡아당겼다. 내키지 않은 삶을 강요받아서 안된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후 몇 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

꿈은 깨지지 않았다

때로는 나도 마누라가 필요하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아본 사람은 나름대로 혼자 사는 방식을 터득하기 마련이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생각도 혼자 하고 결정도 혼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혼자 져야 한다. 혼자 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욱 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혼자 살아도 바쁜 것은 마찬가지다. 한가하거나 단조롭다고 나태하게 지내서는 안된다. 치열한 삶이어야 한다. 혼자 산다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혼자 살기 때문에 철저한 리듬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주말과 휴일에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홀로 짜릿한 행복을 맛본다.

나는 아직도 결혼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간직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제도가 없어지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각각의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생활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

꿈은 깨지지 않았다. ■

일리스트 만나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

페미니스트들에게 도움이 될 인생대처법을 소개하는 '이럴 땐 이렇게'에 이번에 폭력피해 사례를 실습합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통쾌함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분노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편지를 기다립니다.

얼 마 진, 저녁 9시 반경 아현동 굴레방다리 부근에 서 생긴 일이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걷고 있었다. 아주 평범하게.

"아, 담배 꺼."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왠지 불안하고 두려웠으나 그 말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담배를 핀다는 건 죄가 아니므로.

"아! 담배 안 꺼? 씨발년아!" 난 무시하고 걸어갔다. 더 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갑자기 뒤통수로 주먹이 올라왔다.

'꺾' 나는 쓰러졌고 잠시 중심을 잃었다.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손. 난 반항했다. 온 힘을 다해 피하려 했다. 다시 날라온 손.

이번엔 더 크게 나를 내리쳤고 난 건물 옆으로 쓰러졌다. 내 목을 조르는 손. 무차별하게 날라오는 발길질.

나는 소리쳤다.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한 아저씨가 나를 쳐다봤으나 그 아저씨는 그냥 날 지나쳐 가버렸다.

"경찰? 불러! 미친년!" 그놈은 나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리를 끌고 다녔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금 전 지나쳤던 그 아저씨도 더 이상 가지 않고 길거리에 섰다. 마치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나의 계속되는 외침과 멈추지 않는 그놈의 주먹질에 사람들은 더욱 몰려들었고 길가엔 서너 대의 택시마저 멈추고 나를 구경하고 있었다.

치욕스러웠으나 나는 택시 하나를 붙잡고 그놈과 함께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사정했다.

그놈은 당당했다. "경찰? 그래 가자! 내가 잘했나? 따라와!" 그놈은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가며 경찰서로 가자며 따라오라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아저씨! 제발 저놈 좀 잡아서 경찰서 좀 같이 가주세요." 그놈은 어두운 골목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고 난 무작정 그놈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난 그렇게 길에 서서 혼자 울다 울음에 지쳐서 집에 돌아왔다.

목에는 좌우에 손가락 자국이 오선지처럼 그려졌으며 발길에 채인 엉덩이와 온몸에는 까맣고 파랗게 멍이 들었다. 도망가다 잡힌 머리채에서는 머리카락이 몽텅이로 떨어져나갔고 다음 날 회사에 나갈 수도 없었다.

한밤중 잠을 자다 억울함에 벌떡벌떡 몇 번을 깨어난다. 그 순간이 끝나지 않는 비디오처럼 끝없이 재생되고 되감겨서 다시 돌아간다.

맞고 도망가고 도움을 청하는 동안 내내 구경만 하다. 혼자 남아 울고 있는 나에게 그 남자와 무슨 사이이고 맞은 이유가 뭔지 호기심을 못 이겨 묻던 사람들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분노와 단지 여자가 담배를 핀다는 이유만으로 구박하고 비난하던 한국남자들에 대한 솟아오르는 분노가 마음 한편을 움켜쥐고 있어 놓여나질 않는다.

그놈의 얼굴과 태도, 작은 저항조차 못하던 폭력의 순

간은 기억만으로도 고통스럽다.

한동안 그 멍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남자에게 분노를 토해냈다. 나의 억울함에 동조를 구하기 위해, 또는 아주 작은 위로를 위하여...

슬프게도, 대부분의 반응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여자가 기어코 담배를 피워야겠냐", "한국사회를 아직도 모르냐? 안다면 숨어서 피거나 지켜줄 남자가 옆에 있을 때에만 피워", 혹은 "언제 너 그렇게 한번 당할 줄 알았냐" 또는 "집에 일찍일찍 들어가고, 외진 길은 무조건 피하며,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가라"는 훈계어린 조언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려졌다. 한국이란 사회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계집애가 겁도 없이 9시 반이라는 늦은 시간에 아현동이라는 외진 곳을 담배를 피우며 걸어갔던 거다. 더구나 덩치 크고 기분 나빠보이는 남자 앞을 두려움도 없이 지나려 하다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타인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점차 그 일은 억울하고 분노스런 일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숨겨야 할 사건처럼 여겨졌다.

한밤 잠에서 벌떡벌떡 깨어나는 나의 분노는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똑같은 일이 다시 닥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대신, 그 날 이후 내 가방에는 짐이 늘었다.

핸드폰, 스무 개의 바늘이 든 바늘꽂이, 학교 실험실에 서 빼낸 황산을 담은 예쁜 모양의 향수병, 사진기...

난 이제 준비가 되었다. 더 이상 길에서 그렇게 맞고만, 맞고 울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다음 번에는 오선지 모양의 손가락들이 내 목을 쥐어놓을지라도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핸드폰으로 경찰을 부를 수가 없다면 도망

가는 그놈의 얼굴을 사진기에라도 똑똑히 남겨놓거나 그 신발치에 황산병이라도 집어던지고 말겠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고통스럽게 스무 개의 바늘을 온몸에 하나씩 꽂아 주리라.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그저 단지 '나'일 뿐이다. 특별히 남자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난 이제 나도 모르게 전사가 되었다. 이젠 결코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은 아니다. ■

손선영

오래된 숙제를 마친 기분이다. 이 앞이 내 뇌리에서 나의 게으름과 망각에 의해 잊혀지기 전에, 나의 분노가 일상 속에 개인의 경험으로 그대로 묻혀가기 전에, 수채화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용기를 잃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일러야 한다는 것이 강박관념처럼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이 짧은 글로 나의 악몽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가능하다면 이 사회에서 영원히)...

상대적이고도 적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남영 지음

정조란 남성에 대해 충분히 경험을 쌓은 여성이라면 아무 노력 없이도 자절로 지켜지는 덕목이다. 그러므로 일생 손걸을 지키는 여성은 드물지만 정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여성은 많다.

명절: 노동 가능한 연령의 모든 여성들이 일당 없는 출장 파출부로 일하는 날.

성차: 남성과 여성의 제반 차이. 이성간의 성차가 동성간의 개인차보다 더 극적으로 벌어지는 지점은 생물학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애정표현이 너무 없다"라고 말할 경우, 애정이란 대와, 가 베푼 포옹, 시간을 함께 보내기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남편은 지갑이 가벼워지거나 밤이 무서워질 거라는 상상을 하며 탈출을 꿈꾼다.

성욕: 인간이 지닌 모든 본능 중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 저 유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에 의하면 상위욕구는 하위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표출되기 어려운 바, 적극적으로 감격하며 즉각적인 성욕의 분출이나 표현은 그 자체가 얼마나 충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소박하게 표현하자면 먹고 살만해야 구의원 선거에라도 나가게 된다는 말이다.

애정과 섹스: 남자에게 진정한 애정이란 만족스러운 섹스의 결과물이고, 한편 여자에게 섹스란 만족스러운 애정의 결과물이다.

우정: 침대와 관계없는 사랑.

부부: 1. 전생의 원수.
2. 은회를 부정하는 사람에게서는 이생의 원수.
3. 이도 저도 아닌 사람에게서는 언제나 원수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

유머: 남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자질.

정신질환: 언제나 남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자질.

발기안: 1. 동일한 목표나 이념을 가지고 모임이나 단체를 결성하려는 사람들.
2. 남자들.

사정: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인 동시에 인류의 절반이 가장 원하는 행위. 그리고 여성들도 환영하는 행위. (그때야 당분간은 발판고 잘 수 있으니까)

아니바다: 단위 가구의 절약을 넘어 궁극적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작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운동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 (최근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다 구속되거나 망신당한 사람들이 보도된 바 있다. 있는 여자, 혹은 남자 아껴쓰다가 나눠쓰기도 하고 바꿔쓰고 또 다시 쓴다는 장한 의도는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아내자: 여자를 아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말.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다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저 유명한 예수가 설팬한 바 있다.

아줌마의 오르가즘: 섹스를 끝내고 끝났다는 사실로 인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월경: 논치 볼 필요없이 자도 되는 안식의 표상. 그러므로 여자에게 생리대는 평화의 상징이며 남자에게는 단장의 본단선.

권위: 내가 그러면 낙서, 피카소가 그러면 곱작.

정조: 남성에 대해 충분히 경험을 쌓은 여성이라면 아무 노력 없이도 저절로 지켜지는 덕목. 그러므로 일생 손걸을 지키는 여성은 드물지만 정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여성은 많다.

의처증: 자신의 아내가 남자의 실체는 상상도 못할 만큼 손전무구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굳게 믿는 남편이 알기 쉬운 병.

외부증: 나 이외의 세상여자들만은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신의 남편을 계도, 단속하려는 일종의 양심과잉증. 이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발기부전: 성인에게 나타나면 해탈, 범부에게 나타나면 어탈.

외라: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상대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할 때 동원되는 이념. 실용적인 사나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의리의 종말은 자칫 비비이기 쉽다.

남편의 바람: 내가 모르는 바람은 바람이 아니다. 사랑이지. 아내에게 들려버린 바람도 더 이상 바람이 아니다. 도대체 바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말이다.

남편들 사이의 동지애: "내가 바람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을 너의 아내에게 증언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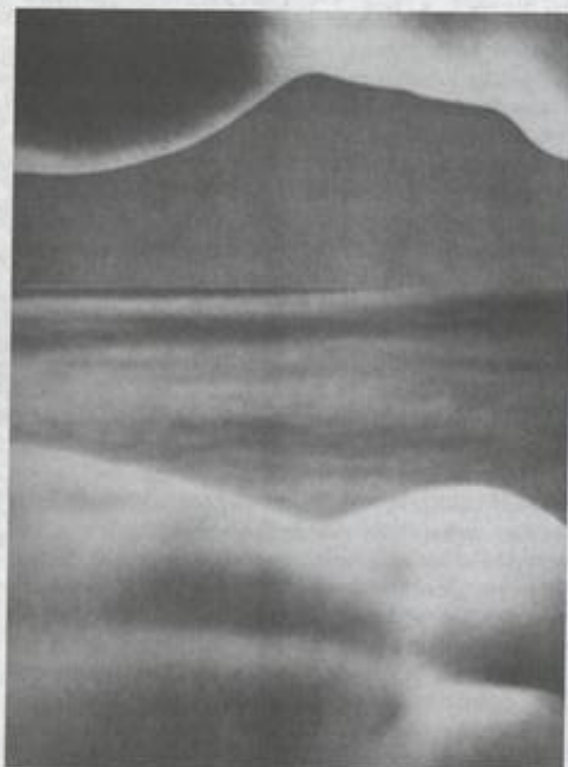
아내의 바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남자란 결국 안팎으로 다 마찬가지라는 진실을 체득할 수밖에 없는 애탈의 관문. 그래서 보다 중요하고 보람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리라 결심하게 된다.

아내들 사이의 동지애: "나에게도 애탈의 관문 하나만 소개시켜 줘."

새로하는 성교육 2

여성의 성기는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난 5호(98여름)에 처음 시작한 「새로하는 성교육 시리즈1-자신의 몸을 알아! 얼굴을 보듯 성기를 보자!」에 이어 이번호에는 시리즈2가 나옵니다. 지난 호에는 거울을 놓고 여성의 성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각 부분을 만지고 들여다 보면서 여성의 성기를 알아나갔습니다. 이번 호에선 여성의 성기가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어느 부위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알아봅니다.



우 리들은 저마다 음식에서 자신만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굴이나 돼지고기를 싫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선한 생크림과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감을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의 이런 자신만의 기호를 거리낌 없이 말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적인 느낌에 있어서도 이런 강렬한 호오(好惡)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적인 기호를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말로 표현하는 데 더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또는 자신의 성적인 느낌이 일반적인 것일 뿐 특별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제 성기의 각 부위에 전해지는 자극에 대한 느낌을 찾아보자. 완전하게 혼자일 때 여유있는 장소를 선택하라. 필요하다면 거울과 플레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음부의 둔덕

손가락 한두 개를 가볍게 움직여 음부의 둔덕에서 점차로 성기 전체를 더듬어간다. 다음엔 일정한 힘과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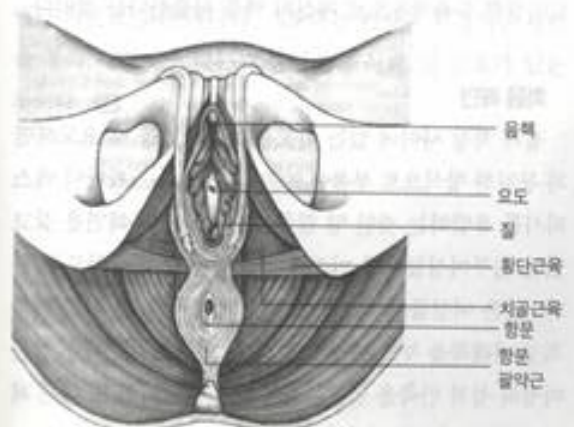
눌러본다. 그 다음엔 가볍게 만지는 것과 누르는 것을 번갈아 해본다. 둔덕의 어느 부위를 가볍게 만지는 것이 좋은지 또는 누르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본다.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지는 않는가?

외음순

이제는 외음순으로 가서 위와 같이 계속하되 만지는 방법과 손가락의 움직이는 방향을 다양하게 한다. 외음순을 만지는 범위가 클 때와 작을 때 달라지는 느낌에 주의한다. 깃털처럼 가벼운 방법으로 속도를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재빨리 움직이고 오랫동안 쓰다듬어 보라. 손가락보다 손의 일부나 전체를 사용할 때는 또 어떤지 느껴보라.

음핵

자, 이제는 음핵으로 손가락을 뻗어 음핵의 각 부분을 만질 때 느껴지는 상이한 감각에 주목한다. 음핵의 밑부분과 끝부분을 만질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핀다. 음핵에는 말초신경이 풍부하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고, 계속 만질 경우 격렬한 자극을 받기도 한다. 손가락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지 주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져보면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살핀다.



자, 이제 당신이 만지고 느끼면서 터득한 것을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남자들은, 음핵을 누르거나 문지르기만 해도 즉시 발기하는 '마술단추(magic button)' 줍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흥분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음핵은 또 내음순을 만지거나 누르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자극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음순은 음핵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내음순의 어느 곳을 어떻게 만지면 음핵이 반응하는지도 생각해 본다.

섹스파트너들은 종종 음핵의 맨 끝에 마찰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테크닉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어느 때 너무나 지루해서 하품이 나올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음핵의 뿌리 부분에 특히 민감하다는 걸 알았다면 섹스 상대에게 말해준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음핵을 자극하는 것이 직접적인 공격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영덩이와 항문

영덩이의 각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져본다. 이제 손가락으로 영덩이 사이를 쓰다듬어가면서 손가락에 힘을 가할 때 항문 주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살핀다.

회음

항문과 질 사이를 회음이라고 한다. 여기를 만져보고 느낌을 알아보자. 만약 당신이 지난 해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이 곳은 매우 연약해서 상처가 나기 쉬운 부드러운 부위이다. 이 사실을 섹스 상대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손가락을 질에 삽입할 경우 힘껏 누르면 손가락의 각도에 따라 이 부드러운 부위에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주목하라. 만약 아프다면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 손가락의 각도를 다양하게 구사하라. 이것 역시 섹스 상대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손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요도, 직장 주

변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므로써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

요도해면

요도해면은 질의 앞쪽 벽과 요도의 사이에 있어서 여성의 질과 음핵이 발기하는 동안 피가 물린다. 이것은 예민



스트 그라펜부르그에 의해 최초로 묘사되었지만 그가 이름을 짓지는 않았다. 여성의 신체 중에서 이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이 엘라스 라다스, 비벌리 위켄, 존 케리가 공동저술한 'G-Spot'이라는 책 때문에 'G-스팟'으로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 어떤 여성들은 이 특별한 쾌감부위를 찾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만, 이것은 질의 앞쪽 벽에 있는 단순하고도 작은 루션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이것을 갖고 있다.

그라펜부르그가 쓴 '여성 오르가즘에 있어서 요도의 역할'이라는 글은 이 부위를 '요도 주변의 발기조직으로 둘러싸인 특히 민감한 부분'이며 '방광의 입구에서 시작해서 요도의 끝부분에 위치한 가장 자극에 민감한 부위'라고

말했다.

여성에게 성적인 극치감을 약속하는 열쇠로 G-스팟에 대한 난리법석은 여성도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사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뒷받침 된다. G-스팟에 압력이 가해지면 여성도 사정을 할 수 있지만 G-스팟에 의한 극치감을 경험할 수 있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 몇 방울 나오는 그 액체는 무색 또는 핑빛의 액체로 배란주기에 따라 그 농도를 달리한다고 한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것이 틀림없이 오줌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이를 경험한 여성들은 상당히 걱정스러워한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성적으로 흥분된 여성들의 정상적인 질액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G-스팟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동안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질액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한 치골 근육을 가진 여성들에게서 여성 사정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음을 덧붙여 말한다. 그러므로 여성 '사정'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성적으로 흥분해서 질이 충분히 젖어 있는 여성은 골반근육의 강력하고 리드미컬한 수축작용으로 자신의 액을 사출한다는 것이다.

회음해면

질과 직장 사이에 있는 이곳은 흥분되었을 때 요도해면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풀어오른다. 마치 G-스팟만이 엑스타시를 유발하는 것인 양 열중하는 것은 회음해면을 갖고 있는 일부여성들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많은 여성들은 섹스중에 항문의 자극과 질 뒤쪽 벽과 직장 아래쪽을 누르는 것을 즐긴다. 아마도 이 '마술' 점은 여성의 성적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로서의 또 다른 책의 출현을 예고할 것이다!

손가락, 혀, 페니스가 질에 삽입될 때의 압력은 보통 요도 및 회음해면 모두에 전해진다. 이것이 여성들이 삽입을 즐기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여성의 성감대가 목 뒤에 있는 것 같이 G-스팟이나 음핵 안에도 있다.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이라도 여전히 강한 성욕이 있다. 여성할례 'Clitoridectomy' (음핵을 절단하고 음순을 봉합하여 소변과 생리에 필요한 아주 작은 구멍만 남게 하는 시술)을 받은 수단의 어떤 여성은 여전히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고 오르가즘을 경험하기도 한다. 음핵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말이다.

혼전에 성관계를 했던 성기가 절단된 여성들은 처녀성을 파괴하는 의식을 치를 때까지 때때로 항문성교를 했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핵심은 회음해면이 된다. 이 할례를 받은 여성들은 회음해면이 자극될 때에만 비로소 발기가 되는 듯하다. 따라서 오늘날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음핵만을 강조하는 서구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성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있어서, 어린 여자애의 음핵을 절단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도 성기의 다른 부분들이 발달하여 강한 흥분과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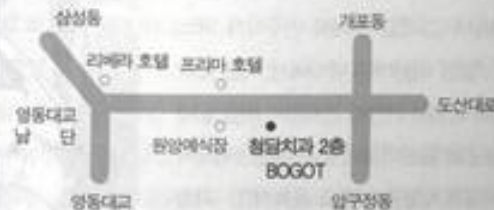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의 성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과학적 연구에만 의존할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관찰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가능성을 터득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BOGOT

JEWELLERS SINCE 1994

보·석·전·문·점



TEL : 542-3771



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란성'에 대해

이 사회는 이미 음란합니다. 가부장적 체제 자체가 음란물을 계속 생산해 내고 소비해 대고 그리고 음란한 사회를 영속시키는 것이죠.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점점 더 이중적이 되

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삼중적인가? 오늘 아침 '씨네21'을 보니까, 애니메이션 <누들누드>가 무려 다섯 장면이나 삭제된 채로 출시되었다더군요. 이렇게 '무서카고'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분노한다구요! 이따 애니메이션 동호회에 들어가서 실컷 욕이나 써야겠어요.

그러나 저희 같은 독자들이 잠깐 화를 내고 계속 페이지를 넘기는 이 순간에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인가 하는 기관은 국민을 대표해서 소위 '음란물'을 보고 심사하고 자르고 하겠조. 진지하게 말해요.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뭐가 얼마나 잘못했다더라...고 알려지면, 저희는 다시 분노하겠조. 대한민국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말예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근대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나라에서 이런 짓거리들이 어쩌면 여전히 건재한지 짜증을 내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있는 반면, 위에서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자르'는 일을 계속하시겠조.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여성운동 진영은 소위 '포르노 반대'라는 명목으로 '자르'는 일에 찬성하는 쪽에서 있구요. 무엇이 우리 사이에 이런 선



을 그어놓은 것일까요?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까요? 혹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립 일까요? 글썽요. 이 선은 말예요. 사실 넘어가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선이 '의도적'으로 그어진 것이고,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발명된' 것이고, 세대 혹은 정치적인 이념과는 상관 없이 체제가 존속하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이 선이 개인적인 '선택'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 선이 그어져야만 하는 '외도'에 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을 유지시키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고안하고 있는데, 최근 아리송한 열쇠가 하나 인터넷에 댄조. 바로 '클린턴 성추문보고서'인가 하는 것 말예요.

개봉박두! 미국의 수단 및 마프가니스탄 '테러기지' 폭격 이후로 전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된 가운데 공개된 이 보고서는 분당 32만3,000건이라는 사상초유의 접속률을 자랑했다고 하더군요. 또한 그 음란성의 정도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요. 덕분에 인터넷은 호황이예요. 클린턴과 관련된 농담도 대대적으로 유행하는 중이죠. '클린턴 도서관은 x x x 등

급, 21세 이하 출입금지', '클린턴의 '안전한 섹스' 정의는: 할러리가 없을 때 하는 섹스' 등등.

미국의 보수자들은 "어린이에게 부적절하다. 아이들 눈에 안 보이도록 부모님들은 신문을 치워달라"는 경고를 앞에 달면서도, 이 '음란한' 보고서를 전연으로 실었다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말예요. 국내의 유수 일간지에서도 '오랄 섹스', '해무' 정도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어요. 한편 이 보고서 자체가 국내에서 잘 나가는 영어교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최고의 용사들이 엄정한 표준영어로 작성하였으니 교재로 쓰이기에 딱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스타검사를 포르노잡지사로

스타 검사의 성추문보고서 자체가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인터넷의 음란물을 통제하겠다고 통분서주하던 보수주의의 진영에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음란물보다도 '음란한' 텍스트를 인터넷에 올리다니. 무소불위의 권력과 성의 결합,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음란물보다도 우리를 짜릿하게 했잖아요? 한술 더 떠서, 보다 완전한 정치적 충격을 위하여 일체의 사전유출 없이 '모일 모일 인터넷에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했대요. 한겨레신문에서 '허슬리'가 그 뛰어난 선전술에 감탄한 나머지 스타 검사에게 스카웃 제의를 했다는 박스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많이 웃겼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음란물이나 성에 관한 기준은 순전히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모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버젓하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그런데도 우리는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얼마나 근엄한지. 우리를 근엄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모순이나 태도상의 차이가 개별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작동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이 비밀의 상자를 여는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음란'과 '성'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 있습니다.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 묵묵탕 성에 어



면 할머니가 나오죠. 성에 관한 수다를 꾸짖하게 쏟아내는 세 처녀를 보다 못해서 '메친년들!', 일갈을 던지고 탕에서 나가는 할머니의 근엄한 얼굴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현재형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깡죽대는 딸에게 "그래, 나는 힘들었다. 너는 재미있게 살거라"고 말해주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성에 대해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똑같은 액센트로 발음합니다. 메친년들! 그리고 아마 지난 번 거리에서 여성의 흡연권을 보장하며 담배시위를 한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보며 불편해 했다는 첫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도 저런 일갈이 숨어 있었을지 모르고, 어쩌면 보다 급진적으로 성모순을 제기하고 나서는 동성애운동과 여성운동이 아직 연대를 하지 못하는 데에도 저런 일갈이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감히 나랑 같은 탕을 쓰려고 하는 거니!"

첫세대를 보다가 우리 동생들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선명한 차이에 현기증마저 날 정도입니다. <여고괴담>을 통해서 겨우 우리 시대의 양상한 자화상을 '공식적으로' 직면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이미 <너희가 중당을 아느냐>는 다큐멘타리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전거를 자주 타면 치너락이 파괴된다는 공포의 성교육 대신에, 요즘 아이들은 TV를 통해서 구성에 아줌마의 성교육을 듣고 자란대지요. 이미 <빨간 마후라>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를 '쇼킹'하게 한 바가 있다시피, 성에 대해서라면 '대당'들보다야 요새 '중당'이나 '고당'들이 훨씬 나갔다고 알고 있어요. 요즘음 통신유머란 기보셨어요? 정말 놀랐다니요. 언제 그렇게 성에 관한 유머가 공공연해졌는지. 운영자들이 열심히 질라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IMF 핑계대로 운영자들도 많이 '떨렸다고' 하더니 그래서인지, 질라내고 질라내다가 스스로 한계를 느꼈는지, 알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섹스중 돌발사태>와 같은 시리즈는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볼 수 없었지요.

물론 이 중당이나 고당들이 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는 비율만

순위	제목	날짜	조회수	댓글	평가
1	유튜브	10/19	743	16	(0.0)
2	유튜브	10/17	844	15	(0.0)
3	유튜브	10/17	825	14	(0.0)
4	유튜브	10/16	879	13	(0.0)
5	유튜브	10/16	868	12	(0.0)
6	유튜브	10/16	858	11	(0.0)
7	유튜브	10/16	848	10	(0.0)
8	유튜브	10/16	838	9	(0.0)
9	유튜브	10/16	828	8	(0.0)
10	유튜브	10/16	818	7	(0.0)
11	유튜브	10/16	808	6	(0.0)
12	유튜브	10/16	798	5	(0.0)
13	유튜브	10/16	788	4	(0.0)
14	유튜브	10/16	778	3	(0.0)
15	유튜브	10/16	768	2	(0.0)
16	유튜브	10/16	758	1	(0.0)
17	유튜브	10/16	748	0	(0.0)
18	유튜브	10/16	738	0	(0.0)
19	유튜브	10/16	728	0	(0.0)
20	유튜브	10/16	718	0	(0.0)

컴 '정치적으로 올바른가'의 문제는 약간 별개죠. 채팅실에 들어

가면 수없이 날아드는 '검색하자'는 쪽지들을 볼 때 그런 걱정이 약간은 들어요. 이 아이들도 자라면 오세 대들처럼 동성애에 관한 대자보를 찢고 동료 여학생을 강간하는 것은 마친가 아닐지도 모르죠.

음란문화, 새삼스러운 것인가

그래도 TV에서 '검색'이 선정적으로 다루어지고 나서야 통신상의 '검색 붐'을

이 본격화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실상은 '검색'에 대해서 '쫓'도 모르는 애들이 성에 대한 관심을 그런 흉내를 통해서 표출한다는 편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채팅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런 현상을 그 본들이 자초 내지는 강화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코메디예요. 그건 스타 김사의 성추문보고서와 같은 종류의 아이러니예요.

클린턴에 대해서 어떤 가치판단을 하고 있느냐구요? 성추문 보고서는 국가적 진실을 다루고 있고, 인터넷이나 통신의 다른 음란물들은 아무런 여성비하적이고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냐구요? 글썽요, 잘 모르겠군요. 또 어떤 표현물은 공개되어도 되는 것'이고, 어떤 표현물은 공개되면 '안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정말 모르겠어요. 어디서 '되고', '안되고'의 선이 그어지는 것인지. 저희의 관심은 오히려, 이 아슬아슬한 '선'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의 '선', 그 맥락을 밝혀주는 것이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삼스러운

것인가?

빨간색이 금지되건 포르노비디오가 금지되건 이미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고, 청소년들은 음란물시장의 주요고객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단란주점에 가서 어린 아가씨의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는 이 사회는 이미 음란합니다. 가부장적 체제 자체가 음란물을 계속 생산해내고 소비해내고 그리고 음란한 사회를 영속시키는 것이죠.

다들 뻔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 단지 엄숙의 가면과 벗고서 노골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을 망치는 것'이라고 요란을 떨 때, 주범은 음흉한 얼굴을 감추고, 아니 보다 더 근엄한 얼굴을 하고 우리 사이에 섞여 있겠

죠. 우리 사회가 이미 음란이 만연한 사회임을 공표하는 것이어야 할로. 권력 측에서 볼 때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죠.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암묵적인 진실이 드러났을 때, 엄숙함이란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이중적인 것인지, 그 추후한 물결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조선일보를 '조선일보'로, 조롱거리로 만든 '편지일보'에서 볼 수 있듯이 말예요.

통신을 문제로 삼는 것은, 그리고 '음란한 통신'을 문제로 삼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보의 내용성 내지는 그 음란성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정보의 소통이 대중적으로 보장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가 '아직' 미진하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린 세대들보다 신기술이나 뉴미디어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어른들의 기술공포증(technophobia)이 여기에 더해져 상황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판단의 '합자루'는 우리가

비공식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사실들을 '사실로서 드러내는' 작업들이, 그리고 그것을 감추어두고 있었던 이중성의 작동원리를



밝히는 것이, 해방으로 향하는 일차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이 이중성은 체제가 '발명'한 것입니다. 마치 여성이 '발명'되었듯이 말예요. 어떤 것이 '음란한 것'인지, 또는 '건전한 것'인지, 어떤 것이 '공식적으로 유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은 '공식적으로는 쓰레기'인지, 지금까지 우리는 그에 대한 판단을 늘 어디인가 맡겨두었지요. 그러나 '성'과 '질서'에 관한 이데올로기란 본래 쉽게 재생산되도록 '발명'됐다는 게 가장 사실인데, 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음란성에 대해서만 험담하죠? 사실 음란한 것은 현 체제를 유지해 가는 우리 세대 이상의 문제인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까놓고 이야기해 보자구요.

이승희씨의 귀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열광하면서도 이승희씨에 관한 홈페이지는 음란하다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이 사회는

무언가 깊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발명된 이중성'을 벗고 보다 강하게 반대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데에는, 상담원에 대하여, 그리고 성모순에 관하여 보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공식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접근이야말로 아이들의 '음란성'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음란성', 그리고 어른들의 '음란성'을 치유하는 가장 건강한 길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1]

보라거미



우리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그리고 여성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섯 명의 젊은 활동가들입니다. 한국 여성운동을 보다 급진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강한 거미, 미친 거미, 빨간 거미, 총추는 거미, 나는 거미, 끔찍한 거미가 (진보네트워크)에 거미줄을 쳤습니다.



조미진의 비디오X-파일

〈인연아웃〉은 한 계의 성정체성 획득에 관한 감동 드라마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미국 동부의 고교 교사인 하워드의 결혼식 준비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서른이 넘도록 남자와와는 물론 여자에도 성적인 경험이 없었고 매사에 깔끔하고 섬세하고 다정다감하여 학생들과도 가까운, 그리고 문학 수업시간에 사랑에 관한 시를 읊으며 낭만적 사랑에 관해 가르치는 하워드. 그의 신부는 평생 애타게 기다리던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감격하고, 신랑의 부모도 이제야 부모로서, 아들이 짝을 찾아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안도하며 축하하는 마당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게이영화에서 주인공 역으로 여카데이 남우주연상을 받쳐 한 카메온이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하워드에게 영감을 준다는 말이에 하워드가 게이라는 말을 하고, 이 말은 곧 공중파를 타고 생중계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보수적인 백인들만 모여 사는 이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고 만다. 이 영화의 재미와 감동은 주인공 자신이 커밍아웃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 가까운 사람들의 따뜻한 사연에 있다. 이성이야 정상인 사회에서, 자기 자신마저도 물론 이성애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던 하워드는 뜻밖에 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주 하게 된 것이다. 이 계기는 위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불행하게 됐을 자신의 신부를 불행 직전에 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후에 신부는 카메온과 반개 맞은 사랑에 빠진다. 학교위원회로부터 게이라는 이유로 해직을 당하고 난 후에 학생들의 졸업 축하하러 졸업식장에 나온 선생님을 지지하는 학생들, 자기 아들이 게이라는 자기는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당당한 어머니... 그리고 그를 좋아하고 믿는 아들 사람들은 그가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의 인간성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 장면은 결혼식, 과연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행복한 노부부 하워드 부모님의 결혼식이다. 아들이 게이라고 올 때도 아니라는 듯, 이 결혼식은 사람들 사이의 사소한 다름과 차이를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 수용하는 축제로 이어진다. 호모섹슈얼(Homosexual)에 대한 열려와 혐오를 갖고 있던 이천의 동성애 소재 영화들과는 달리 약함이나 보임이 없는, 요즘 보기 드문 편안함과 너그러움이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이다. 꿈의 공상인 영화에서만 사람들이 꿈의 희망을 보여주고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을 걸 볼 커져 마!

똑똑한 남편 옆에는 똑똑한 부인이 있다

독일 재무장관 라퐁텐의 부인 크리스타

오매리(문화일보 기자)

최근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부인을 보면 한결같이 남편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힐러리가 없었더라면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지금쯤 중간선거 승리는커녕 성추문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것이 뻔하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의 부인 세리, 조스팽 프랑스총리의 부인 실비아 아가친스키는 각각 변호사와 철학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중도좌파 성향인 남편들보다 더 급진적인 정치이념의 소유자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독일의 신임재무장관 오스카 라퐁텐의 부인 크리스타 뮐러(42)가 가세했다.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골수 사회주의자인 크리스타는 국영 텔레비전 ZDF의 토크쇼에 남편과 함께 출연, 재무장관인 남편보다 더 오랫동안 마이크를 독차지하고 독일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털어놓았다.

크리스타의 이같은 '튀는 행동'은 이튿날 각 일간지를

독일국영TV ZDF 토크쇼에 출연한 라퐁텐 재무장관과 크리스타 뮐러



장식했다. 유럽국가들 중 이탈리아와 함께 전통적인 주부상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나라로 꼽히는 독일에서 크리스타의 행동은 시청자들은 물론 언론에도 지극히 이례적으로 비쳤던 것. 『베를리너 자이퐁』지는 "침대에서 국장이 결정되는가"라고 비꼬았고, 『빌트』지도 크리스타의 지나친 영향력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 라디오 청취자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크리스타에게 표를 던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치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힐러리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것과 비슷한 반응이다.

전임 총리인 콜 수상의 부인이 수더분하고 조용한 이미지로 중장년 유권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신임총리의 20세 연하인 부인 도리스 피프가 언론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내조자의 이미지를 강조했던 것은 독일사회의 이같은 보수적인 여성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크리스타는 방송에서 남편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기를 거부했다. 그는 연방은행의 이자를 하향조정등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라퐁텐의 경제학 선생'으로 불리는 크리스타는 라퐁텐과 5년간의 동거를 거쳐 지난 93년 결혼, 만 1년 8개월된 아들을 두고 있다. 라퐁텐은 크리스타와 결혼하기 전 두 번의 이혼경력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세계화를 두려워 말라』는 저서를 함께 집필하기도 했다. 크리스타는 자신을 향한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아 내이기 전 오랜 사회당 동료로서 내 할 일을 할 뿐"이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를 안고 있는 크리스타와 슈뢰더 총리, 도리스 피프 슈뢰더, 라퐁텐 재무장관

크리스타에 대한 지지도 만만치 않다. 도리스 피프는 "여성도 장관이 될 수 있으며 크리스타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췄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독일여성위원회의 한테 풀만도 "크리스타의 행동이 독일사회의 새로운 경향으로 정착하길 희망한다"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는 뛰어난 두뇌를 옷장 속에 처박아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 여성작가 은둔생활

회교 망비난으로 살해위협

오매리

인도출신의 영국작가 살만 루시디는 공식적으로나마 공개처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방글라데시의 여성작가 탈리스마 나스린(36)은 아직도 은둔생활을 계속하

고 있다.

나스린은 『수치』란 제목의 소설이 회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불러일으키자 94년 유럽으로 망명, 올해 초 미국 뉴욕에 정착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머니가 간암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최근 은밀히 귀국했으나, 언론에 입국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작 어머니는 만나지도 못한 채 또 다시 몸을 숨겨야만 했다.

현재 나스린의 목에는 5,000달러의 현상금이 붙어 있다.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되지 않지만 가난한 방글라데시 일반 국민들에게는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다카의 한 은거지에서 서방기자들과 전화인터뷰를 가진 나스린은 "여기까지 와서 병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다. 조국을 사랑하지만 나의 삶은 지옥"이라고 털어놓았다.

의사 출신인 나스린이 작가로 변신한 것은 80년대 중반



94년 일일직전 나스린(오른쪽)이 방글라데시 자택에서 어머니와 작별하고 있다

부터, 여성인구 중 80%가 문맹인 방글라데시에서 그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에로티시즘을 드러낸 도발적인 글들을 신문에 발표해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93년 발표한 소설 『수치』에서는 한발짝 더 나아가 정통 회교주의자의 편협성과 모순을 고발해 방글라데시를 발각 뒤집어놓았다. 게다가 인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란은 완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자 회교지도자들은 나스린의 현상수배 명령을 내렸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나스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회교 전통의상 부르카를

쓰고 방글라데시를 탈출, 험난한 국외망명길에 올랐다.

나스린 파문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각국 문인들의 지지성명이 이어졌다. 특히 살만 루시디는 언론에 공개한 편지에서 나스린의 솔직함과 용기를 찬양하고 연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나스린은 방글라데시 재입국 전인 지난 여름 뉴욕에서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갖고 경제난과 고독감,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모든 종교는 여성을 억압한다. 나는 여러 경전들 중에서 코란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론했을 뿐이다. 코란은 여성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허용했다. 그것은 결코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코란이 필요 없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모든 종교적 교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여성권과 문단은 대부분 나스린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유명작가는 “방글라데시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자유란 이름으로 남의 종교를 모욕하고 죽이는 행동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나스린은 신분을 드러내고 정식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유력지인 데일리뉴스 관계자의 지적은 좀 더 냉정하다. “나스린은 여자란 이유로 루시디보다 많은 동정표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위대한 작가가 아니며 영웅은 더욱 더 아니다. 방글라데시에는 그녀보다 조국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훨씬 훌륭한 여성들이 많다.”

루시디가 이란정부의 공식적인 면죄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교 과격분자들의 살해위협에 시달리고 있듯이, 나스린 역시 자유롭게 가족과 만나고 작품활동을 계속하기까지 아직도 좀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듯하다.

프랑스 동성애가족 합법화 ‘초읽기’

시민연대협약 통과를 앞두고

이가진(사회평론 김 파리 통신원)

에릭과 파스칼은 20대 청년들로 동성애 커플이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사회당 소속이어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성간의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보험도 둘 다 각각 따로 들어야 하고 가족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는 이들은 아이를 한 명 입양하고 싶어도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혹시 둘 중 한 명이 불행한 사고를 당해 먼저 죽을 경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점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들은 파스칼의 통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파스칼이 이 모두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프와 아말은 1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모로코 출신인 아말이 결혼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시청에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 아말은 자신이 동성애자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워한다. 파스칼이 통과되면 이들은 결혼식을 할 필요없이 서류 한 장만 달랑 도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커플이 될 수 있고, 이성간의 부부가 누리는 세금혜택, 의료보험, 가족수당을 다 받게 된다. 아말은 덤으로 프랑스 국적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상의 4명과 그들의 친구들은 파스칼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의회에서 파스칼안 상정 부결

지난 10월 9일 사회당이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법안—비결혼 커플에 대한 법적 지위부여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많은 의원

들이 결석하는 바람에 우파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거부되고 말았다. 올랑드 사회당 당수 역시 이날 의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당 의회책임자들은 10월 24~25일 이 법안을 수정한 뒤 연말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면서, 선거구 주민들 눈치를 보면서 이 법안 상정 때 결석한 일부 의원들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사실 1998년 여름 내내 파스칼안 문제는 우파나 좌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일부 사회당 의원들은 파스칼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우파의원들은 보수층의 정서를 대변하면서



법안 통과 반대여론을 형성했다. 우파의원 중에는 단 1명만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사회당 의원들은 우파의 반대를 희석하기 위해 형제, 자매에게까지 파스법의 적용을 넓히고자 했다. 형제나 자매가 결혼하지 않고 둘이서 산다면 당연히 법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번이 없는 한 사회당은 파스법안을 의회에 제상정할 것이고 급년 중으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파스법이란?

파스법안은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적용하던 여러 가지 혜택들과 법적 지위들을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성별에 관계 없이 적용시키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주로 동성애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1,500만 커플이 있고 이 중 200만 쌍은 동거자이며, 3만 쌍은 동성애자들로 집계되고 있다. 1980년대 초 동성애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북구와는 달리 프랑스는 상속이나 의료보험, 재산세, 가족수당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왔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자들은 가족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받아왔고 미혼모들도 육아수당을 받고 있다. 이제 이성간의 결혼가정이 누리는 혜택을 파스법으로 구성되는 '파세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파세커플'의 범주에는 이성간의 동거 커플과 동성간의 커플뿐만 아니라, 성생활을 하지 않는 형제, 자매, 오누이 동거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후자의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물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던 이들이다. 파스법으로 구성되는 커플은 결혼식이나 혼인증인이나, 서약 등의 절차 없이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다시 서류 한 장으로 해약할 수 있게 했다. 물론 파스법의 주요 핵심은 동성간의 커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어쨌든 기존 결혼제도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조치

이며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라 할 법하다.

조스팽 당수는 "파스법은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며, 이중결혼이나 동성애자의 결혼과 관련된 것만은 아닌, 현실의 인정이며 법과 사회현실 간의 조화"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프랑스가 열린 사회이고 다수가 소수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당이 통과시킨 사형제 폐지나 낙태자유화법(우파정권 하에서 야당이었던 사회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되었다)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물어지는 가족제도

놀랍게도 프랑스에서는 40%의 아이들이 '비결혼'에서 출생되고 있다. 이제 서구에서는 동성애가 더 이상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게 되었고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성애가 태생적인가 사회적 획득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드-프랑스 지역의 경우,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들 중 남성 12%가 양성적 성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중 5%는 순수한 동성애자이다. 같은 연령의 여성은 5%가 양성적이며 2%가 레즈비언이다.

파스법안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시험관아이는 안 되지만 입양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아이에게 아빠가 둘, 엄마가 둘인 가정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성간의 부부생활 도중 자녀까지 태어났지만 뒤늦게 자신이 동성애자란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이혼후 자녀를 데리고 동성애자와 새로이 커플을 형성한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파스법이 발효되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70%가 파스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또 여론이나 언론은 파스법 통과가 현재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파스법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이성가족만이 신성하다는 인식이 줄어들 것이며, 남녀차별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구타를 당하더라도 남성과의 결합으로만 가족을 구성한다거나 출산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인격이 과탄되는 것을 감수하는 여성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안제출자 중의 한 명인 블로쉬(Patrick Bloche) 의원은 "파스법이 동성애자 부부를 조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동성커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 가족제도를 고수하기보다 비정상적 커플을 생산하는 현 사회구조와 기존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스법안에 주저하고 있는 사회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오늘날 결혼은 규범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커플에게 기회를 주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행스럽게도 다수로부터 합의를 얻고 있다. 또 학교 성교육도 10여년 전부터 인간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성에는 이성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기존 가족관계 자체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성간의 부부에게만 주어지던 선택권이 입양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파스법에 의해 탄생되는 커플에게도 주어질 경우, 성적 관계 이외의 가족관계가 새로이 구성될 것이다. 사실 생모나 생부 이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꼭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미혼모, 이혼의 경우, 부모의 사망, 기아 등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성 결혼가정이 입양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서 동성커플에게 입양되는 것보다 고아원이 더 낫다는 논리는 고집일 뿐이다. 결국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군림하던 전통적 가족제도의 과도한 이기주의가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하다.

소리없는 혁명

파스법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변화가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전문가들은 파스법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허상에 기초한 기존의 '신성한' 가족제도를 허무는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어떤 치사한 과정을 거치건간에 이성끼리 결혼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신성불가침의 기득권으로 주장하면서,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무기삼아, 동성커플들을 소수라는 이유로 폭력으로 억압하는 일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간해방의 길로 나아가고 사회적 진보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나는 지금 비탈로 간다



이숙인

을 1월에 장편소설 『학교는 다다』를 펴낸 작가. 본지 객원기자.

붉은 손지갑을 부엌 선반 위에서 꺼내들고 입고 벗기 편한 검정 월남치마를 대충 꿰입은 후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조용히 돌린다. 아이의 빨간 눈빛과 마주치기 두려워서다. 식탁 위에 있는 메모를 보면 딸아이와 남자친구는 알아서 저녁을 챙겨먹을 수 있으리라. 회식이 있어서요. 좀 늦게 데릴러 갈게요... 남자아이의 엄마는 가까운 이웃이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나는 받아 말하며 김밥과 튀김을 잔뜩 장만해 식탁 위에 차려두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지갑을 열어 수표를 확인한다. 백만원권 석 장.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나는 아직도 얼얼한 기억이 묻어나는 원뿔을 쓰다듬어본다. 엘리베이터 안 누런 조명 아래 흐린 거울 속에는 창백한 낯빛으로 두려움에 미는 아줌마 하나가 있다. 한때 붉고 도톰하던 입술과 기름한 목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껍질이 일고 윤곽선이 흐릿해진 입술, 깊게 패인 목둘레의 주름선들, 세월의 목걸이처럼 추레하기만 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거울 속의 여인을 외면한다.

동네 슈퍼를 지나 사진관이 있는 행길을 건너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간다. 저녁 7시, 그는 예정대로 나타난 나

를 한껏 의식하면서 좌판을 슬슬 걸어들이고 있다. 나는 그를 따라간다. 그가 버스를 타면 버스에 오르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탄다. 전철역에서 내려 그가 아래로 질러 길을 건너 다음, 공사관을 세 군데 지나 비탈을 두 개 오르고 나면 산 아래 그의 작은 집이 있다.

“벗어.”
그가 낮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나는 입고 벗기 쉬운 월남치마를 입었으므로 그냥 치마만 걸어올린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어 내 켄터를 벗겨내린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나의 온몸의 부분을 입술로 혀로 톡 수염으로 거칠게 부비고 빨아먹기 시작한다. 나는 무방비 상태의 어린아이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만 하면 다시는 뺨을 얻어맞거나 눈 주위에 푸른 멍이 들거나 입술이 타지는 일 따윈 없을 것이다. 길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고 남편에게 거짓말 하는 일도, 조깅하다 빠졌다며 다리를 절룩이는 일도... 그는 미친 듯이 힘껏이며 마지막 숨을 몰아 내 켄가에 뿜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니 거짓말이다. 나는 어쩌면 여기저기 계속 사

이에 폭포를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앙다물고 있긴 하지만 검은 방막 저편에 하얀 꽃불이 터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눈을 증오한다. 손지갑 속의 수표장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오늘 역시 그에게 아무런 제안도 하지 못할 것이다. 두렵다. 나는 그가 너무 두렵다.

눈이 따스한 면수건으로 내 아랫도리를 꼼꼼히 닦아주고 있다. 양손을 위로 뭍었으니 내가 싫다고 버둥대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의 더러운 머리칼은 검붉은 빛으로 굵슬거리는데 마치 녹슨 철망을 얹어놓은 것 같다. 그것은 어떤 연장으로든 쉬 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이 질겨 보인다. 나는 그 머리카락을 내쪽으로 죽 잡아당겨 그의 목을 친친 감는 상상을 한다. 내 아랫도리가 가학의 쾌감으로 움찔하는 것을 그는 오해했는지 다시 무어라 기성을 지르며 내 위로 타올랐다. 나는 다시 눈을 꼭 감고 그를 일흔일곱 번 죽이는 상상을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될 즈음 딸아이는 부쩍 가요를 좋아하게 되었다. 틈만 나면 이어폰을 끼고 뭔지 모르는 곡조를 흥얼거리는가 하면 TV의 가요프로들도 놓치는 법이 없었다.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관심 반 염려 반으로 나는 유행하는 가요들을 찾아 듣고자 했다. 자라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 나는 평소 그것을 중요한 대화법이라 여길 만큼의 교양은 갖추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가 가요테이프를 하나 사들고 들어와 버스정류장에서 온갖 테이프들을 싸게 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피부와 비쩍 마른 어깨, 뻥한 두 눈, 어쩐지 허기진 물결의, 사내도 소년도 아닌 모습이었다. 나는 값이 꽤 싸다는 생각을 하며 가요테이프를 두 개쯤 샀고 그를 곧 잊어버렸다.

소나기가 쏟아진 날이었다. 팔에의 볼소풍 사진을 찾으러 간 사진관 유리문 안쪽에 서서 주섬주섬 좌판을 걷는

그를 보았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고스란히 비를 맞으면서도 어미담이 알을 품듯 테이프들을 정성스레 쟁겨 가방에 쥔여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몹시 딱한 생각이 들어 우산을 받쳐주고 싶었으나 나도 비를 긋는 마당이었다. 그때 문득 고개를 돌려 내쪽을 쳐리듯 쏘아보는 그의 눈빛에 미숙해져 사진관 유리문을 열고 그 앞을 지나 횡단보도를 향해 종종걸음을 쳤다. 기억하기론 오랜 편두통이 재발해 머리가 몹시 아픈 날이었던 듯싶다.

다음 날 그는 햇볕이 따가운 노변에서 비닐에 싸인 크림빵을 먹고 있었다. 이제 내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사먹지 않는 구멍가게 빵. 그것을 그는 아주 맛있게 우물대며 물도 없이 씹어 삼키고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를 흘깃 바라보면 내가 목이 다 메일 지경이었다. 마침 내 손엔 먹다 남은 당근쥬스병이 들려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모금씩 흘려버릴 작정이었다. 나는 그것을 몇 발짝 떨어진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내밀었다.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양철대문을 밀고 비탈길을 구르듯 내려왔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일찍 들어와 딸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요즘 남편은 부쩍 퇴근이 이르다.

“진우는요?”
“지네 엄마가 진죽 데려갔어.”
나는 홀금 남편의 안색을 살폈다. 단정한 입매, 군살 하나 없는 몸통을 마흔 더미 유지하고 있는 그는 좀처럼 얼굴에 제 기분을 드러내는 일이 없다.

“소미야. 그만 이 닥고 자자.”
아이는 졸린 듯 비칠거리며 욕실로 들어가 양치를 시작했다.

“애가 혼자 있었어. 캄캄한 집에 혼자 있었다구.”
“열한 살이면 거실 불 정도는 켤 수 있는 나이에요.”
“혼자서 울고 있었어. 무섭다구 울고 있었어. 지금이 대체 몇시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 거실 한켠에 손님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느 때처럼 남편은 포기한 듯 미심쩍은 듯 혀를 차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이제 곧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앉을 것이다. 네모난 액정화면 속에서 늘씬한 여배우도 만나고 친구와 수다도 떨고 지구 저편 기독교 논객들과 망가진 세태를 탄식하며 목사의 바다를 함께 떠돌겠지... 내게만, 여전히 아무도 없다.

그날 이후, 내가 당근즙스를 무심히 건넌 그날 이후 그는 딸아이 편에 노래테이프를 자주 보내기 시작했다. 내 나이를 짐작했는지 흘러간 포크송이 대부분이었고 나는 오래된 카세트에 찬송가 테이프 대신 그것을 끼우고 듣기 시작했다. 그걸 들으면 이내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동물원의 부드러운 화음을, 안치환의 호소력 짙은 시편을, 정태준의 달속한 도사 같은 음율을 내게 날라주었다. 그는 노래를 고르는 안목이 있었다. 그가 보내준 테이프로 이은미의 노래나 신효범의 신곡들을 익히며 나는 노래방에도 가고 싶어졌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아빠 대신 오히려 삼촌 같은 그를 딸아이 역시 곧잘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저녁 7시면 좌판을 걷는데 이따금 남편 없는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들고 가기도 했다. 친정가족들도 모두 멀리 있고 마음 맞는 친구도 별로 없다. 아이를 더 낳으려 해도 생기지 않는다. 이유없이 자주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그는 말없이 바라보며 아무 이야기나 잘 들어주었다. 그 앞에서 나는 정신없이 수다를 떨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돌이켜 보니 얼마 전엔 월부책 외판원과도, 슈퍼 배달 총각과도 한참이나 말을 섞은 적이 있다.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해졌다.

"길보드아저씨", 소미가 그렇게 부르는 그는 자신을 고아라고 말했다. 청계천에서 딱지 붙은 물건을 매다 청량리 지하철 입구에서 팔기도 했는데 형들한테 너무 맞아서 이쪽으로 흘러들었다고 했다. 아직은 여기도 괜찮지만 자주

'돈을 맥어야' 하므로 매일이 불안하다고도 했다. 내가 그때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가. 그는 얼굴을 붉혔다. 처음에 그는 아기같이 착하고 순진한 태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의심없이 그의 누이노릇을 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벌써 자나?"

나는 어둠 속에서 똑바로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다. 남편이 서재 문을 닫고 침실 문을 연 다음내 곁에 눕는 기척을 하나, 둘 숫자를 세듯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초긴장 상태에 빠진 첩보원이 된다. 그가 자신의 서재에서 통신을 끝내는 것과 동시에 세 곳의 전화코드를 모두 빼놓아야 하는데 그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디 가?"

나는 아이방에 가는 척하면서 마루의 전화코드를 빼놓았다. 순간, 침실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니, 그건 환청이었나 보다. 나는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구르듯 침실 문을 벌럭 열어젖히고 전화기를 귀에 대본다. 투우—투우—. 다행히 남편은 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었다. 나는 화장대 뒤로 손을 넣어 전화선을 찢아 뽑아버린다. 이맛전에서 땀이 주르르 흐를 때 동시에 긴장이 확 풀린다.

"왜 자주 코드를 뽑는 거야?"

남편은 어느새 뒤에서 내 하는 짓을 지켜본 모양이다. 그가 다시 전화선을 연결시켰다. 나는 뭐라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양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는다.

"말해, 당신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나한테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중얼댄다. 남편은 벌거벗은 채 우뚝 서 나를 말없이 응시한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젓다 입술을 앙다물고, 침대를 무릎으로 기어내려와 그의 벗은 몸을 핏기 시작한다. 침이 말라 헛바닥이 온 데 까끌까끌해지도록. 나는 할고 또 한다. 그래, 나는 집에 절린 안개다... 수상한 고양이다... 그런데 내 혀는 너무 차갑고 딱딱해 입 안에 얼

음조각을 물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남편의 몸은 점점 뜨겁고 단단해진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그를 황제처럼 모신다. 이상해,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어, 하지 마, 이, 이러지 말라구. 그는 나의 노골적인 애무를 짐작해 거절하며 정상체위를 향해 단호히 몸을 뒤집는다. 나는 진땀을 흘리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는 몹시 흥분해서 기분 좋은 신음을 흘리고 있다.

빠리리릭—빠리리릭—

"뛰야, 애이 켄장."

나는 화들짝 놀라 남편의 팔에 매달린다. 전화기를 두고 남편과 나는 잠시 몸싸움을 벌였다. 초록빛 무선전화기는 결국 남편의 손아귀에 붙들렸다. 나는 얇은 이불을 들었지만 이가 딱딱 부딪치는 소릴 감출 길이 없다. 달빛 한 줄기가 벗은 발 끝에 하얗게 걸린다. 내 작은 발가락들이 파들파들 가엾게 떨고 있다. 잠시 후, 남편의 양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간다.

"네, 네, 장모님, 전 잘 있습니다. 네, 여긴 지금 새벽이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집사람 바꿔드리죠."

아직도 시차계산 하나 못하시나. 그는 혼잣말로 짜증섞인 소릴 내뱉곤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한다.

"엄마, 나야."

나는 안도의 숨과 함께 눈물이 그렁 맺힌다. 수화기에 달린 검은 종료꼭지를 누르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얼른 전화기와 함께 침대 밑으로 숨는다. 하지만 언제나 평처럼 몸의 일부만 조금 숨길 수 있을 뿐이다.

너 지금 영기고 있나. 니 남편 맛 좋나. 나보다 어디가 좋아. 뭘 해주나. 히힛, 왜 아무 답을 못하냐. 니가 놀이랑 자는 거 나 다 안다. 난 어디 있어도 니네이 다 보여. 보인단 말이다. 히힛, 왜 징그럽냐. 그만 끝자. 니 남편 지금 욕실에서 나오고 있지. 너 불쌍해서 끊어준다. 히힛, 잘 자라. 한 가지만 명심해라... 넌 내 꺼야. 아, 무, 데, 도, 도

망 못 가. 히힛... 사랑한다... 사랑해...

밤새 전화선에 목이 감겼다 남편에게 추궁을 당했다. 하는 꿈을 꾸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얼음수건으로 잠시 두들긴 다음 머리를 감는다. 외출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아득하다. 여러 달이 넘었을 것이다. 이웃집에 마실을 간 지도, 친구들 모임을 거르기 시작한 지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이가 오기 전에 다녀오자고 마음먹고 외출준비를 한다. 낡은 청바지에 면으로 된 니트를 대충 걸치려는데 니트 어깨 쪽 이음선이 터져 어깨 속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나는 어깨를 드러낸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면 니트의 어깨줄기가 왜 뜯어졌던가.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문화센터에 가려고 현관문을 둘러 연 순간 나는 다시 떠밀리듯 집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왜 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나하고 친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그저 네 관심이 고마웠을 뿐이야."

"이러지 마. 그냥 전처럼 대해줘."

"사람들이 뭐라고 해, 남편도 알면 날 미친년 취급할 거야."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전처럼 내 선물 받고 같이 집에서 이야기하고 소미랑 밥 먹고 하자는 거야. 너도 알잖아. 난 혼자야."

나는 그의 반말이 거슬렸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마주 쏘아볼 수 없는 것도 화가 났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겨우 한 마디를 내뱉었다.

"반, 말, 하지 마."

"알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놀러와도 되는 거지요?"

그는 갑자기 비굴한 수캐처럼 굶었다. 나는 그가 폭삭 가라앉은 꼴을 보자 그간 별것 아닌 자식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운 것이 말할 수 없이 억울하다고 느꼈고 그러자 놀랄 정도로 잔인한 가학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아나, 싫어. 난 너를 알게 된 것도 싫고 네가 전화하는 것도 싫고 자꾸 꽃이나 테이프를 주는 것도, 저녁 7시 이후 저녁밥도 먹지 않고 아파트 광장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도 끔찍해. 우리 소미가 너랑 이야기하는 것도 보기 싫어, 전부 다 싫다구. 안돼,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날 나는 처음으로 نوم에게 배를 맞았다. 나는 빌고 빌었다. 빌 때마다 뺨을 맞았다. 도리어 시원하기도 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끝이 날 수만 있다면... 맞아도 아무 반응이 없자 نوم은 내 옷을 잡아당겼다. 먼 니트의 어깨선이 부욱 찢어지면서 땀살이 드러났다. 나는 더웠고 나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베란다로 도망쳤다. 하지만 차마 10층 아래로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

바람이 선선하다. 벌써 가을이구나. 동대문상가는 인파로 넘실거렸다. 신혼 무렵 남편과 나는 즐겨 이곳을 찾곤 했다. 그때 사람의 물결은 생생한 즐거움이었는데 지금 나는 사람들 때문에 몹시 어지럽다.

베란다에 무 씨앗을 뿌리고 싶어. 껌잎이 기르기 쉽는데... 이봐, 제라늄이야. 영화에서만 봤는데... 우리 창가에 제라늄 화분을 놓고 기를까.

초록이 꽃처럼 피어 있는 종로상을 지나 후미진 달칼국수 골목을 빠져나온 다음 공구상 쪽으로 서서히 걸어갔다. 드르르르르 커다란 그물을 수리하는 기계 미싱대 앞을 느리게 걸어가다 멈칫.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제자리에 붙박혀 서고 말았다. 준비하게 누워 있는 눈부신 칼들의 무리. 길고 뚱뚱하고 크고 완강하고 뾰족한 각색의 칼들. 칼날들. 저 싸늘하고 아름다운 날빛... 그것은 토폰하게 박음질한 어떤 그물이라도 날카롭게 찢어발길 만큼 힘차고 단단해 보였다. 나는 공구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붉은 손지갑을 열었다.

오징어를 삶은 때마다 나는 놀란다. 말갈게 끓어오르는 물에 싱싱한 오징어살을 담그자마자 붉은 보라로 급속히 변하는 저 물빛깔. 엷은 포도주 색깔 같은 그 물은 그러나 마시면 역겹다. 그렇다. 양념을 하지 않은 오징어 삶은 물은 구수하기보다 비리고 들큰할 뿐이다. 나는 그때 무엇을 바랐던가. 한번이라도 팔팔 끓는 물에 내 몸뚱아릴 움푹 튀기고 싶던 잠재의식이 نوم 내게로 불려들었던가. 아무런 경계 없이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친절하던 나는 남편의 말대로 그저 대책없는 어린애였던 걸까.

오늘 가족모임은 시조부의 추도식을 겸한 자리였다. 낮에 동대문까지 가서 사온 찬거리를 오후내 장만했다.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거나 수퍼 배달 총각이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부엌칼에 손을 베었다. 조리순서를 끝날 뒤섞기도 했다. 필가부를 묻혀지 않은 전감을 동양 계란물에 담그고 나서는 부엌 구석에 망연히 주저앉아 있느라 도미뽕을 다탈 뻔했다.

"예미는 교회 잘 나가고 있겠지. 언제나 손주 하나만 더 주시라고 기도 올리고 있다. 얼마 전엔 네 어머니가 금식도 했니라."

시부의 굵고 기름진 음성. 그는 말씨도 목회자와 흡사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시부를 외면하려다 남편과 눈이 마주친다. 내 눈길은 허공에서 마구 흩어지는데 남편의 눈길은 그런 나를 탐조등처럼 쫓고 있었다. 마침 그때 벨이 울렸고 나는 자리에 앉은 채 털썩 뺨을 놓아버렸다.

"고모!"

한손으로 소미를 감싸안은 시누이가 허둥대며 막 거실로 들어섰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시누이는 스물일곱의 고운 처녀였다.

"좀 일찍 다니지."

"오빠, 내가 늦고 싶어 늦은 줄 알아?"

"왜. 또 그 نوم이 따라붙디?"

시동생이 빈정대는 투로 묻는다.

"농담하지 마. 아 참, 기도부터 해야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간을 조금 찌푸린 채 무릎을 모은 시누이의 모습이 한송이 수선화처럼 곱다 곱다. 나는 명칭히 서서 시누이의 고운 어깨선을 훑린 듯 바라보다 남편의 채근으로 퍼뜩 정신을 차린다.

"얼른 과일 좀 내오지."

"알았어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쩍 단 것을 찾는 시모는 사과가 너무 시다며 낮을 쟁그린다. 과일도 다 제맛을 잃었어. 어디 과일뿐이우. 한켠에 모인 시모의 벼들이 두런두런 시절타를 하는 소리가 무반주 성가곡처럼 평화롭다. 나도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병동을 옮기든지 해야지 윈. 장기 환자가 많으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오빠."

"이건 거의 미친 놈이야. 형, 이런 놈은 당장 집어 처넣어야 한다구."

"정말이야. 오빠. 장미꽃 삼백 송이. 케이크 열 상자. 얼마 전엔 곰인형을 부쳤는데 어찌나 크던지 사람만 하더라. 그게 자기라나. 너무 섬뜩해 소아과 병동에 잘 말하고 주고 왔지. 애들은 무척 좋아하더라.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제 나이트만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 있기가 무서워."

"다 니가 허술해서야. 왜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야. 여자가 아무지면 그런 일도 없어."

남편의 단호한 어조에 시모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동감을 표시한다.

"아냐, 형. 내 친구 중에도 그런 놈들 꽤 있는데 이젠 아주 막무가내야. 특히 혼자 몇 년씩 고시준비하는 녀석들. 정말 장난 아니야. 지가 왕전대 여자들이 절 거절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야."

"그 사람도 길으로 봐선 아주 멀쩡해. 오빠."

"간호사란 직업이 신체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의 몸을 돌봐주니까 환자들이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애정도 깊어질 테지... 어머나. 웬만한 사람이면 한번 만나 주지 그래."

"형, 그건 애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

"맞아. 그건 폭력이야. 폭력. 것도 아주 끔찍한... 그리고 오빠,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먼저 짝어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할 거야."

"무슨 소릴. 여자가 먼저 좋아하면 평생 짝고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형수님. 형수님만 해도 형이 짝고 또 짝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사악한 뱀이 들어와 토아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이 집에 맞지 않아...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는 편이 나을 거야... 나는 한마리의 더럽고 무력한 벌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토록 태산 같던 죄책감과 자기비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내 거품처럼 녹아 사라졌다. 언제나 시덥식구들 앞에 서면 나 혼자 미끌미끌한 비누표면 위에 기를 써서 매달리고 있다가 홀로 쪼르르 멀어지는 기분 이 들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리석 비누처럼 쉽게 탈지도 녹지도 않고 단단하게 뭉쳐 네모난 비누곽 속에 암전히 들어 있는 것 같았다.

사람 좋아하는 시모가 불려들인 시대 부근 노인들과 먼 친척까지 해서 십여 명 남짓 객이 모두 돌아갔다. 당신 가족들은 모두 가면을 쓴 사람들이예요. 설거지감이 수북히 쌓인 싱크대 앞에서 나는 버릇처럼 속으로 뽀글뽀글 하나씩 외치기 시작한다. 남편은 딸아리와 함께 거실에 있는 과일쟁반이며 컵들을 하나하나 식탁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봐, 포도껍질은 어디다 버리는 거지?"

한참 이기적인 가정교육이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소미

성적에는 왜 그렇게 민감할까. 접시는 씻어도 씻어도 줄지 않는다. 아이가 임원으로 뽑히지 않으면 좀 어떨까. 남편의 형제들은 언제나 반장이었다. 그럼 모든 게 날 닮아서라는 건가. 스텐수저들이 활그락거리며 개수통 안에서 서로 부딪는다.

“참, 진우가 어디쯤 사는 애지? 단지 아인가, 주택 아인가?”

편하다. 진우 같은 아이랑 사귀지 말라는 것이겠지. 친구를 잘 만나야 공부도 잘한다고. 그래, 진우네는 이혼한 집이다. 엄마랑 둘이 사는 아이. 하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진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남편은 알고나 있는 걸까. 진우가 얼마나 성격 좋고 씩씩한 아이인지도... 진우 엄마 우리집에 왜 못 오는지 알아? 당신 눈빛, 마치 별레 보는 듯한 그 눈빛 때문이라구.

“어디 사는 애길래 매일 우리집에 와서 노냐?”

숨이 막힌다. 가면과 살거죽이 딱 붙은 사람들. 그럴 듯한 포장, 예의바른 척 뒤통수 치는 사람들. 이제 술을 합치자구? 어머니님 아버지님 수발할 때가 되었다구? 집에서 머느리가 차려주는 따끈한 밥 삼시세때 드시고 싶다? 파출부 쓸 돈도 아껴야 할 때라며 언니 하루종일 집에서 뛰어나구 했지.

“다시 취직하면 되잖아.”

나는 제풀에 숨이 거칠어져 씨근대고 있다가 속을 들여다본 듯한 남편의 말에 조금 놀란다. 하, 취직, 남자들 틈에서 시시덕대는 꼴 싫다고 단식까지 하면서 집에 붙잡아논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취직?

“말 좀 해. 어머니님 살림 합치자 그래서 빠진 거야? 당신 요즘 왜 그래? 도대체 웃는 걸 한번 못 봤어.”

마치 다트를 쫓듯 땀을 자꾸 뿜으려는 남편의 말에 속으로나마 부글대던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맞다. 나는 계속 남편 앞에서 기가 죽어 있거나 이곳을 떠나야 하는 주제이다. 행주질하던 손을 멈추고 우두커니 섰다가 이윽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위잉— 실내 가득 얼어

붙은 시간들이 날카로운 송곳에 패이며 집안 구석구석 피문은 기억의 조각들을 날린다. 남편은 말없이 내 눈치를 살피다 걸로 다가와 팔팔 흐르는 수돗물을 잠가준다.

“조금만 기다려. 당신 그렇게 조르던 미국지사 가는 거, 노력하고 있어. 나, 장모님 모시는 건 그 다음 일이야. 그냥 안심하고 싶으셔서 웅석 부러시는 거야. 명환이네도 학위 마치면 곧 들어올 거구. 출가 안한 애들도 아직 철이 없어서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지. 지들이 결혼해 봐. 조금은 우리 생각도 해줄 거야.”

남편의 지사 파견근무는 무위로 돌아갔다. 온 나라가 망해간다고 난리였다. 내가 있던 사람들도 도로 들어오는 판이었다. 이제 시가로 들어갈 일만 남았다. 나는 하루하루 숨이 조여들었다. 시모예젠 약간의 치매가 보이기 시작했다. 시부는 식성이 까다로웠다. “새 차로 하나 뽑아줄 테니 어머니 병원 확실히 모시고 다녀.” “언니, 아버지 새 벽 수산시장에서 사온 찌개거릴 제일 좋아하세요.” “형수님, 이제 친구들 마음놓고 데려와도 되죠?”

어디서 살든 나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다. 잠자는 소미를 바라보다 손에 든 진녹색 여권을 다시 서랍에 꾸서 넣었다간 다음 날 다시 허겁지겁 그것을 찾았다 하는 일도 지겨울 만큼 반복되었다.

나는 조용히 이를 악다물고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삿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소미는 마당과 언뚝이 있는 할아버지집에 가게 되었다고 친구들과테마다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초조감에 밤마다 시달렸다. 그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이즈음 들어 놓이 나를 채근하고 닥달하는 횃수가 훨씬 빈번해졌다.

나는 밤마다 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데 전화는 계속 불통이 되거나 뭘가 말하려고만 하면 자꾸 끊겼다. 벌어진 열 손가락마다에는 날카로운 칼집이 새로

당대비평

로 죽죽 그어졌는데 그 틈새로 노란 즙샘 같은 것이 자꾸 빠져나오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것이 노란 즙샘알인지 고름알갱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꿈은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전신에 오스스 소름이 돋았다.

월요일 아침, 새 차가 도착했다.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하고 나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안의 비닐을 벗겨내는데 그가 소리없이 다가왔다. 그는 열쇠를 거칠게 나꿔채고 나는 슬리퍼를 신은 채 차와 함께 산길로 끌려갔다.

붉고 노란 잎을 호둑호둑 적시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밝은 차창이 물기로 얼룩지기 시작하자 나도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우선 내 뺨을 몇 대 갈겨 쓰러뜨린 다음 입술을 빨았다. 그리고 손아귀 가득 두 가슴을 움켜쥐고 이빨로 세게 찢꼭지를 물어뜯었다. 눈물이 펄펄 나도록 아팠다. 그의 입에서 독한 소주내가 났다. 차에선 처음 해본다며 그는 재미나 죽겠다는 듯 호호 웃었다. 그가 아래로 파고들 때 나는 시트의 얼룩을 걱정했다. 그의 검붉은 살덩이가 몸 속 깊이 들어와 이곳저곳을 찢러댔다. 사랑해... 이년아. 사랑한다구... 쿨렁쿨렁 차가 심하게 요동을 쳤다. 나는 차바퀴에 감길 흉자국도 염려되었다. 같이 죽자... 같이 살자... 같이 죽자... 나는 목에 잊지 않았으므로 다른 때보다 심하게 저항을 했다. 그는 화를 내며 내 뺨을 다시 쳤다. 입 안이 들큰한 게 찢맛이 느껴졌다. 나는 맹렬한 적의를 느끼며 그를 밀쳐냈다. 그러자 그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먹은 것이 모조리 목구멍으로 기어올라왔다.

그가 두어 번 짧은 소리를 내지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겨우, 끝났다. 새로 산 차의 시트는 누런 정액과 토사물, 내가 지린 소변으로 엉망이 됐다. 그가 씨익 웃었다. 이런 걸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 너 이사가는 데도 미리 가 봤어. 내가 담벼락에 똥을 한무더기 싸놓았지.

차를 공사장 근처 공터에 주차시키고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다. 두 개의 비탈은 각각 높이와 폭이 서로 다르다.

첫번째 비탈은 폭이 좀 넓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오징어 다리 같은 것을 뚝뚝 빨며 퐁퐁 뛰듯 비탈을 내려오고 있다. 세상이 신기한 요술상자 같을 나이다. 저 아이만할 때 외국에 다녀온 친척에게서 러시아인형을 선물 받은 기억이 난다. 열어도 열어도 자꾸 열리는, 그 속에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인형이 있고 또 있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온 인형은 너무 작아 얼굴이 새끼손톱 정도였다. 더 이상 나를 게 없다고 엄마와 언니는 말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 작고 앙증맞은 인형은 나한테 망치로 맞아 가루가 되었다. “나와, 왜 안 나와. 더 있어, 더 있을 거야.” 나는 발을 구르며 울고 매를 썼다. 이제는 안다. 아무리 꺼내려 해도 더 이상 꺼낼 것 없음. 그것이 내 나머지 생임을. 그런데, 내가 지금 망치를 휘두르려는 걸까. 아니면 아직 무엇인가 삶 속에 더 남았다고 믿는 걸까.

두번째 비탈로 접어드는 모퉁이에 하얀 깃발이 꽂힌 집이 보인다. 저건 당골네야. 무당집이지. 몇 달 전 여기로 처음 끌려왔을 때 놈이 일러준 것이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인다. 안경을 벗어서일까. 깃발은 눈부시게 하얗다. 그건 마치 큰 새의 날개가 꼭 펼쳐진 듯 보였다. 나는 웬지 걸음이 가벼워져 비탈을 뛰듯 올라 그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다가 놀라 일어나 입가의 침을 쓰옥 훔쳤다. 웬일이야. 대낮부터. 나는 처음으로 그의 방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었다. 의외로 방안은 깨끗했다. 주로 무협지였지만 책도 몇십 권 놓여 있었다.

“았어.”

나는 꼼짝않고 서서 양손을 외부 주머니에 꽂은 채, 오른쪽 주머니 안에 숨긴 것을 더욱 단단히 물어쥐었다.

“지금도 똑같니?”

“뭐가?”

“너. 나 죽으면 따라 죽을 거니?”

그가 피, 하고 웃는다. 니 주제에 죽을 수나 있겠냐. 그

가 입 안에서 뭐라 우물거리며 말을 짓씹더니 그렇게 내뱉는다. 순간, 나는 오른손을 빼서 그에게 달려들고 싶은 충동을 꼭 눌러야 했다.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그가 일어섰다. 방 안에서 땀발로 마주서니 그의 몸집은 너무 작고 볼륨이 없었다. 나는 배에 단단히 힘을 주고 말했다. 가까이 오지 마. 왜 이래. 그가 실실 웃으며 조금씩 앞으로 다가온다. 비켜, 이 새끼! 그가 흠칫 놀란다. 칼을 보자 그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더니 다시 피식피식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게 칼이나, 후훗, 칼이군 그래... 나는 뒤로 물러나 잠시 비척거렸다. 순간 그가 날에게 내 손목을 잡고 칼을 뺏으려 했다. 나는 몸을 굴려 그를 피해 맞은편 벽쪽으로 붙어섰다. 얼마나 세게 몸을 붙였는지 벽에서 도로 떨어져나올 뻔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고 말했다. 널 찌르려는 게 아냐. 나는 오늘, 날 찌를 거야.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마. 그러자 그의 얼굴이 흉하게 오그라들며 일그러졌다. 언니, 응급실에 있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실연당해 동맥 끊고 오는 여자들, 대부분 살아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맥만 살짝 끊은 거예요. 그러면 지르르 피만 좀 나오고 대부분 금방 지혈이 되죠...

넌 못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그 칼로는 개미 한 마리도 자를 수 없을 걸. 그는 비죽이 웃으며 하얀 접시 하나를 손에 쥐더니 술을 돌리기 시작했다. 접시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두번째 접시가 날아도 내가 꿈쩍하는 기색이 없자 그는 가스타 위에 얹혀 있던 양은냄비를 집어 공중에 날렸다. 불어터진 라면가닥과 국물을 피해 내가 얼른 창문 쪽으로 피해서는 바람에 그의 책들이 온통 주홍빛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의 얼굴이 노래졌다. 나는 그 책들을 발로 툭툭 차며 칼을 허공으로 높이 올렸다. 그리곤 왼쪽 손목 위 파랗게 들은 핏줄 부위를 정확히. 그러나 약간 깊이 꼭 힘을 주어 그었다. 피가 툭툭 밀려 나왔다.

"네 차례야, 너도 해."

나는 칼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질린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왜, 같이 죽자며."

내가 한 걸음 다가서자 놈이 헉, 소리와 함께 몸을 꺾고 배를 움켜쥐었다. 구역질이 치미는가 보았다. 나는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주저앉아 웅크리고 있는 놈의 면전에 칼을 툭 내던지고 뒤돌아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왔다. 쿵쿵, 자꾸만 웃음이 빠져나왔다. 신을 신었다. 마당 한편 수돗가에는 달아빠진 누런 칫솔 하나가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일별하고는 비척대는 걸음으로 녹슨 양철대문을 빠져나왔다.

비탈을 도로 내려와 걸으며 왼편 주머니에서 하얀 지혈 가루를 꺼내 뿌리고 봉대를 청청 감기 시작했다. 조금 어지러웠지만 참을 만했다. 두번째 비탈을 내려오면서부터는 걷는 데 힘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차 트렁크 속의 커다란 여행가방을 떠올렸다. 그러자 걸음을 조금 재촉할 수 있었다. 저만치 공터가 내려다 보인다. 나의 하얗고 단단한 차는 파가운 가을햇볕을 받아 나른하고도 눈부시게 거기 서 있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보았다. 하얀 비탈길 따라 검붉은 핏자욱들이 꽃잎처럼 점점이 뿌려져 있었다. 다시 하늘 쪽을 보았다. 멀리 당골네 솟대 깃발이 막대 끝에 매달려 마치 날기 직전 새의 도사림처럼 평평히 나부끼고 있었다. 1998, 9월. □

제5호 1998년 가을 겨울 특집호

당대비평

CONTEMPORARY CRITICISM

무산된 꿈과 희망의 연대를 위하여!



특집/ 위기 속의 아시아, 국가-민족을 넘어 연대는 가능한가

- ▶ 대담/21세기를 향한 동아시아의 고뇌와 모색 김영호·조희연
- ▶ 아시아의 새로운 길, 밀로부터의 연대와 그 대안 김민웅
- ▶ 협력·공생의 동아시아 세계형성 사사키 아키히로
- ▶ 방황정신: 글로벌한 동아시아 국지적 상호작용으로 열려나오라-호지
- ▶ 아시아 지역의 패미니스트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조현혜정
- ▶ 중국문화와 아시아 위기: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남주

특별기고/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을 위한 제언(198매) 정호한

장점/ 김대중노선 의 비판적 극복을 위하여

- ▶ 대안노선은 우리의 희망인가? 이병현
- ▶ 김대중 정부하의 민주주의와 배후정치에의 유혹 노대영

머리말/ 5호를 내면서/ 시련의 시절과 시대의 '학후' 조세희

권두에세이/ 진보 는 진보적인가 박이문

포커스/ 21세기 백두의 발전에 대한 사고 이태희가 선
지성과의 대화/ 불확실의 21세기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에드가 모렐-하겐
논단/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과 햇볕 정책 김영삼
당대포럼/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라 서경석

시 고흥환·고재홍·최영철·하수경·장철문

중편소설 夜食(298매) 최성각

주제비평 1/ 스포츠와 민족주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동현

주제비평 2/ IMF와 광고 속의 민족주의 홍성태

주제서평/ 새로운 사회과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상수

▶ 정기구독 신청은 이렇게 하십시오.

1. 구독료는 1년분 40,000원, 2년분 72,000원, 3년분 100,000원입니다.
2. 전화로 구독을 신청하시면 지로송금을 보내드립니다.
(구독 문의 전화/02-322-1845)

당대비평 특별호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

세계의 석학들이 들려 주는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충고!

제1부 한국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 ▶ 김스연의 '한국노' 동아시아의 금융 재조: 개입주의적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 ▶ 크리스티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의 위기와 이에 대한 충고
- ▶ 수안/ '세계화의 빛'과 한국 경제의 위기
- ▶ 데이비드와 베네딕토/ 아시아 위기: 고부세 모델과 위기-미국대부분-한국책임에 대한

제2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아시아 위기?

- ▶ 데이비드/ 자유주의 고지식 부흥: 글로벌 경제학의 위기과 세계은행
- ▶ 데이비드/ 금융 세계화 속의 세계 경제의 출현
- ▶ 몬크리드/ 국제 금융 불안정과 동아시아 위기

제3부 리안형 자본주의의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사고

- ▶ 스티븐리츠/ 더 많은 가구나 더 낮은 자본 탈취성인 합리주의 이론
- ▶ 셴/ 경제 발전과 사회적 기회
- ▶ 아글라리아/ 세계화, 사회 모델과 경쟁 초국적 경제 정책의 요소



신국문/444쪽/값 10,000원



신국문/312쪽/값 10,000원

"당대비평,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이 책을 증정본으로 드립니다.(1998년 2월 28일)

삼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9-4 삼인빌딩 4층/전화 322-1845, 팩스 322-1846/전자우편 h3952, h3953 h3954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if!

기꺼이 싸움닭이 되겠다

가끔 난 내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다른 여자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난 얼굴이 벌개지도록 화를 내는 건지 남자애들이랑 있을 때 싸움닭이 되는 나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if를 읽으며 난 이제 남자들이 쉽게 하는 여성 비하적 저질농담에 싸움닭처럼 행동하는 내가 싫지 않다. 난 그런 내가 자랑스럽고 칭찬하는 다수의 여성들 대신 기꺼이 싸움닭이 되고 싶다.

임경숙/ 부산시 진구 개금3동 479-12 14/6

눈물겨운 만남

작년에 신문에서 if가 창간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갈 때마다 찾아봐도 if는 볼 수가 없어서 이 지 서울에만 나오나 보다 하고는 포기했었는데 얼마 전 서점에 갔다가 if가 있는 걸 보고 반가워서 당장 지갑을 열었습니다. if와 만나기까지의 긴 과정이 눈물겨워서 사실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영호/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대광동 296-3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평소에 여자들이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 그리고 표현하고 싶어도 부끄러움과 남의 눈을 의식해서, 혹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두려워 하지 못하던 '우리의 속마음'을 대변해 주신 데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if를 딸들에게 권했지요. 머느리는 내가 본 후에 반드시 준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여성문제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동에 목을대가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 번 느꼈답니다. 문제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딸들은 모두 개성과 능력을 키워주면서, 아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찔끔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무능력할 정도로 귀하기만 한 아들의 부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내가 키운 당당한 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인들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들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 단장 윤희자

조금씩 단련되는 나

저 또한 정말로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결혼, 출산 또 출산의 고비 때마다 작정을 놓지 않고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단련되고 무장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독립이 정신적인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과 자꾸만 if에 빠져드는 나를 발견합니다.

변현숙/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40번지

어운있는 수다를

싫었던 글에 'if 수다방'을 지적 했는데요, 제목이 수다방이지만 정말 너무 가볍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서로간의 대화도 산만하구요. 어운이 있는 수다가 듣고 싶습니다.

조마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1-13 향남804F

아껴가며 읽는 if

이프를 처음 구입해서 읽고 있을 때 남편은 내가 아껴 읽고 있다고 했다. 맛있는 간식을 아껴가면서 먹는 것처럼, 한장 한장 넘기면서도 읽지 않은 부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현실이 날 괴롭힌다. 지금은 남동생 역시 if의 열렬한 독자이며 남편 역시 나 몰래 if를 훔쳐보고 있다. 계간지인 게 아쉽다. 서점에 세 권 꽂혀 있을 때 펼쳐봤다가 다음 번 사려갔을 때 두 권으로 줄어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if를 시간 갈 수 없는 그 누구에게나 막연한 동지애를 느끼며...

이선미/ 도봉구 창1동 676-45

김신명숙씨 글이 그림네요

항상 재미있게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난 '98여름호에 실렸던 '컴퓨터는 남성의 기계인가?'(장여경)이 참 좋았습니다. 다만, 특집 글의 경우 문학등의 특장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의 글이 주류를 이루는 게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예리하고도 통쾌한 김신명숙씨의 글이 그림네요. 다음호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윤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49-113층

특집 주제에 관해 온라인채팅을...

이번 주제가 '집 떠나는 여자들'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호가 나오기 전에 공지를 미리 하던가, 나온 후에 주제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어디까지 여전이 학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명의 독자들이 if의 주인공들이라면 그들과 온라인채팅을 해도 재밌겠군요. 때면 if 읽을 때마다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선희 (hite: lea1001)

집나간 여자들, 이젠 할 말 생겼어요

반갑게 우편매달원(정기구독자임) 이프를 다른 선배들과 친구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신주단지 모시듯 열심히 봤어요. 집 나가는 여자들!! 다 그러잖아요. 남자 실직하고 애들 버리고 나간 나쁜 여자들, 이기적인 여자들

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난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지"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구장창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빛나 (hite: 안하신문)

주변사람들에게 이프 정기구독 권유를

이프는 사회과학 서점에서는 꽤 잘나가는 사회과학 계간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실용관계 근처에 있는 물무잡에서도 매호 40권 이상 팔리고 있고 성신여대에 있는 사회과학 서점에서도 이프의 반응은 좋답니다. 이프는 다른 사회과학 계간지보다 대중성이 있고, 이프만의 독특한 색깔도 있으니 그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이프 정기구독을 권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프 파이팅!

천리안 ANT101

이프의 광고 게재에 대해

광고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크리스티안으로 신제품 런칭 기념행사와 미용실 광고에 대해 한 마디. 여성학자들은 외모에 집착하는 여성들을 감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페미니스트지널에 화려한 미용실의 광고와 고급치즈 화장품 광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if를 통해서 실천하는, 즉 지향점이 되는 페미니즘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김현정/ 서울시 송파구 잠실5동 주공아파트 606동 701호

가을호 편안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가을호엔 앞에 박해숙씨가 쓴 머리글을 읽으면 김희영님이 생각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깐 읽어보시구요. 그리고 저 역시 광고가 맘에 들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여전히 광고도 남성중심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 이프를 만들기 위해 광고는 필수입니다.

노희순 (hite: wwwomen)

이번호 보고 외아들 한가지

한 2주 전인가 서점에서 if를 훔쳐- 넘겨보았는데, '비 이상하다. 왜 이 잡지에 이런 광고가?' 싶은 게 있었어요. 그 광고가 무엇인지 잘 생각은 안하는데 화상풍선과 여하간, 여성의 대장화가 분명히 드러나는 광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광고도 편집의 일부가 아니던가요? 광고 하나를 싣더라도 잡지의 주제와 최소한 판소리를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영 (hite: 비가비토)

if를 처음 접한 작년 그때 느꼈던 거

if를 처음 접했던 작년 가을. 모자마자 처음 느꼈던 것은 뭐예요 시나? 계간? 그림 월간도 석달에 한번씩 주냐? 그랬는데 밑에 계간 본 밑에 '월간'이 있네. 다 그렇지. 광고유체가 어운 게 아니잖아? '가만 보나 김자진씨 대다수(?)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일하면 뭔가 자존감이 사라진다. 김자진씨는 글타구치고 그림, 책은 필요 하지? 지갑에 많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 돈이 없어서 조금만 책구 조금만 배로한다? 어운은 광고가 시작된 건 알츠로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전변하고 가려 쓸 수도 있었지만, 맘에 안 들어서 뭐 어떤 광고가 다 있어 라는 교육(?)효과도 있을 것이지(말이 왜냐?). 어운은 지금 광고 게재량도 아직은 적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또 חשוב하다

최재현 (hite: HOSEE)



여성관계이 뽑은 98년 최고 최악의 영화 시상식 및 송년회

여성관계 1,000명이 올해 상영된 국내, 국외 영화들 중에서 최고와 최악의 영화/여자배우, 남자배우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갖습니다. (설문에 응

해주실 분은 이프 이번호 271~272쪽을 보세요.) 영좌인과 여성관계이 함께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이번 행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날 2부에는 이프와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송년회가 이어집니다. 재미있는 복장과 즐거운 마음을 준비하시고 오십시오. 즐거운 송년의 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최: 페미니스트저널if, 여성문화예술기획

협찬: (주)한국코카콜라

후원: 『씨네21』

일시: 1998년 12월 28일(월) 저녁 7시~9시

장소: 동숭아트센터 1층 로비라운지 <신바람>

참가비: 1인 1만원

신청 및 문의: 743-6715/6716

전화신청을 받습니다. 전착순이니 빨리 연락해주세요.

99년도 여성수첩이 만들어졌어요!

매년 연말 때쯤 선보이는 『여성수첩』(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작은 여성학노트로, 혹은 삶의 지침서로 좋은 친구 역할을 해왔다. 수첩의 내용은 성, 정치, 환경,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고용·창업, 여성문화, 결혼, 이혼 등 다양한 여성의 문제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미니 여성학노트로 꾸며졌다. 또한 편리한 수첩메모와 여성그림들로 채워져 매년 기업의 여직원회에서 단체구입하는 인기품목, 단체구입사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의: 269-2962)

이프 모니터모임

이프 7호를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평가를 해주실 분은 오세요. 또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실 수도 있고, 이프를 만드는 사람들, 필자, 열혈독자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시: 1999년 1월 8일(금) 오후 7:00

참가비: 1만원

장소: 대학로 학림다방 3층(742-2877)

전화신청: 743-6715/6716

(1월5일까지 참가신청 해 주세요.)

if 겨울 독자여행 같이 가요!!!

눈 덮힌 산장에서 캠프 화이어를!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 2시, "우리 한 게임 다해!" 등에서 맞은 곁의 지난 가을 독자여행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마음놓고 할 수 없었던 울고 웃는 솔직한 여자들의 얘기, if 겨울 여행에 독자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같은: 충북 단양

출발: 12월 12일 오후 2시 동서울사외버스터미널 앞

도착: 12월 13일 오후 6시 서울 도착

회비: 성인 4만원/8세 이하 어린이 2만원

준비물: 한 끼분 밥과 한 가지 반찬

문의 및 신청: 743-6715/6

연말연시에 이프를 선물하세요

과월호를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프는 시간이 지나도 두고 두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귀중한 선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프를 선물하세요. 연말연시 기간에 한해 이프를 '황창' 할인해드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격은 정가대로 판매됩니다.

할인가격: 98년 12월 10일 ~ 99년 1월 9일

할인혜택: 과월호(1호~6호) 각 권당 5,000원

신청 및 문의: 743-6715/6716



그녀는 예뻐다.

그만 그러도 좋겠다는 노랑류에도 서너 차례나 다시 그림을 그려와서(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이프의 방주)에 우리 맘에 쏙드는 마녀를 태울 수 있도록 한 난나의 프로 정신. 그녀는 예뻐다. 이미 그래픽에 관한 한 고수의 경계에 가 있으면서도 무지한 디렉터의 무지한 간섭에 "아, 고마워요.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줘서"라고 흔쾌하게 받아들여준 명진씨,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쁘게 포용하면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여백한 하나조자 맘을 새우며 끝장을 보는, 자신에게 철저한 명진씨의 프로정신. 그녀는 예뻐다. 때론 아줌마 패션으로 우리들을 지루하게 하는 공마, 밤샘작업으로 눈이 부시시한 작업장에, 눈이 번쩍 뜨이는 가죽 갈마와 몸에 붙은 검은 바지로 나타나서 한 순간 모른 피로를 잊도록 신선함을 안겨준 그녀도 예뻐다.

갈마

초능력 이프!

모든 게 놀았다. 광고도, 원고도, 기존의 고정칼럼들이 빠지지 않고 싶었으며, 새로 추가된 단편소설, 박진영 인터뷰원고, 이프가 울독지여행 만화까지(극성스런 장현실)... 그런데 전체 쪽수는 그대로다. 마음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3개월에 한번 나오는 책을 예달계 기다리는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엄청나게 꾸겨넣었다. 요조조 구석구석 틈틈이 재미있게 읽으시라고, 읽고 기쁨과 희망과 열정에 찬 독자편지 같이 보내달라고... 그걸 생각하면 벌써 오르가즘이다(아니, 사실 편집부는 오르가즘 특집 준비에 차여서 불감증 됐다).

통마

98년 11월 18일 색마의 일기

별뿔별을 보러 양평에 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몇 시간 동안 밤하늘을 보고 있으니 이프식구들 생각이 났다. 해피(?)드링크 류숙영 선생남에게는 '본론한 건'을, 아이를 임마이신 편집장과 제선배, 윤선배는 아이를 잘 키는 거, 아직 솔로이신 박선배에게는 전짜 멋진 남장네 동들을 빌었다. 간단에 칭찬받을 짓을 한 색마. 다음날 자랑스럽게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배들의 반응. "아, 돈벼락이나 떨어지게 해달라고 빌자." 그중 나를 더 경악스럽게 했던 윤선배 한 마디. "나는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주지 그랬어." 윤선배의 남편은 국보법위반으로 구치소에 계시다. 윤선배, 합내세요. 철썩! 국보법!! 석방! 양심수!!

갈마가 내 6호 편집후기에 차가 베풀었다고 두근두근 썼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매력"을 온 눈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그녀를 빠뜨린 내가 적일 X지...

운동을 시작해서(20일 하고 10일 쉬었는데 시작한 거 맞나 몰라)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엄청 막혀있다. 살이 때로만 가서 문제지만 어쨌든 식욕이 생겨서 조오타.

이프 식구가 두 배가 되었다. 홍보마켓팅팀이 일 개 사단(약간 빵)을 이끌고 들어온 것이다. 제1특명은 "정기독자배가". 이프가 좋아 열악한 조건도 마다 않고 달려온 동료들이 자치지 않게 새록새록 정기독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공마

이프는 사랑을 신고



친구를 찾습니다.

35세/기혼여성/프리랜서 작가

♥성격

1. 솔직담백하다.
2. 열광유쾌하다.
3. 영혼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인다.
4.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열린 가슴이 되려고 노력한다.
5. 남자도 여자와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노력한다.

♥원하는 친구

1.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2. 상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인력의 소유자이면서
3. 돈이나 명예 등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기중심을 가져야 한다.
4. 이렇듯 좋은 자질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유머감각이 없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
5. 놀기도 좋아하고 여행을 즐긴다면 금상첨화!

♥좋아하는 작가-마이작 아시모프, 야가사 크리스티

♥최근에 읽은 가장 재미있었던 책 - 『여자에게 감추고 싶은 남자의 비밀』, 『드래곤 리자』, 『어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다』

♥취미-누워 책 보기, 가끔 노래부르기, 부침개 부쳐먹기

♥특기사항

1. 황혼을 바라보며 함께 커피를 마셨으면...
2.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고대 문명의 비밀, UFO, 마법, 추리소설).
3. 좋은 분위기의 남자 혹은 여자, 모두 가능하다.
4. 여자가... 운운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 정말 싫다.
5.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허리허락적인 사람은 절대 사절.

♥연락처: if 사무실(743-6715/6)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 743-6715/6, 팩스 765-9059).
- 책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4,000원

정기구독혜택

- 본사의 자료해택과 (사)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회원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주소변경

- 미착·분실·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743-6715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 - 5088166(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온라인 입금
서울 16508-3421203(도서출판 이프) 국민 031-01-0415-280(도서출판 이프) 농협 029-01-171261(도서출판 이프)
현금 375-036328-02-001(도서출판 이프) 제일 458-20-031036(도서출판 이프) 우체국 010892-0071882(윤석남)
- 구독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후 반드시 전화해 주십시오.

이프(IF) 전국 거래처 한국출판유통(080-082-8240)

그밖에

- IF 저널은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364-5950)나 본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IF를 만든사람들

- 발행 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윤석남 • 매니징디렉터 박혜숙 • 편집장 박미라 • 아트디렉터 제미란 • 디자이너 김명진 • 포토디렉터 조여권
- 편집위원 김숙진 김신명숙 김재희 김혜경 손자희 오한숙의 유숙일 유재지나 이호인 이해경 • 객원기자 권혁관 이숙인 황금희
- 광고기획부 윤숙경 김영란 • 홍보마켓팅부 팀장 성낙진 김현숙 이미연 성주애 김익규 • 사진편집자문 박영숙
- 디자인 평일문화사 박선미 권순나 • 인쇄소 고려서적
- 배본처 한국출판유통(080) 082-8240 • 등록번호: 바-02699
-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가 65번지 2층 도서출판 이프 • 전화: 743-6715-6 • 팩스: 765-9059 • Hitel ID: iftopia
- 온라인 ID: feminif • 하이텔에서도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go feif).

여성만백 1,000명이 뽑은 98년 최고, 최악의 영화

성실 응답자 30명에게 IF 최근호 또는 연극 '마요네즈' 초대권을 드립니다.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여성문화예술기획)으로 보내주세요.

• 이름: _____ • 전화: _____ • 호수: _____
• 주소: _____

【여성문화예술기획 T.3476-0662/3 F.3476-066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글호아파트 다동 B-2호】

응답자

1. 연령 ()
1) 19세 미만 2) 19-25세 3) 26-30세 4) 30대 5) 40대 이상
2. 직업 ()
1) 고등학생 2) 대학(원)생 3) 직장인 4) 프리랜서 5) 전업주부 6) 무직 7) 기타()

영화를 보는 여성

3. 영화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1) 신문 2) 방송 3) 영화잡지 4) 통신 5) 주위사람 6) 기타()
4. 관람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1) 배우 2) 내용 3) 장르 4) 감독 5) 상황(극장과 시간)에 맞춰 6) 기타()
5. 영화(극장상영)를 1년에 몇권을 보십니까? ()
1) 2회 이상/1주 2) 1회 미만/1주 3) 1-2회/1달 4) 6-11번/1년 5) 1-5번/1년 6) 안본다
6. 어떤 장르의 영화를 선호하십니까? ()
1) 멜로 2) 예로 3) 액션 4) SF 5) 공포 6) 코미디 7) 기타()

한국영화속의 여성

7. 한국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8번-11번까지의 질문은 가장 우선적인 순서대로 번호(1-5번까지)를 매겨주십시오.

8. 문항(7)에서 (3, 4)불만족에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부각시킨다()
2) 여성 캐릭터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다()
3) 여성의 직업유형이 다양하지 못하고 묘사가 비현실적이다()
4) 여성들의 성격유형이 왜곡되어 있고 남성중심으로 그려진다()
5)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차적이고 의존적이다()
9. 한국영화에서 바람직한 여성주인공으로 기대하는 유형은?
1)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여성()
2) 남자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
3) 사리분별이 있고 의사표현이 분명한 여성()
4) 자신의 성취욕구에 솔직한 여성()
5)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여성()
10. 한국영화 속에서 여성이 왜곡되게 묘사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영화의 흥행성만을 강조하는 상업주의()
2) 남성중심적인 감독 및 제작진의 시각()
3) 여성 영화인력의 부족()
4) 가부장적인 사회관념의 분위기()
5) 여성관계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제작과정()
11. 한국영화 속에서 여성의 모습이 현실화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 여성감독을 비롯한 여성제작인력의 증가()
2) 여성문제를 부각시킨 영화의 제작 증가 및 다양한 소재의 개발()
3) 다양한 캐릭터를 형상화할 수 있는 여배우층의 확대()
4) 남성감독 및 제작진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5)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의 진지한 관심()

12. 외국영화와 비교할 때 한국영화 속의 여성표현에서 두드러진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

- 1) 여성의 외모만이 장식된다
- 2)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강간에 대한 묘사가 지나치다
- 3) 희생적인 어머니상이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 4) 남녀관계묘사에서 갈등보다는 화해를 강조한다
- 5) 여성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 6) 기타()

13. 여성과 관련해 새롭게 영화의 소재로 채택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 1) 남녀관계(연애, 결혼 등)
- 2) 대안적인 여성상 제시
- 3) 여성들의 유대관계(우정, 모녀관계, 고부관계, 동성애 등)
- 4) 여성들의 성장형 위기
- 5) 여성의 성장영화
- 6) 기타()

여성의 눈으로 본 98년의 영화

올 한해 동안 한국영화는 약 40여편, 외국영화는 약 170여편이 개봉, 상영되었지만, 그 중에서 준비위원들이 추천하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골라보았습니다. 보기를 참조해서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선택하신 영화/배우/감독이 보기에 없을 때에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화

- (1)장원도의 힘 (2)기막힌 사내들 (3)깊은 숲속 (4)꽃을 든 남자 (5)남자의 향기 (6)남자야 (7)내안에 푸는 바람 (8)비브라 (9)바어 (10)생파부 원자로 청구소송 (11)세븐틴 (12)살년월 (13)아름다운사람 (14)악동 (15)엑스트라 (16)여고괴담 (17)이별인 (18)인연 (19)일광일월 (20)장사 (21)조용한 가족 (22)죽이는 이야기 (23)별 (24)차녀들의 저녁식사 (25)K.K.해밀리 (26)키스할까요 (27)모요일오후2시 (28)피마 (29)투잡스 (30)과연대문 (31)8월의 크리스마스 (32)편지 (33)할렐루야

14. 여성관계의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를 1편 골라 번호와 그 이유를 써주세요 ()

15. 여성관계의 입장에서 가장 나빴던 작품을 1편 골라 번호와 그 이유를 써주세요 ()

■외국영화

- (1)LA인피니트 (2)X파일 (3)가해 (4)가타카 (5)고질라 (6)나는 내가 지남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 (7)나의 장미빛 인생 (8)내가본것 (9)남자친구의 결혼식 (10)네고시엔터 (11)노랑은해본스도어 (12)레드 (13)레슬스 레드레드 (14)도메프만 (15)존크라이 마이 (16)종말없는 세상 (17)드레스 (18)메시 (19)라이언 일행 구하기 (20)리얼해튼4 (21)바위아리 (22)로리다 (23)로스트인스페이스 (24)로잔나 로제 (25)로키 호아 피복소 (26)로베송의 택시 (27)로블레스먼트 힐리 (28)마스크 오브 존 (29)바니토 (30)메리메린트가 특별한 것이 있다 (31)물인 (32)미스터키 (33)변경 (34)백히트 (35)비치2 (36)시장이 다시 열려 (37)슬라이딩 도어즈 (38)시타오브엔젤 (39)식스데이 세븐나이트 (40)아나스타샤 (41)아바넷 (42)아미스트 (43)아이언 마스크 (44)어디선 (45)어벤저 (46)에이 라이언 (47)록비전 (48)록비전 (49)워킹보이 (50)원나잇 스텝 (51)웨딩걸 (52)위대한 레보스키 (53)이보다 더 좋을수없다 (54)이와에 그리기의 인질 (55)제키 브라운 (56)알라송 (57)캐탈인 (58)팔리아 (59)키스더걸 (60)살인1 (61)살인2 (62)타이타닉 (63)탱고래슨 (64)트루먼쇼 (65)파리의 살년월 (66)파이어라이 (67)파라라지 (68)퍼펙트 머더 (69)퍼스펙티브 (70)폴몬타 (71)폴너립 (72)해피투게더 (73)호스위스퍼러 (74)황혼에서 새벽까지

16. 여성관계의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를 1편 골라 번호와 그 이유를 써주세요 ()

17. 여성관계의 입장에서 가장 나빴던 영화를 1편 골라 번호와 그 이유를 써주세요 ()

18. 여성관계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올해의 감독을 선택해 번호와 그이유를 써주세요 ()

- (1)장우석 (2)라지관 (3)김기덕 (4)김유진 (5)김지현 (6)김태관 (7)김호선 (8)문승욱 (9)박광수 (10)박광준 (11)박기형 (12)박철수 (13)변영주 (14)신승수 (15)신승호 (16)여광준 (17)이광모 (18)이서진 (19)이재용 (20)이정국 (21)이창원 (22)임권택 (23)임상수 (24)장길수 (25)장현우 (26)장 건 (27)장현수 (28)정병자 (29)최 호 (30)한지순 (31)최진호 (32)홍상수 (33)황인희

19. 여성관계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올해의 여자배우를 선택해 번호와 그이유를 써주세요 ()

- (1)장수연 (2)고효정 (3)권민중 (4)김규리 (5)김여진 (6)김지호 (7)김혜수 (8)명세빈 (9)배유정 (10)송옥숙 (11)심은하 (12)심혜진 (13)이미숙 (14)이미연 (15)이승연 (16)이지은 (17)이태란 (18)이혜은 (19)전도연 (20)전희경 (21)최지우 (22)최진실 (23)추상미 (24)황신혜

20. 여성관계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올해의 남자배우를 선택해 번호와 그이유를 써주세요 ()

- (1)김민중 (2)김보성 (3)김승우 (4)명계남 (5)문성근 (6)박신양 (7)박승준 (8)백종환 (9)송강호 (10)신원준 (11)안성기 (12)안재욱 (13)이영하 (14)이정재 (15)임창정 (16)정우성 (17)조재현 (18)최민수 (19)한석규

페미니스트저널if · 여성문화예술기획

성의 욕망을 아는 집,

페미니스트저널 **if**

if는 정직하다!

if는 용감하다!

if는 자유롭다!

if는 재미있다!

if를 보고 싶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 여) 나이 세

주소

전화 직업 (기혼, 미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부

1 3 6 - 0 1 1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 여) 나이 세

주소

전화 직업 (기혼, 미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자에게> 담당자 앞

1 3 6 - 0 1 1

